

연구보고 14-R18-2

IN

Y

P

I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

기초분석보고서II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책임연구원

모상현

공동연구원

문은옥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 책임연구원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문은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 연구보조원 : 손은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발 간 사 ■ ■ ■

아동·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단계에서 가장 많은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급속한 신체 변화와 인지 발달, 생활 반경과 사회 관계의 확대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 불안 등의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와 같은 발달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청소년들이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돕는 일은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는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대부분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로서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한 종단적 연구는 드물었다. 2003~2008년 기간 동안 본원에서 수행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는 청소년의 생활·행동·의식 전반에 대한 국내 최초의 종단조사로서 청소년 연구의 활성화와 관련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는 한국 청소년패널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대상과 연구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에 표집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패널 총 7,071명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조사 데이터의 일반 공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 5차년도인 올해에는 제1~4차년도 조사 데이터를 정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주요 조사결과를 영역별로 정리한 기초분석보고서와 리서치 브리프를 발간하였다. 지난 1년간 연구에 도움을 주신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한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 KCYPS)의 초4 패널 및 중1 패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년간의 매체영역 종단자료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매체사용 행태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그 추이를 파악하고, 배경 변인 별 차이와 경향을 파악하여 향후 청소년 관련 매체 정책의 수립 방향과 대안을 마련 위해 수행되어 졌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 사용행태의 경우 초중학생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사용이 감소하였고, 감소비율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광역시나 시군구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사용 용도는 초중등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 및 학습 이외의 정보 탐색 등의 사용은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으며, 게임 및 오락관련 사용 용도에서는 남학생과 저소득층에서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둘째, 휴대전화 보유율은 초중학생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서울, 광역시, 시군구 그리고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전화 의존도는 초4 패널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다른 지역보다 광역시에서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으며, 중1 패널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 및 광역시와 서울거주 학생에게서 그리고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과 중산층에게서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셋째, 2011년 사이버 비행 경험비율은 47.1%였지만, 2012년에는 37.6%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10% 이상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사이버 비행 유형에서 남학생의 경험빈도가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지역 그리고 소득 등 개별 배경 변인 수준과 상관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넷째, 2011년 성인용 매체 사용 응답률이 23.6%였고, 2012년 응답률이 23.2%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 성인용 매체 몰입유형에 따른 몰입정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들의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소득수준 별 비교에서는 몰입유형에 따른 몰입정도가 일정하게 관찰되지 않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정하게 감소하는 추세도 나타나지 않았다.

키워드: 매체환경, 컴퓨터 사용, 휴대폰 사용, 사이버 비행, 성인용 매체사용,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디지털로 대변되는 매체환경의 변화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뉴미디어를 적극적 수용 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활용하여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거나 여가를 즐기고, 의견제시 및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음. 디지털 세대의 주역인 N세대로서 뉴미디어와 함께 성장한 청소년들은 미디어 사용행태와 추이에서 기성세대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이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이에 청소년들의 매체 사용 행태가 어떻게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배경 변인 별 차이와 경향을 파악하여 향후 청소년 관련 매체 정책의 수립 방향과 대안을 마련 위해 종단조사와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년간의 매체영역 부분의 종단자료를 분석하여 매체사용 행태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태나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지님.

2. 연구내용과 방법

- 첫째, 매체 사용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조사를 시작한 두 개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용행태 및 변화의 양상 그리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 둘째, 매체별 사용의 행태에 대한 기초 분석은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는 매체 환경의 4가지 영역인 컴퓨터 및 휴대폰 사용행태와 사이버 비행 및 성인용 매체 사용행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음.

- 셋째,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는 매체 환경의 4가지 영역에서 매체 사용실태와 변화의 추이가 다양한 배경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가족 구성별, 거주 지역 및 가구의 소득규모 별로 분석하였음.
- 이를 위해 2010년에 시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초4 패널 2,219명과 중1 패널 2,259명의 3년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음.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관한 내용은 초4 패널과 중1 패널 모두 조사하였으나, 사이버비행과 성인매체 사용은 중1 패널의 2차년도(중학교 2학년)부터 조사하였음.
- 매체사용행태 관련 변화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 및 교차분석, 다집단 평균 비교를 사용하였으며, SPSS 20을 통계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음.

3. 주요결과

1)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 초4 패널과 중1 패널 모두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사용이 감소하였고, 감소비율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광역시나 시군구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음.
- 초4 패널과 중1 패널 모두에서 배경 변인 별 주중 및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에서 일정한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컴퓨터 사용시간이 길게 나타났지만, 중학생의 경우 2학년 때 사용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남.
- 초4 패널과 중1 패널 대부분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 집, 학교, 학원 등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된 컴퓨터 사용용도를 분석한 결과, 초4 패널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관련 사용과 학습 이외의 사용은 감소했음. 반면, 댓글달기, 채팅이나 메신저 사용, 전자우편, 동호회 활동은 증가하였음. 학습관련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여학생, 고소득층이 높았으며, 게임 및 오락관련 용도에서는 남학생과 저소득층에게서 높게 나타남.

- 중1 패널에서 컴퓨터 사용용도를 분석한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관련 사용과 학습 이외의 사용,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사용 등 대부분의 컴퓨터 사용 빈도가 감소했음. 채팅이나 메신저 사용은 여학생, 광역시 및 시군구, 저소득층과 2학년에서 높았으며, 학습관련 사용은 여학생에서 높게 나타났고, 게임 및 오락 관련 용도는 남학생, 광역시 및 시군구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서 높게 나타남.

2)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 초4 패널과 중1 패널 모두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보유율이 증가하였고, 보유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고, 서울, 광역시, 시군구 그리고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순으로 나타났음.
-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된 휴대전화 사용 용도를 분석한 결과 초4 패널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 및 오락, 음악듣기, 동영상 감상,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사진촬영 순서로 사용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가족과의 통화는 여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녀 모두 감소했으며, 그 감소 비율은 여학생이 더 컸음. 게임 및 오락 용도는 남학생이, 음악듣기와 동영상 감상 용도는 여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였고,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의한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전체 7문항으로 구성된 휴대전화 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초4 패널에서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광역시 거주 초등학생이 더 크게 증가했음. 소득에 따른 차이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음.
-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된 휴대전화 사용 용도를 분석한 결과, 중1 패널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악듣기, 동영상 감상, 게임 및 오락,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순서로 사용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문자메시지와 게임 및 오락은 여학생에게서, 음악 듣기는 남학생에게서 증가율이 더 컸으며, 가족과의 문자메시지는 시군구는 증가, 서울은 감소하였으며, 친구와의 문자메시지는 광역시는 증가, 서울과 시군구는 감소로 나타났음.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사진촬영, 음악듣기에서 나타났고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음.
- 전체 7문항으로 구성된 휴대전화 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중 1 패널에서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광역시와 서울 거주 중학생이 시군구에 비해 더 큰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과 중산층인 중학생이 저소득층인 중학생에 비해 더 큰 비율로 증가하였음.

3) 사이버 비행실태 및 추이 분석

- 2011년 사이버 비행 경험비율이 47.1%였지만, 2012년은 37.6%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10% 이상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음.
- 성별 비교에서 남자 청소년의 사이버 경험 비율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자 청소년들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지역별 비행 경험은 서울시가 가장 낮았으며, 광역시와 시군구의 사이버 비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 수준별 비교에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비율이 다소 높았음. 학년 별로는 2학년 때에 비해 3학년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전체 여섯 문항으로 구성된 사이버 비행 영역별 경험 정도를 개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비행 유형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험빈도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음.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정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여자 청소년들의 감소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음. 지역별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른 비행 유형에 따라 경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소득 수준별 분석에서 사이버 비행의 유형에 따라 소득계층 간 경험 빈도에서 다르게 나타났지만 마찬가지로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이버 비행 유형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험빈도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으며 성별, 지역 그리고 소득 등 개별 배경 변인 수준과 상관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됨.

4) 성인용 매체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 2011년 성인용 매체 사용 응답률이 23.6%였고, 2012년 응답률이 23.2%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음.

- 성별 비교에서 남자 청소년의 성인매체 사용비율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으며 여자청소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현저히 감소하였지만, 남자청소년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지역별 비교에서 서울시와 시군구에 비해 광역시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울시는 다소 감소, 시군구는 다소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음.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 수준 비율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음.
- 전체 여덟 문항으로 구성된 성인용 매체 몰입도를 개별 분석한 결과 성별 특성에 따른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대부분의 몰입유형에서 남자 청소년의 몰입도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음.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자 청소년들의 몰입도는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남자 청소년들은 몰입유형에 따라 소폭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지역에 따른 몰입도 분석에서 몰입유형 별 몰입 경험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는 관찰되지 않았고, 소득 수준별 분석에서도 몰입도 유형에 따라 몰입 경험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는 관찰되지 않았음.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성인용 매체 몰입 유형에서 남자 청소년의 몰입정도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으며 성별 비교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자 청소년들의 몰입정도의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지역별, 소득수준 별 비교에서 몰입도 유형에 따른 몰입정도가 일정하게 관찰되지 않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도 나타나지 않았음.

4. 정책제언

-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행태와 관련된 정책제언
 - 컴퓨터 교육은 부적응의 예방교육을 넘어서 전문적인 활용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심화된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됨.
 - 남학생과 여학생은 컴퓨터 활용과 관련된 생활지도와 교육에서 차별성 있는 접근이 필요함

- 자녀의 컴퓨터사용과 관련된 부모 교육은 신속하게 진행될수록 효과가 클 것이며, 이런 교육은 저학력,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진행될 때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됨.
- 저소득층 청소년의 과다 컴퓨터 사용은 그들이 원하는 활동을 제공할 경우 줄어들 수 있기에, 현재 시행 중인 문화(스포츠) 바우처와 같은 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할 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 행태와 관련된 정책제언

- 휴대전화 사용 행태의 부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이른 연령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의 사용이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환기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가족과 SNS나 문자메시지, 통화를 많이 할수록 긍정적 효과가 증진하고 부작용이 줄어들기에 청소년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대한 통화정보를 제공할 때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용자와 사용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자녀의 휴대폰사용에 대한 부모교육 및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를 청소년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하는 것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 사용행태와 관련된 정책제언

- 성인용 매체 예방정책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성인용 매체 차단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극적인 차원의 인증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의 인증방식을 마련하고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성인용 매체 사업자들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에 소홀할 때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에 노출되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면역력을 길러줄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정책이 필요함.

○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실태와 관련된 정책제언

- 사이버 비행에 대한 예방 교육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일찍부터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됨.

- 사이버 비행은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비행의 예방을 위해서 사이버 비행은 오프라인 비행과 동일하게 위중하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비행은 최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비행을 따로 교육하기 보다는 현행 학교 폭력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 비행의 심각성과 처벌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매체사용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컴퓨터 사용, 휴대전화, 성인용 매체 사용 및 사이버 비행은 각각 개별 주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발생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들의 생활맥락을 고려할 때 학생과 교사, 부모, 관계당국 및 전문 예방, 치료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확립 되었을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이런 종합 대책은 온라인으로 연동되어 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런 온라인 시스템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 2. 연구의 내용 | 5 |
| 3. 연구의 방법 | 7 |
| II.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 15 |
| 1.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 17 |
| 1) 초등학교의 컴퓨터 보유여부, 사용시간 및 장소 | 18 |
| 2) 초등학교의 컴퓨터 사용 형태 | 31 |
| 2.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 72 |
| 1) 중학교의 컴퓨터 보유여부, 사용시간 및 장소 | 73 |
| 2) 중학교의 컴퓨터 사용 형태 | 86 |
| III.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 127 |
| 1. 초4 패널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 129 |
| 1) 초등학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및 사용 형태 | 130 |
| 2) 초등학교의 휴대전화 의존정도 | 171 |
| 2.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 200 |
| 1) 중학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및 사용 형태 | 201 |
| 2) 중학교의 휴대전화 의존정도 | 242 |
| IV.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실태 및 추이분석 | 271 |
| 1.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실태 및 추이분석 | 273 |
| 1) 중학교의 사이버 비행 경험여부 | 274 |
| 2) 중학교의 사이버 비행 형태 및 경험정도 | 278 |

| | |
|------------------------------------|-----|
| V.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 289 |
| 1. 중1 패널의 성인용 매체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 291 |
| 1) 중학생의 성인용 매체 사용 여부 및 경험정도 | 292 |
| 2) 중학생의 성인용 매체 몰입정도 | 296 |
| VI.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 329 |
| 1. 분석결과 요약 | 331 |
| 2. 정책 제언 | 336 |
| 참고문헌 | 341 |
| ABSTRACT | 347 |

표 목 차

| | |
|--|----|
| <표 I-1> 초4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 9 |
| <표 I-2> 중1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 11 |
| <표 II-1-1>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 | 18 |
| <표 II-1-2>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성별) | 19 |
| <표 II-1-3>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지역별) | 20 |
| <표 II-1-4>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소득별) | 21 |
| <표 II-1-5>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 | 22 |
| <표 II-1-6>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성별) | 23 |
| <표 II-1-7>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지역별) | 24 |
| <표 II-1-8>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소득별) | 26 |
| <표 II-1-9>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 | 27 |
| <표 II-1-10>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성별) | 28 |
| <표 II-1-11>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지역별) | 29 |
| <표 II-1-12>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소득별) | 30 |
| <표 II-1-13>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형태 변화 | 31 |
| <표 II-1-14>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 32 |
| <표 II-1-15>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성별) | 33 |
| <표 II-1-16>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지역별) | 34 |
| <표 II-1-17>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소득별) | 35 |
| <표 II-1-18> 초4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 | 36 |
| <표 II-1-19> 초4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성별) | 37 |

| | |
|---|----|
| <표 II-1-20> 초4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지역별) | 38 |
| <표 II-1-21> 초4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소득별) | 39 |
| <표 II-1-22>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 40 |
| <표 II-1-23>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 41 |
| <표 II-1-24>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 42 |
| <표 II-1-25>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 43 |
| <표 II-1-26>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 | 44 |
| <표 II-1-27>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성별) | 45 |
| <표 II-1-28>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지역별) | 46 |
| <표 II-1-29>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소득별) | 47 |
| <표 II-1-30>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 | 48 |
| <표 II-1-31>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성별) | 49 |
| <표 II-1-32>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지역별) | 50 |
| <표 II-1-33>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소득별) | 51 |
| <표 II-1-34>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 52 |
| <표 II-1-35>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성별) | 53 |
| <표 II-1-36>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지역별) | 54 |
| <표 II-1-37>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소득별) | 55 |
| <표 II-1-38>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 56 |
| <표 II-1-39>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성별) | 57 |
| <표 II-1-40>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지역별) | 58 |
| <표 II-1-41>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소득별) | 59 |
| <표 II-1-42>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 60 |

| | |
|---|----|
| <표 II-1-43>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성별) | 61 |
| <표 II-1-44>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지역별) | 62 |
| <표 II-1-45>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소득별) | 63 |
| <표 II-1-46> 초4 패널- 댓글 달기 | 64 |
| <표 II-1-47> 초4 패널- 댓글 달기(성별) | 65 |
| <표 II-1-48> 초4 패널- 댓글 달기(지역별) | 66 |
| <표 II-1-49> 초4 패널- 댓글 달기(소득별) | 67 |
| <표 II-1-50>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 68 |
| <표 II-1-51>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성별) | 69 |
| <표 II-1-52>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지역별) | 70 |
| <표 II-1-53>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소득별) | 71 |
| <표 II-2-1>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 | 74 |
| <표 II-2-2>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성별) | 75 |
| <표 II-2-3>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지역별) | 76 |
| <표 II-2-4>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소득별) | 77 |
| <표 II-2-5>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 | 78 |
| <표 II-2-6>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성별) | 79 |
| <표 II-2-7>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지역별) | 80 |
| <표 II-2-8>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소득별) | 82 |
| <표 II-2-9> 중1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 | 83 |
| <표 II-2-10> 중1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성별) | 84 |
| <표 II-2-11> 중1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지역별) | 85 |
| <표 II-2-12> 중1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소득별) | 86 |

| | |
|---|-----|
| <표 II-2-13>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형태 변화 | 87 |
| <표 II-2-14>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 88 |
| <표 II-2-15>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성별) ... | 89 |
| <표 II-2-16>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지역별) | 90 |
| <표 II-2-17>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소득별) | 91 |
| <표 II-2-18> 중1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 | 92 |
| <표 II-2-19> 중1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성별) | 93 |
| <표 II-2-20> 중1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지역별) | 94 |
| <표 II-2-21> 중1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소득별) | 95 |
| <표 II-2-22>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 | 96 |
| <표 II-2-23>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 97 |
| <표 II-2-24>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 98 |
| <표 II-2-25>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 99 |
| <표 II-2-26>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 | 100 |
| <표 II-2-27>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성별) | 101 |
| <표 II-2-28>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지역별) | 102 |
| <표 II-2-29>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소득별) | 103 |
| <표 II-2-30>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 | 104 |
| <표 II-2-31>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성별) | 105 |
| <표 II-2-32>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지역별) | 106 |
| <표 II-2-33>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소득별) | 107 |
| <표 II-2-34>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 108 |

| | |
|---|-----|
| <표 II-2-35>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성별) | 109 |
| <표 II-2-36>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지역별) | 110 |
| <표 II-2-38>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소득별) | 111 |
| <표 II-2-38>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 112 |
| <표 II-2-39>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성별) | 113 |
| <표 II-2-40>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지역별) | 114 |
| <표 II-2-41>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소득별) | 115 |
| <표 II-2-42>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 116 |
| <표 II-2-43>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성별) | 117 |
| <표 II-2-44>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지역별) | 118 |
| <표 II-2-45>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소득별) | 119 |
| <표 II-2-46> 중1 패널- 댓글 달기 | 120 |
| <표 II-2-47> 중1 패널- 댓글 달기(성별) | 121 |
| <표 II-2-48> 중1 패널- 댓글 달기(지역별) | 122 |
| <표 II-2-49> 중1 패널- 댓글 달기(소득별) | 123 |
| <표 II-2-50>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 124 |
| <표 II-2-51>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성별) | 125 |
| <표 II-2-52>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지역별) | 126 |
| <표 II-2-53>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소득별) | 127 |
| <표 III-1-1>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 132 |
| <표 III-1-2>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 133 |
| <표 III-1-3>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지역별) | 134 |

| | |
|--|-----|
| <표 III-1-4>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소득별) | 135 |
| <표 III-1-5> 초4 패널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 변화 | 136 |
| <표 III-1-6>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 | 137 |
| <표 III-1-7>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성별) | 138 |
| <표 III-1-8>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지역별) | 139 |
| <표 III-1-9>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소득별) | 140 |
| <표 III-1-10>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 141 |
| <표 III-1-11>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성별) | 142 |
| <표 III-1-12>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 143 |
| <표 III-1-13>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 144 |
| <표 III-1-14>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 | 145 |
| <표 III-1-15>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성별) | 146 |
| <표 III-1-16>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지역별) | 147 |
| <표 III-1-17>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소득별) | 148 |
| <표 III-1-18>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 149 |
| <표 III-1-19>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성별) | 150 |
| <표 III-1-20>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 151 |
| <표 III-1-21>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 152 |
| <표 III-1-22>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 153 |
| <표 III-1-23>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 154 |
| <표 III-1-24>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 155 |
| <표 III-1-25>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 156 |
| <표 III-1-26> 초4 패널- 사진 촬영 | 157 |
| <표 III-1-27> 초4 패널- 사진 촬영(성별) | 158 |
| <표 III-1-28> 초4 패널- 사진 촬영(지역별) | 159 |
| <표 III-1-29> 초4 패널- 사진 촬영(소득별) | 160 |

| | |
|---|-----|
| <표 III-1-30> 초4 패널- 동영상 감상 | 161 |
| <표 III-1-31>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성별) | 162 |
| <표 III-1-32>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지역별) | 163 |
| <표 III-1-33>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소득별) | 164 |
| <표 III-1-34> 초4 패널- 음악 듣기 | 165 |
| <표 III-1-35> 초4 패널- 음악 듣기(성별) | 166 |
| <표 III-1-36> 초4 패널- 음악 듣기(지역별) | 167 |
| <표 III-1-37> 초4 패널- 음악 듣기(소득별) | 168 |
| <표 III-1-38> 초4 패널- 시간 보기 | 169 |
| <표 III-1-39> 초4 패널- 시간 보기(성별) | 170 |
| <표 III-1-40> 초4 패널- 시간 보기(지역별) | 171 |
| <표 III-1-41> 초4 패널- 시간 보기(소득별) | 172 |
| <표 III-1-42> 초4 패널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 173 |
| <표 III-1-43>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 175 |
| <표 III-1-44>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성별) | 176 |
| <표 III-1-45>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지역별) | 177 |
| <표 III-1-46>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소득별) | 178 |
| <표 III-1-47>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 179 |
| <표 III-1-48>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 180 |
| <표 III-1-49>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지역별) | 181 |

| | |
|--|-----|
| <표 III-1-50>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소득별) | 182 |
| <표 III-1-51>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 183 |
| <표 III-1-52>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 184 |
| <표 III-1-53>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 185 |
| <표 III-1-54>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소득별) | 186 |
| <표 III-1-55>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187 |
| <표 III-1-56>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성별) | 188 |
| <표 III-1-57>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지역별) | 189 |
| <표 III-1-58>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소득별) | 190 |
| <표 III-1-59>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 191 |
| <표 III-1-60>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성별) | 192 |
| <표 III-1-61>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지역별) | 193 |
| <표 III-1-62>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소득별) | 194 |

| | |
|---|-----|
| <표 III-1-63>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195 |
| <표 III-1-64>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성별) | 196 |
| <표 III-1-65>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지역별) | 197 |
| <표 III-1-66>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소득별) | 198 |
| <표 III-1-67>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 199 |
| <표 III-1-68>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성별) ... | 200 |
| <표 III-1-69>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지역별) | 201 |
| <표 III-1-70>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소득별) | 202 |
| <표 III-2-1>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 204 |
| <표 III-2-2>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 205 |
| <표 III-2-3>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지역별) | 206 |
| <표 III-2-4>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소득별) | 207 |
| <표 III-2-5> 중1 패널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 변화 | 208 |
| <표 III-2-6>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 | 209 |
| <표 III-2-7>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성별) | 210 |
| <표 III-2-8>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지역별) | 211 |
| <표 III-2-9>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소득별) | 212 |
| <표 III-2-10>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 213 |
| <표 III-2-11>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성별) | 214 |
| <표 III-2-12>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 215 |
| <표 III-2-13>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 216 |
| <표 III-2-14>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 | 217 |

| | |
|--|-----|
| <표 III-2-15>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성별) | 218 |
| <표 III-2-16>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지역별) | 219 |
| <표 III-2-17>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소득별) | 220 |
| <표 III-2-18>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 221 |
| <표 III-2-19>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성별) | 222 |
| <표 III-2-20>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 223 |
| <표 III-2-21>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 224 |
| <표 III-2-22>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 | 225 |
| <표 III-2-23>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 226 |
| <표 III-2-24>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 227 |
| <표 III-2-25>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 228 |
| <표 III-2-26> 중1 패널- 사진 촬영 | 229 |
| <표 III-2-27> 중1 패널- 사진 촬영(성별) | 230 |
| <표 III-2-28> 중1 패널- 사진 촬영(지역별) | 231 |
| <표 III-2-29> 중1 패널- 사진 촬영(소득별) | 232 |
| <표 III-2-30> 중1 패널- 동영상 감상 | 233 |
| <표 III-2-31> 중1 패널- 동영상 감상(성별) | 234 |
| <표 III-2-32> 중1 패널- 동영상 감상(지역별) | 235 |
| <표 III-2-33> 중1 패널- 동영상 감상(소득별) | 236 |
| <표 III-2-34> 중1 패널- 음악 듣기 | 237 |
| <표 III-2-35> 중1 패널- 음악 듣기(성별) | 238 |
| <표 III-2-36> 중1 패널- 음악 듣기(지역별) | 239 |
| <표 III-2-37> 중1 패널- 음악 듣기(소득별) | 240 |
| <표 III-2-38> 중1 패널- 시간 보기 | 241 |
| <표 III-2-39> 중1 패널- 시간 보기(성별) | 242 |
| <표 III-2-40> 중1 패널- 시간 보기(지역별) | 243 |

| | |
|--|-----|
| <표 III-2-41> 중1 패널- 시간 보기(소득별) | 244 |
| <표 III-2-42> 중1 패널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 245 |
| <표 III-2-43>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 246 |
| <표 III-2-44>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성별) | 247 |
| <표 III-2-45>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지역별) | 248 |
| <표 III-2-46>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소득별) | 249 |
| <표 III-2-47>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 250 |
| <표 III-2-48>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 251 |
| <표 III-2-49>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 252 |
| <표 III-2-50>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소득별) | 253 |
| <표 III-2-51>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 254 |
| <표 III-2-52>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 255 |
| <표 III-2-53>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 256 |
| <표 III-2-54>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소득별) | 257 |
| <표 III-2-55> 중1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258 |
| <표 III-2-56> 중1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성별) | 259 |

| | |
|---|-----|
| <표 III-2-57> 중1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지역별) | 260 |
| <표 III-2-58> 중1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소득별) | 261 |
| <표 III-2-59>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전달 수가 없다 | 262 |
| <표 III-2-60>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전달 수가 없다(성별) | 263 |
| <표 III-2-61>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전달 수가 없다(지역별) | 264 |
| <표 III-2-62>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전달 수가 없다(소득별) | 265 |
| <표 III-2-63>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266 |
| <표 III-2-64>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성별) | 267 |
| <표 III-2-65>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지역별) | 268 |
| <표 III-2-66>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소득별) | 269 |
| <표 III-2-67>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 270 |
| <표 III-2-68>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성별) | 271 |
| <표 III-2-69>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지역별) | 272 |
| <표 III-2-70>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소득별) | 273 |
| <표 IV-1>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 | 278 |
| <표 IV-2>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성별) | 279 |
| <표 IV-3>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지역별) | 280 |

| | |
|---|-----|
| <표 IV-4>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소득별) | 281 |
| <표 IV-5> 중1 패널-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 283 |
| <표 IV-6> 중1 패널-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회/연) · | 283 |
| <표 IV-7> 중1 패널-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 285 |
| <표 IV-8> 중1 패널-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회/연) | 285 |
| <표 IV-9> 중1 패널-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 286 |
| <표 IV-10> 중1 패널-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회/연) | 286 |
| <표 IV-11> 중1 패널-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 288 |
| <표 IV-12> 중1 패널-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회/연) | 288 |
| <표 IV-13> 중1 패널-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 289 |
| <표 IV-14> 중1 패널-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회/연) ... | 289 |
| <표 IV-15> 중1 패널-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 | 291 |
| <표 IV-16> 중1 패널-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회/연) | 291 |
| <표 V-1>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 | 296 |
| <표 V-2>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 (성별) | 297 |
| <표 V-3>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 (지역별) | 298 |
| <표 V-4>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 (소득별) | 299 |
| <표 V-5> 중1 패널의 성인매체 몰입도 변화 | 300 |
| <표 V-6> 중1 패널- (성인매체를)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 | 301 |
| <표 V-7> 중1 패널- (성인매체를)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성별) | 302 |
| <표 V-8> 중1 패널- (성인매체를)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지역별) | 303 |

| | |
|--|-----|
| <표 V-9> 중1 패널- (성인매체를)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소득별) | 304 |
| <표 V-10>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 305 |
| <표 V-11>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성별) | 306 |
| <표 V-12>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지역별) | 307 |
| <표 V-13>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소득별) | 308 |
| <표 V-14>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 | 309 |
| <표 V-15>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성별) | 310 |
| <표 V-16>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지역별) | 311 |
| <표 V-17>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소득별) | 312 |
| <표 V-18>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 313 |
| <표 V-19>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성별) | 314 |
| <표 V-20>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지역별) | 315 |
| <표 V-21>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소득별) | 316 |
| <표 V-22>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 317 |
| <표 V-23>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성별) | 318 |
| <표 V-24>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지역별) | 319 |

| | |
|--|-----|
| <표 V-25>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소득별) | 320 |
| <표 V-26>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다 ... | 321 |
| <표 V-27>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다(성별) | 322 |
| <표 V-28>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다(지역별) | 323 |
| <표 V-29>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다(소득별) | 324 |
| <표 V-30>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 325 |
| <표 V-31>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성별) | 326 |
| <표 V-32>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지역별) | 327 |
| <표 V-33>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소득별) | 328 |
| <표 V-34>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 329 |
| <표 V-35>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성별) | 330 |
| <표 V-36>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지역별) | 331 |
| <표 V-37>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소득별) | 332 |

그림 목 차

| | |
|--|----|
| 【그림 II-1-1】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 | 18 |
| 【그림 II-1-2】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성별) | 19 |
| 【그림 II-1-3】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지역별) | 20 |
| 【그림 II-1-4】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소득별) | 21 |
| 【그림 II-1-5】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 | 22 |
| 【그림 II-1-6】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성별) | 23 |
| 【그림 II-1-7】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지역별) | 24 |
| 【그림 II-1-8】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소득별) | 26 |
| 【그림 II-1-9】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 | 32 |
| 【그림 II-1-10】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성별) | 33 |
| 【그림 II-1-11】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지역별) | 34 |
| 【그림 II-1-12】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소득별) | 35 |
| 【그림 II-1-13】 초4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 | 36 |
| 【그림 II-1-14】 초4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성별) | 37 |
| 【그림 II-1-15】 초4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지역별) | 38 |
| 【그림 II-1-16】 초4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소득별) | 39 |
| 【그림 II-1-17】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 40 |

| | | |
|--------------|---|----|
| 【그림 II-1-18】 |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 41 |
| 【그림 II-1-19】 |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 42 |
| 【그림 II-1-20】 |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 43 |
| 【그림 II-1-21】 |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 | 44 |
| 【그림 II-1-22】 |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성별) | 45 |
| 【그림 II-1-23】 |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지역별) | 46 |
| 【그림 II-1-24】 |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소득별) | 47 |
| 【그림 II-1-25】 |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 | 48 |
| 【그림 II-1-26】 |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성별) | 49 |
| 【그림 II-1-27】 |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지역별) | 50 |
| 【그림 II-1-28】 |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소득별) | 51 |
| 【그림 II-1-29】 |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 52 |
| 【그림 II-1-30】 |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성별) | 53 |
| 【그림 II-1-31】 |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지역별) | 54 |
| 【그림 II-1-32】 |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소득별) | 55 |
| 【그림 II-1-33】 |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 56 |
| 【그림 II-1-34】 |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성별) | 57 |
| 【그림 II-1-35】 |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지역별) | 58 |
| 【그림 II-1-36】 |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소득별) | 59 |
| 【그림 II-1-37】 |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 60 |
| 【그림 II-1-38】 |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성별) | 61 |
| 【그림 II-1-39】 |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지역별) | 62 |

| | |
|--|----|
| 【그림 II-1-40】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소득별) | 63 |
| 【그림 II-1-41】 초4 패널- 댓글 달기 | 64 |
| 【그림 II-1-42】 초4 패널- 댓글 달기(성별) | 65 |
| 【그림 II-1-43】 초4 패널- 댓글 달기(지역별) | 66 |
| 【그림 II-1-44】 초4 패널- 댓글 달기(소득별) | 67 |
| 【그림 II-1-45】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 68 |
| 【그림 II-1-46】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성별) | 69 |
| 【그림 II-1-47】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지역별) | 70 |
| 【그림 II-1-48】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소득별) | 71 |
| 【그림 II-2-1】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 | 74 |
| 【그림 II-2-2】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성별) | 75 |
| 【그림 II-2-3】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지역별) | 76 |
| 【그림 II-2-4】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소득별) | 77 |
| 【그림 II-2-5】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 | 78 |
| 【그림 II-2-6】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성별) | 79 |
| 【그림 II-2-7】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지역별) | 80 |
| 【그림 II-2-8】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소득별) | 82 |
| 【그림 II-2-9】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 | 88 |
| 【그림 II-2-10】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성별) | 89 |
| 【그림 II-2-11】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지역별) | 90 |
| 【그림 II-2-12】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소득별) | 91 |

| | | |
|--------------|---|-----|
| 【그림 II-2-13】 | 중1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 | 92 |
| 【그림 II-2-14】 | 중1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성별) | 93 |
| 【그림 II-2-15】 | 중1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지역별) | 94 |
| 【그림 II-2-16】 | 중1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소득별) | 95 |
| 【그림 II-2-17】 |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 | 96 |
| 【그림 II-2-18】 |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 97 |
| 【그림 II-2-19】 |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 98 |
| 【그림 II-2-20】 |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 99 |
| 【그림 II-2-21】 |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 | 100 |
| 【그림 II-2-22】 |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성별) | 101 |
| 【그림 II-2-23】 |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지역별) | 102 |
| 【그림 II-2-24】 |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소득별) | 103 |
| 【그림 II-2-25】 |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 | 104 |
| 【그림 II-2-26】 |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성별) | 105 |
| 【그림 II-2-27】 |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지역별) | 106 |
| 【그림 II-2-28】 |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소득별) | 107 |
| 【그림 II-2-29】 |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 108 |
| 【그림 II-2-30】 |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성별) | 109 |
| 【그림 II-2-31】 |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지역별) | 110 |
| 【그림 II-2-32】 |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소득별) | 111 |
| 【그림 II-2-33】 |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 112 |

| | | |
|--------------|---|-----|
| 【그림 II-2-34】 |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성별) ··· | 113 |
| 【그림 II-2-35】 |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지역별) ··· | 114 |
| 【그림 II-2-36】 |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소득별) | 115 |
| 【그림 II-2-37】 |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 116 |
| 【그림 II-2-38】 |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성별) | 117 |
| 【그림 II-2-39】 |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지역별) | 118 |
| 【그림 II-2-40】 |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소득별) | 119 |
| 【그림 II-2-41】 | 중1 패널- 댓글 달기 | 120 |
| 【그림 II-2-42】 | 중1 패널- 댓글 달기(성별) | 121 |
| 【그림 II-2-43】 | 중1 패널- 댓글 달기(지역별) | 122 |
| 【그림 II-2-44】 | 중1 패널- 댓글 달기(소득별) | 123 |
| 【그림 II-2-45】 |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 124 |
| 【그림 II-2-46】 |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성별) | 125 |
| 【그림 II-2-47】 |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지역별) | 126 |
| 【그림 II-2-48】 |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소득별) | 127 |
| 【그림 III-1-1】 |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 132 |
| 【그림 III-1-2】 |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 133 |
| 【그림 III-1-3】 |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지역별) | 134 |
| 【그림 III-1-4】 |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소득별) | 135 |
| 【그림 III-1-5】 |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 | 137 |

| | |
|---|-----|
| 【그림 III-1-6】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성별) | 138 |
| 【그림 III-1-7】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지역별) | 139 |
| 【그림 III-1-8】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소득별) | 140 |
| 【그림 III-1-9】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 141 |
| 【그림 III-1-10】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성별) | 142 |
| 【그림 III-1-11】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 143 |
| 【그림 III-1-12】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 144 |
| 【그림 III-1-13】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 | 145 |
| 【그림 III-1-14】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성별) | 146 |
| 【그림 III-1-15】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지역별) | 147 |
| 【그림 III-1-16】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소득별) | 148 |
| 【그림 III-1-17】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 149 |
| 【그림 III-1-18】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성별) | 150 |
| 【그림 III-1-19】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 151 |
| 【그림 III-1-20】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 152 |
| 【그림 III-1-21】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 153 |
| 【그림 III-1-22】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 154 |
| 【그림 III-1-23】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 155 |
| 【그림 III-1-24】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 156 |
| 【그림 III-1-25】 초4 패널- 사진 촬영 | 157 |
| 【그림 III-1-26】 초4 패널- 사진 촬영(성별) | 158 |
| 【그림 III-1-27】 초4 패널- 사진 촬영(지역별) | 159 |
| 【그림 III-1-28】 초4 패널- 사진 촬영(소득별) | 160 |
| 【그림 III-1-29】 초4 패널- 동영상 감상 | 161 |
| 【그림 III-1-30】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성별) | 162 |

| | |
|--|-----|
| 【그림 III-1-31】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지역별) | 163 |
| 【그림 III-1-32】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소득별) | 164 |
| 【그림 III-1-33】 초4 패널- 음악 듣기 | 165 |
| 【그림 III-1-34】 초4 패널- 음악 듣기(성별) | 166 |
| 【그림 III-1-35】 초4 패널- 음악 듣기(지역별) | 167 |
| 【그림 III-1-36】 초4 패널- 음악 듣기(소득별) | 168 |
| 【그림 III-1-37】 초4 패널- 시간 보기 | 169 |
| 【그림 III-1-38】 초4 패널- 시간 보기(성별) | 170 |
| 【그림 III-1-39】 초4 패널- 시간 보기(지역별) | 171 |
| 【그림 III-1-40】 초4 패널- 시간 보기(소득별) | 172 |
| 【그림 III-1-41】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 175 |
| 【그림 III-1-42】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성별) | 176 |
| 【그림 III-1-43】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지역별) | 177 |
| 【그림 III-1-44】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소득별) | 178 |
| 【그림 III-1-45】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 | 179 |
| 【그림 III-1-46】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성별) | 180 |
| 【그림 III-1-47】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지역별) | 181 |
| 【그림 III-1-48】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소득별) | 182 |

| | |
|---|-----|
| 【그림 III-1-49】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 183 |
| 【그림 III-1-50】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 184 |
| 【그림 III-1-51】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 185 |
| 【그림 III-1-52】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소득별) | 186 |
| 【그림 III-1-53】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187 |
| 【그림 III-1-54】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성별) | 188 |
| 【그림 III-1-55】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지역별) | 189 |
| 【그림 III-1-56】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소득별) | 190 |
| 【그림 III-1-57】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 191 |
| 【그림 III-1-58】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성별) | 192 |
| 【그림 III-1-59】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지역별) | 193 |
| 【그림 III-1-60】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소득별) | 194 |

| | |
|--|-----|
| 【그림 III-1-61】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195 |
| 【그림 III-1-62】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성별) | 196 |
| 【그림 III-1-63】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지역별) | 197 |
| 【그림 III-1-64】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소득별) | 198 |
| 【그림 III-1-65】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 199 |
| 【그림 III-1-66】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성별) .. | 200 |
| 【그림 III-1-67】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지역별) | 201 |
| 【그림 III-1-68】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소득별) | 202 |
| 【그림 III-2-1】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 204 |
| 【그림 III-2-2】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 205 |
| 【그림 III-2-3】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지역별) | 206 |
| 【그림 III-2-4】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소득별) | 207 |
| 【그림 III-2-5】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 | 209 |
| 【그림 III-2-6】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성별) | 210 |
| 【그림 III-2-7】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지역별) | 211 |
| 【그림 III-2-8】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소득별) | 212 |
| 【그림 III-2-9】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 213 |
| 【그림 III-2-10】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성별) | 214 |
| 【그림 III-2-11】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 215 |

| | | |
|---------------|-------------------------|-----|
| 【그림 III-2-12】 |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 216 |
| 【그림 III-2-13】 |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 | 217 |
| 【그림 III-2-14】 |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성별) | 218 |
| 【그림 III-2-15】 |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지역별) | 219 |
| 【그림 III-2-16】 |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소득별) | 220 |
| 【그림 III-2-17】 |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 221 |
| 【그림 III-2-18】 |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성별) | 222 |
| 【그림 III-2-19】 |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 223 |
| 【그림 III-2-20】 |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 224 |
| 【그림 III-2-21】 |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 | 225 |
| 【그림 III-2-22】 |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 226 |
| 【그림 III-2-23】 |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 227 |
| 【그림 III-2-24】 |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 228 |
| 【그림 III-2-25】 | 중1 패널- 사진 촬영 | 229 |
| 【그림 III-2-26】 | 중1 패널- 사진 촬영(성별) | 230 |
| 【그림 III-2-27】 | 중1 패널- 사진 촬영(지역별) | 231 |
| 【그림 III-2-28】 | 중1 패널- 사진 촬영(소득별) | 232 |
| 【그림 III-2-29】 | 중1 패널- 동영상 감상 | 233 |
| 【그림 III-2-30】 | 중1 패널- 동영상 감상(성별) | 234 |
| 【그림 III-2-31】 | 중1 패널- 동영상 감상(지역별) | 235 |
| 【그림 III-2-32】 | 중1 패널- 동영상 감상(소득별) | 236 |
| 【그림 III-2-33】 | 중1 패널- 음악 듣기 | 237 |
| 【그림 III-2-34】 | 중1 패널- 음악 듣기(성별) | 238 |
| 【그림 III-2-35】 | 중1 패널- 음악 듣기(지역별) | 239 |
| 【그림 III-2-36】 | 중1 패널- 음악 듣기(소득별) | 240 |

| | | |
|---------------|---|-----|
| 【그림 III-2-37】 | 중1 패널- 시간 보기 | 241 |
| 【그림 III-2-38】 | 중1 패널- 시간 보기(성별) | 242 |
| 【그림 III-2-39】 | 중1 패널- 시간 보기(지역별) | 243 |
| 【그림 III-2-40】 | 중1 패널- 시간 보기(소득별) | 244 |
| 【그림 III-2-41】 |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 246 |
| 【그림 III-2-42】 |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성별) | 247 |
| 【그림 III-2-43】 |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지역별) | 248 |
| 【그림 III-2-44】 |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소득별) | 249 |
| 【그림 III-2-45】 |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 250 |
| 【그림 III-2-46】 |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 251 |
| 【그림 III-2-47】 |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 252 |
| 【그림 III-2-48】 |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소득별) | 253 |
| 【그림 III-2-49】 |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 254 |
| 【그림 III-2-50】 |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 255 |

| | | |
|---------------|--|-----|
| 【그림 III-2-51】 |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 256 |
| 【그림 III-2-52】 |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소득별) | 257 |
| 【그림 III-2-53】 | 중1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258 |
| 【그림 III-2-54】 | 중1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성별) | 259 |
| 【그림 III-2-55】 | 중1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지역별) | 260 |
| 【그림 III-2-56】 | 중1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소득별) | 261 |
| 【그림 III-2-57】 |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 262 |
| 【그림 III-2-58】 |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성별) | 263 |
| 【그림 III-2-59】 |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지역별) | 264 |
| 【그림 III-2-60】 |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소득별) | 265 |
| 【그림 III-2-61】 |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266 |
| 【그림 III-2-62】 |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성별) | 267 |
| 【그림 III-2-63】 |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지역별) | 268 |

| | | |
|---------------|---|-----|
| 【그림 III-2-64】 |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소득별) | 269 |
| 【그림 III-2-65】 |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 270 |
| 【그림 III-2-66】 | 중1 패널- 휴대전화기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성별) | 271 |
| 【그림 III-2-67】 | 중1 패널- 휴대전화기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지역별) | 272 |
| 【그림 III-2-68】 | 중1 패널- 휴대전화기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소득별) | 273 |
| 【그림 IV-1】 |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 | 278 |
| 【그림 IV-2】 |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성별) | 279 |
| 【그림 IV-3】 |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지역별) | 280 |
| 【그림 IV-4】 |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소득별) | 281 |
| 【그림 V-1】 |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 | 296 |
| 【그림 V-2】 |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 (성별) | 297 |
| 【그림 V-3】 |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 (지역별) | 298 |
| 【그림 V-4】 |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 (소득별) | 299 |
| 【그림 V-5】 | 중1 패널- (성인매체를)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 | 301 |
| 【그림 V-6】 | 중1 패널- (성인매체를)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성별) | 302 |
| 【그림 V-7】 | 중1 패널- (성인매체를)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지역별) | 303 |
| 【그림 V-8】 | 중1 패널- (성인매체를)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소득별) | 304 |

| | | |
|-----------|--|-----|
| 【그림 V-9】 |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 305 |
| 【그림 V-10】 |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성별) | 306 |
| 【그림 V-11】 |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지역별) | 307 |
| 【그림 V-12】 |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소득별) | 308 |
| 【그림 V-13】 |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 | 309 |
| 【그림 V-14】 |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성별) | 310 |
| 【그림 V-15】 |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지역별) | 311 |
| 【그림 V-16】 |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소득별) | 312 |
| 【그림 V-17】 |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 313 |
| 【그림 V-18】 |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성별) | 314 |
| 【그림 V-19】 |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지역별) | 315 |
| 【그림 V-20】 |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소득별) | 316 |
| 【그림 V-21】 |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 317 |
| 【그림 V-22】 |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성별) | 318 |

| | | |
|-----------|--|-----|
| 【그림 V-23】 |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지역별) | 319 |
| 【그림 V-24】 |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소득별) | 320 |
| 【그림 V-25】 |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다 | 321 |
| 【그림 V-26】 |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다(성별) | 322 |
| 【그림 V-27】 |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다(지역별) | 323 |
| 【그림 V-28】 |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다(소득별) | 324 |
| 【그림 V-29】 |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 325 |
| 【그림 V-30】 |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성별) | 326 |
| 【그림 V-31】 |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지역별) | 327 |
| 【그림 V-32】 |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소득별) | 328 |
| 【그림 V-33】 |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 329 |
| 【그림 V-34】 |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성별) .. | 330 |

- 【그림 V-35】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지역별) …… 331
- 【그림 V-36】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소득별) …… 332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를 둘러싼 매체환경의 변화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거의 활자와 전파(TV 및 라디오)를 중심으로 대변되었던 일방향적 매체환경은 디지털로 대변되는 뉴미디어의 개발과 확산에 따라 쌍방향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청소년들의 매체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같은 뉴미디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타인과 정보교환을 하는 등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는 창구로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전 세대와 달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통해 형성된 디지털 문화를 새롭게 만들며 새로운 세대인 N세대, 혹은 디지털 세대의 주역으로 등장 하게 되었다. 뉴미디어와 함께 성장한 우리 청소년들은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그들의 미디어 사용행태와 추이는 기성세대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이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뉴미디어 사용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들의 지나친 미디어 활용은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역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TV의 장기간 노출로 인한 창의력 등 인지적 능력의 저해(Singer & Singer, 1983), 매체의 선정 및 폭력과 공격성 간의 정적 관계성(Huesmann, 1986) 등과 같이 과거의 청소년 관련 부정적 미디어 연구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미디어의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예로 ‘인터넷 및 휴대폰 중독에 기인된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김유정, 2002)’, ‘유해 매체에의 노출 및 유해 매체 사용과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과의 관계성(이성식, 2002; 장현미·김반야, 2008)’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미디어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와 함께 미디어 활용

주체인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고, 조손가족 혹은 한부모 가족, 남자 청소년들이 인터넷 및 게임의 사용시간이 길고 이로 인한 인터넷 및 게임 중독성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자존감, 자기통제력 같은 심리적 요인과 가족건강, 학교생활 등 사회적 요인의 적응 수준이 낮을수록 휴대전화 중독성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곽민주·이희숙, 2009; 김용택·이진우·양지혜, 2008; 신효식·이선정·이연미, 2009; 이해경, 2008; 모상현·김형주 2013).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인터넷 및 게임중독, 사이버 비행, 사이버 따돌림 등 청소년 미디어관련 부정적 이슈와 그 피해만을 다룬 기사와 담론이 과도할 정도로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물론 뉴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들의 부적응 및 이탈 혹은 폭력 등을 조장할 수 있고, 충동 및 정서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학업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같은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들은 과몰입, 중독 혹은 오남용과 같은 연구결과의 제시를 통해 이를 예방하고, 개입전략 등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의 뉴미디어 활용의 건강성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매체의 사용은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관계추구형 컴퓨터사용이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긍정적 관계형성과 애착을 증진시키고(장운재·김소희 2008), 청소년들은 휴대폰의 사용은 친구와의 친밀감을 향상시켜, 부적 정서인 스트레스, 외로움, 소외감 등을 감소시켜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곽민주·이희숙 2009). 이외에도 매체사용의 대중화를 통해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중심으로 문화상품을 소비하고 문화를 창출하는 팬덤 문화는 청소년들의 매체활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휴대폰(스마트폰)을 사용한 소셜미디어(SNS)의 증가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시키고 그들의 다양한 관심을 공유하고 개인적 문제를 공유, 해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 올수 있다.

2000년 초, 싸이월드와 블로그로 대변되는 사이버 공간이 청소년들의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었다면 2010년을 전후 해 등장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는 청소년들의 소통과 문화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마트 폰을 활용한 카카 톡도 중요한 소셜미디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이창호·성운숙 2012). 이미 컴퓨터는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미디어로 인식되어 있으며, 휴대폰도 이동성과 휴대의 용이함으로 인해 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전달해줄 수 있는 매체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Sung & Mayer 2012).

이상과 같이 뉴미디어의 발달과 이를 활용한 매체의 사용은 이제 청소년들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 둘은 상호 깊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발달 및 성장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디어와 사용 주체로서 청소년과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요인이며 이들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은 현재 우리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대부분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행태 및 실태조사는 특정시점에서 특정연령 때에 초점을 맞춘 일회성 횡단조사에 집중되어 왔다. 일회성 횡단조사의 경우 청소년이 발달과정 속에 나타나는 변화의 추이와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청소년들의 매체 사용 행태와 실태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변화의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통해 청소년 매체 관련 정책수립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의 동일한 조사대상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 추적 조사하는 종단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년간의 매체영역의 종단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매체 사용 행태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그 추이를 파악하고, 배경 변인 별 수준에 따른 경향을 파악하여 향후 청소년 관련 매체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종단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의 매체 사용 행태가 어떻게 전개되어 오고 있으며, 매체 사용형태에 따른 인한 심리·사회적 행동의 변화 양상- 휴대폰 의존도 혹은 사이버 비행 등을 파악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매체환경에서 청소년들의 매체 사용 습관에 대한 전망과 정부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종단자료의 수집과 이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의 매체 사용 형태와 매체 사용 변화 양상과 추이를 체계적으로 추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 매체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내용을 제시한다.

1) 매체 사용 행태 종단분석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즉, 초4 패널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1 패널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만, 사이버비행과 성인매체 사용은 중1패널의 2년차부터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부 터 3학년까지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 조사 영역 중 청소년들의 미디어환경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매체사용 양상의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매체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분석단위는 매체영역에 해당되는 4가지 소영역인 컴퓨터 영역, 휴대폰 영역, 성인용 매체 사용 및 사이버 비행영역으로 이루어 졌다. 지난 3년 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형태와 사이버 비행 경험과 중학생의 성인용 매체 사용 형태 분석을 통해 발달 과정상 변화의 추이와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2) 매체 사용 행태 기초분석

매체별 사용의 행태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한다.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는 매체인 컴퓨터, 휴대폰의 매체 사용 양상과 성인용 매체 사용정도 및 사이버 비행에 대한 경험 정도를 파악해보는 것이다. 첫째, 컴퓨터 사용 유무, 사용시간, 사용 장소 그리고 전체 10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컴퓨터 용도별 사용행태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휴대전화의 사용 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휴대전화 소지 여부, 사용 사례수 그리고 전체 9개 영역으로 구성된 휴대전화 활용용도 별 유형을 알아본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한 과도한 몰입 및 의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의존도를 알아본다. 셋째,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사용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인용 매체에 노출되는지 그 접촉 사례수를 알아보고 성인용 매체 경험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인매체 몰입도를 알아본다. 넷째, 매체 사용의 부정적 행동 양상인 청소년들이 사이버 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여섯 영역으로 구성된 사이버 비행 영역별 경험 정도 및 연간 경험 회수를 분석한다.

3) 배경 변인별 매체 사용 행태 분석

청소년들의 매체 사용 행태와 변화의 추이가 다양한 배경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보기위하여 성별, 가족 구성별, 거주 지역 및 가구의 소득규모 별로 분석하였다. 첫째, 컴퓨터 사용 여부, 사용시간, 사용 장소 그리고 컴퓨터 사용행태가 배경 변인 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휴대전화의 소지 여부, 사용 사례수 그리고 휴대전화 활용유형이 배경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조사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의 접촉정도와 그 부정적 영향력이 배경 변인 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논의한다. 끝으로, 매체 사용의 부정적 행동 양상인 청소년들의 사이버 비행 경험이 배경 변인 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3. 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 대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중에서 층화다단계락추출법으로 표집된 3개 패널 각 2,3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10월부터 11월 중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1 패널의 경우 201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2,342명, 초 4패널의 경우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 총 2,378명, 중1 패널의 경우 당시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경우 2,351명을 원표본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4 패널의 1차년도(2010년) 원표본인 2,378명, 2차년도(2011년)의 조사 성공 사례 2,264명, 3차년도(2012년) 조사 성공 사례 2,219명을 대상을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배경변인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중1 패널의 경우도 1차년도(2010년) 원표본인 2,351명, 2차년도(2011년) 조사 성공 사례 2,280명, 3차년도(2012년) 조사 성공 사례 2,259명을 대상을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배경변인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초4 패널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3년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성별, 거주하는 도시규모, 가구의 소득수준, 가족구성, 부모학력 등으로 나누어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살펴본 현황은 <표 I -1>과 같으며, 최종 분석이 되는 중학교 3학년(2012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162명(52.4%), 여자 1,057명(47.6%)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별

로 보면 서울시, 광역시, 시군구 단위로 구분하였는데, 서울 363명(16.8%), 광역시 569명(26.4%), 시군구 1,223명(56.7%)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별 집단구분의 경우,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대상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의 자녀를 둔 가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인 2010년의 가구소득 수준을 10분위수로 나눈 후, 상위 20%와 하위 20%를 기준으로 하위 20%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상위 20%를 초과한 계층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1년과 2012년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저소득 가구 청소년은 426명(20.5%), 중간 소득 수준 가구의 청소년은 1,343명(64.6%), 고소득 가구 청소년은 310명(14.9%)로 나타났다.

부모구성은 양부모가정은 1,964명(91.3%), 한부모가정은 164명(7.6%), 조손가정은 16명(0.7%), 기타 가정 8명(0.4%)로 나타났다.

중1 패널은 중학교 1학년부턴 3학년까지 3년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성별, 거주하는 도시규모, 가구의 소득수준, 가족구성, 부모학력 등으로 나누어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살펴본 현황은<표 I -2>와 같으며, 최종 분석이 되는 중학교 3학년(2012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174명(52%), 여자 1,085명(48%)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별로 보면 서울 366명(16.9%), 광역시 591명(27.2%), 시군구 1,213명(55.9%)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별 집단구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분하였는데, 저소득 가구 청소년은 418명(19.6%), 중간 소득 수준 가구의 청소년은 1,330명(62.4%), 고소득 가구 청소년은 385명(18%)로 나타났다.

부모구성은 양부모 가정은 1,905명(87.9%), 한부모 가정은 238명(11%), 조손가정은 21명(1%), 기타 가정 4명(0.2%)로 나타났다.

표 1-1

초4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 성별 | 남자 | 1,244 | 52.3 | 1,185 | 52.3 | 1,162 | 52.4 |
| | 여자 | 1,134 | 47.7 | 1,079 | 47.7 | 1,057 | 47.6 |
| | 전체 | 2,378 | 100 | 2,264 | 100 | 2,219 | 100 |
| 도시규모 | 서울 | 408 | 17.2 | 373 | 16.9 | 363 | 16.8 |
| | 광역시 | 618 | 26.0 | 577 | 26.1 | 569 | 26.4 |
| | 시군구 | 1352 | 56.8 | 1,258 | 57.0 | 1,223 | 56.7 |
| | 전체 | 2,378 | 100 | 2,208 | 100 | 2,155 | 100 |
| 가구소득수준 | 저소득층 | 453 | 20.3 | 426 | 20 | 426 | 20.5 |
| | 중산층 | 1,440 | 64.5 | 1367 | 64.3 | 1,343 | 64.6 |
| | 고소득층 | 341 | 15.3 | 332 | 15.6 | 310 | 14.9 |
| | 전체 | 2,233 | 100 | 2,125 | 100 | 2,079 | 100 |
| 가족구성 | 양부모 | 2135 | 89.9 | 2,005 | 90.8 | 1,964 | 91.3 |
| | 한부모가정 | 216 | 9.1 | 167 | 7.6 | 164 | 7.6 |
| | 조손가정 | 16 | 0.7 | 14 | 0.6 | 16 | 0.7 |
| | 기타 | 9 | 0.4 | 22 | 1.0 | 8 | 0.4 |
| | 전체 | 2,375 | 100 | 2,208 | 100 | 2,151 | 100 |

| 항목 |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
| 부모 학력 | 부 | 중졸 이하 | 57 | 2.5 | 44 | 2.1 | 57 |
| | | 고졸 | 921 | 41.2 | 806 | 38.6 | 768 |
| | | 전문대졸 | 310 | 13.9 | 202 | 9.7 | 213 |
| | | 대졸 | 801 | 35.8 | 920 | 44.1 | 873 |
| | | 대학원졸 | 146 | 6.5 | 113 | 5.4 | 118 |
| | | 전체 | 2,234 | 100 | 2,085 | 100 | 2,029 |
| | 모 | 중졸 이하 | 58 | 2.6 | 42 | 2.0 | 49 |
| | | 고졸 | 1,173 | 52.1 | 1,031 | 48.8 | 989 |
| | | 전문대졸 | 393 | 17.5 | 259 | 12.3 | 262 |
| | | 대졸 | 561 | 24.9 | 723 | 34.3 | 702 |
| | | 대학원졸 | 66 | 2.9 | 55 | 2.6 | 55 |
| | | 전체 | 2,251 | 100 | 2,110 | 100 | 2,058 |
| | 기타 보호자 | 중졸 이하 | 7 | 42.5 | 13 | 66.6 | 9 |
| | | 고졸 | 4 | 23.8 | 3 | 17.4 | 8 |
| | | 전문대졸 | 2 | 9.3 | 1 | 5.8 | - |
| | | 대졸 | 2 | 13.9 | 2 | 10.1 | 2 |
| | | 대학원졸 | 2 | 10.5 | - | - | - |
| | | 전체 | 17 | 100 | 20 | 100 | 19 |

표 1-2

중1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 항목 |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성별 | 남자 | 1,215 | 51.7 | 1,185 | 52.0 | 1,174 | 52.0 |
| | 여자 | 1,136 | 48.3 | 1,095 | 48.0 | 1,085 | 48.0 |
| | 전체 | 2,351 | 100 | 2,280 | 100 | 2,259 | 100 |
| 도시규모 | 서울 | 408 | 17.3 | 376 | 17.3 | 366 | 16.9 |
| | 광역시 | 626 | 26.6 | 592 | 27.2 | 591 | 27.2 |
| | 시군구 | 1,317 | 56.0 | 1,210 | 55.6 | 1,213 | 55.9 |
| | 전체 | 2,351 | 100 | 2,178 | 100 | 2,170 | 100 |
| 가구소득수준 | 저소득층 | 436 | 19.7 | 418 | 19.5 | 418 | 19.6 |
| | 중산층 | 1,375 | 62.1 | 1,337 | 62.2 | 1,330 | 62.4 |
| | 고소득층 | 402 | 18.2 | 394 | 18.3 | 385 | 18.0 |
| | 전체 | 2,214 | 100 | 2,150 | 100 | 2,133 | 100 |
| 가족구성 | 양부모 | 2,031 | 86.5 | 1,932 | 89.5 | 1,905 | 87.9 |
| | 한부모가정 | 282 | 12.0 | 207 | 9.6 | 238 | 11.0 |
| | 조손가정 | 19 | 0.8 | 20 | 0.9 | 21 | 1.0 |
| | 기타 | 17 | 0.7 | - | - | 4 | 0.2 |
| | 전체 | 2,348 | 100 | 2,159 | 100 | 2,168 | 100 |

| 항목 |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부모 학력 | 부 | 중졸 이하 | 69 | 3.2 | 65 | 3.2 | 72 |
| | | 고졸 | 908 | 41.9 | 772 | 38.3 | 781 |
| | | 전문대졸 | 265 | 12.2 | 208 | 10.3 | 199 |
| | | 대졸 | 786 | 36.3 | 874 | 43.3 | 847 |
| | | 대학원졸 | 139 | 6.4 | 99 | 4.9 | 109 |
| | | 전체 | 2,167 | 100 | 2,018 | 100 | 2,008 |
| | 모 | 중졸 이하 | 72 | 3.3 | 58 | 2.8 | 68 |
| | | 고졸 | 1,245 | 56.6 | 1,085 | 53.1 | 1,080 |
| | | 전문대졸 | 272 | 12.4 | 206 | 10.1 | 196 |
| | | 대졸 | 549 | 25.0 | 651 | 31.8 | 656 |
| | | 대학원졸 | 60 | 2.7 | 44 | 2.2 | 38 |
| | | 전체 | 2,199 | 100 | 2,044 | 100 | 2,038 |
| | 기타 보호자 | 중졸 이하 | 15 | 77.1 | 22 | 77.1 | 18 |
| | | 고졸 | 3 | 15.1 | 5 | 18.5 | 7 |
| | | 전문대졸 | - | - | - | - | - |
| | | 대졸 | - | - | 1 | 4.4 | - |
| | | 대학원졸 | 2 | 7.9 | - | - | - |
| | | 전체 | 20 | 100 | 28 | 100 | 24 |

2) 주요 변인별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첫째, 패널 조사의 매체영역 중 컴퓨터 사용 영역은 컴퓨터 사용 여부, 컴퓨터 사용시간 및 장소 그리고 용도별 컴퓨터 사용정도를 파악 할 수 있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컴퓨터 사용시간의 경우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시간 단위(시간과 분)로 사용시간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컴퓨터 사용 장소는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지문으로 제시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컴퓨터 용도별 사용 형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컴퓨터사용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컴퓨터 용도별 사용 형태는 전체 10문항으로 ①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②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영화 파일 등) 사용 ③ 게임 및 오락 ④ 채팅이나 메신저 ⑤ 전자우편(email) ⑥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⑦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동 ⑧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⑨ 댓글 달기 ⑩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등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모두 4점 Likert 척도(자주 사용한다 = 1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4)로 평정되었다. 원점수는 역코딩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서 사용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휴대전화의 사용 행태는 휴대전화 소지 여부, 활용용도 별 사례수 및 휴대전화 의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묻는 문항은 두 가지 유형(스마트폰 및 일반휴대전화 일명 피쳐폰)의 휴대폰 소지 형태에 답하도록 지문에 제시되어 있다. 휴대전화 용도별 사용정도는 4점 Likert 척도(자주 사용한다 = 1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4)로 평정되었으며, 역코딩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활용용도 별 문항은 전체 9문항으로 ① 가족과의 통화 ②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등 포함) ③ 친구와의 통화 ④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등 포함) ⑤ 게임 및 오락 ⑥ 사진 촬영 ⑦ 동영상 감상 ⑧ 음악 듣기 ⑨ 시간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성은 2002년 이시형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척도는 휴대전화 집착과 이로 인한 불안, 불편 및 고립감 그리고 무료함에 대한 인톨로런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문항은 모두 4점 Likert 척도(자주 사용한다 = 1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4)로 평정되었다. 원점수는 역코딩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 7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②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③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④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⑥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⑦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셋째,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주일, 한달 혹은 일년 단위로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인용 매체에 노출되는지 그 접촉 사례수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질문은 19세 이상 성인만 사용 가능한 매체(잡지나 책, 영화, 동영상, TV 프로그램, 게임, 전화 서비스 등)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를 물어보았다. 또한 성인용 매체 경험자의 매체 몰입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8문항으로 구성된 성인매체 몰입 척도는 2003년에 개발된 인터넷 중독 문항(김은정, 이세용, 오승근, 2003) 중 유해매체 관련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로 평정되었다. 역코딩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전체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인매체를) ①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 ②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③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 ④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⑤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⑥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다 ⑦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⑧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넷째, 매체 사용의 부정적 행동 양상인 청소년들이 사이버 비행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여섯 문항으로 구성된 사이버 비행 영역별 경험 정도 및 연간 경험 횟수를 묻는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문의 내용은 ①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②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③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④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⑤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⑥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이다. 해당 문항은 한국청소년패널 조사의 관련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상기 조사문항별 척도의 출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코드북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두 종류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3년간 청소년의 매체 사용 행태 변화에 대한 중단 분석 및 배경 변인 수준 간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를 위한 사례 및 빈도 분석방법 등을 사용하였으며, SPSS 20을 통계분석 도구로 사용하였다.

제 2 장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1.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2.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제 2 장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1.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초등학생의 컴퓨터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4 패널의 3년 간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시간), 어느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에서 얼마나 자주 컴퓨터를 사용하는지(컴퓨터 사용 빈도)를 묻는 문항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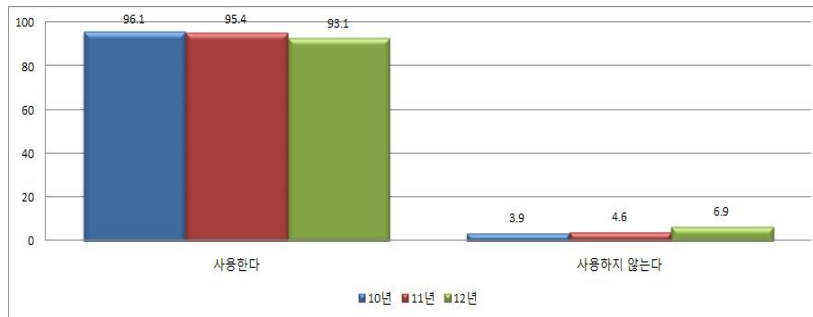
컴퓨터 사용 빈도를 묻는 문항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컴퓨터 사용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 문항은 ①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②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 ③ 게임 및 오락, ④ 채팅이나 메신저, ⑤ 전자우편(e-mail), ⑥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⑦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⑧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⑨ 댓글 달기, ⑩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으로 총 10개 문항이며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초등학교의 컴퓨터 사용 여부, 사용시간 및 장소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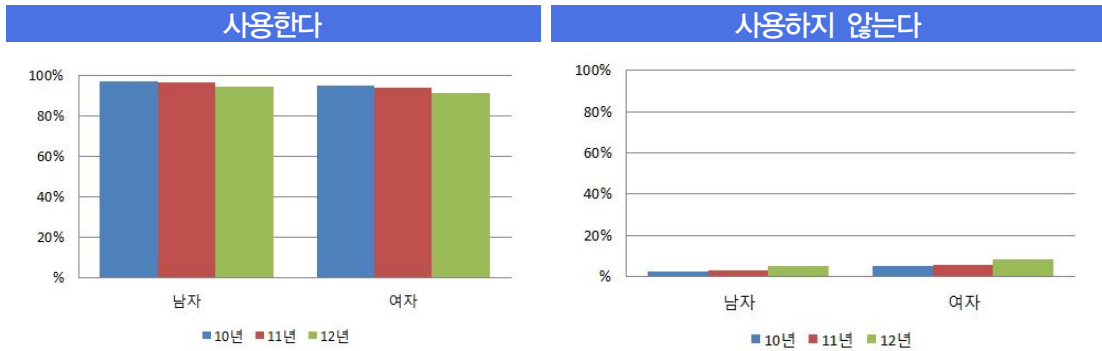
초등학교 4, 5, 6학년 중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초등학교 4학년(2010년)에 96.1%, 초등학교 5학년(2012년)에는 95.4%, 초등학교 6학년(2013년)에는 93.1%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1>.



【그림 II-1-1】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

표 II-1-1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사용한다 | 2285 | 96.1 | 2161 | 95.4 | 2066 | 93.1 |
| 사용하지 않는다 | 93 | 3.9 | 103 | 4.6 | 153 | 6.9 |
| 합계 | 2378 | 100 | 2264 | 100 | 2219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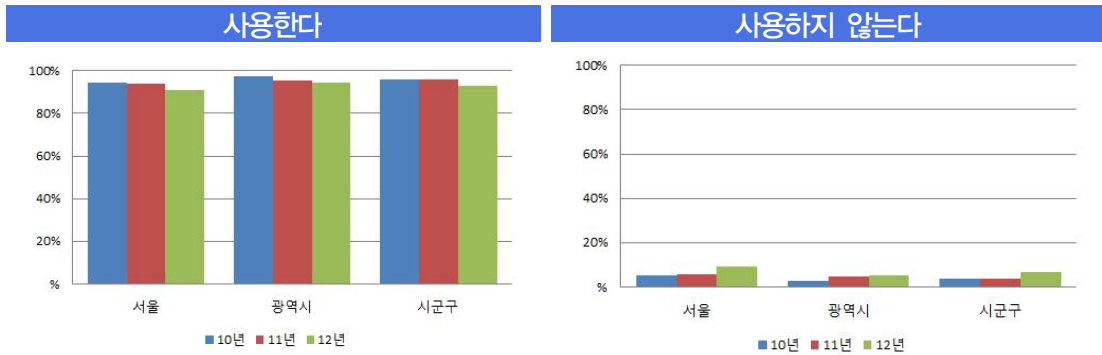


【그림 II-1-2】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성별)

표 II-1-2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성별)

| 항목 | 사용한다 | | | 사용하지 않는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남자 | 사례수 | 1209 | 1147 | 1100 | 35 | 38 | 62 | 1244 | 1185 | 1162 |
| | 비율 | 97.2 | 96.8 | 94.7 | 2.8 | 3.2 | 5.3 | 100 | 100 | 100 |
| 여자 | 사례수 | 1077 | 1014 | 966 | 58 | 65 | 91 | 1135 | 1079 | 1057 |
| | 비율 | 94.9 | 94.0 | 91.4 | 5.1 | 6.0 | 8.6 | 100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2286 | 2161 | 2066 | 93 | 103 | 153 | 2379 | 2264 | 2219 |
| | 비율 | 96.1 | 95.5 | 93.1 | 3.9 | 4.5 | 6.9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2012년 94.7%)이 여학생(2012년 91.4%)에 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표 II-1-2>. 또한 2010년에 비해 2012년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남학생은 2.8%에서 5.3%로 2.5%p 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5.1%에서 8.6%로 3.5%p 증가해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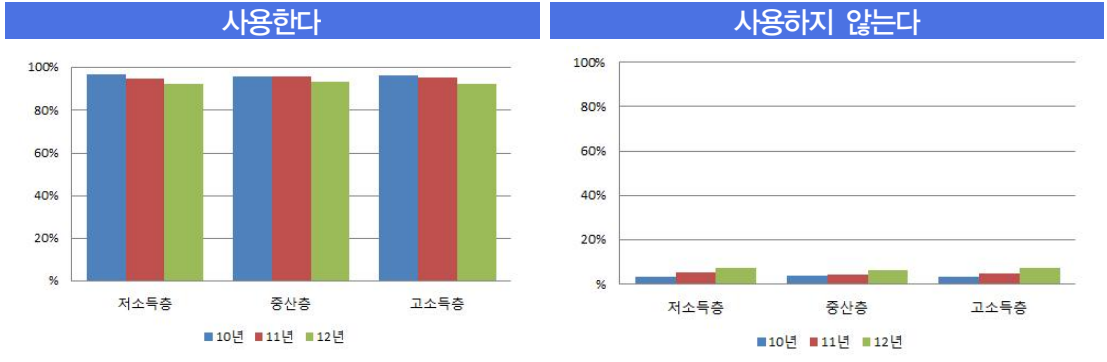


【그림 II-1-3】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지역별)

표 II-1-3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지역별)

| 항목 | | 사용한다 | | | 사용하지 않는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사례수 | 387 | 351 | 330 | 22 | 22 | 33 | 409 | 373 | 363 |
| | 비율 | 94.6 | 94.1 | 90.9 | 5.4 | 5.9 | 9.1 | 100 | 100 | 100 |
| 광역시 | 사례수 | 600 | 551 | 538 | 17 | 27 | 31 | 617 | 578 | 569 |
| | 비율 | 97.2 | 95.3 | 94.6 | 2.8 | 4.7 | 5.4 | 100 | 100 | 100 |
| 시군구 | 사례수 | 1298 | 1209 | 1137 | 54 | 50 | 86 | 1352 | 1259 | 1223 |
| | 비율 | 96.0 | 96.0 | 93.0 | 4.0 | 4.0 | 7.0 | 100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2285 | 2111 | 2005 | 93 | 99 | 150 | 2378 | 2210 | 2155 |
| | 비율 | 96.1 | 95.5 | 93.0 | 3.9 | 4.5 | 7.0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2012년 94.6%)이 서울이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2012년 서울 90.9%, 시군구 93%)에 비해 컴퓨터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3>. 또한 2010년에 비해 2012년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광역시는 2.8%에서 5.4로 3%p, 시군구는 4%에서 7%로 3%p, 서울은 5.4%에서 9.1%로 3.7%p 증가해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지역 초등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의 초등학생에 비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컴퓨터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4】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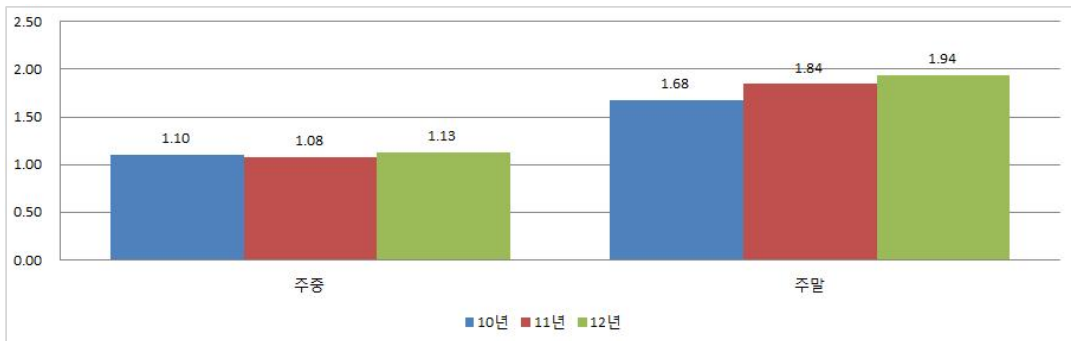
표 II-1-4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소득별)

| 항목 | | 사용한다 | | | 사용하지 않는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사례수 | 438 | 404 | 394 | 15 | 22 | 32 | 453 | 426 | 426 |
| | 비율 | 96.7 | 94.8 | 92.5 | 3.3 | 5.2 | 7.5 | 100 | 100 | 100 |
| 중산층 | 사례수 | 1384 | 1309 | 1256 | 56 | 58 | 86 | 1440 | 1367 | 1342 |
| | 비율 | 96.1 | 95.8 | 93.6 | 3.9 | 4.2 | 6.4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사례수 | 329 | 316 | 287 | 12 | 16 | 23 | 341 | 332 | 310 |
| | 비율 | 96.5 | 95.2 | 92.6 | 3.5 | 4.8 | 7.4 | 100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2151 | 2029 | 1937 | 83 | 96 | 141 | 2234 | 2125 | 2078 |
| | 비율 | 96.3 | 95.5 | 93.2 | 3.7 | 4.5 | 6.8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중산층의 초등학생(2012년 93.6%)이 고소득층(92.6%)나 저소득층(92.5%)인 초등학생에 비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4>. 또한 2010년에 비해 2012년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저소득층은 3.3%에서 7.5%로 4.2%p, 중산층은 3.9%에서 6.4%로 2.5%p, 고소득층은 3.5%에서 7.4%로 3.9%p 증가해 모든 소득수준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초등학생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초등학생에 비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컴퓨터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초등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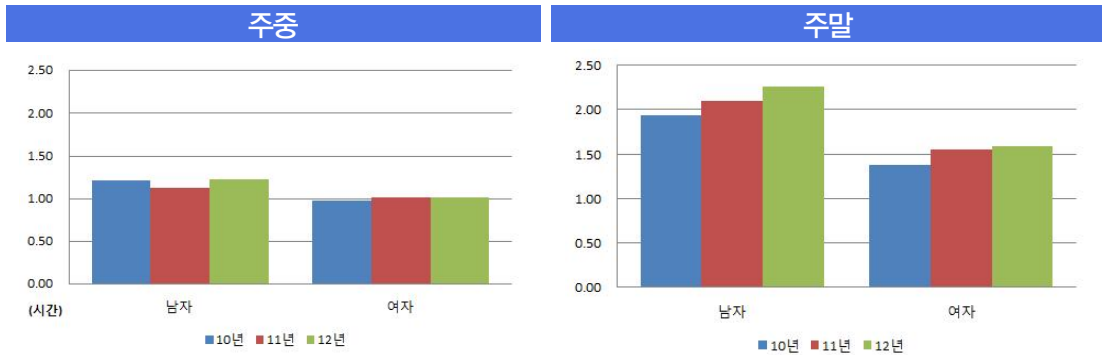
초등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주중(2012년 1.13시간)보다 주말(2012년 1.94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5>. 2010년 주중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은 1.10시간이었으며, 2011년에는 1.08시간, 2012년에는 1.13시간으로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은 학년이 높아져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주말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은 2010년에는 1.68시간, 2011년에는 1.84시간, 2012년에는 1.94시간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5】 초4 패년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

표 II-1-5 초4 패년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

| 항목 | 2010년(초4) | | | 2011년(초5) | | | 2012년(초6)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주중 | 2282 | 1.10 | 1.14 | 2157 | 1.08 | .90 | 2061 | 1.13 | .96 |
| 주말 | 2284 | 1.68 | 1.36 | 2159 | 1.84 | 1.34 | 2062 | 1.94 | 1.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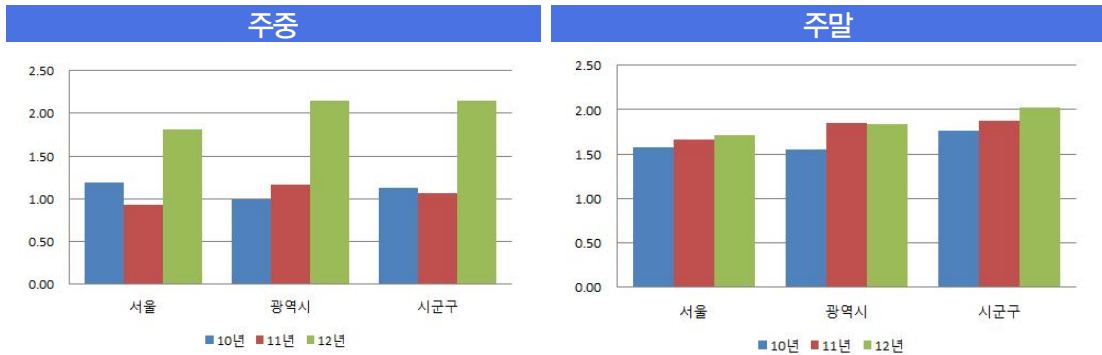
【그림 II-1-6】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성별)

표 II-1-6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성별)

| 항목 | | 주중 | | | 주말 | | |
|----|------|---------|---------|---------|---------|---------|---------|
| | | 10년(초4) | 11년(초5) | 12년(초6) | 10년(초4) | 11년(초5) | 12년(초6) |
| 남자 | 평균 | 1.22 | 1.13 | 1.23 | 1.94 | 2.10 | 2.26 |
| | 표준편차 | 1.26 | 0.96 | 1.04 | 1.40 | 1.41 | 1.48 |
| | 사례수 | 1206 | 1147 | 1096 | 1207 | 1147 | 1097 |
| 여자 | 평균 | 0.98 | 1.02 | 1.02 | 1.38 | 1.55 | 1.58 |
| | 표준편차 | 0.99 | 0.82 | 0.84 | 1.24 | 1.19 | 1.18 |
| | 사례수 | 1075 | 1010 | 965 | 1077 | 1013 | 965 |
| 합계 | 평균 | 1.10 | 1.08 | 1.13 | 1.68 | 1.84 | 1.94 |
| | 표준편차 | 1.14 | 0.90 | 0.96 | 1.36 | 1.34 | 1.39 |
| | 사례수 | 2282 | 2157 | 2061 | 2284 | 2159 | 2062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2012년 남학생의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은 주중 평균 1.23시간, 주말 평균 2.26시간으로 여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주중 평균 1.02시간, 주말 평균 1.58시간에 비해 더 길게 나타났다<표 II-1-6>.

또한 남학생의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 평균은 2010년 1.22시간에서 2012년 1.23시간으로 0.1시간 증가했으며 여학생의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 평균은 2010년 0.98시간에서 2012년 1.02시간으로 0.04시간 증가해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져도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7】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지역별)

표 II-1-7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지역별)

| 항목 | 주중 | | | 주말 | | | |
|-----|---------|---------|---------|---------|---------|---------|------|
| | 10년(초4) | 11년(초5) | 12년(초6) | 10년(초4) | 11년(초5) | 12년(초6) | |
| 서울시 | 평균 | 1.19 | 0.93 | 1.05 | 1.58 | 1.67 | 1.72 |
| | 표준편차 | 1.33 | 0.85 | 0.90 | 1.32 | 1.39 | 1.26 |
| | 사례수 | 387 | 349 | 330 | 387 | 351 | 330 |
| 광역시 | 평균 | 0.99 | 1.17 | 1.13 | 1.56 | 1.85 | 1.83 |
| | 표준편차 | 0.93 | 0.83 | 0.94 | 1.21 | 1.21 | 1.30 |
| | 사례수 | 600 | 551 | 538 | 600 | 551 | 538 |
| 시군구 | 평균 | 1.13 | 1.06 | 1.13 | 1.77 | 1.88 | 2.02 |
| | 표준편차 | 1.17 | 0.89 | 0.97 | 1.43 | 1.35 | 1.43 |
| | 사례수 | 1295 | 1206 | 1132 | 1297 | 1207 | 1133 |
| 합계 | 평균 | 1.10 | 1.07 | 1.12 | 1.68 | 1.83 | 1.92 |
| | 표준편차 | 1.14 | 0.87 | 0.95 | 1.36 | 1.33 | 1.37 |
| | 사례수 | 2282 | 2106 | 2001 | 2284 | 2109 | 2001 |

그러나 남학생의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 평균은 2010년 1.94시간에서 2012년 2.26시간으로 0.32시간 증가했으며, 여학생은 2010년 1.38시간에서 2012년 1.58시간으로 0.2시간 증가해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2012년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주중 평균 1.05시간, 주말

평균 1.72시간이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주중 평균 1.13시간, 주말 평균 1.83시간이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주중 평균 1.13시간, 주말 2.02시간으로 광역시와 시군구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서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II-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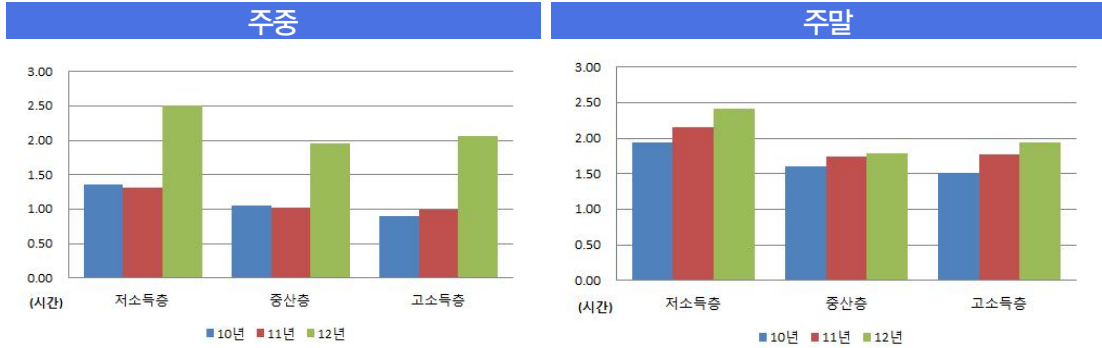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은 지역에 따라 연도별 변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은 2010년 1.19시간에서 2012년 1.05시간으로 학년이 높아질 때 다소 감소하였으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2010년 0.99시간에서 2011년 1.17시간, 2012년 1.13시간)과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2010년 1.13시간, 2011년 1.06시간, 2012년 1.13시간)은 증가했다.

반면,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은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은 2010년 1.56시간에서 2012년 1.83시간으로 가장 많이(0.27시간)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은 2010년 1.77시간에서 2012년 2.02시간으로 0.25시간,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은 2010년 1.58시간에서 2012년 1.72시간으로 가장 적게(0.14시간) 증가했다.

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2012년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은 저소득층은 1.41시간, 중산층 1.06시간, 고소득층 1.04시간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이 적었으나,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은 저소득층 2.42시간, 중산층 1.79시간, 고소득층 1.94시간으로 저소득층이 가장 높고 중산층이 가장 낮은 컴퓨터 사용시간을 보였다<표 II-1-8>.

컴퓨터 사용시간은 소득과 관계없이 연도별로 비슷하게 증가하는 변화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중산층 초등학생의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은 2010년 1.05시간에서 2012년 1.06시간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은(0.1시간) 반면, 저소득층은 2010년 1.36시간에서 2012년 1.41시간으로 0.05시간, 고소득층은 2010년 0.91시간에서 2012년 1.04시간으로 가장 많이(0.13시간) 증가하였다.

고소득층 초등학생의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은 2010년 1.51에서 2012년 1.94로 가장 적게 증가(0.43시간) 하였으며, 저소득층 초등학생은 2010년 1.94에서 2012년 2.42시간으로 0.48시간, 중산층 초등학생은 2010년 1.61에서 2012년 1.79로 가장 많이(0.18시간) 증가했다.



【그림 II-1-8】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소득별)

표 II-1-8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소득별)

| 항목 | | 주중 | | | 주말 | | |
|------|------|---------|---------|---------|---------|---------|---------|
| | | 10년(초4) | 11년(초5) | 12년(초6) | 10년(초4) | 11년(초5) | 12년(초6) |
| 저소득층 | 평균 | 1.36 | 1.31 | 1.41 | 1.94 | 2.15 | 2.42 |
| | 표준편차 | 1.31 | 0.96 | 1.13 | 1.57 | 1.39 | 1.68 |
| | 사례수 | 438 | 404 | 392 | 438 | 404 | 392 |
| 중산층 | 평균 | 1.05 | 1.02 | 1.06 | 1.61 | 1.74 | 1.79 |
| | 표준편차 | 1.08 | 0.89 | 0.92 | 1.28 | 1.27 | 1.26 |
| | 사례수 | 1380 | 1306 | 1253 | 1383 | 1308 | 1254 |
| 고소득층 | 평균 | 0.91 | .99 | 1.04 | 1.51 | 1.77 | 1.94 |
| | 표준편차 | 0.92 | .78 | 0.80 | 1.30 | 1.38 | 1.31 |
| | 사례수 | 329 | 316 | 287 | 329 | 316 | 287 |
| 합계 | 평균 | 1.09 | 1.07 | 1.13 | 1.66 | 1.82 | 1.94 |
| | 표준편차 | 1.12 | 0.89 | 0.96 | 1.35 | 1.32 | 1.39 |
| | 사례수 | 2147 | 2027 | 1932 | 2149 | 2028 | 1933 |

(3) 초등학생의 컴퓨터 사용 장소의 변화

초등학생이 보고한 컴퓨터 사용 장소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은 주로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2012년 91.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9>. 그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리 집과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증가하였고, 친구 집, 학교, 학원 등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II-1-9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우리 집 | 2017 | 88.3 | 2006 | 92.8 | 1882 | 91.3 |
| 친구 집 | 24 | 1.1 | 14 | 0.7 | 3 | 0.2 |
| 학교 | 95 | 4.2 | 23 | 1.1 | 32 | 1.6 |
| 학원 | 36 | 1.6 | 14 | 0.7 | 8 | 0.4 |
| PC방 | 79 | 3.5 | 97 | 4.5 | 126 | 6.1 |
| 기타 | 33 | 1.4 | 7 | 0.3 | 10 | 0.5 |
| 합계 | 2285 | 100 | 2161 | 100 | 2061 | 100 |

표 II-1-10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성별)

| 항목 | | 남자 | | | 여자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우리 집 | 사례수 | 1050 | 1028 | 959 | 967 | 978 | 922 | 2017 | 2006 | 1881 |
| | 비율 | 86.9 | 89.6 | 87.5 | 89.8 | 96.4 | 95.6 | 88.3 | 92.8 | 91.3 |
| 친구 집 | 사례수 | 14 | 10 | 1 | 10 | 4 | 2 | 24 | 14 | 3 |
| | 비율 | 1.2 | 0.9 | 0.1 | 0.9 | 0.4 | 0.2 | 1.1 | 0.6 | 0.1 |
| 학교 | 사례수 | 36 | 7 | 12 | 59 | 16 | 21 | 95 | 23 | 33 |
| | 비율 | 3.0 | 0.6 | 1.1 | 5.5 | 1.6 | 2.2 | 4.2 | 1.1 | 1.6 |
| 학원 | 사례수 | 19 | 8 | 1 | 17 | 7 | 7 | 36 | 15 | 8 |
| | 비율 | 1.6 | 0.7 | 0.1 | 1.6 | 0.7 | 0.7 | 1.6 | 0.7 | .4 |
| PC방 | 사례수 | 70 | 89 | 116 | 10 | 7 | 10 | 80 | 96 | 126 |
| | 비율 | 5.8 | 7.8 | 10.6 | 0.9 | 0.7 | 1.0 | 3.5 | 4.4 | 6.1 |
| 기타 | 사례수 | 19 | 5 | 7 | 14 | 2 | 2 | 33 | 7 | 9 |
| | 비율 | 1.6 | 0.5 | 0.5 | 0.13 | 0.2 | 0.2 | 1.5 | 0.3 | 0.4 |
| 전체 | 사례수 | 1208 | 1147 | 1096 | 1077 | 1014 | 964 | 2285 | 2161 | 2060 |
| | 비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른 컴퓨터 사용 장소 변화를 살펴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우리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2012년 남 87%, 여 95.4%)<표 II-1-10>.

또한 남녀학생 모두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집과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증가하였다. 남학생은 우리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2010년에 86.9%에서 2012년 87.5%로 1.4%p 증가했으나, 여학생은 2010년 89.8%에서 2012년 95.6%로 5.8%p 증가하였다.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2010년 5.8%에서 2012년 10.6%로 4.8%p 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2010년 0.7%에서 2012년 1%로 0.3%p 만 증가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컴퓨터를 하는 비율은 남녀학생에서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컴퓨터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0년 3%에서 2012년 1.1%로 2%p 감소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 2010년 5.5%에서 2012년 2.2%로 3.3%p 감소하였다.

표 II-1-11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지역별)

| 항목 | 서울 | | | 광역시 | | | 시군구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우리 집 | 사례수 | 330 | 324 | 311 | 541 | 517 | 493 | 1146 | 1122 | 1029 | 2017 | 1963 | 1833 |
| | 비율 | 85.5 | 92.3 | 95.1 | 90.2 | 93.8 | 91.6 | 88.2 | 92.9 | 90.7 | 88.3 | 93.0 | 91.7 |
| 친구 집 | 사례수 | 4 | 1 | 0 | 4 | 4 | 2 | 16 | 7 | 1 | 24 | 12 | 3 |
| | 비율 | 1.0 | 0.3 | 0 | 0.7 | 0.7 | 0.4 | 1.2 | 0.6 | 0.1 | 1.1 | 0.6 | 0.2 |
| 학교 | 사례수 | 18 | 7 | 3 | 19 | 4 | 7 | 58 | 12 | 23 | 95 | 23 | 33 |
| | 비율 | 4.7 | 2.0 | 0.9 | 3.2 | 0.7 | 1.3 | 4.5 | 1.0 | 2.0 | 4.2 | 1.1 | 1.7 |
| 학원 | 사례수 | 12 | 3 | 1 | 9 | 5 | 2 | 15 | 7 | 5 | 36 | 15 | 8 |
| | 비율 | 3.1 | 0.9 | 0.3 | 1.5 | .9 | 0.4 | 1.2 | 0.6 | 0.4 | 1.6 | 0.7 | 0.4 |
| PC방 | 사례수 | 14 | 16 | 11 | 25 | 19 | 32 | 40 | 55 | 72 | 79 | 90 | 115 |
| | 비율 | 3.6 | 4.6 | 3.4 | 4.2 | 3.4 | 5.9 | 3.1 | 4.6 | 6.3 | 3.5 | 4.3 | 5.8 |
| 기타 | 사례수 | 8 | 0 | 1 | 2 | 2 | 2 | 24 | 5 | 5 | 34 | 7 | 8 |
| | 비율 | 2.1 | 0 | 0.3 | 0.3 | 0.4 | 0.4 | 1.9 | 0.4 | 0.5 | 1.5 | 0.3 | 0.4 |
| 전체 | 사례수 | 386 | 351 | 327 | 600 | 551 | 538 | 1299 | 1208 | 1135 | 2285 | 2110 | 2000 |
| | 비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른 컴퓨터 사용 장소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역과 관계없이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서울, 광역시, 시군구 모두 우리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더 증가하였다<표 II-1-11>.

그러나 2012년 우리 집에서 컴퓨터를 하는 비율은 서울이(95.1%) 광역시(91.6%)나 시군구(90.7%)에 비해 높았으며,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는 비율은 서울이(3.4%) 광역시(5.9%)나 시군구(6.3%)에 비해 낮았다.

또한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는 비율이 서울의 경우 2010년 3.6%에서 2012년 3.4%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 광역시는 2010년 4.2%에서 2012년 5.9%로 1.7%p, 시군구는 2010년 3.1%에서 2012년 6.3%으로 3.2%p 증가하였다.

표 II-1-12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소득별)

| 항목 | | 저소득층 | | | 중산층 | | | 고소득층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우리 집 | 사례수 | 376 | 369 | 349 | 1236 | 1221 | 1164 | 290 | 302 | 258 | 1902 | 1892 | 1771 |
| | 비율 | 85.8 | 91.3 | 88.6 | 89.2 | 93.3 | 92.7 | 88.7 | 95.6 | 90.2 | 88.5 | 93.2 | 91.5 |
| 친구 집 | 사례수 | 1 | 3 | 1 | 15 | 7 | 3 | 4 | 1 | 0 | 20 | 11 | 4 |
| | 비율 | 0.2 | 0.7 | 0.3 | 1.1 | 0.5 | 0.2 | 1.2 | 0.3 | 0 | 0.9 | 0.5 | 0.2 |
| 학교 | 사례수 | 20 | 3 | 3 | 60 | 13 | 25 | 12 | 4 | 3 | 92 | 20 | 31 |
| | 비율 | 4.6 | 0.7 | 0.8 | 4.3 | 1.0 | 2.0 | 3.7 | 1.3 | 1.0 | 4.3 | 1.0 | 1.6 |
| 학원 | 사례수 | 6 | 3 | 1 | 17 | 8 | 6 | 10 | 1 | 1 | 33 | 12 | 8 |
| | 비율 | 1.4 | 0.7 | 0.3 | 1.2 | 0.6 | 0.5 | 3.1 | 0.3 | 0.3 | 1.5 | 0.6 | 0.4 |
| PC방 | 사례수 | 28 | 25 | 36 | 37 | 56 | 52 | 9 | 6 | 24 | 74 | 87 | 112 |
| | 비율 | 6.4 | 6.2 | 9.1 | 2.7 | 4.3 | 4.1 | 2.8 | 1.9 | 8.4 | 3.4 | 4.3 | 5.8 |
| 기타 | 사례수 | 7 | 1 | 4 | 20 | 4 | 6 | 2 | 2 | 0 | 29 | 8 | 10 |
| | 비율 | 0.2 | 0.2 | 0.1 | 1.4 | 0.4 | 0.5 | 0.6 | 0.6 | 0 | 1.3 | 0.3 | 0.5 |
| 전체 | 사례수 | 438 | 404 | 394 | 1385 | 1309 | 1256 | 327 | 316 | 286 | 2150 | 2029 | 1936 |
| | 비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른 컴퓨터 사용 장소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과 관계없이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모두 우리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더 증가하였다<표 II-1-12>.

그러나 2012년 우리 집에서 컴퓨터를 하는 비율은 중산층(92.7%)이 고소득층(90.2%)이나 저소득층(88.6%)에 비해 높았으며,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는 비율은 중산층(4.1%)이 고소득층(8.4%)이나 저소득층(9.1%)에 비해 낮았다.

또한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는 비율은 중산층 2010년 2.7%에서 4.1%로 1.4%p 증가 하였으나, 저소득층 2010년 6.4%에서 2012년 9.1%로 2.7%p 증가, 고소득층 2010년 2.8%에서 2012년 8.4%로 6.4%p 증가하였다.

2) 초등학생의 컴퓨터 사용 형태

초등학생의 컴퓨터 사용 형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0가지 항목을 ‘사용한다’와 ‘사용하지 않는다’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¹⁾. 초등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해 많이 하는 것은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검색 및 사이트 사용과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사용, 게임 및 오락이며, 적게 하는 것은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전자우편으로 나타났다
<표 II-1-13 >.

표 II-1-13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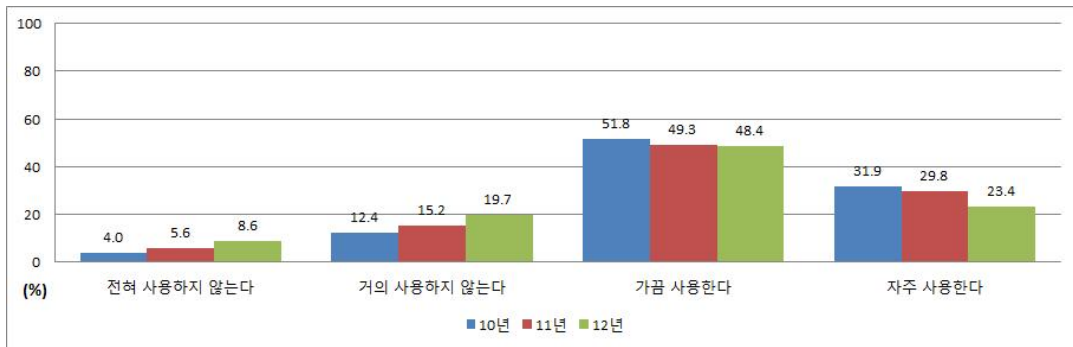
| 항목 | 사용한다 | | | 사용하지 않는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 N | 1912 | 1711 | 1479 | 373 | 450 | 583 | 2285 | 2161 | 2062 |
| | % | 83.7 | 79.2 | 71.7 | 16.3 | 20.8 | 28.3 | 100 | 100 | 100 |
|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 | N | 1277 | 1396 | 1461 | 1008 | 765 | 598 | 2285 | 2161 | 2058 |
| | % | 55.9 | 64.6 | 71.0 | 44.1 | 35.4 | 29.0 | 100 | 100 | 100 |
| 게임 및 오락 | N | 1695 | 1684 | 1525 | 590 | 476 | 536 | 2285 | 2161 | 2061 |
| | % | 74.2 | 77.9 | 74.0 | 25.8 | 22.1 | 26.0 | 100 | 100 | 100 |
| 채팅이나 메신저 | N | 631 | 898 | 954 | 1654 | 1261 | 1104 | 2285 | 2159 | 2058 |
| | % | 27.6 | 41.6 | 46.4 | 72.4 | 58.4 | 53.6 | 100 | 100 | 100 |
| 전자우편(e-mail) | N | 417 | 539 | 507 | 1868 | 1622 | 1552 | 2285 | 2161 | 2058 |
| | % | 18.3 | 24.9 | 24.6 | 81.7 | 75.1 | 75.4 | 100 | 100 | 100 |
|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 N | 622 | 778 | 750 | 1663 | 1382 | 1309 | 2285 | 2160 | 2059 |
| | % | 27.2 | 36.0 | 36.4 | 72.8 | 64.0 | 63.6 | 100 | 100 | 100 |
|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 N | 846 | 928 | 739 | 1440 | 1233 | 1320 | 2285 | 2161 | 2060 |
| | % | 37.0 | 42.9 | 35.9 | 63.0 | 57.1 | 64.1 | 100 | 100 | 100 |
|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 N | 495 | 487 | 366 | 1790 | 1674 | 1692 | 2285 | 2161 | 2058 |
| | % | 21.7 | 22.5 | 17.8 | 78.3 | 77.5 | 82.2 | 100 | 100 | 100 |
| 댓글 달기 | N | 1117 | 1194 | 1037 | 1168 | 967 | 1023 | 2285 | 2161 | 2060 |
| | % | 48.9 | 55.3 | 50.3 | 51.1 | 44.7 | 49.7 | 100 | 100 | 100 |
|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 N | 70 | 37 | 36 | 2216 | 2123 | 2022 | 2285 | 2161 | 2058 |
| | % | 3.0 | 1.7 | 1.7 | 97.0 | 98.3 | 98.3 | 100 | 100 | 100 |

1) ‘사용한다’는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이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의 합.

각 형태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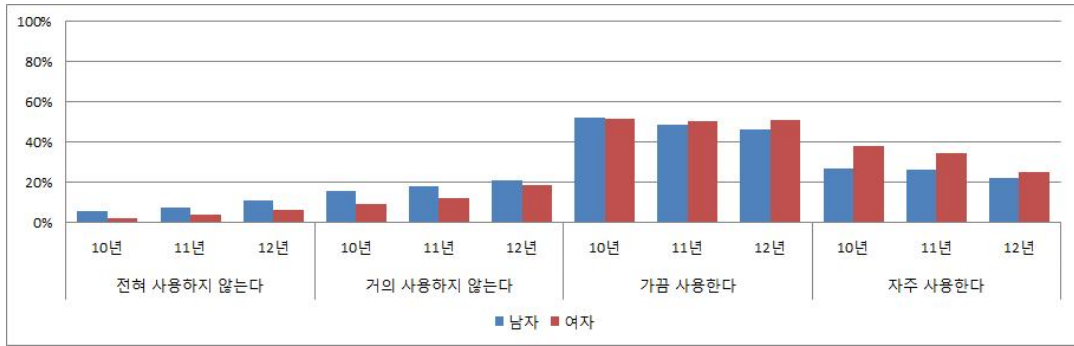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1-14>.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83.7%에서 2011년 79.2%, 2012년 71.7%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II-1-9】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표 II-1-14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91 | 4.0 | 122 | 5.6 | 177 | 8.6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282 | 12.4 | 329 | 15.2 | 406 | 19.7 |
| 가끔 사용한다 | 1184 | 51.8 | 1066 | 49.3 | 998 | 48.4 |
| 자주 사용한다 | 728 | 31.9 | 645 | 29.8 | 482 | 23.4 |
| 합계 | 2285 | 100 | 2161 | 100 | 206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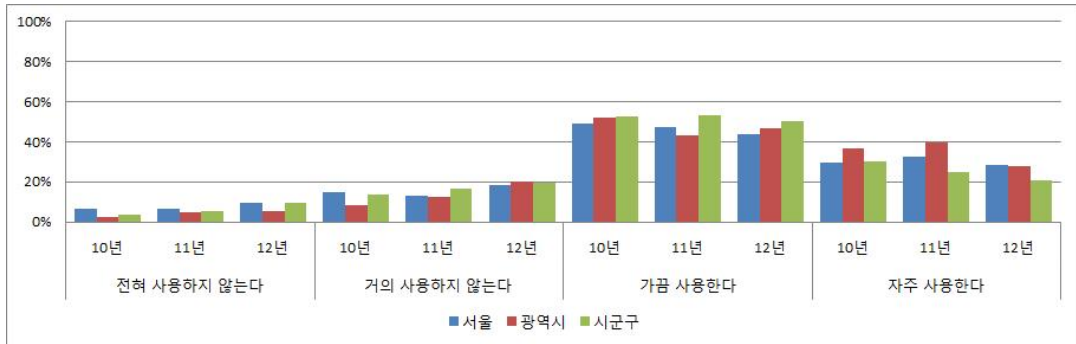
【그림 II-1-10】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성별)

표 II-1-15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69 | 85 | 120 | 185 | 205 | 228 | 633 | 558 | 509 | 322 | 298 | 243 | 1209 | 1146 | 1100 |
| | % | 5.7 | 7.4 | 10.9 | 15.3 | 17.9 | 20.7 | 52.4 | 48.7 | 46.3 | 26.6 | 26.0 | 22.1 | 100 | 100 | 100 |
| 여자 | N | 22 | 36 | 56 | 97 | 123 | 178 | 551 | 507 | 488 | 406 | 347 | 239 | 1076 | 1013 | 961 |
| | % | 2.0 | 3.6 | 5.8 | 9.0 | 12.1 | 18.5 | 51.2 | 50.0 | 50.8 | 37.7 | 34.3 | 24.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91 | 121 | 176 | 282 | 328 | 406 | 1184 | 1065 | 997 | 728 | 645 | 482 | 2285 | 2159 | 2061 |
| | % | 4.0 | 5.6 | 8.5 | 12.3 | 15.2 | 19.7 | 51.8 | 49.3 | 48.4 | 31.9 | 29.9 | 23.4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1-15>.

성별에 따라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79%, 2011년 74.7%, 2012년 68.4%로 감소하였으며, 여학생 역시 2010년 88.9%, 2011년 84.3%, 2012년 75.7%로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컴퓨터 사용은 남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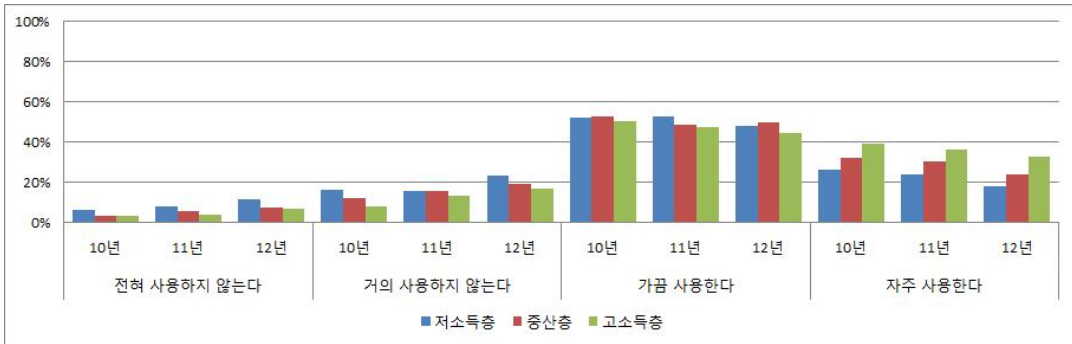
【그림 II-1-11】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지역별)

표 II-1-16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26 | 23 | 32 | 57 | 47 | 60 | 190 | 167 | 144 | 114 | 114 | 94 | 387 | 351 | 330 |
| | % | 6.7 | 6.6 | 9.7 | 14.7 | 13.4 | 18.2 | 49.1 | 47.6 | 43.6 | 29.5 | 32.5 | 28.5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6 | 27 | 28 | 51 | 68 | 110 | 313 | 238 | 251 | 221 | 218 | 149 | 601 | 551 | 538 |
| | % | 2.7 | 4.9 | 5.2 | 8.5 | 12.3 | 20.4 | 52.1 | 43.2 | 46.7 | 36.8 | 39.6 | 27.7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49 | 66 | 110 | 174 | 203 | 221 | 682 | 642 | 569 | 393 | 298 | 234 | 1298 | 1209 | 1134 |
| | % | 3.8 | 5.5 | 9.7 | 13.4 | 16.8 | 19.5 | 52.5 | 53.1 | 50.2 | 30.3 | 24.6 | 20.6 | 100 | 100 | 100 |
| 전체 | N | 91 | 116 | 170 | 282 | 318 | 391 | 1185 | 1047 | 964 | 728 | 630 | 477 | 2286 | 2111 | 2002 |
| | % | 4.0 | 5.5 | 8.5 | 12.3 | 15.1 | 19.5 | 51.8 | 49.6 | 48.2 | 31.8 | 29.8 | 23.8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끔 사용한다' 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1-16>.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78.6%, 2011년 80.1%, 2012년 72.1%로 약간 증가했다 감소하였으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88.9%에서 2011년 82.8%, 2012년 74.3%로 14.5%p 감소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역시 2010년 82.8%, 2011년 77.8%, 2012년 70.8%로 12%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12】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소득별)

표 II-1-17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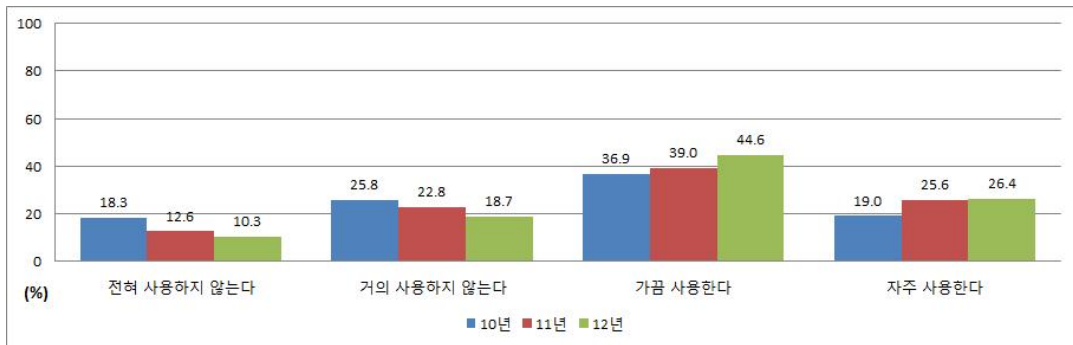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 N | 26 | 32 | 44 | 70 | 63 | 91 | 227 | 212 | 188 | 115 | 97 | 71 | 438 | 404 | 394 |
| | % | 5.9 | 7.9 | 11.2 | 16.0 | 15.6 | 23.1 | 51.8 | 52.5 | 47.7 | 26.3 | 24.0 | 18.0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44 | 72 | 93 | 165 | 201 | 241 | 728 | 638 | 625 | 446 | 399 | 294 | 1383 | 1310 | 1253 |
| | % | 3.2 | 5.5 | 7.4 | 11.9 | 15.3 | 19.2 | 52.6 | 48.7 | 49.9 | 32.2 | 30.5 | 23.5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0 | 11 | 19 | 25 | 41 | 48 | 165 | 149 | 127 | 129 | 115 | 93 | 329 | 316 | 287 |
| | % | 3.0 | 3.5 | 6.6 | 7.6 | 13.0 | 16.7 | 50.2 | 47.2 | 44.3 | 39.2 | 36.4 | 32.4 | 100 | 100 | 100 |
| 전체 | N | 80 | 115 | 156 | 260 | 305 | 380 | 1120 | 999 | 940 | 690 | 611 | 458 | 2150 | 2030 | 1934 |
| | % | 3.7 | 5.7 | 8.1 | 12.1 | 15.0 | 19.6 | 52.1 | 49.2 | 48.6 | 32.1 | 30.1 | 23.7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1-17>.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초등학생은 2010년 78.1%, 2011년 76.5%, 2012년 65.7%로 12.3%p 감소하였고, 중산층은 2010년 84.9%, 2011년 79.2%, 2012년 73.3%로 11.5%p 감소하였으며 고소득층은 2010년 89.4%, 2011년 83.5%, 2012년 76.7%로 12.7%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모든 소득 계층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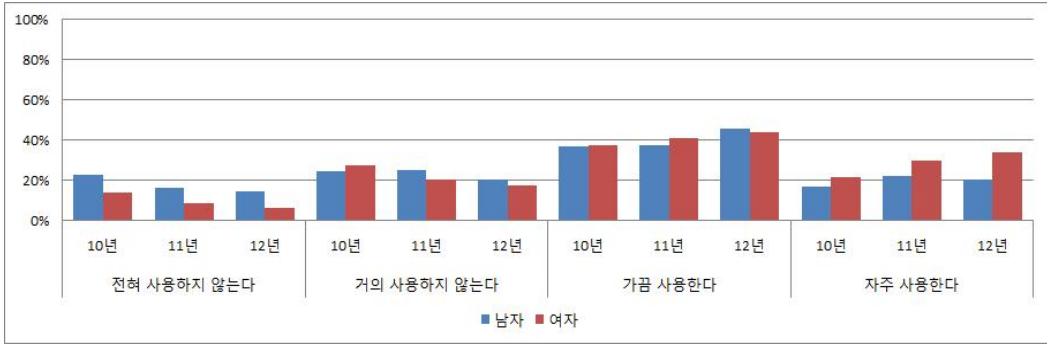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1-18>.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2010년 55.9%, 2011년 64.6%, 2012년 71%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13】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

표 II-1-18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

| 항목 | 2010년 | | 2011년 | | 2012년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418 | 18.3 | 272 | 12.6 | 212 | 10.3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590 | 25.8 | 494 | 22.8 | 385 | 18.7 |
| 가끔 사용한다 | 843 | 36.9 | 843 | 39.0 | 918 | 44.6 |
| 자주 사용한다 | 435 | 19.0 | 553 | 25.6 | 543 | 26.4 |
| 합계 | 2285 | 100 | 2161 | 100 | 2058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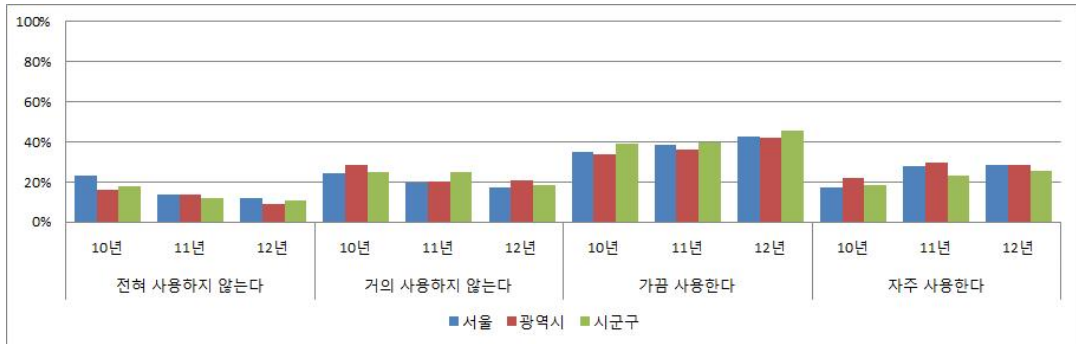
【그림 II-1-14】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성별)

표 II-1-19 초4 패널-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성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남자 | N | 272 | 184 | 156 | 295 | 286 | 222 | 440 | 426 | 499 | 201 | 251 | 220 | 1208 | 1147 | 1097 |
| | % | 22.5 | 16.0 | 14.2 | 24.4 | 24.9 | 20.2 | 36.4 | 37.1 | 45.5 | 16.6 | 21.9 | 20.1 | 100 | 100 | 100 |
| 여자 | N | 146 | 87 | 57 | 295 | 207 | 163 | 402 | 417 | 419 | 233 | 303 | 323 | 1076 | 1014 | 962 |
| | % | 13.6 | 8.6 | 5.9 | 27.4 | 20.4 | 16.9 | 37.4 | 41.1 | 43.6 | 21.7 | 29.9 | 33.6 | 100 | 100 | 100 |
| 전체 | N | 418 | 271 | 213 | 590 | 493 | 385 | 842 | 843 | 918 | 434 | 554 | 543 | 2284 | 2161 | 2059 |
| | % | 18.3 | 12.5 | 10.3 | 25.8 | 22.8 | 18.7 | 36.9 | 39.0 | 44.6 | 19.0 | 25.6 | 26.4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표 II-1-19>.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남학생은 2010년 53.1%, 2011년 59%, 2012년 65.5%로 12.5%p 증가하였고, 여학생은 2010년 59%, 2011년 71%, 2012년 77.1%로 18.1%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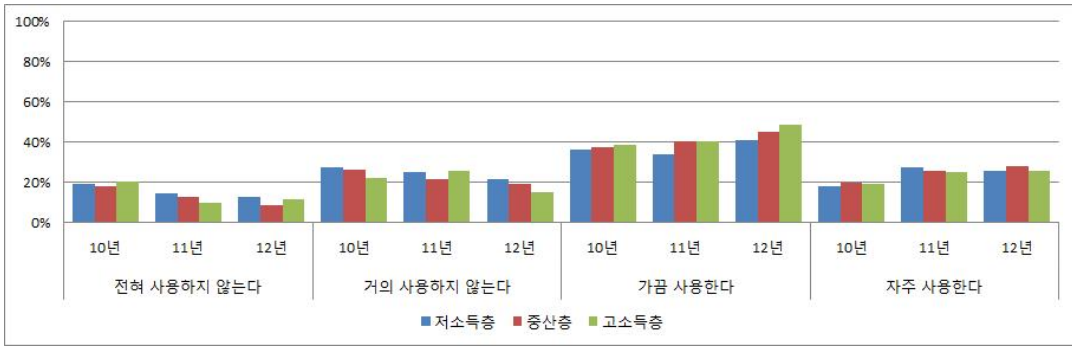
[그림 II-1-15]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지역별)

표 II-1-20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89 | 48 | 39 | 95 | 69 | 56 | 135 | 135 | 141 | 67 | 98 | 93 | 386 | 350 | 329 |
| | % | 23.1 | 13.7 | 11.9 | 24.6 | 19.7 | 17.0 | 35.0 | 38.6 | 42.9 | 17.4 | 28.0 | 28.3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97 | 76 | 47 | 171 | 113 | 112 | 202 | 198 | 227 | 130 | 165 | 152 | 600 | 552 | 538 |
| | % | 16.2 | 13.8 | 8.7 | 28.5 | 20.5 | 20.8 | 33.7 | 35.9 | 42.2 | 21.7 | 29.9 | 28.3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232 | 142 | 121 | 324 | 303 | 207 | 506 | 482 | 513 | 237 | 283 | 290 | 1299 | 1210 | 1131 |
| | % | 17.9 | 11.7 | 10.7 | 24.9 | 25.0 | 18.3 | 39.0 | 39.8 | 45.4 | 18.2 | 23.4 | 25.6 | 100 | 100 | 100 |
| 전체 | N | 418 | 266 | 207 | 590 | 485 | 375 | 843 | 815 | 881 | 434 | 546 | 535 | 2285 | 2112 | 1998 |
| | % | 18.3 | 12.6 | 10.4 | 25.8 | 23.0 | 18.8 | 36.9 | 38.6 | 44.1 | 19.0 | 25.9 | 26.8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과 광역시의 초등학생이(2012년 28.3) 시군구(2012년 25.6%)보다 더 많았다 <표 II-1-20>.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사용비율은 2010년 52.3%, 2011년 66.6%, 2012년 71.1%로 18.8%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사용 비율은 2010년 55.3%, 2011년 65.8%, 2012년 70.4%로 15.1%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사용 비율은 2010년 57.2%, 2011년 63.2%,



[그림 II-1-16]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소득별)

표 II-1-21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소득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저소득층 | N | 82 | 59 | 48 | 120 | 100 | 84 | 157 | 136 | 160 | 79 | 110 | 99 | 438 | 405 | 391 |
| | % | 18.7 | 14.6 | 12.3 | 27.4 | 24.7 | 21.5 | 35.8 | 33.6 | 40.9 | 18.0 | 27.2 | 25.3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243 | 167 | 108 | 360 | 278 | 235 | 513 | 529 | 560 | 268 | 335 | 347 | 1384 | 1309 | 1250 |
| | % | 17.6 | 12.8 | 8.6 | 26.0 | 21.2 | 18.8 | 37.1 | 40.4 | 44.8 | 19.4 | 25.6 | 27.8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67 | 30 | 32 | 72 | 80 | 42 | 126 | 127 | 139 | 63 | 79 | 74 | 328 | 316 | 287 |
| | % | 20.4 | 9.5 | 11.1 | 22.0 | 25.3 | 14.6 | 38.4 | 40.2 | 48.4 | 19.2 | 25.0 | 25.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392 | 256 | 188 | 552 | 458 | 361 | 796 | 792 | 859 | 410 | 524 | 520 | 2150 | 2030 | 1928 |
| | % | 18.2 | 12.6 | 9.8 | 25.7 | 22.6 | 18.7 | 37.0 | 39.0 | 44.6 | 19.1 | 25.8 | 27.0 | 100 | 100 | 100 |

2012년 71%로 13.8%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이 학습 이외의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이 광역시나 시군구의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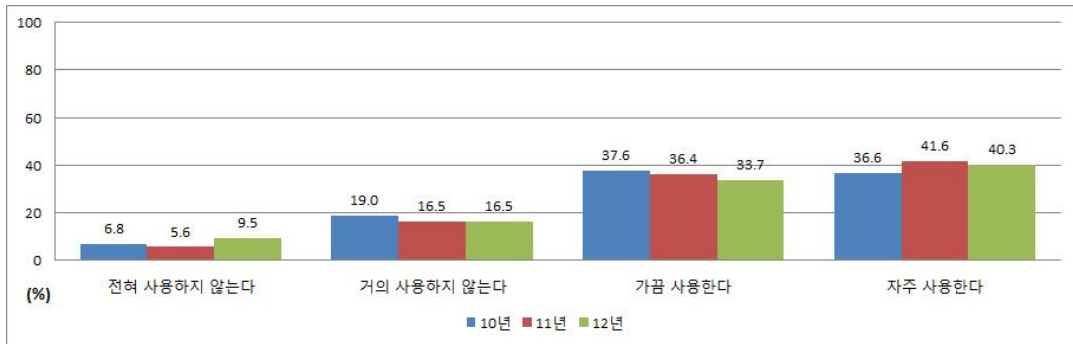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산층(2012년 27.8%)이 저소득층(25.3%)과 고소득층(25.8%)보다 더 많았다<표 II-1-21>.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은 2010년 53.9%, 2011년 60.7%, 2012년 66.2%p 증가하였고, 중산층은 2010년 56.4%,

2011년 66%, 2012년 72.6%로 16.1%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은 2010년 57.6%, 2011년 65.2%, 2012년 74.2%로 16.6%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산층 및 고소득층 초등학생의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이 저소득층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다.

③ 게임 및 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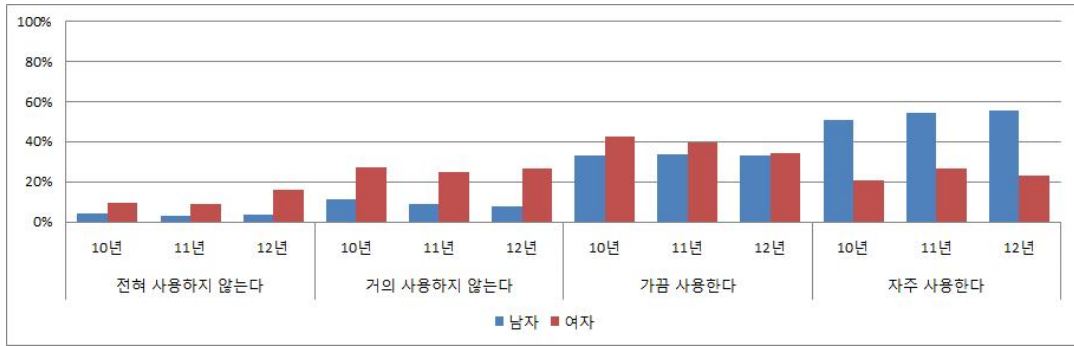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1-22>.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74.2%, 2011년 77.9%, 2012년 74%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II-1-17】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표 II-1-22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56 | 6.8 | 121 | 5.6 | 195 | 9.5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434 | 19.0 | 356 | 16.5 | 341 | 16.5 |
| 가끔 사용한다 | 860 | 37.6 | 786 | 36.4 | 695 | 33.7 |
| 자주 사용한다 | 836 | 36.6 | 899 | 41.6 | 830 | 40.3 |
| 합계 | 2285 | 100 | 2161 | 100 | 2061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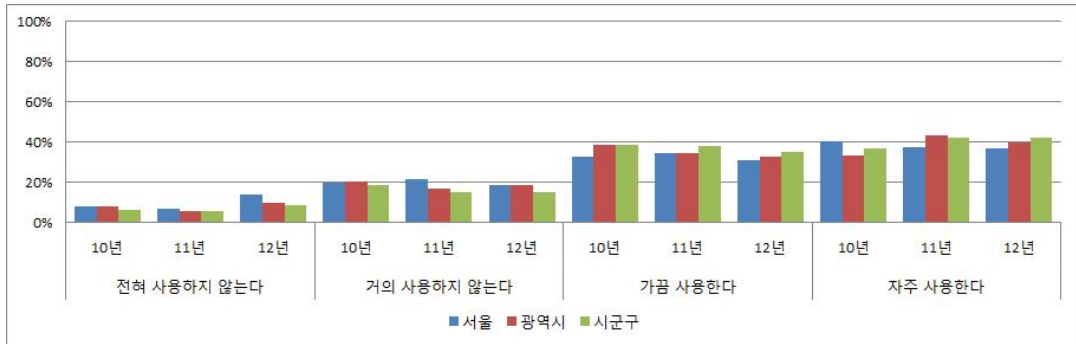
【그림 II-1-18】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표 II-1-23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남자 | N | 53 | 32 | 42 | 138 | 104 | 85 | 403 | 384 | 363 | 615 | 626 | 610 | 1209 | 1146 | 1100 |
| | % | 4.4 | 2.8 | 3.8 | 11.4 | 9.1 | 7.7 | 33.3 | 33.5 | 33.0 | 50.9 | 54.6 | 55.5 | 100 | 100 | 100 |
| 여자 | N | 104 | 88 | 153 | 296 | 252 | 256 | 456 | 402 | 332 | 221 | 272 | 220 | 1077 | 1014 | 961 |
| | % | 9.7 | 8.7 | 15.9 | 27.5 | 24.9 | 26.6 | 42.3 | 39.6 | 34.5 | 20.5 | 26.8 | 22.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57 | 120 | 195 | 434 | 356 | 341 | 859 | 786 | 695 | 836 | 898 | 830 | 2286 | 2160 | 2061 |
| | % | 6.9 | 5.6 | 9.5 | 19.0 | 16.5 | 16.5 | 37.6 | 36.4 | 33.7 | 36.6 | 41.6 | 40.3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2012년 55.5%), 여학생은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34.5%)<표 II-1-23>.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사용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84.2%, 2011년 88.1%, 2012년 88.5%로 4.3%p 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2010년 62.9%, 2011년 66.5%, 2012년 57.4%로 5.4%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사용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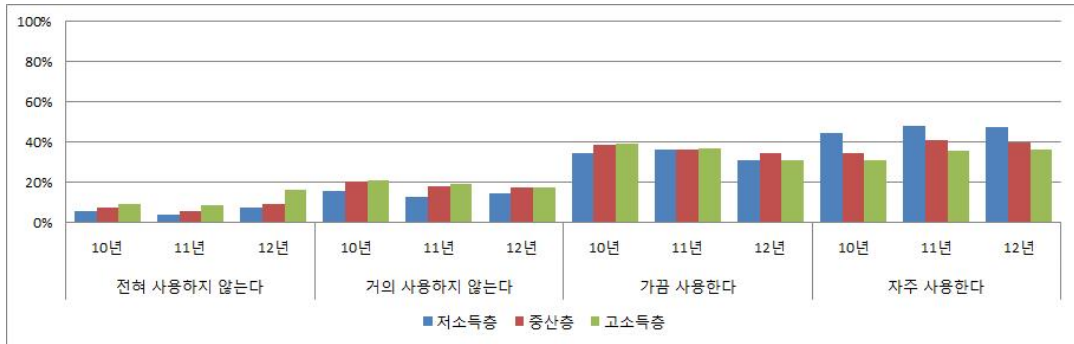
【그림 II-1-19】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표 II-1-24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30 | 24 | 46 | 75 | 75 | 61 | 126 | 121 | 101 | 156 | 130 | 122 | 387 | 350 | 330 |
| | % | 7.8 | 6.9 | 13.9 | 19.4 | 21.4 | 18.5 | 32.6 | 34.6 | 30.6 | 40.3 | 37.1 | 37.0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46 | 31 | 51 | 121 | 92 | 100 | 233 | 189 | 175 | 201 | 239 | 212 | 601 | 551 | 538 |
| | % | 7.7 | 5.6 | 9.5 | 20.1 | 16.7 | 18.6 | 38.8 | 34.3 | 32.5 | 33.4 | 43.4 | 39.4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80 | 64 | 95 | 238 | 180 | 170 | 501 | 457 | 394 | 479 | 508 | 475 | 1298 | 1209 | 1134 |
| | % | 6.2 | 5.3 | 8.4 | 18.3 | 14.9 | 15.0 | 38.6 | 37.8 | 34.7 | 36.9 | 42.0 | 41.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56 | 119 | 192 | 434 | 347 | 331 | 860 | 767 | 670 | 836 | 877 | 809 | 2286 | 2110 | 2002 |
| | % | 6.8 | 5.6 | 9.6 | 19.0 | 16.4 | 16.5 | 37.6 | 36.4 | 33.5 | 36.6 | 41.6 | 40.4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시군구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서울 37%, 광역시 39.4%, 시군구 41.9%)<표 II-1-24>.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72.9%, 2011년 71.7%, 2012년 67.6%로 5.3%p 감소한 반면,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72.2%, 2011년 77.7%, 2012년 71.9%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75.5%, 2011년 79.8%, 2012년 76.6%로 1.1%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군구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의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사용은 증가하였고,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감소하였다.



【그림 II-1-20】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표 II-1-25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저소득층 | N | 25 | 14 | 28 | 69 | 51 | 57 | 150 | 146 | 122 | 194 | 194 | 186 | 438 | 405 | 393 |
| | % | 5.7 | 3.5 | 7.1 | 15.8 | 12.6 | 14.5 | 34.2 | 36.0 | 31.0 | 44.3 | 47.9 | 47.3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99 | 74 | 112 | 276 | 231 | 216 | 533 | 473 | 431 | 476 | 531 | 493 | 1384 | 1309 | 1252 |
| | % | 7.2 | 5.7 | 8.9 | 19.9 | 17.6 | 17.3 | 38.5 | 36.1 | 34.4 | 34.4 | 40.6 | 39.4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30 | 27 | 46 | 68 | 60 | 50 | 129 | 116 | 88 | 101 | 113 | 103 | 328 | 316 | 287 |
| | % | 9.1 | 8.5 | 16.0 | 20.7 | 19.0 | 17.4 | 39.3 | 36.7 | 30.7 | 30.8 | 35.8 | 35.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54 | 115 | 186 | 413 | 342 | 323 | 812 | 735 | 641 | 771 | 838 | 782 | 2150 | 2030 | 1932 |
| | % | 7.2 | 5.7 | 9.6 | 19.2 | 16.8 | 16.7 | 37.8 | 36.2 | 33.2 | 35.9 | 41.3 | 40.5 | 100 | 10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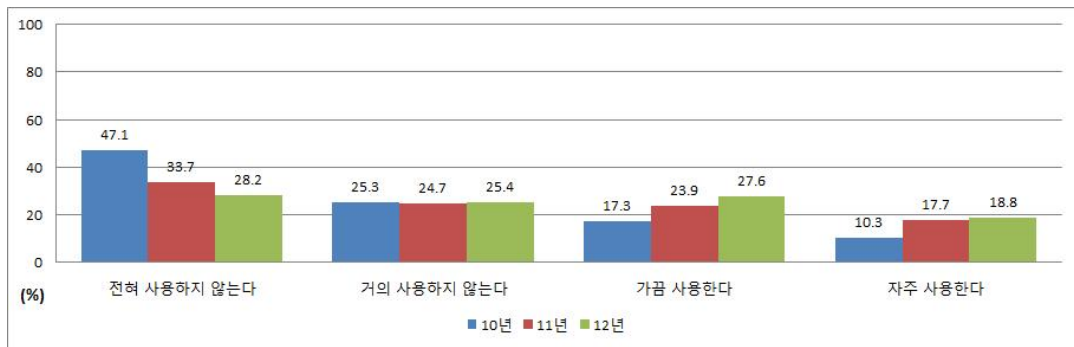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47.3%)<표 II-1-25>.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의 초등학생은 2010년 78.5%, 2011년 84%, 2012년 78.4%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으며, 중산층의 초등학생 역시 2010년 72.9%, 2011년 76.7%, 2012년 73.8%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으며, 고소득층의 초등학생은 2010년

70.1%, 2011년 72.5%, 2012년 66.6%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으나 감소한 폭이 3.6%p로 가장 컸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소득층 초등학생만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였다.

④ 채팅이나 메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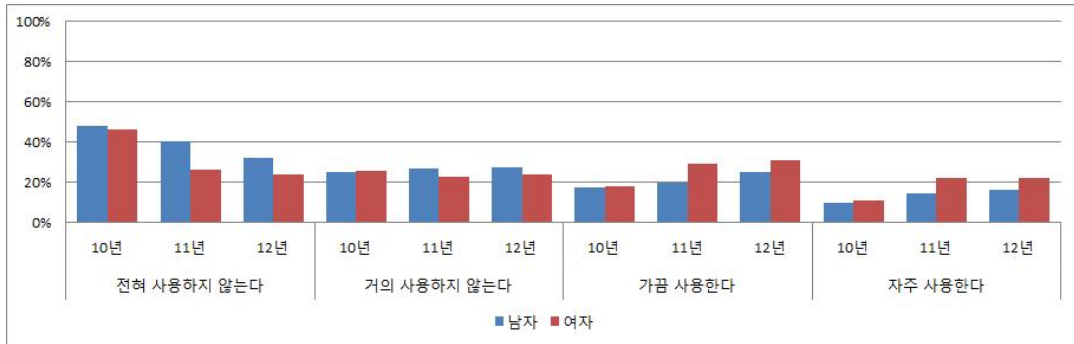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1-26>. 2010년 27.6% 2011년 41.6% 2012년 46.4%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II-1-21]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

표 II-1-26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076 | 47.1 | 727 | 33.7 | 580 | 28.2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578 | 25.3 | 534 | 24.7 | 523 | 25.4 |
| 가끔 사용한다 | 396 | 17.3 | 515 | 23.9 | 568 | 27.6 |
| 자주 사용한다 | 236 | 10.3 | 383 | 17.7 | 386 | 18.8 |
| 합계 | 2285 | 100 | 2159 | 100 | 2058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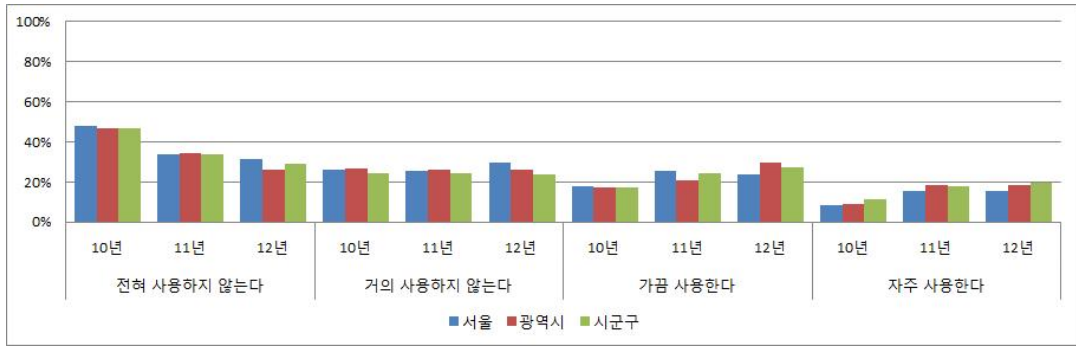
【그림 II-1-22】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성별)

표 II-1-27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580 | 459 | 353 | 303 | 303 | 298 | 207 | 221 | 271 | 119 | 162 | 175 | 1209 | 1145 | 1097 |
| | % | 48.0 | 40.1 | 32.2 | 25.1 | 26.5 | 27.2 | 17.1 | 19.3 | 24.7 | 9.8 | 14.1 | 16.0 | 100 | 100 | 100 |
| 여자 | N | 497 | 267 | 227 | 274 | 231 | 225 | 189 | 294 | 297 | 117 | 222 | 211 | 1077 | 1014 | 960 |
| | % | 46.1 | 26.3 | 23.6 | 25.4 | 22.8 | 23.4 | 17.5 | 29.0 | 30.9 | 10.9 | 21.9 | 22.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77 | 726 | 580 | 577 | 534 | 523 | 396 | 515 | 568 | 236 | 384 | 386 | 2286 | 2159 | 2057 |
| | % | 47.1 | 33.6 | 28.2 | 25.2 | 24.7 | 25.4 | 17.3 | 23.9 | 27.6 | 10.3 | 17.8 | 18.8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 응답 비율은 여학생(2012년 23.6%)에 비해 남학생(2012년 32.2%)이 더 높았다<표 II-1-27>.

채팅이나 메신저 사용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27%, 2011년 33.4%, 2012년 40.7%로 13.7%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28.4%, 2011년 50.9%, 2012년 52.9%로 24.5%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채팅이나 메신저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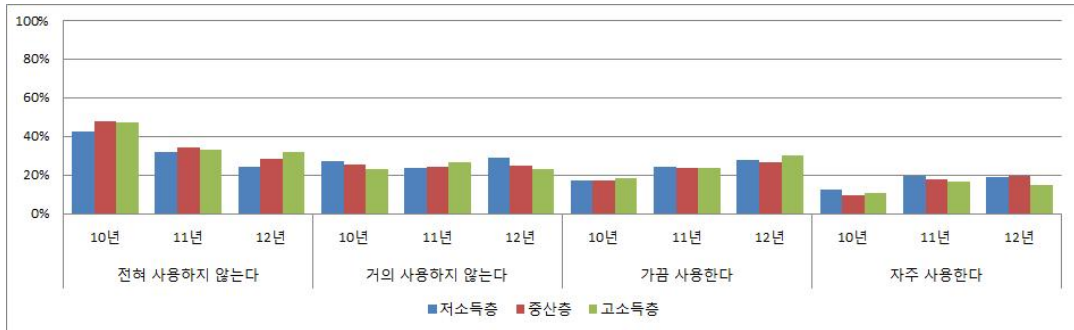
【그림 II-1-23】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지역별)

표 II-1-28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지역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86 | 118 | 103 | 100 | 89 | 98 | 68 | 90 | 79 | 32 | 55 | 51 | 386 | 352 | 331 |
| | % | 48.2 | 33.5 | 31.1 | 25.9 | 25.3 | 29.6 | 17.6 | 25.6 | 23.9 | 8.3 | 15.6 | 15.4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282 | 190 | 139 | 160 | 145 | 141 | 103 | 115 | 157 | 55 | 100 | 98 | 600 | 550 | 535 |
| | % | 47.0 | 34.5 | 26.0 | 26.7 | 26.4 | 26.4 | 17.2 | 20.9 | 29.3 | 9.2 | 18.2 | 18.3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608 | 404 | 330 | 317 | 290 | 269 | 224 | 296 | 309 | 148 | 217 | 225 | 1297 | 1207 | 1133 |
| | % | 46.9 | 33.5 | 29.1 | 24.4 | 24.0 | 23.7 | 17.3 | 24.5 | 27.3 | 11.4 | 18.0 | 19.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76 | 712 | 572 | 577 | 524 | 508 | 395 | 501 | 545 | 235 | 372 | 374 | 2283 | 2109 | 1999 |
| | % | 47.1 | 33.8 | 28.6 | 25.3 | 24.8 | 25.4 | 17.3 | 23.8 | 27.3 | 10.3 | 17.6 | 18.7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 응답 비율은 서울(2012년 31.1%)이 광역시(2012년 26.4%)와 시군구(24.4%)에 비해 높았다<표 II-1-28>.

채팅이나 메신저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25.9%, 2011년 41.2%, 2012년 39.3%로 13.4%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26.3%, 2011년 39.1%, 2012년 47.7%로 21.3%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28.7%, 2011년 42.5%, 2012년 47.1%로 18.4%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채팅이나 메신저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이 시군구나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



【그림 II -1-24】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소득별)

표 II -1-29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소득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187 | 129 | 96 | 120 | 97 | 114 | 75 | 99 | 109 | 55 | 79 | 74 | 437 | 404 | 393 |
| | % | 42.8 | 31.9 | 24.4 | 27.5 | 24.0 | 29.0 | 17.2 | 24.5 | 27.7 | 12.6 | 19.6 | 18.8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666 | 450 | 356 | 351 | 319 | 313 | 236 | 309 | 334 | 131 | 232 | 245 | 1384 | 1310 | 1248 |
| | % | 48.1 | 34.4 | 28.5 | 25.4 | 24.4 | 25.1 | 17.1 | 23.6 | 26.8 | 9.5 | 17.7 | 19.6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56 | 104 | 91 | 77 | 84 | 67 | 60 | 75 | 86 | 36 | 52 | 43 | 329 | 315 | 287 |
| | % | 47.4 | 33.0 | 31.7 | 23.4 | 26.7 | 23.3 | 18.2 | 23.8 | 30 | 10.9 | 16.5 | 15.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09 | 683 | 543 | 548 | 500 | 494 | 371 | 483 | 529 | 222 | 363 | 362 | 2150 | 2029 | 1928 |
| | % | 46.9 | 33.7 | 28.2 | 25.5 | 24.6 | 25.6 | 17.3 | 23.8 | 27.4 | 10.3 | 17.9 | 18.8 | 100 | 100 | 100 |

생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였다

소득에 따라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2012년 중산층 24.4%, 고소득층 31.7%) 저소득층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높았다(2012년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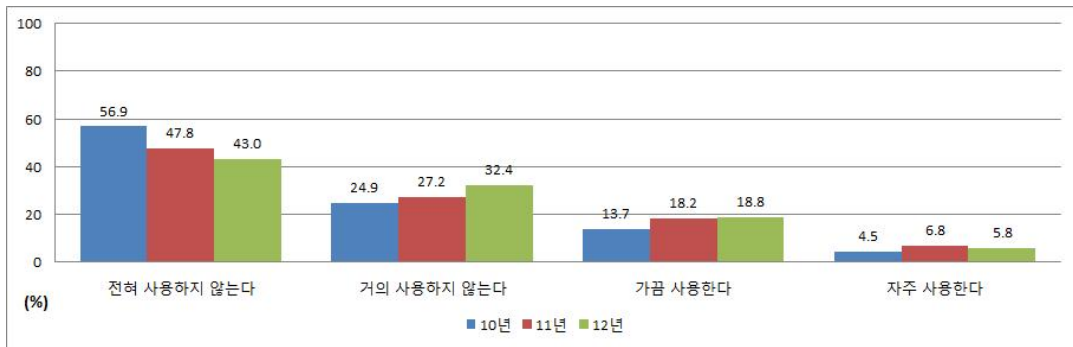
<표 II-1-29>

채팅이나 메신저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 초등학생은 2010년 29.7%, 2011년 44.1%, 2012년 46.6%로 16.8%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 초등학생은 2010년 26.5%, 2011년 41.3%, 2012년 46.4%로 19.9%p 증가하였고, 고소득층 초등학생은 2010년 29.2%, 2011년 40.3%, 2012년 44.9%로

15.8%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산층 초등학생의 채팅이나 메신저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였다.

⑤ 전자우편(e-m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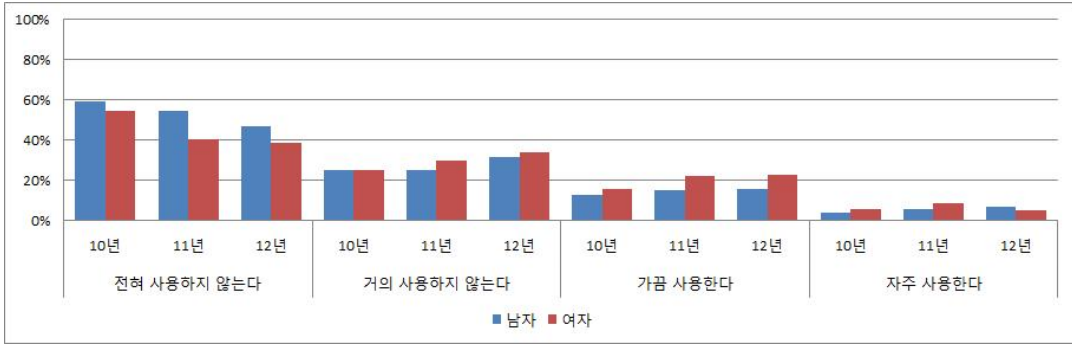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전자우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1-30>.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18.3%, 2011년 24.9%, 2012년 24.6%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II-1-25】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

표 II-1-30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300 | 56.9 | 1034 | 47.8 | 885 | 43.0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568 | 24.9 | 588 | 27.2 | 666 | 32.4 |
| 가끔 사용한다 | 314 | 13.7 | 393 | 18.2 | 386 | 18.8 |
| 자주 사용한다 | 103 | 4.5 | 146 | 6.8 | 120 | 5.8 |
| 합계 | 2285 | 100 | 2161 | 100 | 2058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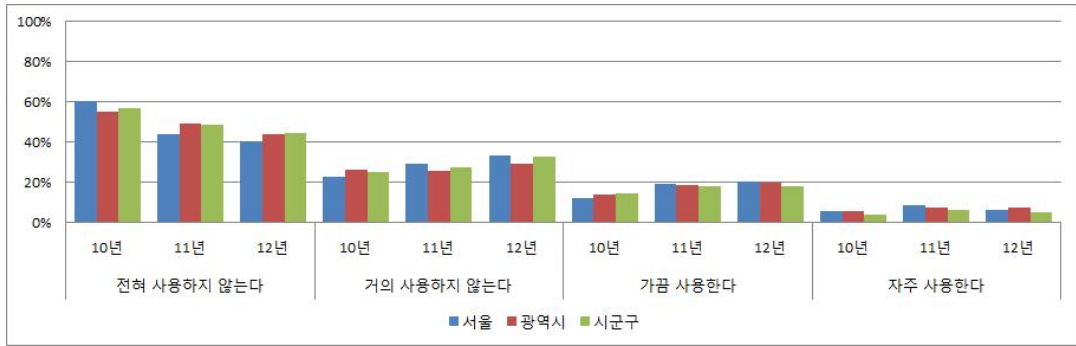
【그림 II-1-26】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성별)

표 II-1-31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713 | 627 | 514 | 301 | 289 | 342 | 149 | 170 | 172 | 45 | 61 | 71 | 1208 | 1147 | 1099 |
| | % | 59.0 | 54.7 | 46.8 | 24.9 | 25.2 | 31.1 | 12.3 | 14.8 | 15.7 | 3.7 | 5.3 | 6.5 | 100 | 100 | 100 |
| 여자 | N | 586 | 406 | 372 | 268 | 300 | 325 | 165 | 223 | 215 | 58 | 85 | 49 | 1077 | 1014 | 961 |
| | % | 54.4 | 40 | 38.7 | 24.9 | 29.6 | 33.8 | 15.3 | 22.0 | 22.4 | 5.4 | 8.4 | 5.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299 | 1033 | 886 | 569 | 589 | 667 | 314 | 393 | 387 | 103 | 146 | 120 | 2285 | 2161 | 2060 |
| | % | 56.8 | 47.8 | 43.0 | 24.9 | 27.3 | 32.4 | 13.7 | 18.2 | 18.8 | 4.5 | 6.8 | 5.8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전자우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남 46.8%, 여 28.7%) <표 II-1-31>.

전자우편 사용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 변화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16.1%, 2011년 20.1%, 2012년 22.1%로 6.1%p 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2010년 20.7%, 2011년 30.4%, 2012년 27.5%로 6.8%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전자우편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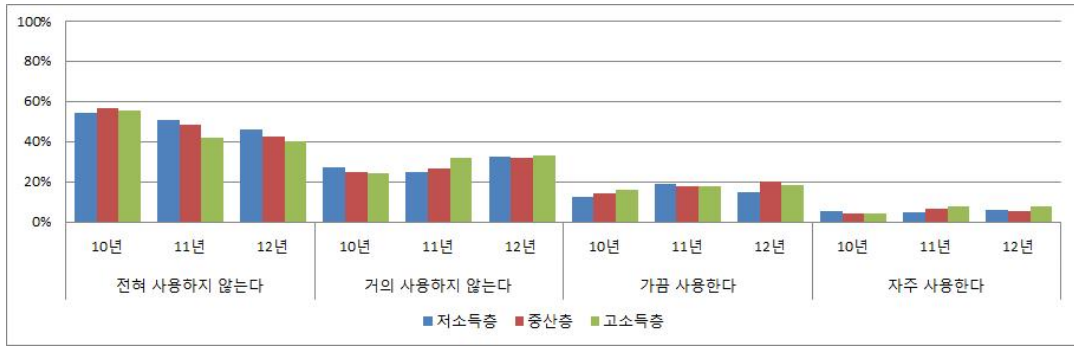
【그림 II-1-27】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지역별)

표 II-1-32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지역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232 | 154 | 133 | 88 | 101 | 110 | 46 | 66 | 66 | 20 | 29 | 20 | 386 | 350 | 329 |
| | % | 60.1 | 44.0 | 40.4 | 22.8 | 28.9 | 33.4 | 11.9 | 18.9 | 20.1 | 5.2 | 8.3 | 6.1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331 | 271 | 236 | 156 | 139 | 156 | 81 | 100 | 106 | 33 | 41 | 40 | 601 | 551 | 538 |
| | % | 55.1 | 49.2 | 43.9 | 26.0 | 25.2 | 29.0 | 13.5 | 18.1 | 19.7 | 5.5 | 7.4 | 7.4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737 | 588 | 503 | 324 | 333 | 368 | 187 | 217 | 202 | 50 | 71 | 58 | 1298 | 1209 | 1131 |
| | % | 56.8 | 48.6 | 44.5 | 25.0 | 27.5 | 32.5 | 14.4 | 17.9 | 17.9 | 3.9 | 5.9 | 5.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300 | 1013 | 872 | 568 | 573 | 634 | 314 | 383 | 374 | 103 | 141 | 118 | 2285 | 2110 | 1998 |
| | % | 56.9 | 48.0 | 43.6 | 24.9 | 27.2 | 31.7 | 13.7 | 18.2 | 18.7 | 4.5 | 6.7 | 5.9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전자우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 광역시 시군구 모두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서울 40.4%, 광역시 43.9%, 시군구 44.5%)<표 II-1-32>.

전자우편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17.1%, 2011년 27.1%, 2012년 26.1%로 9%p 증가하였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19%, 2011년 25.6%, 2012년 27.1%로 8.2%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18.3%, 2011년 23.8%, 2012년 23%로 4.7%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전자우편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이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II-1-28】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소득별)

표 II-1-33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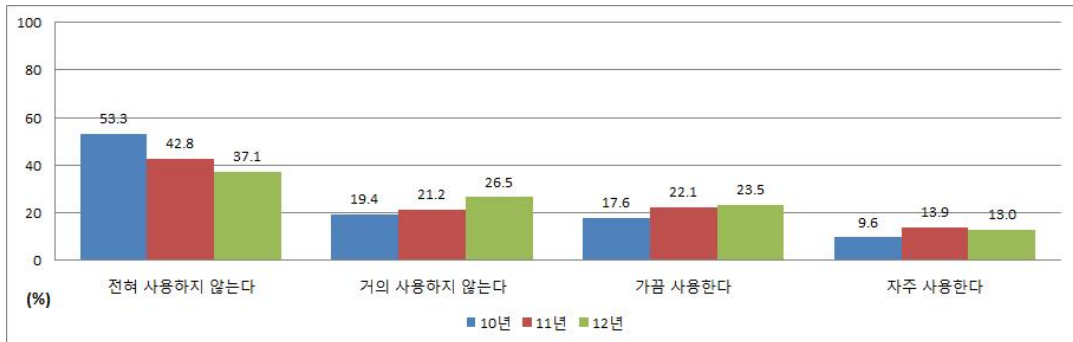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239 | 205 | 183 | 120 | 102 | 129 | 55 | 78 | 58 | 23 | 20 | 24 | 437 | 405 | 394 |
| | % | 54.7 | 50.6 | 46.4 | 27.5 | 25.2 | 32.7 | 12.6 | 19.3 | 14.7 | 5.3 | 4.9 | 6.1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786 | 632 | 531 | 342 | 353 | 402 | 196 | 236 | 249 | 60 | 88 | 67 | 1384 | 1309 | 1249 |
| | % | 56.8 | 48.3 | 42.5 | 24.7 | 27.0 | 32.2 | 14.2 | 18.0 | 19.9 | 4.3 | 6.7 | 5.4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82 | 132 | 116 | 80 | 101 | 95 | 53 | 57 | 53 | 13 | 25 | 23 | 328 | 315 | 287 |
| | % | 55.5 | 41.9 | 40.4 | 24.4 | 32.1 | 33.1 | 16.2 | 18.1 | 18.5 | 4.0 | 7.9 | 8.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207 | 969 | 830 | 542 | 556 | 626 | 304 | 371 | 360 | 96 | 133 | 114 | 2149 | 2029 | 1930 |
| | % | 56.2 | 47.8 | 43.0 | 25.2 | 27.4 | 32.4 | 14.1 | 18.3 | 18.7 | 4.5 | 6.6 | 5.9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전자우편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저소득층 46.4%, 중산층 42.5%, 고소득층 40.4%)<표 II-1-33>.

전자우편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 초등학생은 2010년 17.8%, 2011년 24.2%, 2012년 20.8%로 3%p 증가하였고, 중산층 초등학생은 2010년 18.5%, 2011년 24.8%, 2012년 25.3%로 6.8%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은 2010년 20.1%, 2011년 26%, 2012년 26.5%로 6.4%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산층 및 고소득층 초등학생의 전자우편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이 저소득층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였다

⑥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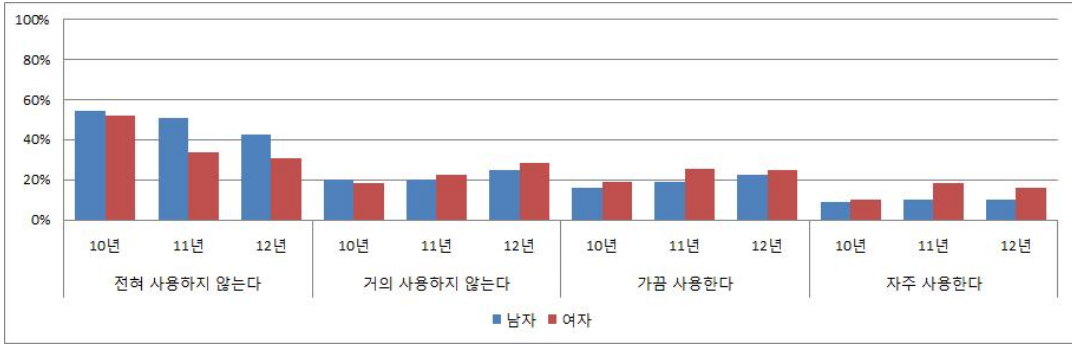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1-34>. 2010년 27.2%, 2011년 36%, 2012년 36.4%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II-1-29】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표 II-1-34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219 | 53.3 | 925 | 42.8 | 763 | 37.1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444 | 19.4 | 457 | 21.2 | 545 | 26.5 |
| 가끔 사용한다 | 403 | 17.6 | 476 | 22.1 | 483 | 23.5 |
| 자주 사용한다 | 220 | 9.6 | 301 | 13.9 | 267 | 13.0 |
| 합계 | 2285 | 100 | 2160 | 100 | 2059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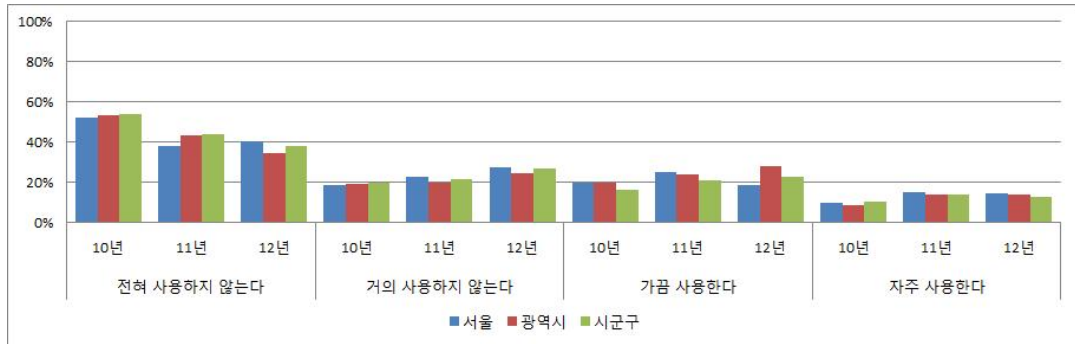
【그림 II-1-30】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성별)

표 II-1-35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성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남자 | N | 659 | 583 | 467 | 243 | 228 | 275 | 196 | 220 | 245 | 110 | 115 | 112 | 1208 | 1146 | 1099 |
| | % | 54.6 | 50.9 | 42.5 | 20.1 | 19.9 | 25.0 | 16.2 | 19.2 | 22.3 | 9.1 | 10 | 10.2 | 100 | 100 | 100 |
| 여자 | N | 560 | 342 | 296 | 201 | 228 | 271 | 206 | 257 | 238 | 109 | 186 | 155 | 1076 | 1013 | 960 |
| | % | 52.0 | 33.8 | 30.8 | 18.7 | 22.5 | 28.2 | 19.1 | 25.4 | 24.8 | 10.1 | 18.4 | 16.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219 | 925 | 763 | 444 | 456 | 546 | 402 | 477 | 483 | 219 | 301 | 267 | 2284 | 2159 | 2059 |
| | % | 53.4 | 42.8 | 37.1 | 19.4 | 21.1 | 26.5 | 17.6 | 22.1 | 23.5 | 9.6 | 13.9 | 13.0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2012년 남 42.5%, 30.8%)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표 II-1-35>.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남학생은 2010년 25.3%, 2011년 29.2%, 2012년 32.5%로 7.2%p 증가하였고, 여학생은 2010년 29.3%, 2011년 43.7%, 2012년 40.9%로 11.7%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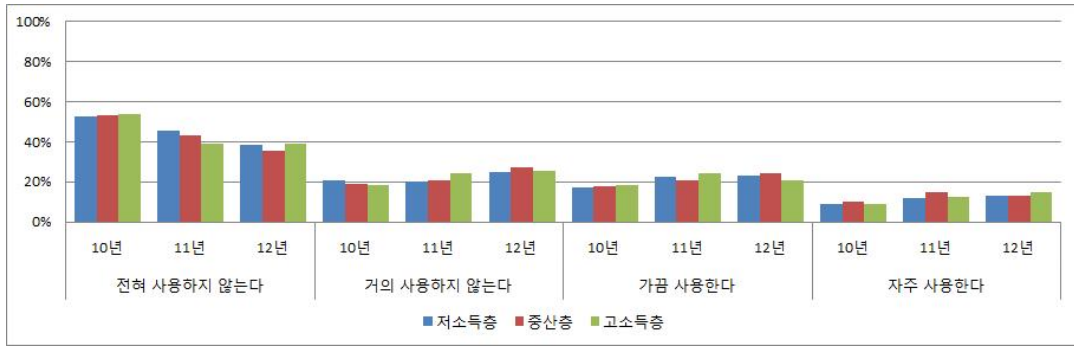
【그림 II-1-31】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지역별)

표 II-1-36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202 | 133 | 133 | 72 | 78 | 90 | 75 | 87 | 60 | 37 | 51 | 47 | 386 | 349 | 330 |
| | % | 52.3 | 38.1 | 40.3 | 18.7 | 22.3 | 27.3 | 19.4 | 24.9 | 18.2 | 9.6 | 14.6 | 14.2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321 | 237 | 183 | 113 | 107 | 132 | 117 | 130 | 149 | 50 | 77 | 73 | 601 | 551 | 537 |
| | % | 53.4 | 43.0 | 34.1 | 18.8 | 19.4 | 24.6 | 19.5 | 23.6 | 27.7 | 8.3 | 14.0 | 13.6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696 | 531 | 433 | 258 | 259 | 300 | 211 | 252 | 258 | 133 | 166 | 143 | 1298 | 1208 | 1134 |
| | % | 53.6 | 44.0 | 38.2 | 19.9 | 21.4 | 26.5 | 16.3 | 20.9 | 22.8 | 10.2 | 13.7 | 12.6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219 | 901 | 749 | 443 | 444 | 522 | 403 | 469 | 467 | 220 | 294 | 263 | 2285 | 2108 | 2001 |
| | % | 53.3 | 42.7 | 37.4 | 19.4 | 21.1 | 26.1 | 17.6 | 22.2 | 23.3 | 9.6 | 13.9 | 13.1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2012년 서울 40.3%, 광역시 34.1%, 시군구 38.2%)<표 II-1-36>.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29%, 2011년 39.5%, 2012년 32.4%로 3.4%p 증가하였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27.8%, 2011년 37.6%, 2012년 41.3%로 13.6%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26.5%, 2011년 34.6%, 2012년 35.4%로 8.9%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이 가장 크게



【그림 II-1-32】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소득별)

표 II-1-37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소득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231 | 183 | 152 | 92 | 82 | 98 | 75 | 91 | 91 | 39 | 48 | 52 | 437 | 404 | 393 |
| | % | 52.9 | 45.3 | 38.7 | 21.1 | 20.3 | 24.9 | 17.2 | 22.5 | 23.2 | 8.9 | 11.9 | 13.2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733 | 568 | 446 | 266 | 272 | 342 | 246 | 274 | 301 | 138 | 194 | 162 | 1383 | 1308 | 1251 |
| | % | 53.0 | 43.4 | 35.7 | 19.2 | 20.8 | 27.3 | 17.8 | 20.9 | 24.1 | 10 | 14.8 | 12.9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78 | 123 | 112 | 61 | 77 | 74 | 60 | 76 | 60 | 30 | 40 | 42 | 329 | 316 | 288 |
| | % | 54.1 | 38.9 | 38.9 | 18.5 | 24.4 | 25.7 | 18.2 | 24.1 | 20.8 | 9.1 | 12.7 | 14.6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142 | 874 | 710 | 419 | 431 | 514 | 381 | 441 | 452 | 207 | 282 | 256 | 2149 | 2028 | 1932 |
| | % | 53.1 | 43.1 | 36.7 | 19.5 | 21.3 | 26.6 | 17.7 | 21.7 | 23.4 | 9.6 | 13.9 | 13.3 | 100 | 100 | 100 |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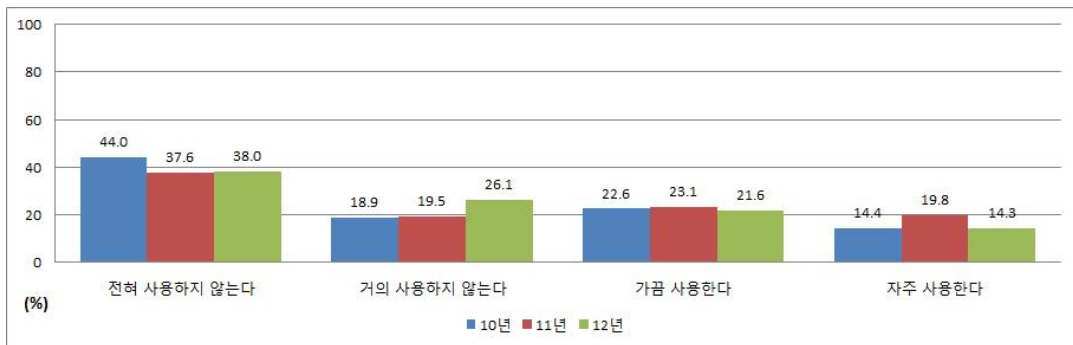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에 관계없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저소득층 38.7%, 중산층 35.7%, 고소득층 38.9%)<표 II-1-37>.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26.1%, 2011년 34.4%, 2012년 36.4%로 10.3%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27.8%, 2011년 35.8%, 2012년 37%로 9.2%p 증가하였고,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27.4%, 2011년 36.7%, 2012년 35.4%로 8.1%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의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였다.

⑦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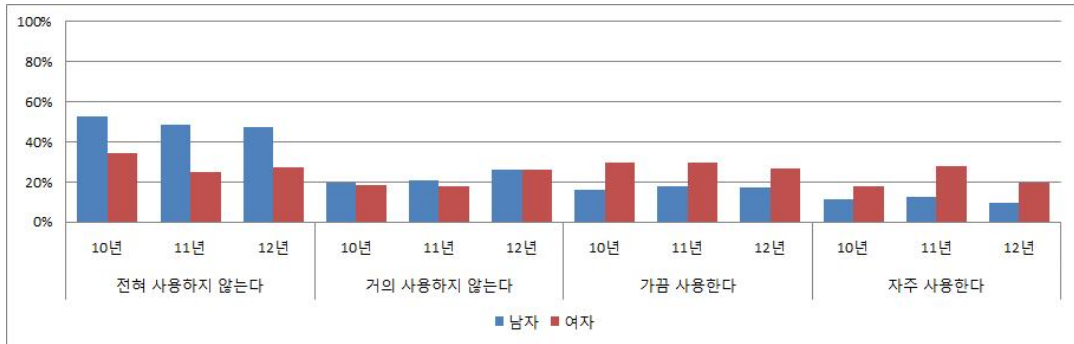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1-38>.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37%, 2011년 42.9%, 2012년 35.9%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조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II-1-33】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표 II-1-38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007 | 44.0 | 812 | 37.6 | 783 | 38.0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433 | 18.9 | 421 | 19.5 | 537 | 26.1 |
| 가끔 사용한다 | 515 | 22.6 | 500 | 23.1 | 446 | 21.6 |
| 자주 사용한다 | 330 | 14.4 | 428 | 19.8 | 294 | 14.3 |
| 합계 | 2285 | 100 | 2161 | 100 | 206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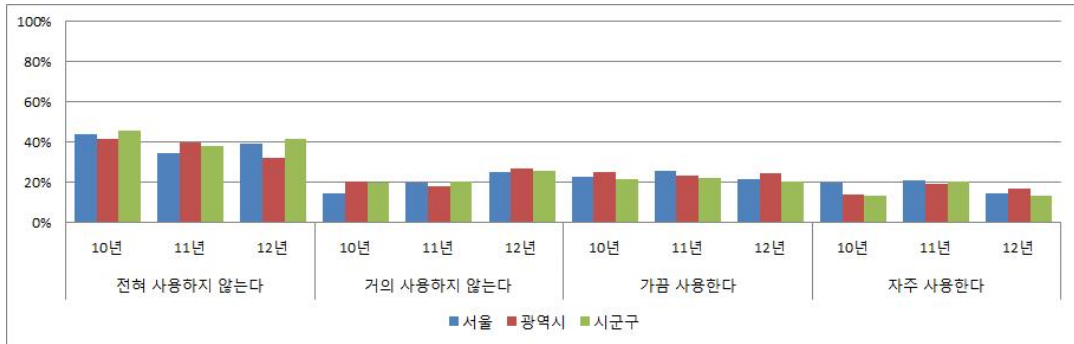
【그림 II-1-34】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성별)

표 II-1-39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639 | 558 | 521 | 236 | 241 | 284 | 196 | 202 | 187 | 138 | 145 | 106 | 1209 | 1146 | 1098 |
| | % | 52.9 | 48.7 | 47.4 | 19.5 | 21.0 | 25.9 | 16.2 | 17.6 | 17.0 | 11.4 | 12.7 | 9.7 | 100 | 100 | 100 |
| 여자 | N | 368 | 253 | 263 | 197 | 180 | 253 | 320 | 298 | 259 | 192 | 283 | 187 | 1077 | 1014 | 962 |
| | % | 34.2 | 25.0 | 27.3 | 18.3 | 17.8 | 26.3 | 29.7 | 29.4 | 26.9 | 17.8 | 27.9 | 19.4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07 | 811 | 784 | 433 | 421 | 537 | 516 | 500 | 446 | 330 | 428 | 293 | 2286 | 2160 | 2060 |
| | % | 44.1 | 37.5 | 38.1 | 18.9 | 19.5 | 26.1 | 22.6 | 23.1 | 21.7 | 14.4 | 19.8 | 14.2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2012년 47.4%), 여학생의 경우 모든 응답에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표 II-1-39>.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남학생은 2010년 27.6%, 2011년 30.3%, 2012년 26.7%로 증가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2010년 47.5%, 2011년 57.3%, 2012년 46.4%로 증가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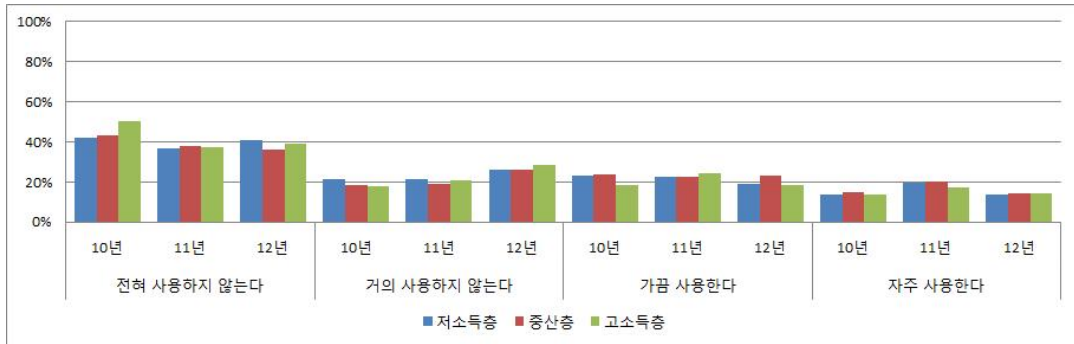
【그림 II-1-35】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지역별)

표 II-1-40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지역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서울 | N | 169 | 120 | 130 | 56 | 69 | 82 | 87 | 90 | 71 | 75 | 72 | 48 | 387 | 351 | 331 |
| | % | 43.7 | 34.2 | 39.3 | 14.5 | 19.7 | 24.8 | 22.5 | 25.6 | 21.5 | 19.4 | 20.5 | 14.5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247 | 220 | 173 | 121 | 98 | 145 | 150 | 129 | 131 | 82 | 104 | 90 | 600 | 551 | 539 |
| | % | 41.2 | 39.9 | 32.1 | 20.2 | 17.8 | 26.9 | 25.0 | 23.4 | 24.3 | 13.7 | 18.9 | 16.7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591 | 455 | 468 | 256 | 247 | 287 | 278 | 262 | 228 | 174 | 245 | 149 | 1299 | 1209 | 1132 |
| | % | 45.5 | 37.6 | 41.3 | 19.7 | 20.4 | 25.4 | 21.4 | 21.7 | 20.1 | 13.4 | 20.3 | 13.2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07 | 795 | 771 | 433 | 414 | 514 | 515 | 481 | 430 | 331 | 421 | 287 | 2286 | 2111 | 2002 |
| | % | 44.1 | 37.7 | 38.5 | 18.9 | 19.6 | 25.7 | 22.5 | 22.8 | 21.5 | 14.5 | 19.9 | 14.3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012년 서울 39.3%, 광역시 32.1%, 시군구 41.3%)<표 II-1-40>.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41.9%, 2011년 46.2%, 2012년 36%로 증가했다 크게 감소(5.9%p)하였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38.7%, 2011년 42.3%, 2012년 41%로 2.3%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34.8%, 2011년 41.9%, 2012년 33.3%로 약간 감소(1.5%p)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목적으로



【그림 II-1-36】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소득별)

표 II-1-41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소득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저소득층 | N | 184 | 148 | 162 | 93 | 85 | 103 | 101 | 92 | 75 | 60 | 78 | 54 | 438 | 403 | 394 |
| | % | 42.0 | 36.7 | 41.1 | 21.2 | 21.1 | 26.1 | 23.1 | 22.8 | 19.0 | 13.7 | 19.4 | 13.7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597 | 497 | 453 | 253 | 250 | 326 | 331 | 294 | 291 | 202 | 268 | 182 | 1383 | 1309 | 1252 |
| | % | 43.2 | 38.0 | 36.2 | 18.3 | 19.1 | 26.0 | 23.9 | 22.5 | 23.2 | 14.6 | 20.5 | 14.5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65 | 119 | 112 | 59 | 66 | 81 | 60 | 77 | 52 | 45 | 55 | 40 | 329 | 317 | 285 |
| | % | 50.2 | 37.5 | 39.3 | 17.9 | 20.8 | 28.4 | 18.2 | 24.3 | 18.2 | 13.7 | 17.4 | 14.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946 | 764 | 727 | 405 | 401 | 510 | 492 | 463 | 418 | 307 | 401 | 276 | 2150 | 2029 | 1931 |
| | % | 44.0 | 37.7 | 37.6 | 18.8 | 19.8 | 26.4 | 22.9 | 22.8 | 21.6 | 14.3 | 19.8 | 14.3 | 100 | 100 | 100 |

하는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였으나, 서울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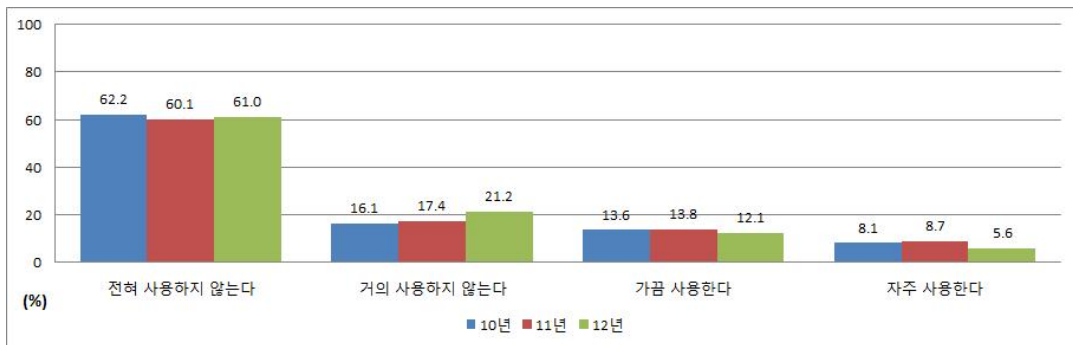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012년 저소득층 41.1% 중산층 36.2%, 고소득층 39.3%)<표 II-1-41>.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 초등학생은 2010년 36.8%, 2011년 42.2%, 2012년 32.7%로 증가하였다가 감소(4%p)하였으며, 중산층 초등학생은 2010년 38.5%, 2011년 42.9%, 2012년 37.8%로 증가하였다가 약간 감소(0.8%p)하였고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의 경우 2010년 31.9%, 2011년 41.6%, 2012년 32.3%로 역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2010년에 비해 0.4%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에 비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의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사용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⑧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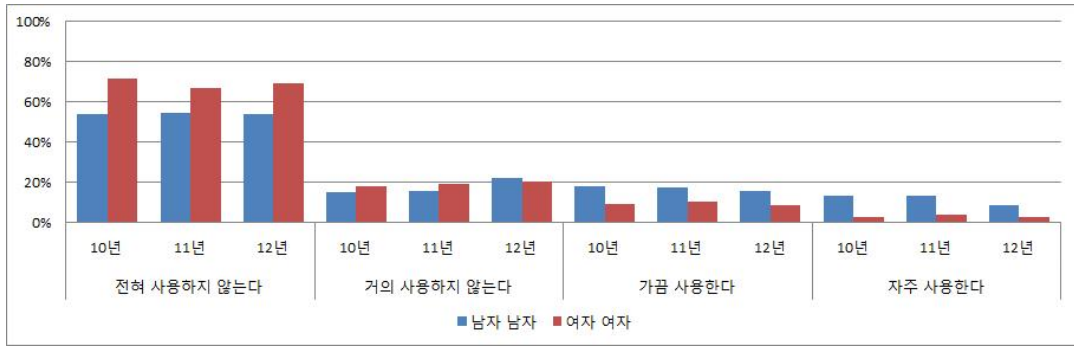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1-42>.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2010년 21.7%, 2011년 22.5%, 2012년 17.8%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II-1-37】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표 II-1-42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422 | 62.2 | 1299 | 60.1 | 1255 | 61.0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368 | 16.1 | 375 | 17.4 | 437 | 21.2 |
| 가끔 사용한다 | 310 | 13.6 | 298 | 13.8 | 249 | 12.1 |
| 자주 사용한다 | 185 | 8.1 | 189 | 8.7 | 116 | 5.6 |
| 합계 | 2285 | 100 | 2161 | 100 | 2058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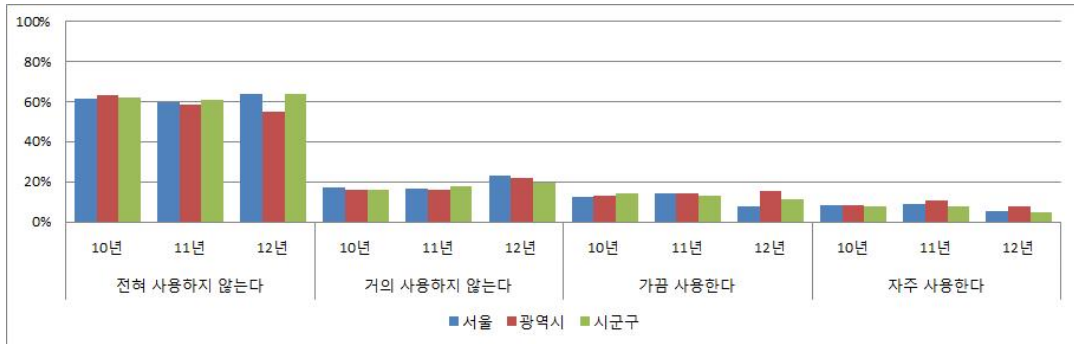
【그림 II-1-38】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성별)

표 II-1-43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654 | 620 | 593 | 178 | 180 | 243 | 216 | 194 | 171 | 161 | 151 | 93 | 1209 | 1145 | 1100 |
| | % | 54.1 | 54.1 | 53.9 | 14.7 | 15.7 | 22.1 | 17.9 | 16.9 | 15.5 | 13.3 | 13.2 | 8.5 | 100 | 100 | 100 |
| 여자 | N | 767 | 678 | 662 | 190 | 195 | 194 | 94 | 104 | 79 | 24 | 38 | 23 | 1075 | 1015 | 958 |
| | % | 71.3 | 66.8 | 69.1 | 17.7 | 19.2 | 20.3 | 8.7 | 10.2 | 8.2 | 2.2 | 3.7 | 2.4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421 | 1298 | 1255 | 368 | 375 | 437 | 310 | 298 | 250 | 185 | 189 | 116 | 2284 | 2160 | 2058 |
| | % | 62.2 | 60.1 | 61.0 | 16.1 | 17.4 | 21.2 | 13.6 | 13.8 | 12.1 | 8.1 | 8.8 | 5.6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2년 남자 58.9%, 여 69.1%)<표 II-1-42>.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남학생은 2010년 31.2%, 2011년 30.1%, 2012년 24%로 7.2%p 감소하였으나 여학생은 2010년 11%, 2011년 14%, 2012년 10.6%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학생은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사용이 점점 감소하였으나 여학생은 그렇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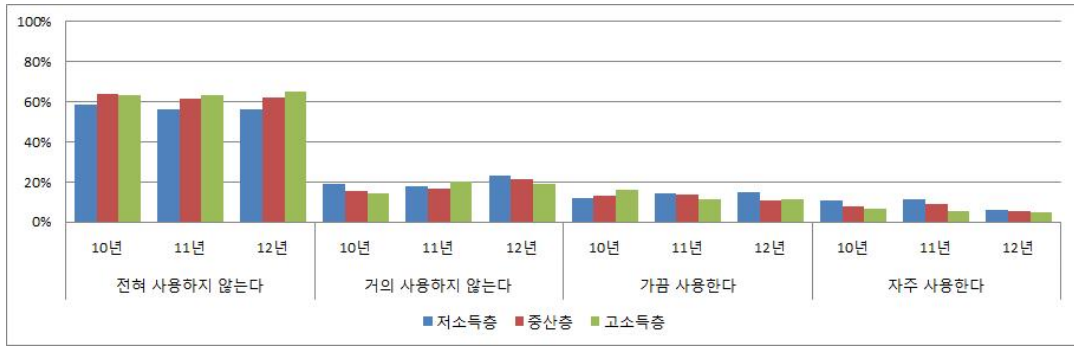
【그림 II-1-39】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지역별)

표 II-1-44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238 | 210 | 210 | 67 | 59 | 77 | 49 | 49 | 25 | 33 | 32 | 17 | 387 | 350 | 329 |
| | % | 61.5 | 60 | 63.8 | 17.3 | 16.9 | 23.4 | 12.7 | 14.0 | 7.6 | 8.5 | 9.1 | 5.2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379 | 323 | 296 | 95 | 89 | 117 | 78 | 79 | 83 | 49 | 60 | 42 | 601 | 551 | 538 |
| | % | 63.1 | 58.6 | 55.0 | 15.8 | 16.2 | 21.7 | 13.0 | 14.3 | 15.4 | 8.2 | 10.9 | 7.8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805 | 737 | 725 | 206 | 217 | 225 | 183 | 161 | 126 | 103 | 94 | 56 | 1297 | 1209 | 1132 |
| | % | 62.1 | 61.0 | 64.0 | 15.9 | 17.9 | 19.9 | 14.1 | 13.3 | 11.1 | 7.9 | 7.8 | 4.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422 | 1270 | 1231 | 368 | 365 | 419 | 310 | 289 | 234 | 185 | 186 | 115 | 2285 | 2110 | 1999 |
| | % | 62.2 | 60.2 | 61.6 | 16.1 | 17.3 | 21.0 | 13.6 | 13.7 | 11.7 | 8.1 | 8.8 | 5.8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012년 서울 63.8%, 여 69.1%, 광역시 55%, 시군구 64%)<표 II-1-43>.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21.2%, 2011년 23.1%, 2012년 12.8%로 증가했다 크게 감소(8.4%p)하였으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21.1%, 2011년 25.2%, 2012년 23.2%로 2.1%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22.1%, 2011년 21.1%, 2012년 16.1%로 6%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그림 II-1-40】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소득별)

표 II-1-45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소득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저소득층 | N | 256 | 228 | 220 | 84 | 73 | 90 | 51 | 59 | 58 | 46 | 45 | 24 | 437 | 405 | 392 |
| | % | 58.6 | 56.3 | 56.1 | 19.2 | 18.0 | 23.0 | 11.7 | 14.6 | 14.8 | 10.5 | 11.1 | 6.1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886 | 802 | 779 | 215 | 215 | 266 | 180 | 177 | 134 | 104 | 115 | 71 | 1385 | 1309 | 1250 |
| | % | 64.0 | 61.3 | 62.3 | 15.5 | 16.4 | 21.3 | 13.0 | 13.5 | 10.7 | 7.5 | 8.8 | 5.7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208 | 200 | 186 | 47 | 63 | 54 | 52 | 35 | 33 | 21 | 18 | 14 | 328 | 316 | 287 |
| | % | 63.4 | 63.3 | 64.8 | 14.3 | 19.9 | 18.8 | 15.9 | 11.1 | 11.5 | 6.4 | 5.7 | 4.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350 | 1230 | 1185 | 346 | 351 | 410 | 283 | 271 | 225 | 171 | 178 | 109 | 2150 | 2030 | 1929 |
| | % | 62.8 | 60.6 | 61.4 | 16.1 | 17.3 | 21.3 | 13.2 | 13.3 | 11.7 | 8.0 | 8.8 | 5.7 | 100 | 100 | 100 |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사용이 점점 감소하였으나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증가했다 감소하였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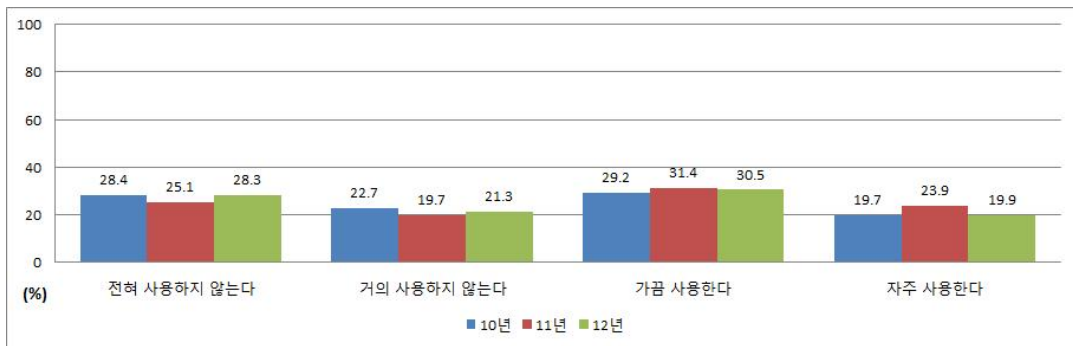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012년 저소득층 56.1%, 중산층 62.3%, 고소득층 64.8%)<표 II-1-44>.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22.2%, 2011년 25.7%, 2012년 20.9%로 증가하였다가 약간 감소(1.3%p)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20.5%, 2011년 22.3%, 2012년 16.4%로 증가하였다가 약간

많이 감소(4.1%p)하였으나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22.3%, 2011년 16.8%, 2012년 16.4%로 5.9%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사용이 점점 감소하였으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약간 증가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⑨ 댓글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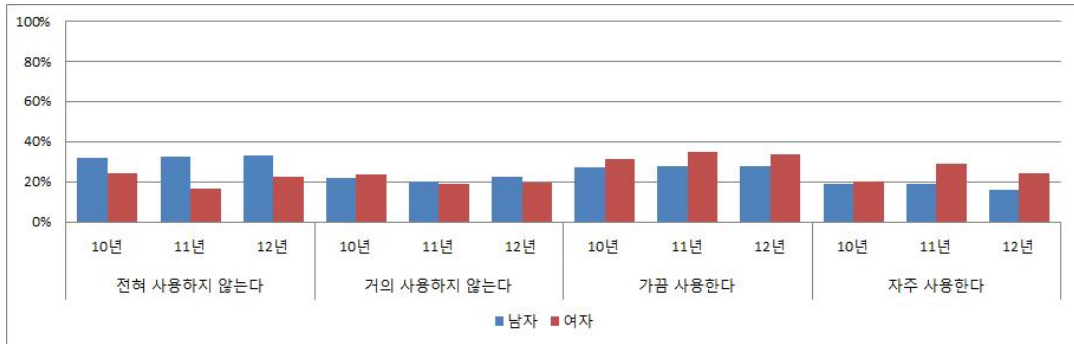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댓글달기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1-45>.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48.9%, 2011년 55.3%, 2012년 50.3%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댓글달기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II-1-41】 초4 패널- 댓글 달기

표 II-1-46 초4 패널- 댓글 달기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650 | 28.4 | 542 | 25.1 | 584 | 28.3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518 | 22.7 | 425 | 19.7 | 440 | 21.3 |
| 가끔 사용한다 | 668 | 29.2 | 678 | 31.4 | 628 | 30.5 |
| 자주 사용한다 | 449 | 19.7 | 516 | 23.9 | 409 | 19.9 |
| 합계 | 2285 | 100 | 2161 | 100 | 206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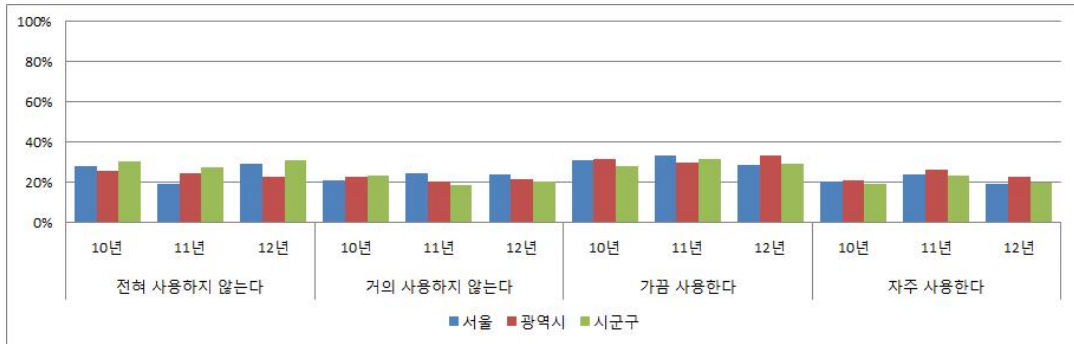
【그림 II-1-42】 초4 패널- 댓글 달기(성별)

표 II-1-47 초4 패널- 댓글 달기(성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남자 | N | 387 | 373 | 368 | 263 | 232 | 250 | 327 | 322 | 306 | 231 | 219 | 177 | 1208 | 1146 | 1101 |
| | % | 32.0 | 32.5 | 33.4 | 21.8 | 20.2 | 22.7 | 27.1 | 28.1 | 27.8 | 19.1 | 19.1 | 16.1 | 100 | 100 | 100 |
| 여자 | N | 262 | 169 | 216 | 255 | 192 | 189 | 341 | 356 | 322 | 218 | 297 | 232 | 1076 | 1014 | 959 |
| | % | 24.3 | 16.7 | 22.5 | 23.7 | 18.9 | 19.7 | 31.7 | 35.1 | 33.6 | 20.3 | 29.3 | 24.2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49 | 542 | 584 | 518 | 424 | 439 | 668 | 678 | 628 | 449 | 516 | 409 | 2284 | 2160 | 2060 |
| | % | 28.4 | 25.1 | 28.3 | 22.7 | 19.6 | 21.3 | 29.2 | 31.4 | 30.5 | 19.7 | 23.9 | 19.9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댓글 달기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2012년 33.4%)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2012년 33.6%)<표 II-1-46>.

댓글 달기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남학생은 2010년 46.2%, 2011년 47.2%, 2012년 43.9%로 약간 증가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2010년 52%, 2011년 64.4%, 2012년 57.8%로 크게 증가했다 약간 감소해 전반적으로 증가(5.8%p)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이 높아질 수록 여학생은 댓글달기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사용이 남학생에 비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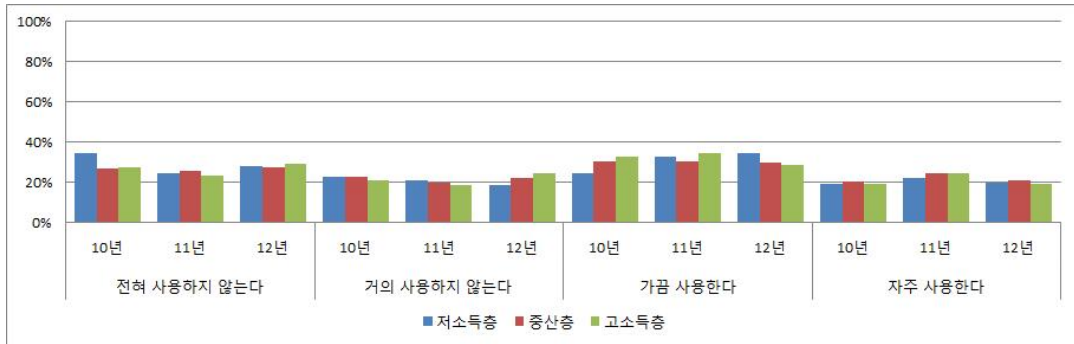
【그림 II-1-43】 초4 패널- 댓글 달기(지역별)

표 II-1-48 초4 패널- 댓글 달기(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08 | 66 | 96 | 80 | 85 | 78 | 120 | 116 | 93 | 78 | 83 | 63 | 386 | 350 | 330 |
| | % | 28.0 | 18.9 | 29.1 | 20.7 | 24.3 | 23.6 | 31.1 | 33.1 | 28.2 | 20.2 | 23.7 | 19.1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52 | 135 | 122 | 134 | 110 | 115 | 189 | 163 | 179 | 126 | 143 | 121 | 601 | 551 | 537 |
| | % | 25.3 | 24.5 | 22.7 | 22.3 | 20 | 21.4 | 31.4 | 29.6 | 33.3 | 21.0 | 26.0 | 22.5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390 | 328 | 350 | 304 | 222 | 232 | 359 | 378 | 331 | 245 | 281 | 221 | 1298 | 1209 | 1134 |
| | % | 30 | 27.1 | 30.9 | 23.4 | 18.4 | 20.5 | 27.7 | 31.3 | 29.2 | 18.9 | 23.2 | 19.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50 | 529 | 568 | 518 | 417 | 425 | 668 | 657 | 603 | 449 | 507 | 405 | 2285 | 2110 | 2001 |
| | % | 28.4 | 25.1 | 28.4 | 22.7 | 19.8 | 21.2 | 29.2 | 31.1 | 30.1 | 19.6 | 24.0 | 20.2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댓글 달기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과 시군구에 거주하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33.3%)<표 II-1-47>.

댓글 달기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51.3%, 2011년 56.9%, 2012년 47.3%로 약간 증가했다 크게 감소(2010년에 비해 4%p 감소)하였으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52.4%, 2011년 55.5%, 2012년 55.9%로 3.5%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46.5%, 2011년 54.5%, 2012년 48.7%로 증가했다 약간 감소(2010년에 비해 2.1%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광역시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댓글달기



【그림 II-1-44】 초4 패널- 댓글 달기(소득별)

표 II-1-49 초4 패널- 댓글 달기(소득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149 | 99 | 110 | 99 | 85 | 72 | 107 | 131 | 135 | 82 | 90 | 77 | 437 | 405 | 394 |
| | % | 34.1 | 24.4 | 27.9 | 22.7 | 21.0 | 18.3 | 24.5 | 32.3 | 34.3 | 18.8 | 22.2 | 19.5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370 | 333 | 343 | 316 | 259 | 278 | 420 | 398 | 373 | 278 | 319 | 257 | 1384 | 1309 | 1251 |
| | % | 26.7 | 25.4 | 27.4 | 22.8 | 19.8 | 22.2 | 30.3 | 30.4 | 29.8 | 20.1 | 24.4 | 20.5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90 | 74 | 83 | 69 | 58 | 69 | 108 | 108 | 81 | 62 | 76 | 54 | 329 | 316 | 287 |
| | % | 27.4 | 23.4 | 28.9 | 21.0 | 18.4 | 24.0 | 32.8 | 34.2 | 28.2 | 18.8 | 24.1 | 18.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09 | 506 | 536 | 484 | 402 | 419 | 635 | 637 | 589 | 422 | 485 | 388 | 2150 | 2030 | 1932 |
| | % | 28.3 | 24.9 | 27.7 | 22.5 | 19.8 | 21.7 | 29.5 | 31.4 | 30.5 | 19.6 | 23.9 | 20.1 | 100 | 100 | 100 |

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사용이 서울지역이나 거주하는 초등학생에 비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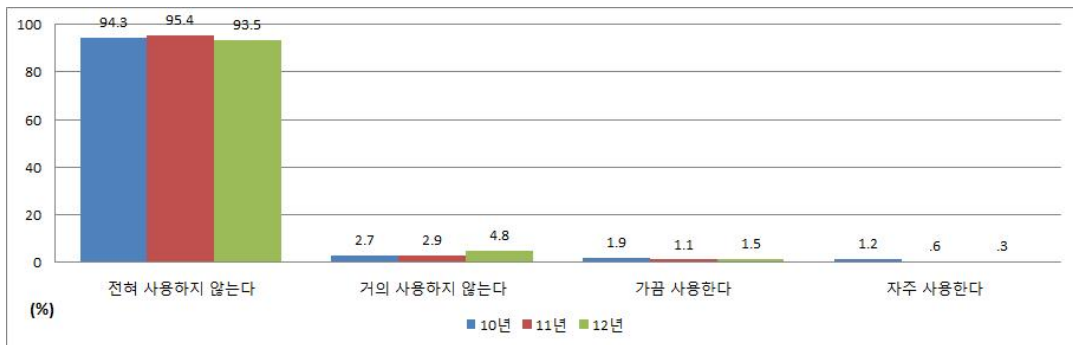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댓글 달기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과 관계없이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저소득층 34.3%, 중산층 29.8%, 고소득층 34.2%)<표 II-1-48>.

댓글 달기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43.2%, 2011년 54.6%, 2012년 53.8%로 10.6%p 증가하였으나,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50.4%, 2011년 54.8%, 2012년 50.4%로 증가했다 감소하였으며(2010년과 동일),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51.7%, 2011년 58.2%, 2012년 47%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다(2010년에 비해 4.6%p 감소). 학년이 높아질수록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댓글달기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사용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증가하였다.

⑩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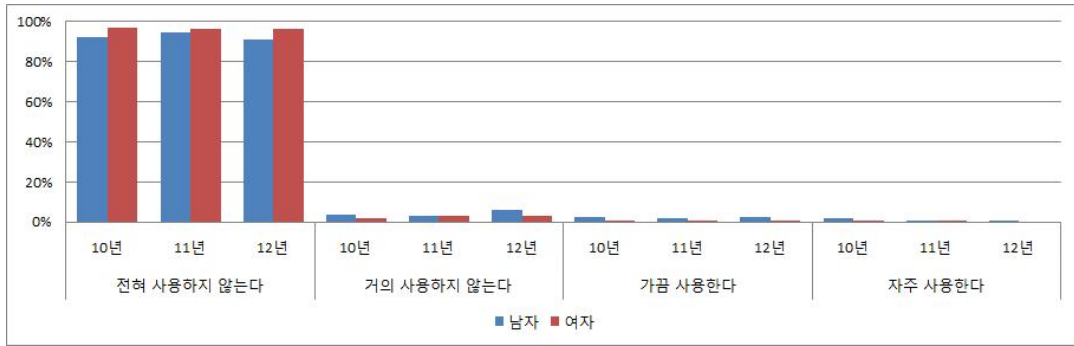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149>.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3% 2011년 1.7% 2012년 1.7%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II-1-45】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표 II-1-50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 항목 | 2010년 | | 2011년 | | 2012년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2154 | 94.3 | 2061 | 95.4 | 1924 | 93.5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62 | 2.7 | 63 | 2.9 | 98 | 4.8 |
| 가끔 사용한다 | 43 | 1.9 | 25 | 1.1 | 30 | 1.5 |
| 자주 사용한다 | 27 | 1.2 | 13 | 0.6 | 5 | 0.3 |
| 합계 | 2285 | 100 | 2161 | 100 | 2058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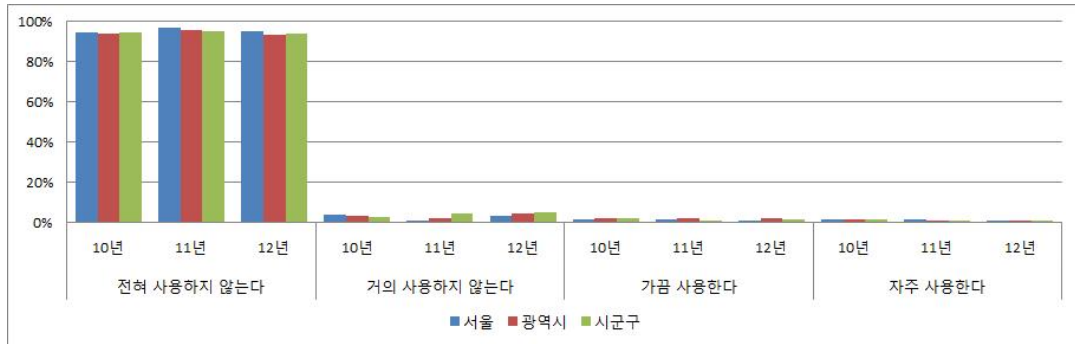
【그림 II-1-46】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성별)

표 II-1-51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성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남자 | N | 1113 | 1085 | 1003 | 41 | 33 | 67 | 32 | 21 | 24 | 23 | 8 | 5 | 1209 | 1147 | 1099 |
| | % | 92.1 | 94.6 | 91.3 | 3.4 | 2.9 | 6.1 | 2.6 | 1.8 | 2.2 | 1.9 | 0.7 | 0.5 | 100 | 100 | 100 |
| 여자 | N | 1041 | 976 | 921 | 21 | 30 | 31 | 10 | 3 | 6 | 4 | 5 | 0 | 1076 | 1014 | 958 |
| | % | 96.7 | 96.3 | 96.1 | 2.0 | 3.0 | 3.2 | 0.9 | 0.3 | 0.6 | 0.4 | 0.5 | 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154 | 2061 | 1924 | 62 | 63 | 98 | 42 | 24 | 30 | 27 | 13 | 5 | 2285 | 2161 | 2057 |
| | % | 94.3 | 95.4 | 93.5 | 2.7 | 2.9 | 4.8 | 1.8 | 1.1 | 1.5 | 1.2 | 0.6 | 0.2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남 91.3%, 여 96.1%) <표 II-1-51>.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남학생은 2010년 4.5%, 2011년 2.5%, 2012년 2.6%로 1.9%p 감소하였으며, 2010년 1.3%, 2011년 0.8%, 2012년 0.6%로 0.7%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학생은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사용이 여학생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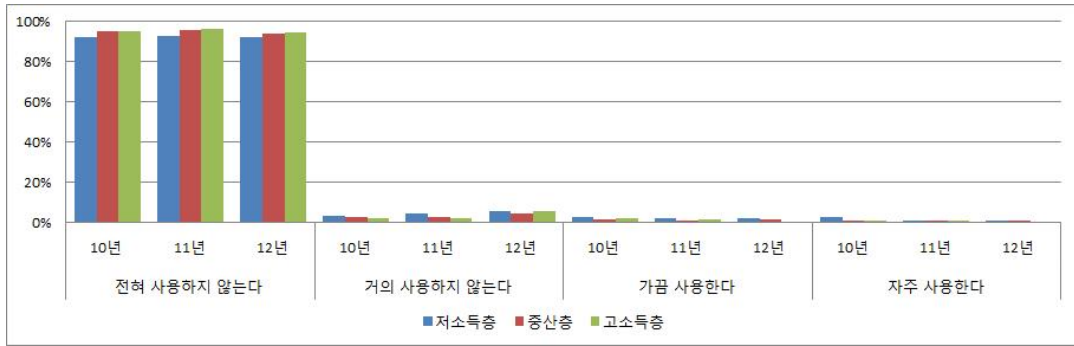
【그림 II-1-47】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지역별)

표 II-1-52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364 | 339 | 314 | 14 | 1 | 11 | 4 | 5 | 3 | 4 | 5 | 1 | 386 | 350 | 329 |
| | % | 94.3 | 96.9 | 95.4 | 3.6 | 0.3 | 3.3 | 1.0 | 1.4 | .9 | 1.0 | 1.4 | 0.3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565 | 529 | 504 | 18 | 9 | 23 | 10 | 10 | 9 | 7 | 3 | 2 | 600 | 551 | 538 |
| | % | 94.2 | 96.0 | 93.7 | 3.0 | 1.6 | 4.3 | 1.7 | 1.8 | 1.7 | 1.2 | 0.5 | 0.4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1225 | 1146 | 1062 | 29 | 51 | 53 | 28 | 7 | 14 | 15 | 4 | 2 | 1297 | 1208 | 1131 |
| | % | 94.4 | 94.9 | 93.9 | 2.2 | 4.2 | 4.7 | 2.2 | 0.6 | 1.2 | 1.2 | 0.3 | 0.2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154 | 2014 | 1880 | 61 | 61 | 87 | 42 | 22 | 26 | 26 | 12 | 5 | 2283 | 2109 | 1998 |
| | % | 94.3 | 95.5 | 94.1 | 2.7 | 2.9 | 4.4 | 1.8 | 1.0 | 1.3 | 1.1 | 0.6 | 0.3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서울 95.4%, 광역시 93.7%, 시군구 93.9%)<표 II-1-52>.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2.1%, 2011년 2.9%, 2012년 1.2%로 약간 증가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2010년 대비 0.9%p 감소),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2.8%, 2011년 2.4%, 2012년 2%로 점차 감소(2010년 대비 0.8%p 감소)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3.3%, 2011년 0.9%, 2012년 1.4%로 크게 감소했다가 약간 증가했다(2010년 대비 1.9%p 감소).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사용이 서울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그림 II-1-48】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소득별)

표 II-1-53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소득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402 | 376 | 359 | 14 | 16 | 21 | 11 | 8 | 7 | 10 | 4 | 3 | 437 | 404 | 390 |
| | % | 92.0 | 93.1 | 92.1 | 3.2 | 4.0 | 5.4 | 2.5 | 2.0 | 1.8 | 2.3 | 1.0 | 0.8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1320 | 1256 | 1178 | 33 | 35 | 53 | 20 | 11 | 18 | 11 | 8 | 3 | 1384 | 1310 | 1252 |
| | % | 95.4 | 95.9 | 94.1 | 2.4 | 2.7 | 4.2 | 1.4 | 0.8 | 1.4 | 0.8 | 0.6 | 0.2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313 | 305 | 271 | 6 | 6 | 16 | 6 | 4 | 0 | 3 | 1 | 0 | 328 | 316 | 287 |
| | % | 95.4 | 96.5 | 94.4 | 1.8 | 1.9 | 5.6 | 1.8 | 1.3 | 0.0 | 0.9 | 0.3 | 0.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035 | 1937 | 1808 | 53 | 57 | 90 | 37 | 23 | 25 | 24 | 13 | 6 | 2149 | 2030 | 1929 |
| | % | 94.7 | 95.4 | 93.7 | 2.5 | 2.8 | 4.7 | 1.7 | 1.1 | 1.3 | 1.1 | 0.6 | 0.3 | 100 | 100 | 100 |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였다.

소득에 따라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과 관계없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저소득 92.1%, 중산층 94.1%, 고소득층 96.5%)<표 II-1-53>.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4.8%, 2011년 3%, 2012년 2.6%로 2.2%p 감소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2.2%, 2011년 1.5%, 2012년 1.7%로 0.6%p 감소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2.7%, 2011년 1.6%, 2012년 0%로 2.7%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의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사용이 중산층인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였다.

2.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1 패널의 3년간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시간), 어느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에서 얼마나 자주 컴퓨터를 사용하는지(컴퓨터 사용 빈도)를 묻는 문항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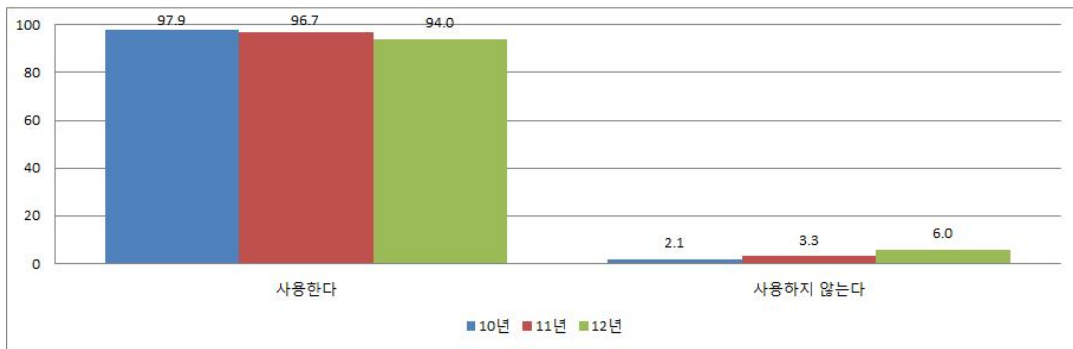
컴퓨터 사용 빈도를 묻는 문항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컴퓨터 사용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 문항은 ①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②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 ③ 게임 및 오락, ④ 채팅이나 메신저, ⑤ 전자우편(e-mail), ⑥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⑦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⑧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⑨ 댓글 달기, ⑩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으로 총 10개 문항이며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중학생의 컴퓨터 보유여부, 사용시간 및 장소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학생의 컴퓨터 보유 여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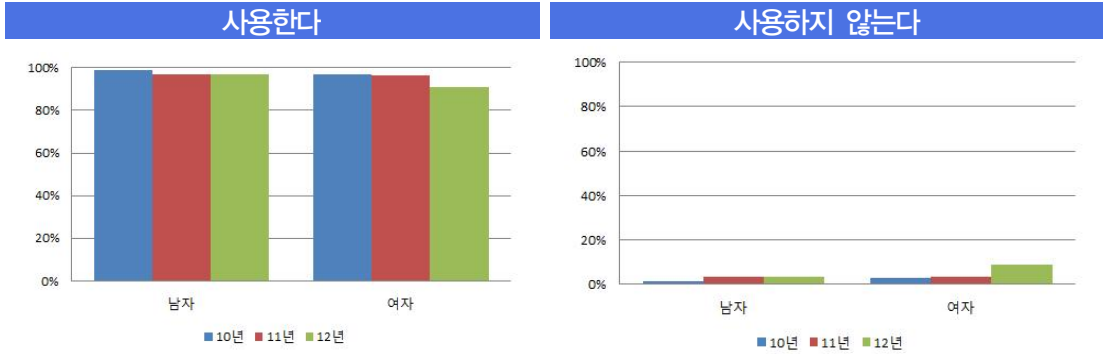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중학생의 비율은 중학교 1학년(2010년) 97.9%, 중학교 2학년(2011년) 96.37%, 중학교 3학년(2012년) 94%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



【그림 II-2-1】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

표 II-2-1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사용한다 | 2302 | 97.9 | 2205 | 96.7 | 2123 | 94.0 |
| 사용하지 않는다 | 49 | 2.1 | 75 | 3.3 | 136 | 6.0 |
| 합계 | 2351 | 100 | 2280 | 100 | 2259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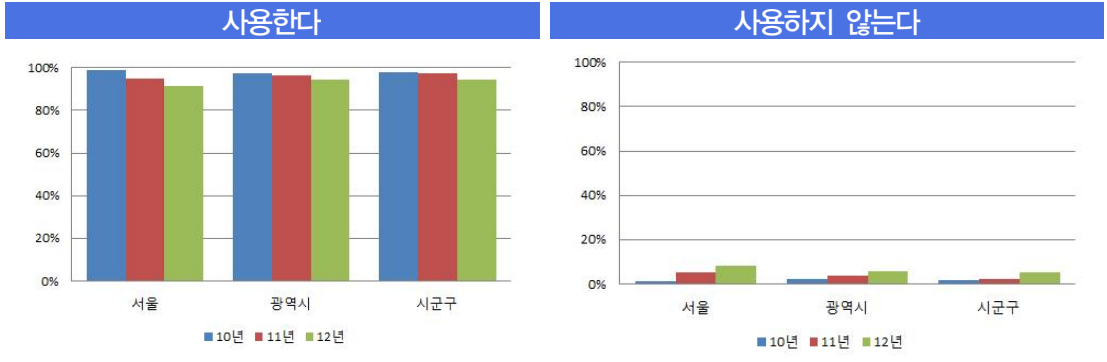


【그림 II-2-2】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성별)

표 II-2-2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성별)

| 항목 | 사용한다 | | | 사용하지 않는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남자 | 사례수 | 1201 | 1147 | 1103 | 14 | 38 | 37 | 1215 | 1185 | 1140 |
| | 비율 | 98.8 | 96.8 | 96.8 | 1.2 | 3.2 | 3.2 | 100 | 100 | 100 |
| 여자 | 사례수 | 1101 | 1058 | 1020 | 35 | 37 | 99 | 1136 | 1095 | 1119 |
| | 비율 | 96.9 | 96.6 | 91.2 | 3.1 | 3.4 | 8.8 | 100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2302 | 2205 | 2123 | 49 | 75 | 136 | 2351 | 2280 | 2259 |
| | 비율 | 97.9 | 96.7 | 94.0 | 2.1 | 3.3 | 6.0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컴퓨터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남학생(2012년 96.8%)이 여학생(2012년 91.2%)에 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표 II-2-2>. 또한 2010년에 비해 2012년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은 1.2%에서 3.2%로 2.1%p 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3.1%에서 8.8%로 5.8%p 증가해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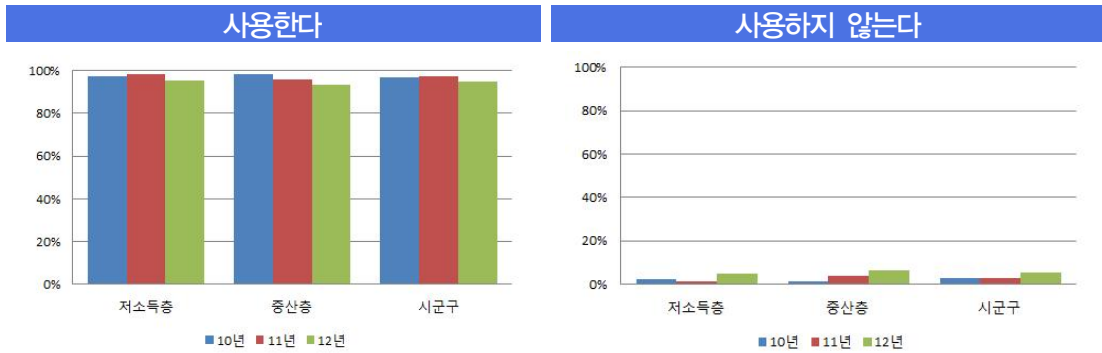


【그림 II-2-3】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지역별)

표 II-2-3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지역별)

| 항목 | 사용한다 | | | 사용하지 않는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서울 | 사례수 | 403 | 356 | 183 | 5 | 20 | 17 | 408 | 376 | 200 |
| | 비율 | 98.8 | 94.7 | 91.5 | 1.2 | 5.3 | 8.5 | 100 | 100 | 100 |
| 광역시 | 사례수 | 610 | 570 | 676 | 16 | 22 | 40 | 626 | 592 | 716 |
| | 비율 | 97.4 | 96.3 | 94.4 | 2.6 | 3.7 | 5.6 | 100 | 100 | 100 |
| 시군구 | 사례수 | 1290 | 1179 | 1212 | 27 | 31 | 70 | 1317 | 1210 | 1282 |
| | 비율 | 97.9 | 97.4 | 94.5 | 2.1 | 2.6 | 5.5 | 100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2303 | 2105 | 2071 | 48 | 73 | 127 | 2351 | 2178 | 2198 |
| | 비율 | 98.0 | 96.6 | 94.2 | 2.0 | 3.4 | 5.8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컴퓨터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광역시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2012년 광역시 94.3%, 시군구 94.5%)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2012년 91.5%)에 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표 II-2-3>. 또한 2010년에 비해 2012년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1.2%에서 8.5%로 7.3%p 증가한 반면,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6%에서 5.6%로 3%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1%에서 5.5%로 3.4%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광역시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4】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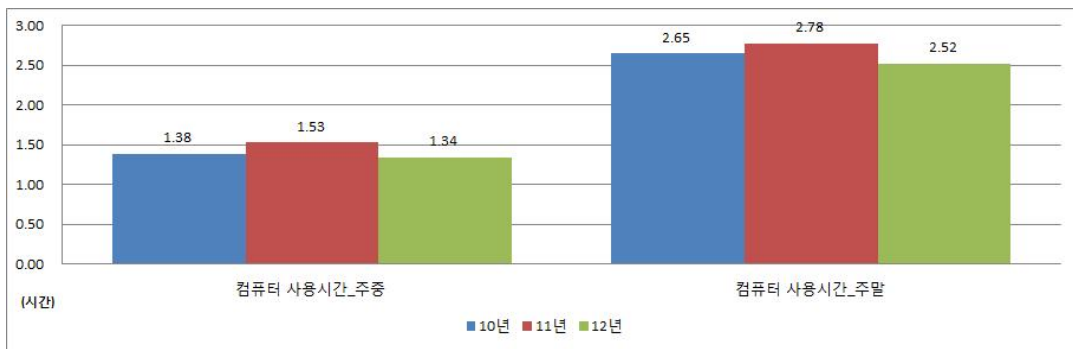
표 II-2-4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소득별)

| 항목 | 사용한다 | | | 사용하지 않는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저소득층 | 사례수 | 425 | 412 | 428 | 11 | 6 | 21 | 436 | 418 | 449 |
| | 비율 | 97.5 | 98.6 | 95.3 | 2.5 | 1.4 | 4.7 | 100 | 100 | 100 |
| 중산층 | 사례수 | 1354 | 1284 | 1236 | 21 | 54 | 86 | 1375 | 1338 | 1322 |
| | 비율 | 98.5 | 96.0 | 93.5 | 1.5 | 4.0 | 6.5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사례수 | 390 | 383 | 348 | 12 | 11 | 19 | 402 | 394 | 367 |
| | 비율 | 97.0 | 97.2 | 94.8 | 3.0 | 2.8 | 5.2 | 100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2169 | 2079 | 2012 | 44 | 71 | 126 | 2213 | 2150 | 2138 |
| | 비율 | 98.0 | 96.7 | 94.1 | 2.0 | 3.3 | 5.9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컴퓨터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2010년 95.3%)이 고소득층 및 중산층인 중학생에 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2012년 중산층 93.5%, 고소득층 94.8%)<표 II-2-4>. 또한 2010년에 비해 2012년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5%에서 4.7%로 2.2%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1.5%에서 6.5%로 5%p 증가하였고,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3%에서 5.2%로 2.2%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인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의 변화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주중(평균 1.34시간)보다 주말(평균 2.52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5>.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2010년 주중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은 1.38시간이었으며, 2011년에는 1.53시간, 2012년에는 1.34시간으로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은 중학교 2학년에 가장 길고 중학교 3학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말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 역시 2010년에는 2.65시간, 2011년에는 2.78시간, 2012년에는 2.52시간으로 중학교 2학년에 가장 길고 중학교 3학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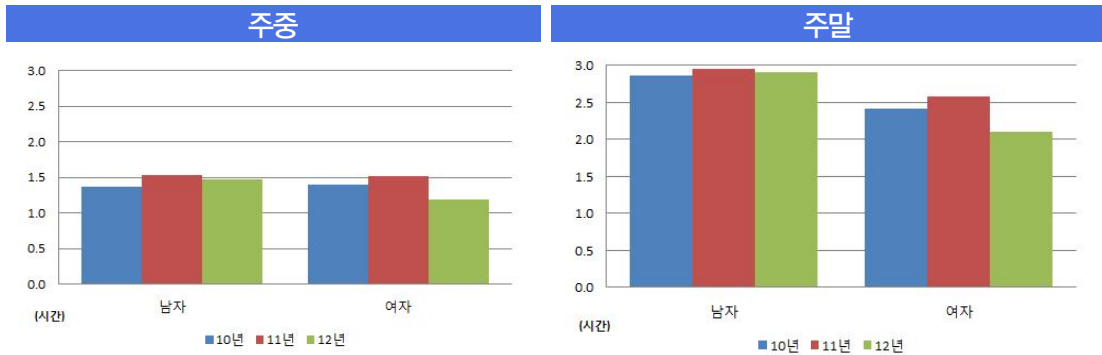
【그림 II-2-5】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

표 II-2-5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

| 항목 | 2010년(중1) | | | 2011년(중2) | | | 2012년(중3)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 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 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 편차 |
| 주중 | 2302 | 1.38 | 1.18 | 2201 | 1.53 | 1.07 | 2119 | 1.34 | 1.08 |
| 주말 | 2298 | 2.65 | 1.73 | 2200 | 2.78 | 1.68 | 2119 | 2.52 | 1.65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2012년 남학생의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은 주중 평균 1.48시간, 주말 평균 2.90시간으로 여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주중 평균 1.19시간, 주말 평균 2.10시간에 비해 더 길게 나타났다<표 II-2-6>.

또한 남학생의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 평균은 2010년 1.37시간에서 2012년 1.48시간으로 0.11시간 증가했으며 여학생의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 평균은 2010년 1.40시간에서 2012년 1.19시간으로 0.21시간 증가해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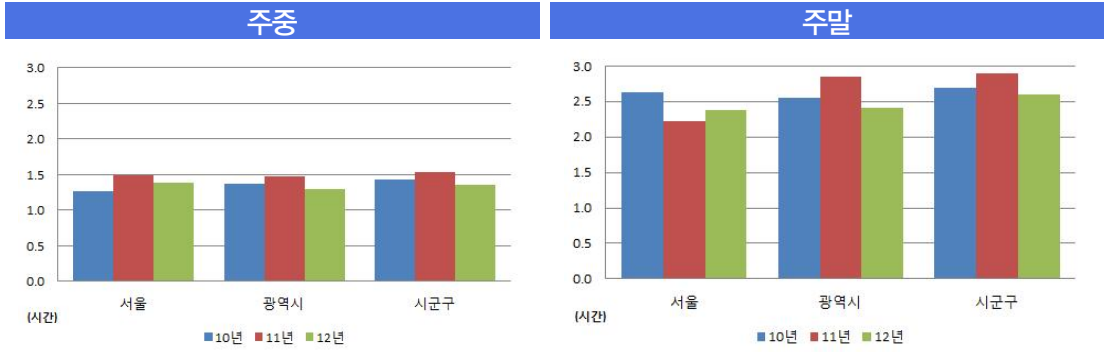
【그림 II-2-6】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성별)

표 II-2-6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성별)

| 항목 | 주중 | | | 주말 | | | |
|----|---------|---------|---------|---------|---------|---------|------|
| | 10년(중1) | 11년(중2) | 12년(중3) | 10년(중1) | 11년(중2) | 12년(중3) | |
| 남자 | 평균 | 1.37 | 1.53 | 1.48 | 2.86 | 2.96 | 2.90 |
| | 표준편차 | 1.19 | 1.12 | 1.11 | 1.73 | 1.74 | 1.73 |
| | 사례수 | 1201 | 1145 | 1102 | 1198 | 1146 | 1102 |
| 여자 | 평균 | 1.40 | 1.52 | 1.19 | 2.42 | 2.58 | 2.10 |
| | 표준편차 | 1.17 | 1.03 | 1.02 | 1.71 | 1.59 | 1.47 |
| | 사례수 | 1101 | 1056 | 1017 | 1100 | 1055 | 1017 |
| 합계 | 평균 | 1.38 | 1.53 | 1.34 | 2.65 | 2.78 | 2.52 |
| | 표준편차 | 1.18 | 1.07 | 1.08 | 1.73 | 1.68 | 1.65 |
| | 사례수 | 2302 | 2201 | 2119 | 2298 | 2200 | 2119 |

나타났다.

남학생의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 평균은 2010년 2.86시간에서 2011년 2.96시간, 2012년 2.90시간으로 2010년 대비 0.4시간 증가했다. 여학생은 2010년 2.42시간, 2011년 2.58시간, 2012년 2.10시간으로 2010년 대비 0.32시간 감소했다. 남녀 모두 중학교 2학년이 가장 컴퓨터를 오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중학교 1학년이, 여자는 중학교 3학년이 가장 컴퓨터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7】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지역별)

표 II-2-7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지역별)

| 항목 | 주중 | | | 주말 | | | |
|-----|---------|---------|---------|---------|---------|---------|------|
| | 10년(중1) | 11년(중2) | 12년(중3) | 10년(중1) | 11년(중2) | 12년(중3) | |
| 서울시 | 평균 | 1.27 | 1.48 | 1.39 | 2.63 | 2.23 | 2.39 |
| | 표준편차 | 1.23 | 1.04 | 1.19 | 1.97 | 1.34 | 1.99 |
| | 사례수 | 403 | 356 | 183 | 400 | 356 | 183 |
| 광역시 | 평균 | 1.37 | 1.47 | 1.29 | 2.55 | 2.86 | 2.42 |
| | 표준편차 | 1.16 | 0.98 | 0.98 | 1.62 | 1.72 | 1.54 |
| | 사례수 | 610 | 569 | 676 | 610 | 569 | 676 |
| 시군구 | 평균 | 1.43 | 1.53 | 1.36 | 2.70 | 2.90 | 2.61 |
| | 표준편차 | 1.17 | 1.10 | 1.11 | 1.71 | 1.70 | 1.67 |
| | 사례수 | 1289 | 1178 | 1209 | 1288 | 1175 | 1209 |
| 합계 | 평균 | 1.38 | 1.51 | 1.34 | 2.65 | 2.78 | 2.53 |
| | 표준편차 | 1.18 | 1.06 | 1.08 | 1.73 | 1.67 | 1.66 |
| | 사례수 | 2302 | 2103 | 2068 | 2298 | 2101 | 2068 |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2012년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주중 평균 1.39시간, 주말 평균 2.39시간이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주중 평균 1.29시간, 주말 평균 2.42시간이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주중 평균 1.36시간, 주말 2.61시간으로 광역시와 시군구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서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II-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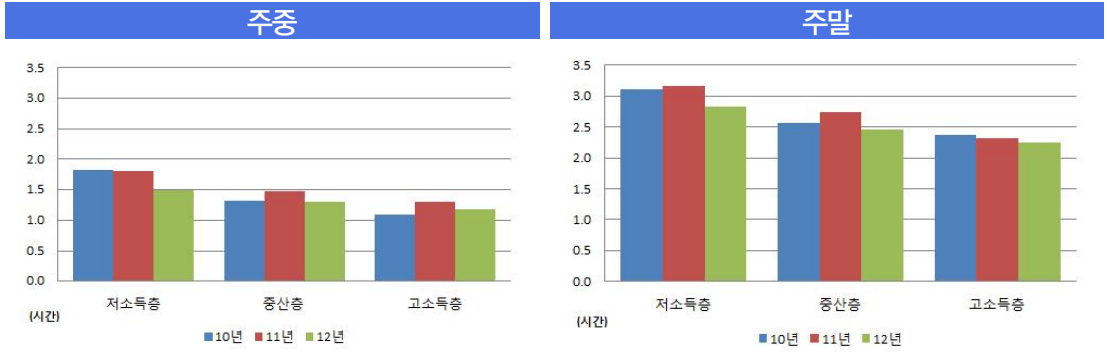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은 지역에 따라 연도별 변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은 2010년 1.27시간, 2011년 1.48시간, 2012년 1.39시간으로 중학교 2학년이 가장 길고 중학교 1학년이 가장 짧았으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2010년 1.37시간, 2011년 1.47시간, 2012년 1.29시간)과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2010년 1.43시간, 2011년 1.53시간, 2012년 1.36시간)은 중학교 2학년이 가장 길고 중학교 3학년이 가장 짧았다.

반면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도 지역에 따라 연도별로 변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2.63시간, 2011년 2.23시간, 2012년 2.39시간으로 중학교 1학년이 가장 길고 중학교 2학년이 가장 짧은 반면,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2.55시간, 2011년 2.86시간, 2012년 2.42시간으로 중학교 2학년이 가장 길고 중학교 3학년이 가장 짧았다. 또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 역시 2010년 2.70시간, 2011년 2.90시간, 2012년 2.61시간으로 중학교 2학년이 가장 길고 중학교 3학년이 가장 짧았다.

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2012년 저소득층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주중 평균 1.50시간, 주말 평균 2.39시간이며, 중산층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주중 평균 1.29시간, 주말 평균 2.46시간이고, 고소득층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주중 평균 1.18시간, 주말 2.24시간으로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은 저소득층 중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은 중산층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2-8>.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비슷한 변화양상이 보였다. 저소득층 중학생의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은 2010년 1.82시간, 2011년 1.81시간, 2012년 1.50시간이고, 중산층 중학생은 2010년 1.31시간, 2011년 1.47시간, 2012년 1.29시간이며, 고소득층 중학생은 2010년 1.09시간, 2011년 1.30시간, 2012년 1.18시간으로 중학교 2학년이 가장 길었으며, 중학교 3학년이 가장 짧았다.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도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과 동일한 변화양상을 보여 모든 소득계층에서 중학교 2학년에 컴퓨터 사용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중학교 3학년이 가장 짧았다.



【그림 II-2-8】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소득별)

표 II-2-8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소득별)

| 항목 | | 주중 | | | 주말 | | |
|------|------|---------|---------|---------|---------|---------|---------|
| | | 10년(중1) | 11년(중2) | 12년(중3) | 10년(중1) | 11년(중2) | 12년(중3) |
| 저소득층 | 평균 | 1.82 | 1.81 | 1.50 | 3.10 | 3.16 | 2.83 |
| | 표준편차 | 1.38 | 1.17 | 1.05 | 2.09 | 1.89 | 1.91 |
| | 사례수 | 424 | 412 | 425 | 423 | 411 | 425 |
| 중산층 | 평균 | 1.31 | 1.47 | 1.29 | 2.57 | 2.75 | 2.46 |
| | 표준편차 | 1.09 | 1.05 | 1.08 | 1.62 | 1.64 | 1.56 |
| | 사례수 | 1354 | 1282 | 1235 | 1352 | 1280 | 1235 |
| 고소득층 | 평균 | 1.09 | 1.30 | 1.18 | 2.36 | 2.32 | 2.24 |
| | 표준편차 | 1.04 | 0.88 | 1.02 | 1.59 | 1.34 | 1.60 |
| | 사례수 | 390 | 383 | 348 | 390 | 383 | 348 |
| 합계 | 평균 | 1.37 | 1.51 | 1.32 | 2.63 | 2.75 | 2.50 |
| | 표준편차 | 1.17 | 1.06 | 1.07 | 1.73 | 1.66 | 1.66 |
| | 사례수 | 2168 | 2077 | 2008 | 2165 | 2075 | 2008 |

(3)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 장소의 변화

중학생이 보고한 컴퓨터 사용 장소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은 주로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2012년 89.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9>. 그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학원 및 친구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II-2-9 중1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우리 집 | 2054 | 89.2 | 1984 | 90 | 1894 | 89.7 |
| 친구 집 | 16 | 0.7 | 10 | 0.5 | 6 | 0.3 |
| 학교 | 19 | 0.8 | 5 | 0.2 | 11 | 0.5 |
| 학원 | 19 | 0.8 | 4 | 0.2 | 2 | 0.1 |
| PC방 | 183 | 7.9 | 198 | 9.0 | 193 | 9.1 |
| 기타 | 12 | 0.5 | 2 | 0.1 | 6 | .3 |
| 합계 | 2302 | 100 | 2203 | 100 | 2112 | 100 |

표 II-2-10 중1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성별)

| 항목 | | 남자 | | | 여자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우리 집 | 사례수 | 998 | 951 | 934 | 1055 | 1033 | 960 | 2053 | 1984 | 1894 |
| | 비율 | 83.2 | 83.1 | 82.9 | 95.8 | 97.5 | 97.3 | 89.3 | 90 | 89.6 |
| 친구 집 | 사례수 | 8 | 5 | 2 | 8 | 5 | 3 | 16 | 10 | 5 |
| | 비율 | 0.7 | 0.4 | 0.2 | 0.7 | 0.5 | 0.3 | 0.7 | 0.5 | 0.2 |
| 학교 | 사례수 | 9 | 4 | 4 | 10 | 1 | 8 | 19 | 5 | 12 |
| | 비율 | 0.8 | 0.3 | 0.4 | 0.9 | 0.1 | 0.8 | 0.8 | 0.2 | 0.6 |
| 학원 | 사례수 | 12 | 1 | 0 | 6 | 3 | 2 | 18 | 4 | 2 |
| | 비율 | 1.0 | 0.1 | 0 | 0.5 | 0.3 | 0.2 | 0.8 | 0.2 | 0.1 |
| PC방 | 사례수 | 166 | 183 | 185 | 17 | 15 | 8 | 183 | 198 | 193 |
| | 비율 | 13.8 | 16.0 | 16.4 | 1.5 | 1.4 | 0.8 | 8.0 | 9.0 | 9.1 |
| 기타 | 사례수 | 6 | 1 | 1 | 5 | 2 | 6 | 11 | 3 | 7 |
| | 비율 | 0.5 | 0.1 | 0.1 | 0.5 | 0.2 | 0.6 | 0.5 | 0.1 | 0.3 |
| 전체 | 사례수 | 1199 | 1145 | 1126 | 1101 | 1059 | 987 | 2300 | 2204 | 2113 |
| | 비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른 컴퓨터 사용 장소 변화를 살펴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우리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2012년 남 82.9%, 여 97.5%)<표 II-2-10>.

또한 남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리 집보다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증가하였고 여학생은 그 반대로 PC방보다 우리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II-2-11 중1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지역별)

| 항목 | | 서울 | | | 광역시 | | | 시군구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우리 집 | 사례수 | 365 | 302 | 297 | 549 | 519 | 490 | 1139 | 1077 | 1035 | 2053 | 1898 | 1822 |
| | 비율 | 90.8 | 85.1 | 89.2 | 90.1 | 90.9 | 87.5 | 88.3 | 91.2 | 90.8 | 89.2 | 90.1 | 89.6 |
| 친구 집 | 사례수 | 2 | 5 | 2 | 2 | 2 | 2 | 12 | 2 | 1 | 16 | 9 | 5 |
| | 비율 | 0.5 | 1.4 | 0.6 | 0.3 | 0.4 | 0.4 | 0.9 | 0.2 | 0.1 | 0.7 | 0.4 | 0.2 |
| 학교 | 사례수 | 3 | 0 | 0 | 6 | 1 | 5 | 10 | 4 | 6 | 19 | 5 | 11 |
| | 비율 | 0.7 | 0 | 0 | 1.0 | 0.2 | 0.9 | 0.8 | 0.3 | 0.5 | 0.8 | 0.2 | 0.5 |
| 학원 | 사례수 | 2 | 0 | 0 | 1 | 1 | 2 | 16 | 3 | 0 | 19 | 4 | 2 |
| | 비율 | 0.5 | 0 | 0 | 0.2 | 0.2 | 0.4 | 1.2 | 0.3 | 0 | 0.8 | 0.2 | 0.1 |
| PC방 | 사례수 | 25 | 48 | 33 | 50 | 47 | 61 | 108 | 93 | 93 | 183 | 188 | 187 |
| | 비율 | 6.2 | 13.5 | 9.9 | 8.2 | 8.2 | 10.9 | 8.4 | 7.9 | 8.2 | 8.0 | 8.9 | 9.2 |
| 기타 | 사례수 | 5 | 0 | 1 | 1 | 1 | 0 | 5 | 2 | 5 | 11 | 3 | 6 |
| | 비율 | 1.2 | 0 | 0.3 | 0.2 | 0.2 | 0 | 0.4 | 0.2 | 0.4 | 0.5 | 0.1 | 0.3 |
| 전체 | 사례수 | 402 | 355 | 333 | 609 | 571 | 560 | 1290 | 1181 | 1140 | 2301 | 2107 | 2033 |
| | 비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른 컴퓨터 사용 장소 변화를 살펴보면 지역에 관계없이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지역에서 우리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시군구, 광역시, 서울 순이었다(2012년 시군구 90.8%, 광역시 87.5%, 서울 89.2%)<표 II-2-11>.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중학교 2학년(13.5%)에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광역시는 중학교 3학년(10.9%), 시군구는 중학교 1학년(8.4%)이 가장 높았다.

표 II-2-12 중1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소득별)

| 항목 | | 저소득층 | | | 중산층 | | | 고소득층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우리 집 | 사례수 | 375 | 375 | 362 | 1210 | 1154 | 1110 | 350 | 341 | 323 | 1935 | 1870 | 1795 |
| | 비율 | 88.2 | 90.8 | 91.2 | 89.3 | 90 | 89.6 | 89.7 | 88.8 | 89.2 | 89.2 | 89.9 | 89.8 |
| 친구 집 | 사례수 | 1 | 1 | 1 | 10 | 9 | 4 | 5 | 0 | 0 | 16 | 10 | 5 |
| | 비율 | 0.2 | 0.2 | 0.3 | 0.7 | 0.7 | 0.3 | 1.3 | 0 | 0 | 0.7 | 0.5 | 0.3 |
| 학교 | 사례수 | 1 | 1 | 3 | 9 | 4 | 7 | 8 | 0 | 1 | 18 | 5 | 11 |
| | 비율 | 0.2 | 0.2 | 0.8 | 0.7 | 0.3 | 0.6 | 2.1 | 0 | 0.3 | 0.8 | 0.2 | 0.6 |
| 학원 | 사례수 | 4 | 0 | 0 | 10 | 3 | 0 | 2 | 1 | 2 | 16 | 4 | 2 |
| | 비율 | 0.9 | 0 | 0 | 0.7 | 0.2 | 0 | 0.5 | 0.3 | 0.6 | 0.7 | 0.2 | 0.1 |
| PC방 | 사례수 | 41 | 35 | 28 | 109 | 110 | 116 | 23 | 42 | 35 | 173 | 187 | 179 |
| | 비율 | 9.6 | 8.5 | 7.1 | 8.0 | 8.6 | 9.4 | 5.9 | 10.9 | 9.7 | 8.0 | 9.0 | 9.0 |
| 기타 | 사례수 | 3 | 1 | 3 | 7 | 2 | 2 | 2 | 0 | 1 | 12 | 3 | 6 |
| | 비율 | 0.7 | 0.2 | 0.8 | 0.5 | 0.2 | 0.2 | 0.5 | 0 | 0.3 | 0.6 | 0.1 | 0.3 |
| 전체 | 사례수 | 425 | 413 | 397 | 1355 | 1282 | 1239 | 390 | 384 | 362 | 2170 | 2079 | 1998 |
| | 비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른 컴퓨터 사용 장소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에 관계없이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소득 계층에서 우리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순이었다(2012년 시군구 91.2%, 광역시 89.6%, 서울 89.2%) <표 II-2-12>.

또한 저소득층 중학생은 중학교 1학년(9.6%)에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높았다(중산층 8.6%, 고소득층 10.9%).

2)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 형태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 형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0가지 항목을 '사용한다'와 '사용하지 않는다'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표 II-2-13>. 중학생들은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사용을 가장 많이 했으며,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가장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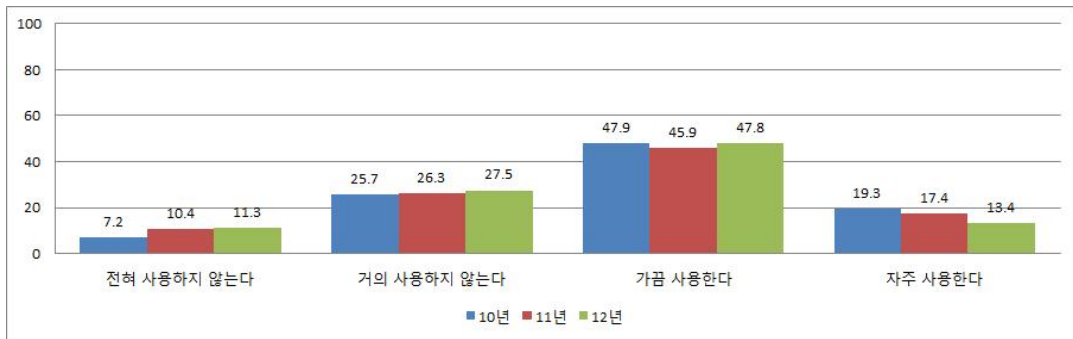
표 II-2-13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 형태 변화

| 항목 | | 사용한다 | | | 사용하지 않는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 N | 1545 | 1395 | 1295 | 757 | 810 | 822 | 2302 | 2205 | 2117 |
| | % | 67.1 | 63.3 | 61.2 | 32.9 | 36.7 | 38.8 | 100 | 100 | 100 |
|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 | N | 1974 | 1874 | 1758 | 329 | 331 | 358 | 2302 | 2205 | 2116 |
| | % | 85.7 | 85.0 | 83.1 | 14.3 | 15.0 | 16.9 | 100 | 100 | 100 |
| 게임 및 오락 | N | 1706 | 1646 | 1457 | 596 | 559 | 661 | 2302 | 2205 | 2117 |
| | % | 74.1 | 74.7 | 68.8 | 25.9 | 25.3 | 31.2 | 100 | 100 | 100 |
| 채팅이나 메신저 | N | 1085 | 1316 | 1080 | 1217 | 885 | 1036 | 2302 | 2201 | 2117 |
| | % | 47.1 | 59.8 | 51.0 | 52.9 | 40.2 | 49.0 | 100 | 100 | 100 |
| 전자우편(e-mail) | N | 633 | 774 | 650 | 1669 | 1431 | 1466 | 2302 | 2205 | 2116 |
| | % | 27.5 | 35.1 | 30.7 | 72.5 | 64.9 | 69.3 | 100 | 100 | 100 |
|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 N | 973 | 878 | 738 | 1330 | 1325 | 1379 | 2302 | 2203 | 2116 |
| | % | 42.2 | 39.9 | 34.9 | 57.8 | 60.1 | 65.1 | 100 | 100 | 100 |
|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 N | 1135 | 1133 | 678 | 1168 | 1069 | 1439 | 2302 | 2203 | 2117 |
| | % | 49.3 | 51.5 | 32.0 | 50.7 | 48.5 | 68.0 | 100 | 100 | 100 |
|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 N | 654 | 660 | 506 | 1648 | 1545 | 1612 | 2302 | 2205 | 2118 |
| | % | 28.4 | 29.9 | 23.9 | 71.6 | 70.1 | 76.1 | 100 | 100 | 100 |
| 댓글 달기 | N | 1152 | 1179 | 915 | 1151 | 1026 | 1204 | 2302 | 2205 | 2118 |
| | % | 50 | 53.5 | 43.2 | 50 | 46.5 | 56.8 | 100 | 100 | 100 |
|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 N | 110 | 185 | 233 | 2193 | 2020 | 1885 | 2302 | 2205 | 2117 |
| | % | 4.8 | 8.4 | 11.0 | 95.2 | 91.6 | 89.0 | 100 | 100 | 100 |

각 형태별 세부 분석은 다음과 같다.

①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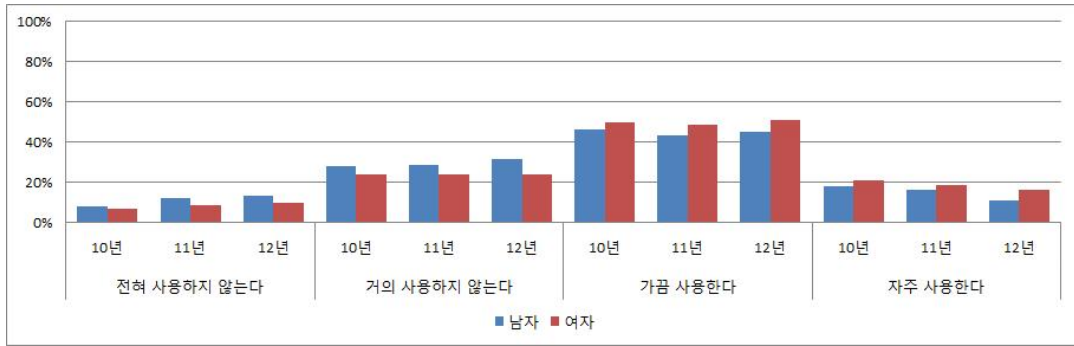
중학생이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14>. 2010년 67.1%, 2011년 63.3%, 2012년 61.2%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9】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표 II-2-14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65 | 7.2 | 230 | 10.4 | 239 | 11.3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592 | 25.7 | 580 | 26.3 | 584 | 27.5 |
| 가끔 사용한다 | 1102 | 47.9 | 1012 | 45.9 | 1014 | 47.8 |
| 자주 사용한다 | 443 | 19.3 | 383 | 17.4 | 285 | 13.4 |
| 합계 | 2302 | 100 | 2205 | 100 | 212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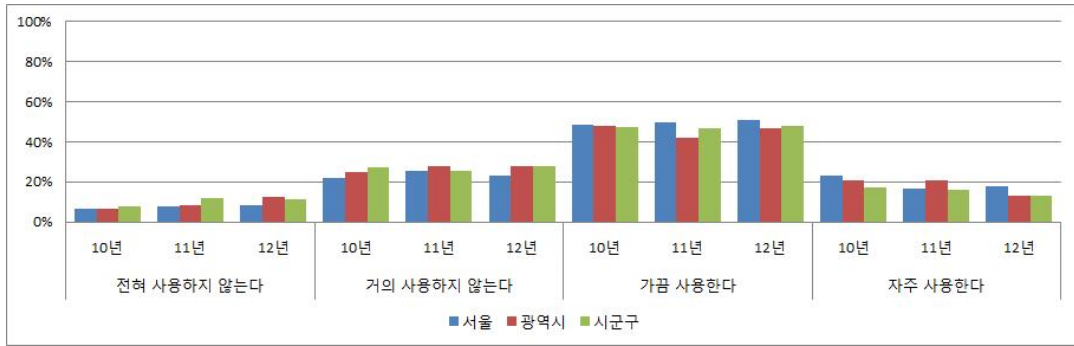
【그림 II-2-10】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성별)

표 II-2-15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93 | 139 | 144 | 333 | 327 | 343 | 557 | 495 | 494 | 217 | 186 | 121 | 1200 | 1147 | 1102 |
| | % | 7.8 | 12.1 | 13.1 | 27.8 | 28.5 | 31.1 | 46.4 | 43.2 | 44.8 | 18.1 | 16.2 | 11.0 | 100 | 100 | 100 |
| 여자 | N | 72 | 91 | 95 | 259 | 253 | 241 | 545 | 516 | 520 | 226 | 197 | 164 | 1102 | 1057 | 1020 |
| | % | 6.5 | 8.6 | 9.3 | 23.5 | 23.9 | 23.6 | 49.5 | 48.8 | 51.0 | 20.5 | 18.6 | 16.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65 | 230 | 239 | 592 | 580 | 584 | 1102 | 1011 | 1014 | 443 | 383 | 285 | 2302 | 2204 | 2122 |
| | % | 7.2 | 10.4 | 11.3 | 25.7 | 26.3 | 27.5 | 47.9 | 45.9 | 47.8 | 19.2 | 17.4 | 13.4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가끔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15>.

성별에 따라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남학생은 2010년64.5%, 2011년 59.4%, 2012년 55.8%,로 8.7%p 감소하였으며, 여학생 역시 2010년 70%, 2011년67.5%, 2012년 67.1%로 2.9%p 감소하였다.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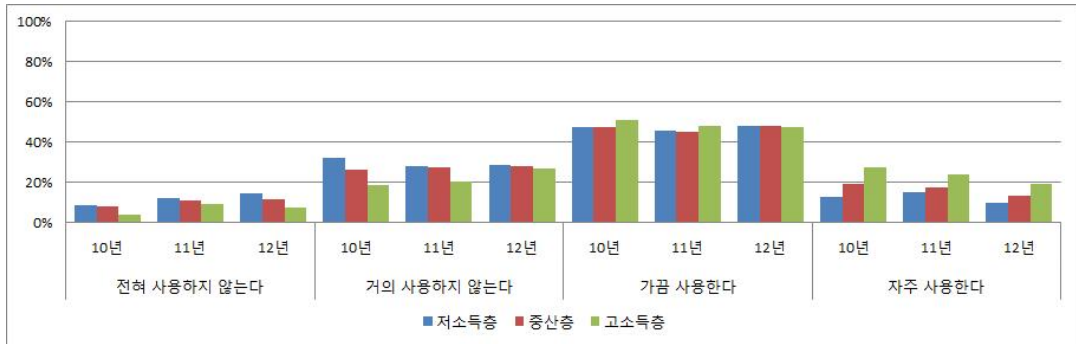
【그림 II-2-11】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지역별)

표 II-2-16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26 | 28 | 15 | 88 | 92 | 42 | 195 | 177 | 93 | 93 | 60 | 33 | 402 | 357 | 183 |
| | % | 6.5 | 7.8 | 8.2 | 21.9 | 25.8 | 23.0 | 48.5 | 49.6 | 50.8 | 23.1 | 16.8 | 18.0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40 | 49 | 84 | 150 | 160 | 190 | 292 | 241 | 315 | 127 | 120 | 87 | 609 | 570 | 676 |
| | % | 6.6 | 8.6 | 12.4 | 24.6 | 28.1 | 28.1 | 47.9 | 42.3 | 46.6 | 20.9 | 21.1 | 12.9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99 | 141 | 138 | 354 | 299 | 338 | 614 | 551 | 579 | 223 | 188 | 156 | 1290 | 1179 | 1211 |
| | % | 7.7 | 12.0 | 11.4 | 27.4 | 25.4 | 27.9 | 47.6 | 46.7 | 47.8 | 17.3 | 15.9 | 12.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65 | 218 | 237 | 592 | 551 | 570 | 1101 | 969 | 987 | 443 | 368 | 276 | 2301 | 2106 | 2070 |
| | % | 7.2 | 10.4 | 11.4 | 25.7 | 26.2 | 27.5 | 47.8 | 46.0 | 47.7 | 19.3 | 17.5 | 13.3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가끔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16>.

지역에 따라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71.6%, 2011년 66.4%, 2012년 68.9%로 2.8%p 감소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68.8%, 2011년 63.3%, 2012년 59.5%로 3%p 감소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64.9%, 2011년 62.7%, 2012년 60.7%로 4.2%p 감소하였다.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광역시나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림 II-2-12】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소득별)

표 II-2-17 중1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소득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35 | 49 | 61 | 136 | 115 | 121 | 200 | 187 | 206 | 54 | 61 | 40 | 425 | 412 | 428 |
| | % | 8.2 | 11.9 | 14.3 | 32.0 | 27.9 | 28.3 | 47.1 | 45.4 | 48.1 | 12.7 | 14.8 | 9.3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102 | 137 | 139 | 351 | 352 | 342 | 644 | 576 | 590 | 258 | 218 | 164 | 1355 | 1283 | 1235 |
| | % | 7.5 | 10.7 | 11.3 | 25.9 | 27.4 | 27.7 | 47.5 | 44.9 | 47.8 | 19.0 | 17.0 | 13.3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4 | 34 | 26 | 71 | 77 | 92 | 198 | 183 | 164 | 106 | 90 | 66 | 389 | 384 | 348 |
| | % | 3.6 | 8.9 | 7.5 | 18.3 | 20.1 | 26.4 | 50.9 | 47.7 | 47.1 | 27.2 | 23.4 | 19.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51 | 220 | 226 | 558 | 544 | 555 | 1042 | 946 | 960 | 418 | 369 | 270 | 2169 | 2079 | 2011 |
| | % | 7.0 | 10.6 | 11.2 | 25.7 | 26.2 | 27.6 | 48.0 | 45.5 | 47.7 | 19.3 | 17.7 | 13.4 | 100 | 100 | 100 |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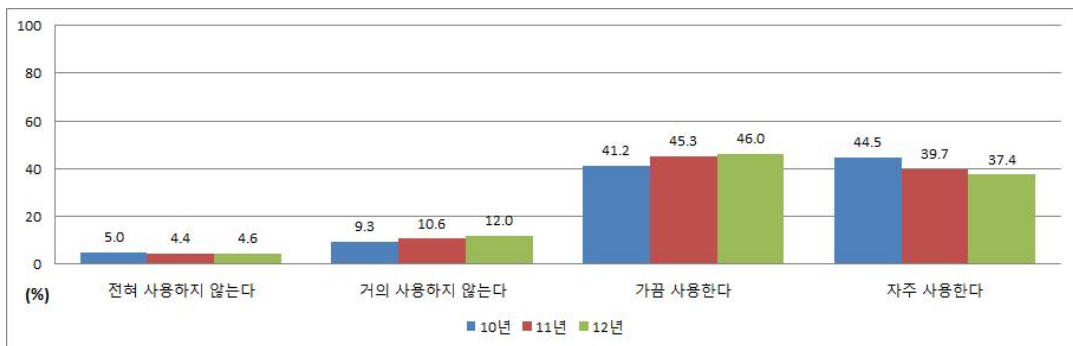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에 관계없이 가끔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17>.

소득에 따라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59.8%, 2011년 60.2%, 2012년 57.5%로 2.3%p 감소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66.6%, 2011년 61.9%, 2012년 61.1%로 5.5%p 감소하였고,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78.1%, 2011년 71.1%, 2012년 66.1%로 12.1%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소득층인 중학생의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인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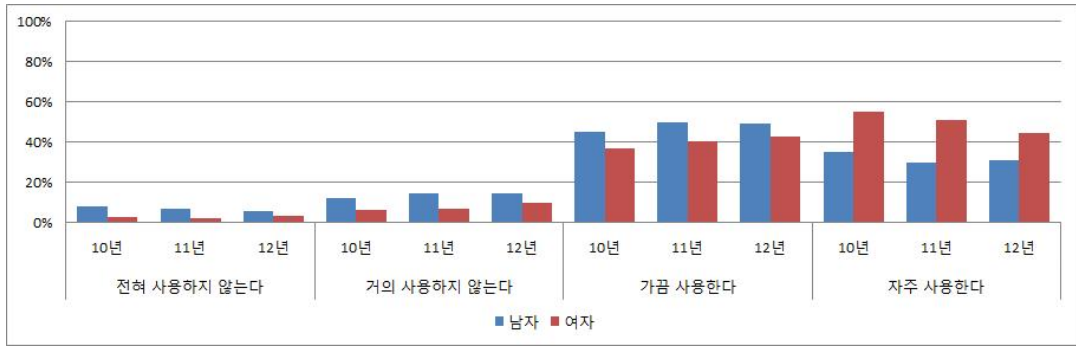
중학생이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2010년에는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2011년, 2012년에는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18>.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2010년 67.1%, 2011년 63.3%, 2012년 61.2%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13】 중1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

표 II-2-18 중1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15 | 5.0 | 98 | 4.4 | 97 | 4.6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214 | 9.3 | 233 | 10.6 | 255 | 12.0 |
| 가끔 사용한다 | 949 | 41.2 | 999 | 45.3 | 975 | 46.0 |
| 자주 사용한다 | 1025 | 44.5 | 875 | 39.7 | 794 | 37.4 |
| 합계 | 2302 | 100 | 2205 | 100 | 2121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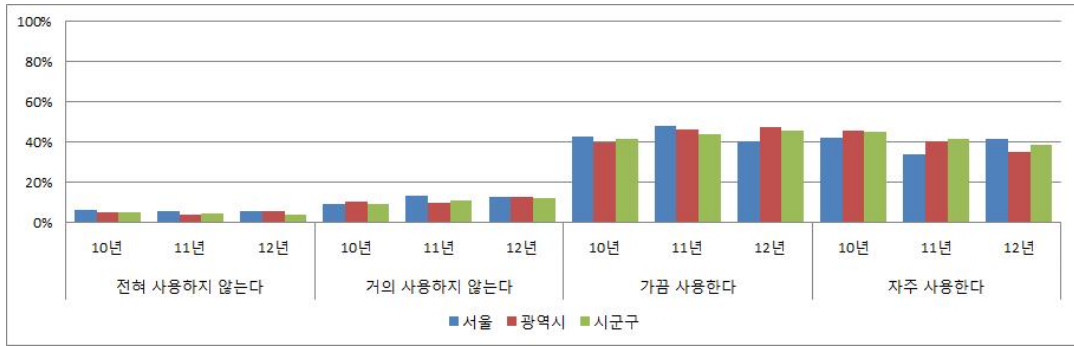
【그림 II-2-14】 중1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성별)

표 II-2-19 중1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90 | 75 | 63 | 146 | 164 | 157 | 543 | 570 | 541 | 421 | 338 | 341 | 1200 | 1147 | 1102 |
| | % | 7.5 | 6.5 | 5.7 | 12.2 | 14.3 | 14.2 | 45.3 | 49.7 | 49.1 | 35.1 | 29.5 | 30.9 | 100 | 100 | 100 |
| 여자 | N | 25 | 23 | 34 | 68 | 70 | 98 | 406 | 429 | 434 | 604 | 537 | 453 | 1103 | 1059 | 1019 |
| | % | 2.3 | 2.2 | 3.3 | 6.2 | 6.6 | 9.6 | 36.8 | 40.5 | 42.6 | 54.8 | 50.7 | 44.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15 | 98 | 97 | 214 | 234 | 255 | 949 | 999 | 975 | 1025 | 875 | 794 | 2303 | 2206 | 2121 |
| | % | 5.0 | 4.4 | 4.6 | 9.3 | 10.6 | 12.0 | 41.2 | 45.3 | 46.0 | 44.5 | 39.7 | 37.4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19>.

성별에 따라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남학생은 2010년 80.3%, 2011년 79.2%, 2012년 80%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2010년 91.6%, 2011년 91.2%, 2012년 87%로 4.5%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이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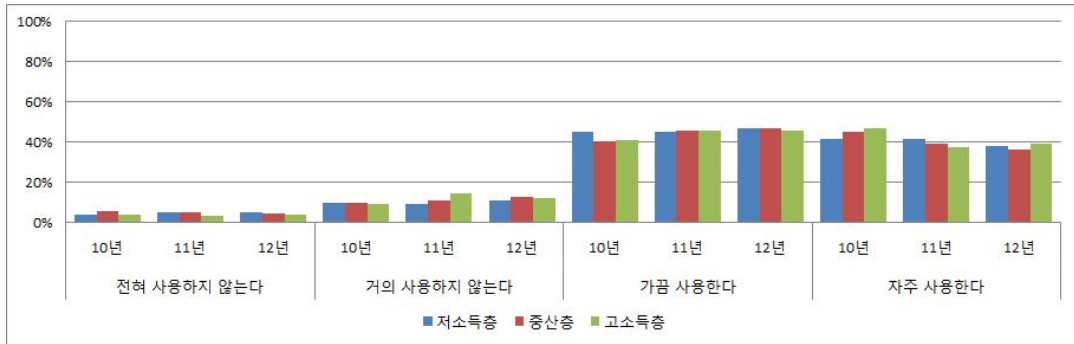
[그림 II-2-15] 중1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지역별)

표 II-2-20 중1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지역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서울 | N | 24 | 19 | 10 | 37 | 46 | 23 | 172 | 172 | 74 | 170 | 120 | 76 | 403 | 357 | 183 |
| | % | 6.0 | 5.3 | 5.5 | 9.2 | 12.9 | 12.6 | 42.7 | 48.2 | 40.4 | 42.2 | 33.6 | 41.5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28 | 22 | 37 | 63 | 53 | 84 | 241 | 264 | 318 | 278 | 230 | 236 | 610 | 569 | 675 |
| | % | 4.6 | 3.9 | 5.5 | 10.3 | 9.3 | 12.4 | 39.5 | 46.4 | 47.1 | 45.6 | 40.4 | 35.0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63 | 50 | 47 | 114 | 126 | 142 | 536 | 513 | 555 | 577 | 490 | 467 | 1290 | 1179 | 1211 |
| | % | 4.9 | 4.2 | 3.9 | 8.8 | 10.7 | 11.7 | 41.6 | 43.5 | 45.8 | 44.7 | 41.6 | 38.6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15 | 91 | 94 | 214 | 225 | 249 | 949 | 949 | 947 | 1025 | 840 | 779 | 2303 | 2105 | 2069 |
| | % | 5.0 | 4.3 | 4.5 | 9.3 | 10.7 | 12.0 | 41.2 | 45.1 | 45.8 | 44.5 | 39.9 | 37.7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비슷하게 높았다<표 II-2-20>.

지역에 따라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84.9%, 2011년 81.8%, 2012년 82%로 2.9%p 감소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85.1%, 2011년 86.8%, 2012년 82.1%로 3%p,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86.3%, 2011년 85.1%, 2012년 84.4%로 1.9%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서울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을 위한



【그림 Ⅱ-2-16】 중1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소득별)

표 Ⅱ-2-21 중1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사용(소득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 N | 16 | 19 | 20 | 41 | 36 | 46 | 191 | 186 | 200 | 177 | 171 | 161 | 425 | 412 | 427 |
| | % | 3.8 | 4.6 | 4.7 | 9.6 | 8.7 | 10.8 | 44.9 | 45.1 | 46.8 | 41.6 | 41.5 | 37.7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71 | 61 | 55 | 132 | 135 | 155 | 544 | 583 | 579 | 607 | 505 | 446 | 1354 | 1284 | 1235 |
| | % | 5.2 | 4.8 | 4.5 | 9.7 | 10.5 | 12.6 | 40.2 | 45.4 | 46.9 | 44.8 | 39.3 | 36.1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4 | 11 | 12 | 34 | 55 | 41 | 160 | 175 | 158 | 183 | 142 | 137 | 391 | 383 | 348 |
| | % | 3.6 | 2.9 | 3.4 | 8.7 | 14.4 | 11.8 | 40.9 | 45.7 | 45.4 | 46.8 | 37.1 | 39.4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1 | 91 | 87 | 207 | 226 | 242 | 895 | 944 | 937 | 967 | 818 | 744 | 2170 | 2079 | 2010 |
| | % | 4.7 | 4.4 | 4.3 | 9.5 | 10.9 | 12.0 | 41.2 | 45.4 | 46.6 | 44.6 | 39.3 | 37.0 | 100 | 100 | 100 |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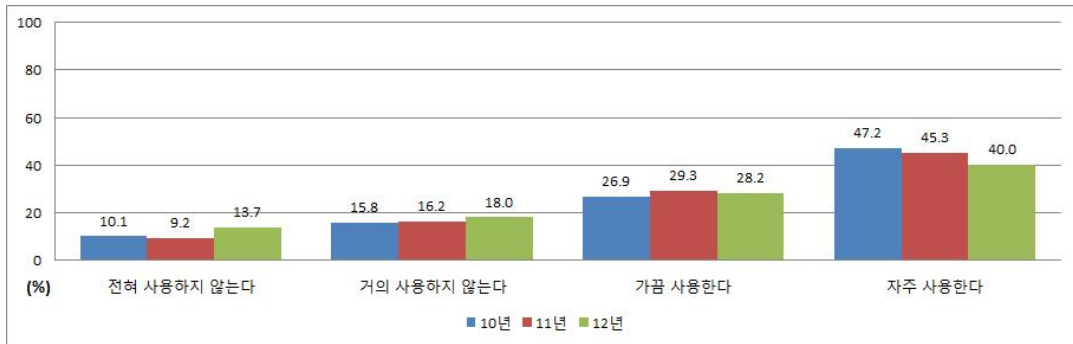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비슷하게 높았다<표 Ⅱ-2-21>.

소득에 따라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86.6%, 2011년 86.7%, 2012년 84.5%로 2%p 감소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85%, 2011년 84.7%, 2012년 83%로 2%p 감소하였고,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87.7%,

2011년 82.8%, 2012년 84.8%로 3%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소득층인 중학생의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인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게임 및 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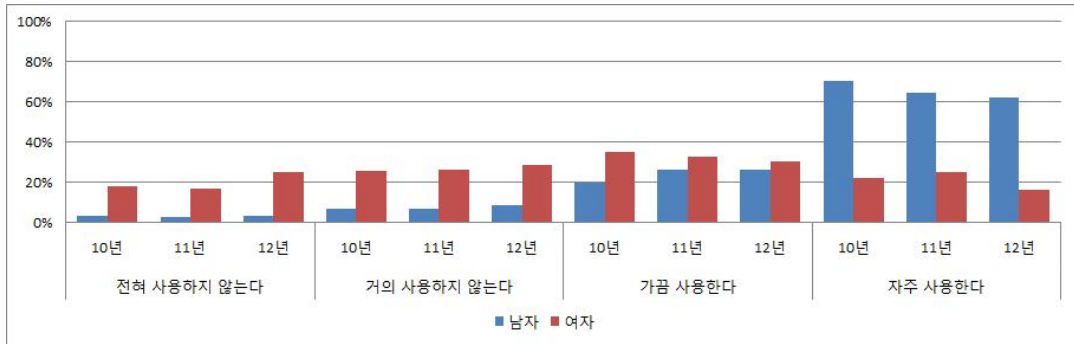
중학생이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22>.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2010년 74.1%, 2011년 74.7%, 2012년 68.2%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17】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

표 II-2-22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232 | 10.1 | 203 | 9.2 | 291 | 13.7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364 | 15.8 | 356 | 16.2 | 383 | 18.0 |
| 가끔 사용한다 | 618 | 26.9 | 646 | 29.3 | 599 | 28.2 |
| 자주 사용한다 | 1088 | 47.2 | 1000 | 45.3 | 849 | 40 |
| 합계 | 2302 | 100 | 2205 | 100 | 212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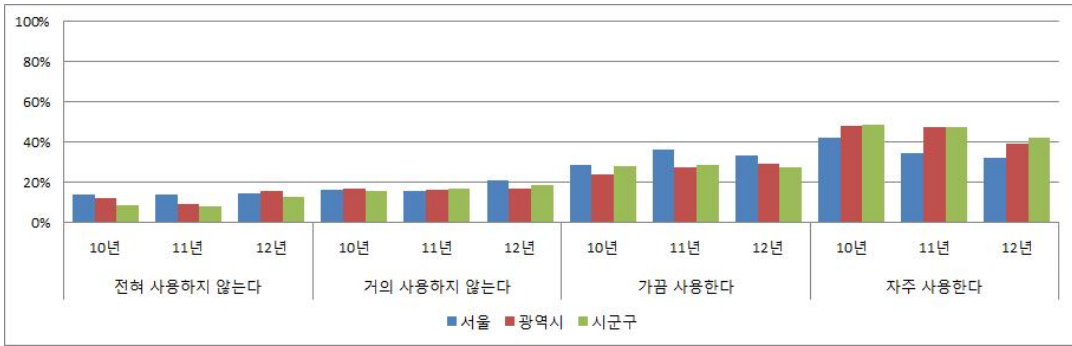
【그림 II-2-18】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표 II-2-23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39 | 30 | 37 | 81 | 79 | 94 | 237 | 301 | 288 | 845 | 737 | 683 | 1202 | 1147 | 1102 |
| | % | 3.2 | 2.6 | 3.4 | 6.7 | 6.9 | 8.5 | 19.7 | 26.2 | 26.1 | 70.3 | 64.3 | 62.0 | 100 | 100 | 100 |
| 여자 | N | 193 | 173 | 254 | 283 | 277 | 289 | 382 | 346 | 311 | 243 | 262 | 166 | 1101 | 1058 | 1020 |
| | % | 17.5 | 16.4 | 24.9 | 25.7 | 26.2 | 28.3 | 34.7 | 32.7 | 30.5 | 22.1 | 24.8 | 16.3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32 | 203 | 291 | 364 | 356 | 383 | 619 | 647 | 599 | 1088 | 999 | 849 | 2303 | 2205 | 2122 |
| | % | 10.1 | 9.2 | 13.7 | 15.8 | 16.1 | 18.0 | 26.9 | 29.3 | 28.2 | 47.2 | 45.3 | 40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많았고(2012년 62%), 여학생은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30.5%)<표 II-2-23>.

성별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남학생은 2010년 90%, 2011년 90.5%, 2012년 88.1%로 1.9%p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56.8%, 2011년 57.5%, 2012년 46.8%로 10%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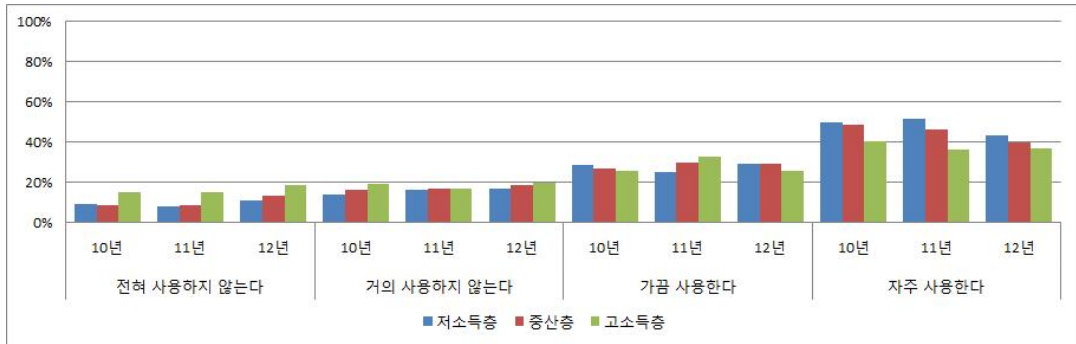
【그림 II-2-19】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표 II-2-24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55 | 49 | 26 | 65 | 55 | 38 | 114 | 129 | 60 | 169 | 123 | 58 | 403 | 356 | 182 |
| | % | 13.6 | 13.8 | 14.3 | 16.1 | 15.4 | 20.9 | 28.3 | 36.2 | 33.0 | 41.9 | 34.6 | 31.9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73 | 51 | 103 | 102 | 92 | 111 | 144 | 157 | 196 | 291 | 271 | 266 | 610 | 571 | 676 |
| | % | 12.0 | 8.9 | 15.2 | 16.7 | 16.1 | 16.4 | 23.6 | 27.5 | 29.0 | 47.7 | 47.5 | 39.3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105 | 95 | 154 | 197 | 194 | 222 | 360 | 333 | 328 | 628 | 557 | 508 | 1290 | 1179 | 1212 |
| | % | 8.1 | 8.1 | 12.7 | 15.3 | 16.5 | 18.3 | 27.9 | 28.2 | 27.1 | 48.7 | 47.2 | 41.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33 | 195 | 283 | 364 | 341 | 371 | 618 | 619 | 584 | 1088 | 951 | 832 | 2303 | 2106 | 2070 |
| | % | 10.1 | 9.3 | 13.7 | 15.8 | 16.2 | 17.9 | 26.8 | 29.4 | 28.2 | 47.2 | 45.2 | 40.2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지역은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많았고(2012년 33%), 광역시 및 시군구는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광역시 39.3%, 시군구 41.9%)<표 II-2-24>.

지역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70.2%, 2011년 70.8%, 2012년 64.8%로 5.4%p 감소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71.3%, 2011년 75%, 2012년 68.3%로 3%p 감소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76.6%, 2011년 75.5%, 2012년 69%로 7.6%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군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광역시에 비해



[그림 II-2-20]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표 II-2-25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저소득층 | N | 37 | 32 | 47 | 58 | 65 | 72 | 120 | 102 | 125 | 210 | 213 | 184 | 425 | 412 | 428 |
| | % | 8.7 | 7.8 | 11.0 | 13.6 | 15.8 | 16.8 | 28.2 | 24.8 | 29.2 | 49.4 | 51.7 | 43.0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117 | 105 | 164 | 219 | 211 | 224 | 361 | 378 | 357 | 657 | 590 | 490 | 1354 | 1284 | 1235 |
| | % | 8.6 | 8.2 | 13.3 | 16.2 | 16.4 | 18.1 | 26.7 | 29.4 | 28.9 | 48.5 | 46.0 | 39.7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59 | 57 | 64 | 75 | 63 | 68 | 100 | 126 | 88 | 156 | 138 | 128 | 390 | 384 | 348 |
| | % | 15.1 | 14.8 | 18.4 | 19.2 | 16.4 | 19.5 | 25.6 | 32.8 | 25.3 | 40 | 35.9 | 36.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13 | 194 | 275 | 352 | 339 | 364 | 581 | 606 | 570 | 1023 | 941 | 802 | 2169 | 2080 | 2011 |
| | % | 9.8 | 9.3 | 13.7 | 16.2 | 16.3 | 18.1 | 26.8 | 29.1 | 28.3 | 47.2 | 45.2 | 39.9 | 100 | 100 | 100 |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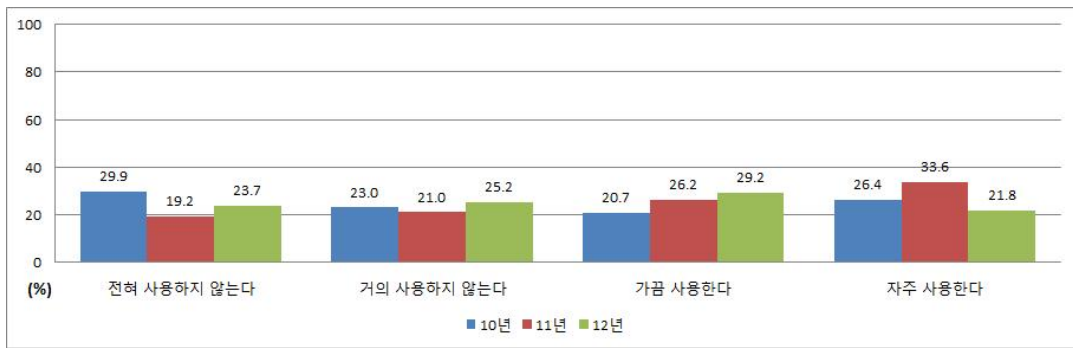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과 관계없이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25>.

소득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77.6%, 2011년 76.5%, 2012년 72.2%로 5.5%p 감소하였고,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75.2%, 2011년 75.4%, 2012년 68.6%로 6.6%p 감소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65.6%, 2011년

68.8%, 2012년 62.1%로 3.6%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인 중학생과 저소득층인 중학생의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채팅이나 메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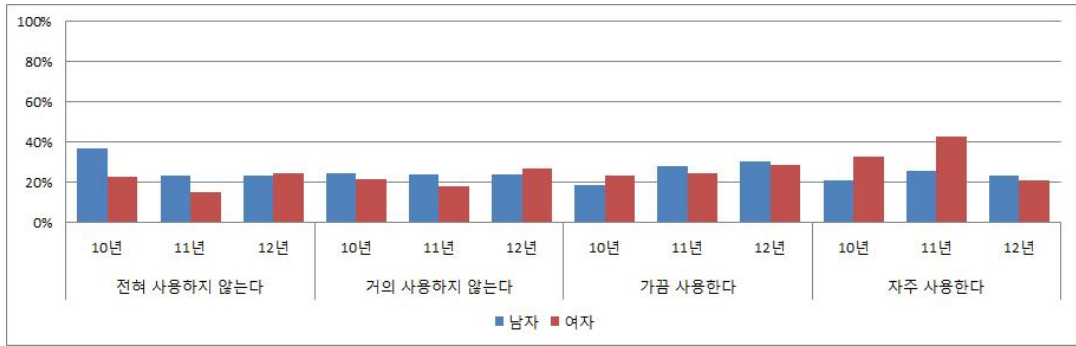
중학생이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2010년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1년은 '자주 사용한다', 2012년은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26>. 2010년 47.1%, 2011년 59.8%, 2012년 51%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21】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

표 II-2-26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687 | 29.9 | 422 | 19.2 | 503 | 23.7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530 | 23.0 | 463 | 21.0 | 535 | 25.2 |
| 가끔 사용한다 | 478 | 20.7 | 576 | 26.2 | 619 | 29.2 |
| 자주 사용한다 | 608 | 26.4 | 740 | 33.6 | 463 | 21.8 |
| 합계 | 2302 | 100 | 2201 | 100 | 212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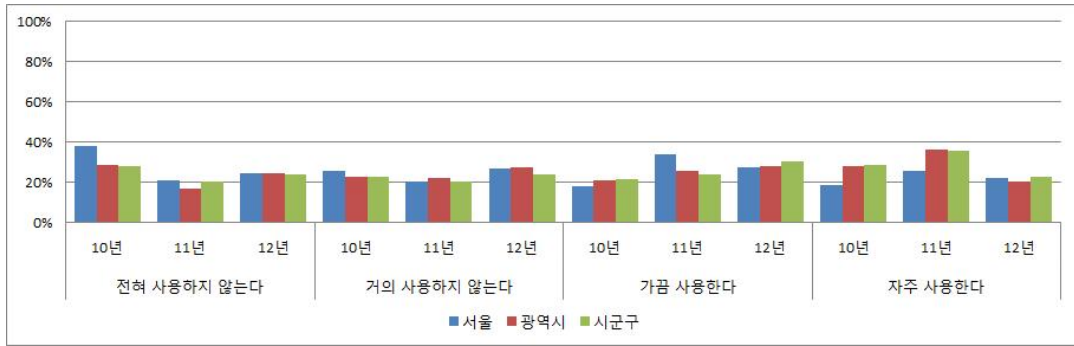
【그림 II-2-22】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성별)

표 II-2-27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439 | 265 | 255 | 291 | 271 | 262 | 220 | 317 | 330 | 250 | 289 | 254 | 1200 | 1142 | 1101 |
| | % | 36.6 | 23.2 | 23.2 | 24.3 | 23.7 | 23.8 | 18.3 | 27.8 | 30 | 20.8 | 25.3 | 23.1 | 100 | 100 | 100 |
| 여자 | N | 248 | 157 | 248 | 238 | 191 | 273 | 257 | 259 | 289 | 357 | 451 | 209 | 1100 | 1058 | 1019 |
| | % | 22.5 | 14.8 | 24.3 | 21.6 | 18.1 | 26.8 | 23.4 | 24.5 | 28.4 | 32.5 | 42.6 | 20.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87 | 422 | 503 | 529 | 462 | 535 | 477 | 576 | 619 | 607 | 740 | 463 | 2300 | 2200 | 2120 |
| | % | 29.9 | 19.2 | 23.7 | 23.0 | 21.0 | 25.2 | 20.7 | 26.2 | 29.2 | 26.4 | 33.6 | 21.8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27>.

성별에 따라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남학생은 2010년 39.2%, 2011년 53.1%, 2012년 53%로 13.9%p 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2010년 55.8%, 2011년 67.1%, 2012년 48.9%로 6.9%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학생의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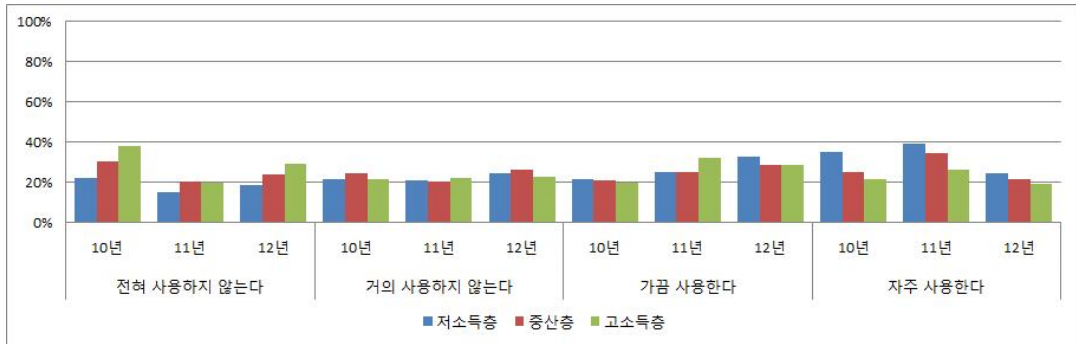
【그림 II-2-23】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지역별)

표 II-2-28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53 | 74 | 44 | 102 | 71 | 49 | 73 | 121 | 50 | 75 | 90 | 40 | 403 | 356 | 183 |
| | % | 38.0 | 20.8 | 24.0 | 25.3 | 19.9 | 26.8 | 18.1 | 34.0 | 27.3 | 18.6 | 25.3 | 21.9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75 | 95 | 164 | 139 | 126 | 184 | 127 | 144 | 189 | 169 | 205 | 138 | 610 | 570 | 675 |
| | % | 28.7 | 16.7 | 24.3 | 22.8 | 22.1 | 27.3 | 20.8 | 25.3 | 28.0 | 27.7 | 36.0 | 20.4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359 | 241 | 284 | 288 | 237 | 289 | 278 | 282 | 365 | 364 | 418 | 272 | 1289 | 1178 | 1210 |
| | % | 27.9 | 20.5 | 23.5 | 22.3 | 20.1 | 23.9 | 21.6 | 23.9 | 30.2 | 28.2 | 35.5 | 22.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87 | 410 | 492 | 529 | 434 | 522 | 478 | 547 | 604 | 608 | 713 | 450 | 2302 | 2104 | 2068 |
| | % | 29.8 | 19.5 | 23.8 | 23.0 | 20.6 | 25.2 | 20.8 | 26.0 | 29.2 | 26.4 | 33.9 | 21.8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28>.

지역에 따라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36.7%, 2011년 59.3%, 2012년 49.2%로 크게 증가했다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48.5%, 2011년 61.2%, 2012년 48.4%로 증가했다 감소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 역시 2010년 49.8%, 2011년 59.4%, 2012년 52.6%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시군구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증가하는



【그림 II-2-24】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소득별)

표 II-2-29 중1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소득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94 | 62 | 80 | 91 | 85 | 104 | 91 | 103 | 139 | 149 | 161 | 105 | 425 | 411 | 428 |
| | % | 22.1 | 15.1 | 18.7 | 21.4 | 20.7 | 24.3 | 21.4 | 25.1 | 32.5 | 35.1 | 39.2 | 24.5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410 | 259 | 296 | 328 | 262 | 325 | 279 | 321 | 348 | 337 | 439 | 265 | 1354 | 1281 | 1234 |
| | % | 30.3 | 20.2 | 24.0 | 24.2 | 20.5 | 26.3 | 20.6 | 25.1 | 28.2 | 24.9 | 34.3 | 21.5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47 | 76 | 102 | 83 | 85 | 79 | 77 | 122 | 100 | 83 | 101 | 67 | 390 | 384 | 348 |
| | % | 37.7 | 19.8 | 29.3 | 21.3 | 22.1 | 22.7 | 19.7 | 31.8 | 28.7 | 21.3 | 26.3 | 19.3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51 | 397 | 478 | 502 | 432 | 508 | 447 | 546 | 587 | 569 | 701 | 437 | 2169 | 2076 | 2010 |
| | % | 30 | 19.1 | 23.8 | 23.1 | 20.8 | 25.3 | 20.6 | 26.3 | 29.2 | 26.2 | 33.8 | 21.7 | 100 | 100 | 100 |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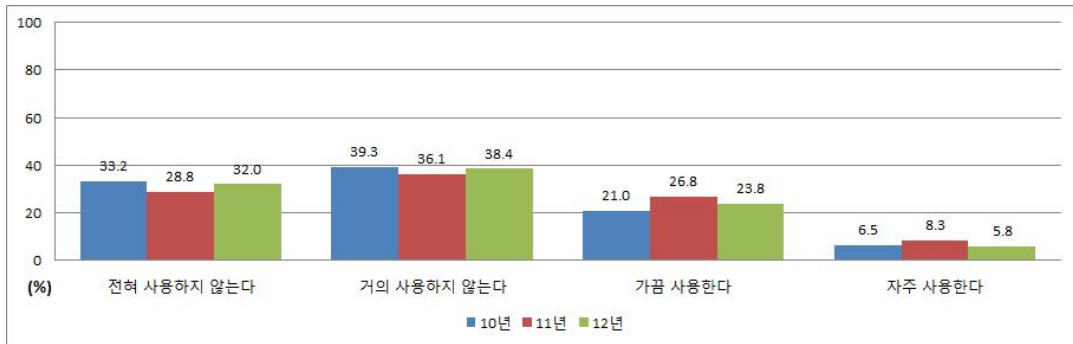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 계층에서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29>.

소득에 따라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56.5%, 2011년 64.2%, 2012년 57%로 증가했다 감소하였으며(2010년 대비 0.5%p 증가),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45.5%, 2011년 59.3%, 2012년 49.7%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으며(2010년 대비 4.2%p 증가), 고소득층의 경우 2010년 41%, 2011년 58.1%, 2012년 48%로 역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다(2010년 대비 7%p 증가). 중학교 2학년에 채팅이나 메신저를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소득층 및 중산층인 중학생의 채팅이나 메신저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저소득층인 중학생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전자우편(e-m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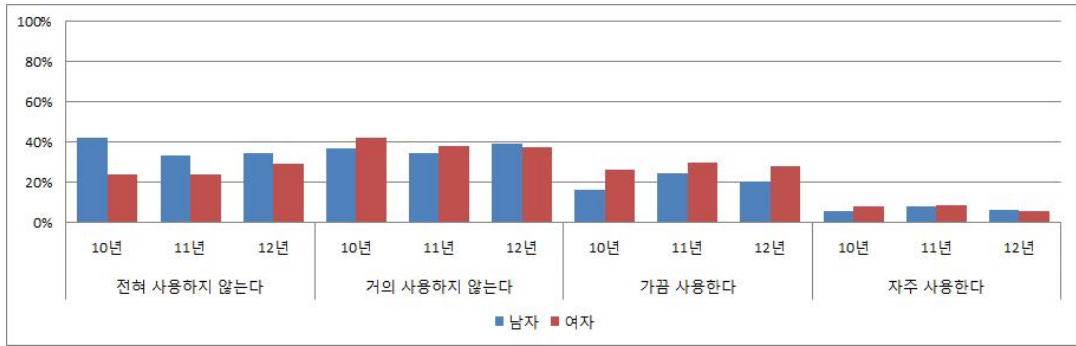
중학생이 전자우편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30>.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2010년 27.5%, 2011년 35.1%, 2012년 29.6%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자우편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25】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

표 II-2-30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765 | 33.2 | 634 | 28.8 | 678 | 32.0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904 | 39.3 | 797 | 36.1 | 815 | 38.4 |
| 가끔 사용한다 | 484 | 21.0 | 592 | 26.8 | 505 | 23.8 |
| 자주 사용한다 | 150 | 6.5 | 182 | 8.3 | 122 | 5.8 |
| 합계 | 2302 | 100 | 2205 | 100 | 212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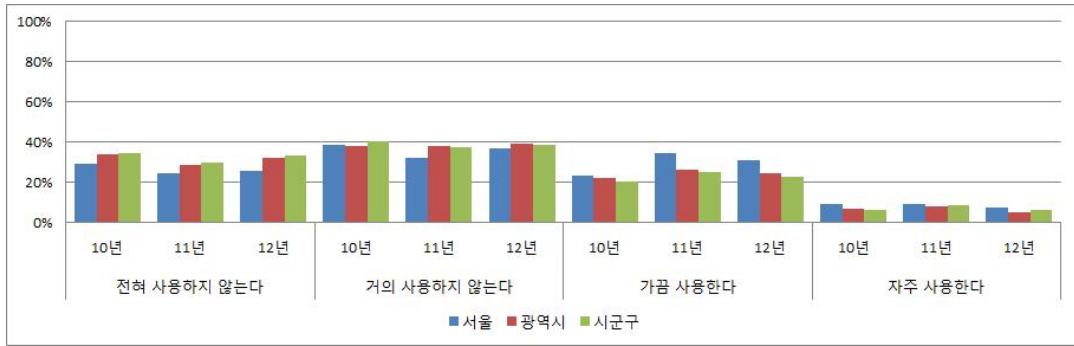
【그림 II-2-26】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성별)

표 II-2-31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성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501 | 380 | 380 | 439 | 393 | 433 | 194 | 281 | 220 | 66 | 92 | 68 | 1200 | 1146 | 1101 |
| | % | 41.8 | 33.2 | 34.5 | 36.6 | 34.3 | 39.3 | 16.2 | 24.5 | 20 | 5.5 | 8.0 | 6.2 | 100 | 100 | 100 |
| 여자 | N | 264 | 254 | 298 | 465 | 404 | 382 | 289 | 311 | 285 | 83 | 90 | 54 | 1101 | 1059 | 1019 |
| | % | 24.0 | 24.0 | 29.2 | 42.2 | 38.1 | 37.5 | 26.2 | 29.4 | 28.0 | 7.5 | 8.5 | 5.3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65 | 634 | 678 | 904 | 797 | 815 | 483 | 592 | 505 | 149 | 182 | 122 | 2301 | 2205 | 2120 |
| | % | 33.2 | 28.8 | 32.0 | 39.3 | 36.1 | 38.4 | 21.0 | 26.8 | 23.8 | 6.5 | 8.3 | 5.8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전자우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31>.

성별에 따라 전자우편을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남학생은 2010년 21.7%, 2011년 32.5%, 2012년 26.2%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으며(2010년 대비 4.5%p 증가), 여학생은 2010년 33.8%, 2011년 37.9%, 2012년 33.3%로 역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다(2010년 대비 0.5%p 감소). 중학교 2학년에 전자우편 사용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학생의 전자우편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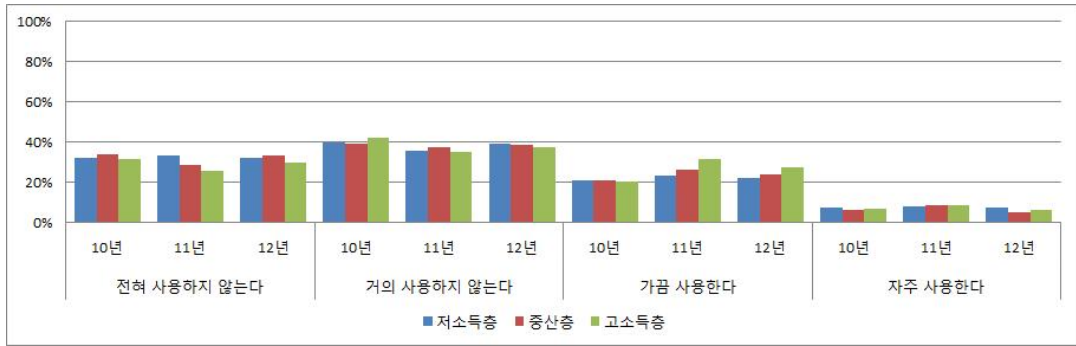
【그림 II-2-27】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지역별)

표 II-2-32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지역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18 | 87 | 46 | 156 | 114 | 67 | 94 | 123 | 56 | 36 | 32 | 13 | 404 | 356 | 182 |
| | % | 29.2 | 24.4 | 25.3 | 38.6 | 32.0 | 36.8 | 23.3 | 34.6 | 30.8 | 8.9 | 9.0 | 7.1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207 | 162 | 217 | 231 | 215 | 262 | 133 | 148 | 163 | 39 | 45 | 32 | 610 | 570 | 674 |
| | % | 33.9 | 28.4 | 32.2 | 37.9 | 37.7 | 38.9 | 21.8 | 26.0 | 24.2 | 6.4 | 7.9 | 4.7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440 | 352 | 400 | 518 | 439 | 464 | 257 | 291 | 272 | 75 | 98 | 76 | 1290 | 1180 | 1212 |
| | % | 34.1 | 29.8 | 33.0 | 40.2 | 37.2 | 38.3 | 19.9 | 24.7 | 22.4 | 5.8 | 8.3 | 6.3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65 | 601 | 663 | 905 | 768 | 793 | 484 | 562 | 491 | 150 | 175 | 121 | 2304 | 2106 | 2068 |
| | % | 33.2 | 28.5 | 32.1 | 39.3 | 36.5 | 38.3 | 21.0 | 26.7 | 23.7 | 6.5 | 8.3 | 5.9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전자우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32>.

지역에 따라 전자우편을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32.2%, 2011년 43.5%, 2012년 37.9%로 2010년 대비 5.7%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28.2%, 2011년 33.9%, 2012년 28.9%로 2010년 대비 0.7%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25.7%, 2011년 33%, 2012년 28.7%로 3%p 증가하였다. 중학교 2학년에 전자우편 사용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전자우편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시군구 및 광역시에



【그림 II-2-28】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소득별)

표 II-2-33 중1 패널- 전자우편(e-mail)(소득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저소득층 | N | 136 | 136 | 136 | 170 | 147 | 168 | 89 | 96 | 94 | 31 | 33 | 30 | 426 | 412 | 428 |
| | % | 31.9 | 33.0 | 31.8 | 39.9 | 35.7 | 39.3 | 20.9 | 23.3 | 22.0 | 7.3 | 8.0 | 7.0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461 | 364 | 407 | 531 | 476 | 472 | 279 | 338 | 291 | 83 | 105 | 63 | 1354 | 1283 | 1233 |
| | % | 34.0 | 28.4 | 33.0 | 39.2 | 37.1 | 38.3 | 20.6 | 26.3 | 23.6 | 6.1 | 8.2 | 5.1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22 | 98 | 104 | 163 | 133 | 129 | 79 | 120 | 95 | 25 | 32 | 20 | 389 | 383 | 348 |
| | % | 31.4 | 25.6 | 29.9 | 41.9 | 34.7 | 37.1 | 20.3 | 31.3 | 27.3 | 6.4 | 8.4 | 5.7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19 | 598 | 647 | 864 | 756 | 769 | 447 | 554 | 480 | 139 | 170 | 113 | 2169 | 2078 | 2009 |
| | % | 33.1 | 28.8 | 32.2 | 39.8 | 36.4 | 38.3 | 20.6 | 26.7 | 23.9 | 6.4 | 8.2 | 5.6 | 100 | 100 | 100 |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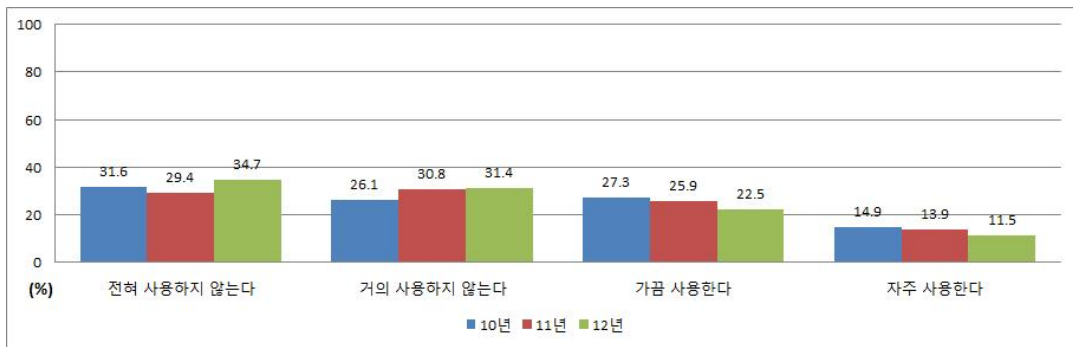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전자우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33>.

소득에 따라 전자우편을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28.2%, 2011년 31.3%, 2012년 29%로 2010년 대비 0.8%p 증가하였고,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26.7%, 2011년 34.5%, 2012년 28.7%로 2010년 대비 2%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26.7%, 2011년 39.7%, 2012년 33%로 2010년 대비 6.3%p 증가하였다. 중학교 2학년에 전자우편 사용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소득층인

중학생의 전자우편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인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다.

⑥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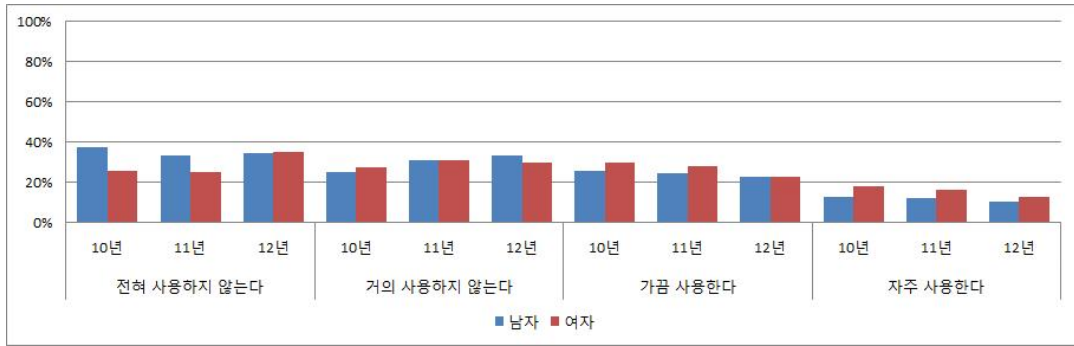
중학생이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34>.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2010년 42.2%, 2011년 39.9%, 2012년 33.9%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29】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표 II-2-34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728 | 31.6 | 647 | 29.4 | 735 | 34.7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602 | 26.1 | 678 | 30.8 | 666 | 31.4 |
| 가끔 사용한다 | 629 | 27.3 | 571 | 25.9 | 477 | 22.5 |
| 자주 사용한다 | 344 | 14.9 | 307 | 13.9 | 243 | 11.5 |
| 합계 | 2302 | 100 | 2203 | 100 | 2121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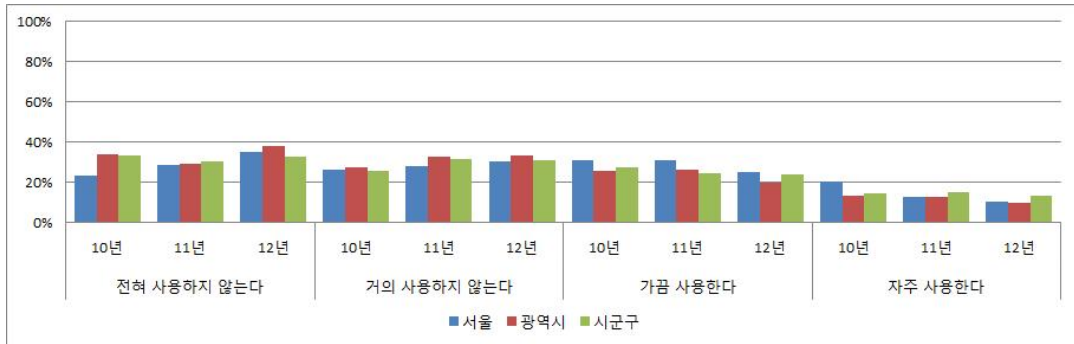
【그림 II-2-30】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성별)

표 II-2-35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447 | 381 | 376 | 301 | 350 | 363 | 305 | 277 | 249 | 148 | 136 | 114 | 1201 | 1144 | 1102 |
| | % | 37.2 | 33.3 | 34.1 | 25.1 | 30.6 | 32.9 | 25.4 | 24.2 | 22.6 | 12.3 | 11.9 | 10.3 | 100 | 100 | 100 |
| 여자 | N | 281 | 265 | 359 | 301 | 328 | 303 | 323 | 293 | 228 | 196 | 171 | 129 | 1101 | 1057 | 1019 |
| | % | 25.5 | 25.1 | 35.2 | 27.3 | 31.0 | 29.7 | 29.3 | 27.7 | 22.4 | 17.8 | 16.2 | 12.7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28 | 646 | 735 | 602 | 678 | 666 | 628 | 570 | 477 | 344 | 307 | 243 | 2302 | 2201 | 2121 |
| | % | 31.6 | 29.4 | 34.7 | 26.2 | 30.8 | 31.4 | 27.3 | 25.9 | 22.5 | 14.9 | 13.9 | 11.5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35>.

성별에 따라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남학생은 2010년 37.7%, 2011년 36.1%, 2012년 32.9%로 4.8%p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47.1%, 2011년 43.9%, 2012년 35%로 12.1%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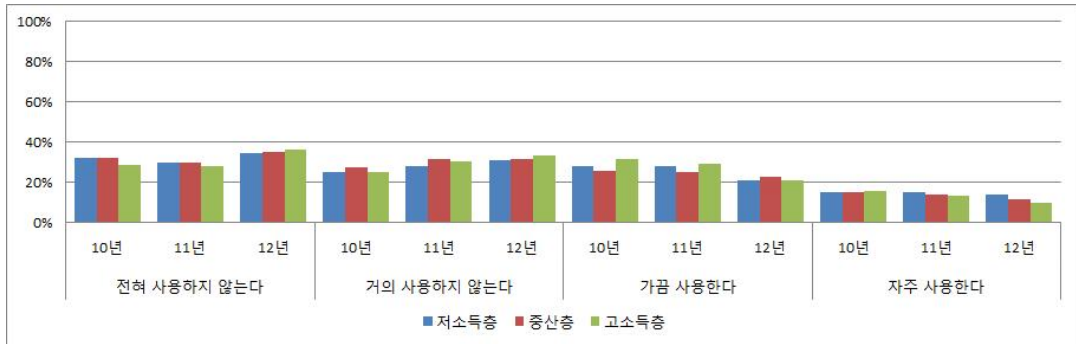
【그림 II-2-31】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지역별)

표 II-2-36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지역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93 | 102 | 64 | 104 | 99 | 55 | 125 | 110 | 45 | 80 | 45 | 18 | 402 | 356 | 182 |
| | % | 23.1 | 28.7 | 35.2 | 25.9 | 27.8 | 30.2 | 31.1 | 30.9 | 24.7 | 19.9 | 12.6 | 9.9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207 | 166 | 256 | 167 | 187 | 223 | 155 | 148 | 131 | 81 | 70 | 65 | 610 | 571 | 675 |
| | % | 33.9 | 29.1 | 37.9 | 27.4 | 32.7 | 33.0 | 25.4 | 25.9 | 19.4 | 13.3 | 12.3 | 9.6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427 | 352 | 397 | 331 | 367 | 370 | 349 | 284 | 289 | 183 | 173 | 156 | 1290 | 1176 | 1212 |
| | % | 33.1 | 29.9 | 32.8 | 25.7 | 31.2 | 30.5 | 27.1 | 24.1 | 23.8 | 14.2 | 14.7 | 12.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27 | 620 | 717 | 602 | 653 | 648 | 629 | 542 | 465 | 344 | 288 | 239 | 2302 | 2103 | 2069 |
| | % | 31.6 | 29.5 | 34.7 | 26.2 | 31.1 | 31.3 | 27.3 | 25.8 | 22.5 | 14.9 | 13.7 | 11.6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36>.

지역에 따라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51%, 2011년 43.5%, 2012년 34.6%로 16.4%p 감소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38.7%, 2011년 38.2%, 2012년 29%로 9.7%p 감소했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41.2%, 2011년 38.9%, 2012년 36.7%로 4.5%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광역시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32】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소득별)

표 II-2-38 중1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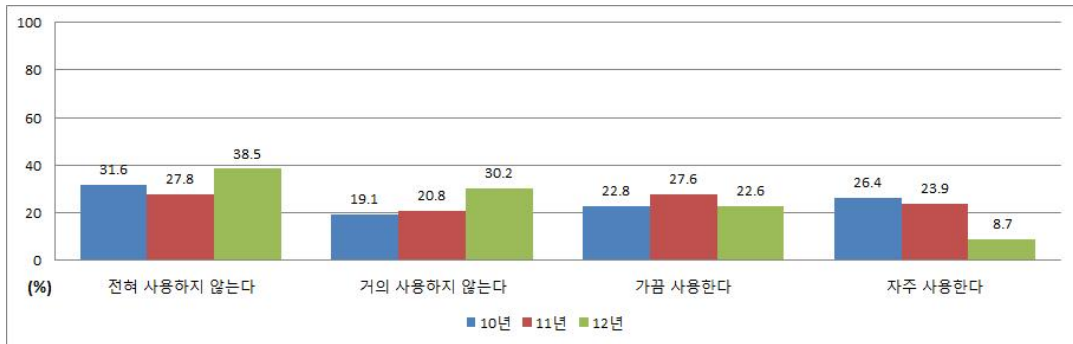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저소득층 | N | 136 | 121 | 147 | 107 | 115 | 133 | 119 | 115 | 89 | 64 | 60 | 59 | 426 | 411 | 428 |
| | % | 31.9 | 29.4 | 34.3 | 25.1 | 28.0 | 31.1 | 27.9 | 28.0 | 20.8 | 15.0 | 14.6 | 13.8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435 | 381 | 431 | 372 | 405 | 387 | 348 | 317 | 280 | 199 | 179 | 137 | 1354 | 1282 | 1235 |
| | % | 32.1 | 29.7 | 34.9 | 27.5 | 31.6 | 31.3 | 25.7 | 24.7 | 22.7 | 14.7 | 14.0 | 11.1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10 | 106 | 125 | 97 | 115 | 116 | 122 | 111 | 73 | 61 | 51 | 33 | 390 | 383 | 347 |
| | % | 28.2 | 27.7 | 36.0 | 24.9 | 30 | 33.4 | 31.3 | 29.0 | 21.0 | 15.6 | 13.3 | 9.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81 | 608 | 703 | 576 | 635 | 636 | 589 | 543 | 442 | 324 | 290 | 229 | 2170 | 2076 | 2010 |
| | % | 31.4 | 29.3 | 35.0 | 26.5 | 30.6 | 31.6 | 27.1 | 26.2 | 22.0 | 14.9 | 14.0 | 11.4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 계층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38>.

소득에 따라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51%, 2011년 43.5%, 2012년 34.6%로 16.4%p 감소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38.7%, 2011년 38.2%, 2012년 29%로 9.7%p 감소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41.2%, 2011년 38.9%, 2012년 36.7%로 4.5%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광역시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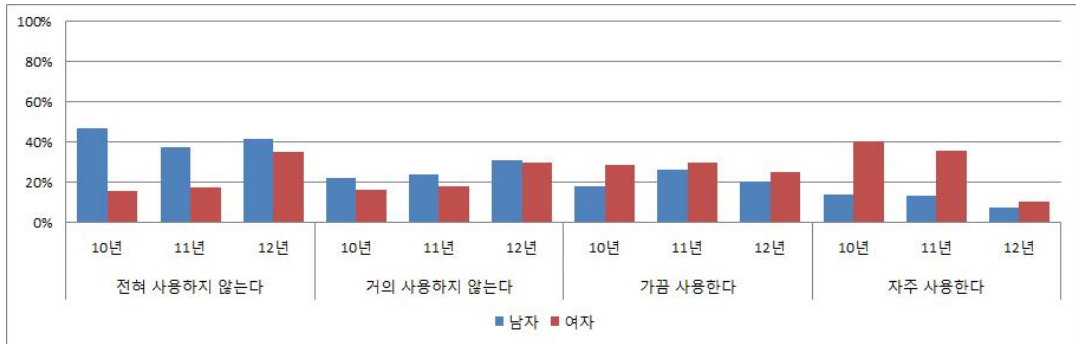
중학생이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38>. 2010년 49.3%, 2011년 51.5%, 2012년 31.4%로 중학교 2학년에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33]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표 II-2-38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728 | 31.6 | 611 | 27.8 | 816 | 38.5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440 | 19.1 | 458 | 20.8 | 640 | 30.2 |
| 가끔 사용한다 | 526 | 22.8 | 607 | 27.6 | 480 | 22.6 |
| 자주 사용한다 | 609 | 26.4 | 527 | 23.9 | 185 | 8.7 |
| 합계 | 2302 | 100 | 2203 | 100 | 2121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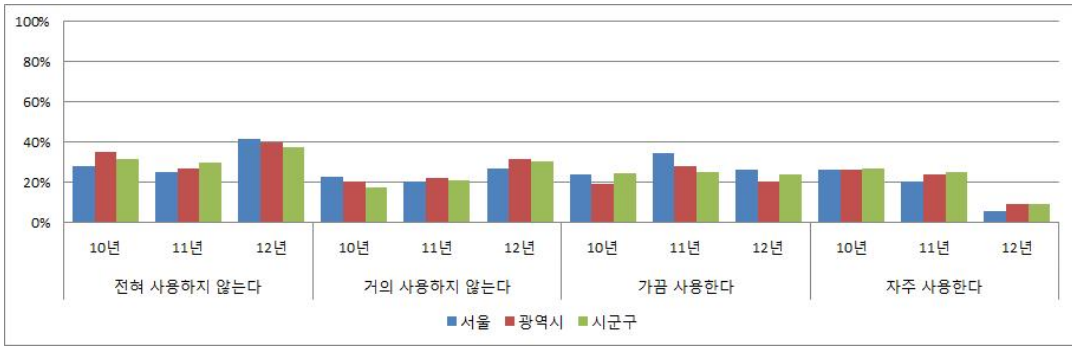
【그림 Ⅱ-2-34】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성별)

표 Ⅱ-2-39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561 | 431 | 458 | 261 | 270 | 340 | 214 | 296 | 224 | 165 | 150 | 79 | 1201 | 1147 | 1101 |
| | % | 46.7 | 37.6 | 41.6 | 21.7 | 23.5 | 30.9 | 17.8 | 25.8 | 20.3 | 13.7 | 13.1 | 7.2 | 100 | 100 | 100 |
| 여자 | N | 167 | 180 | 358 | 178 | 188 | 300 | 312 | 311 | 256 | 444 | 376 | 106 | 1101 | 1055 | 1020 |
| | % | 15.2 | 17.1 | 35.1 | 16.2 | 17.8 | 29.4 | 28.3 | 29.5 | 25.1 | 40.3 | 35.6 | 10.4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28 | 611 | 816 | 439 | 458 | 640 | 526 | 607 | 480 | 609 | 526 | 185 | 2302 | 2202 | 2121 |
| | % | 31.6 | 27.7 | 38.5 | 19.1 | 20.8 | 30.2 | 22.8 | 27.6 | 22.6 | 26.5 | 23.9 | 8.7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 <표 Ⅱ-2-39>.

성별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남학생은 2010년 31.6%, 2011년 38.9%, 2012년 27.5%로 2010년 대비 4%p 감소한 반면, 여학생은 2010년 68.7%, 2011년 65.1%, 2012년 35.5%로 2010년 대비 33.2%p 감소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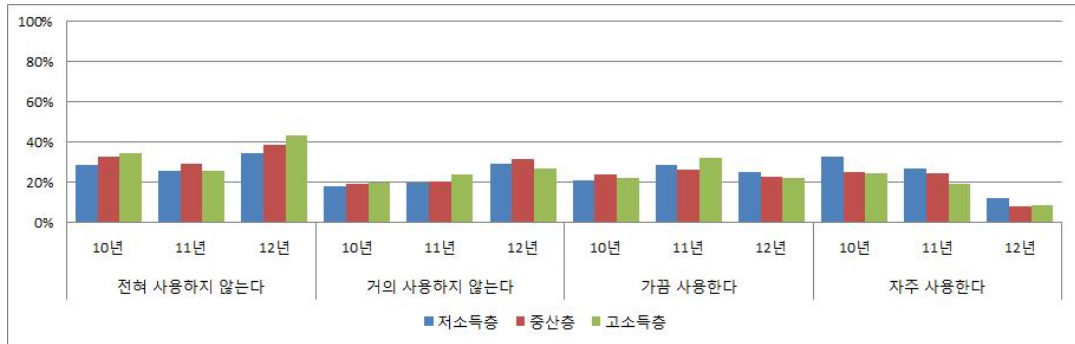
【그림 II-2-35】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지역별)

표 II-2-40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지역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12 | 89 | 76 | 91 | 71 | 49 | 95 | 122 | 48 | 105 | 72 | 10 | 403 | 354 | 183 |
| | % | 27.8 | 25.1 | 41.5 | 22.6 | 20.1 | 26.8 | 23.6 | 34.5 | 26.2 | 26.1 | 20.3 | 5.5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213 | 151 | 267 | 123 | 124 | 213 | 116 | 160 | 135 | 158 | 134 | 60 | 610 | 569 | 675 |
| | % | 34.9 | 26.5 | 39.6 | 20.2 | 21.8 | 31.6 | 19.0 | 28.1 | 20 | 25.9 | 23.6 | 8.9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403 | 349 | 449 | 226 | 243 | 363 | 316 | 294 | 290 | 345 | 293 | 109 | 1290 | 1179 | 1211 |
| | % | 31.2 | 29.6 | 37.1 | 17.5 | 20.6 | 30 | 24.5 | 24.9 | 23.9 | 26.7 | 24.9 | 9.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28 | 589 | 792 | 440 | 438 | 625 | 527 | 576 | 473 | 608 | 499 | 179 | 2303 | 2102 | 2069 |
| | % | 31.6 | 28.0 | 38.3 | 19.1 | 20.8 | 30.2 | 22.9 | 27.4 | 22.9 | 26.4 | 23.7 | 8.7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2-40>.

지역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49.6%, 2011년 54.8%, 2012년 31.7%로 2010년 대비 17.9%p 감소하였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44.9%, 2011년 51.7%, 2012년 28.9%로 2010년 대비 16%p 감소하였다.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51.2%, 2011년 49.8%, 2012년 32.9%로 2010년 대비 18.3%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모든 지역에서 비슷하게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그림 II-2-36】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소득별)

표 II-2-41 중1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소득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 122 | 106 | 146 | 77 | 81 | 125 | 89 | 116 | 107 | 138 | 109 | 50 | 426 | 412 | 428 |
| | % | 28.6 | 25.7 | 34.1 | 18.1 | 19.7 | 29.2 | 20.9 | 28.2 | 25.0 | 32.4 | 26.5 | 11.7 | 100 | 100 | 100 |
| 중산층 | | 439 | 373 | 477 | 256 | 260 | 385 | 322 | 333 | 276 | 338 | 315 | 96 | 1355 | 1281 | 1234 |
| | % | 32.4 | 29.1 | 38.7 | 18.9 | 20.3 | 31.2 | 23.8 | 26.0 | 22.4 | 24.9 | 24.6 | 7.8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 134 | 99 | 150 | 77 | 91 | 93 | 85 | 122 | 76 | 95 | 72 | 29 | 391 | 384 | 348 |
| | % | 34.3 | 25.8 | 43.1 | 19.7 | 23.7 | 26.7 | 21.7 | 31.8 | 21.8 | 24.3 | 18.8 | 8.3 | 100 | 100 | 100 |
| 전체 | | 695 | 578 | 773 | 410 | 432 | 603 | 496 | 571 | 459 | 571 | 496 | 175 | 2172 | 2077 | 2010 |
| | % | 32.0 | 27.8 | 38.5 | 18.9 | 20.8 | 30 | 22.8 | 27.5 | 22.8 | 26.3 | 23.9 | 8.7 | 100 | 100 | 100 |

미니홈피)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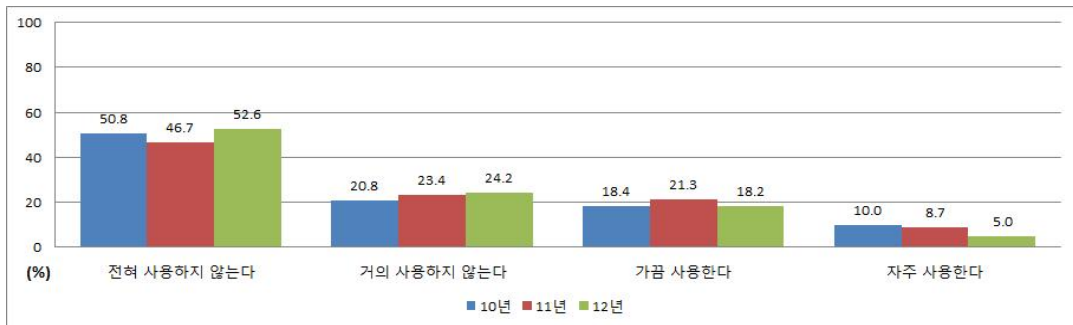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 계층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2-41>.

소득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53.3%, 2011년 54.6%, 2012년 36.7%로 2010년 대비 16.6%p 감소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48.7%, 2011년 50.6%, 2012년 30.1%로 2010년 대비 18.6%p 감소하였고,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46%, 2011년 50.5%, 2012년 30.2%로 2010년 대비 15.9%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인 중학생의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인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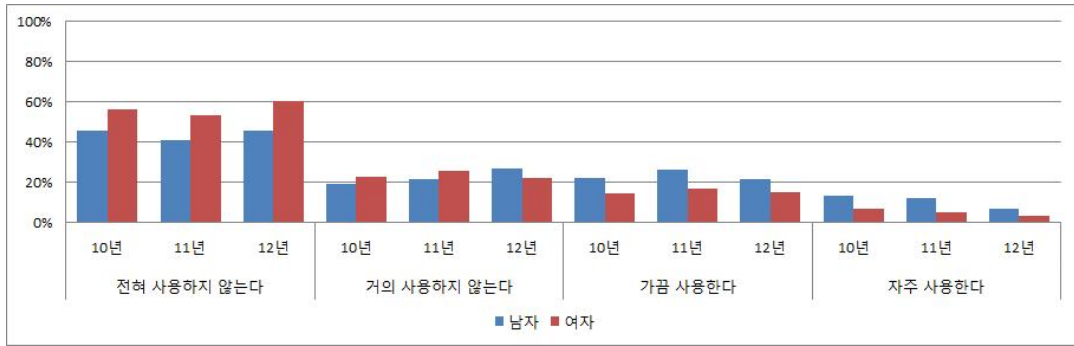
중학생이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42>. 2010년 28.4%, 2011년 29.9%, 2012년 23.2%로 중학교 2학년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학교 3학년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37】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표 II-2-42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169 | 50.8 | 1030 | 46.7 | 1116 | 52.6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479 | 20.8 | 515 | 23.4 | 513 | 24.2 |
| 가끔 사용한다 | 424 | 18.4 | 469 | 21.3 | 387 | 18.2 |
| 자주 사용한다 | 231 | 10 | 191 | 8.7 | 106 | 5.0 |
| 합계 | 2302 | 100 | 2205 | 100 | 212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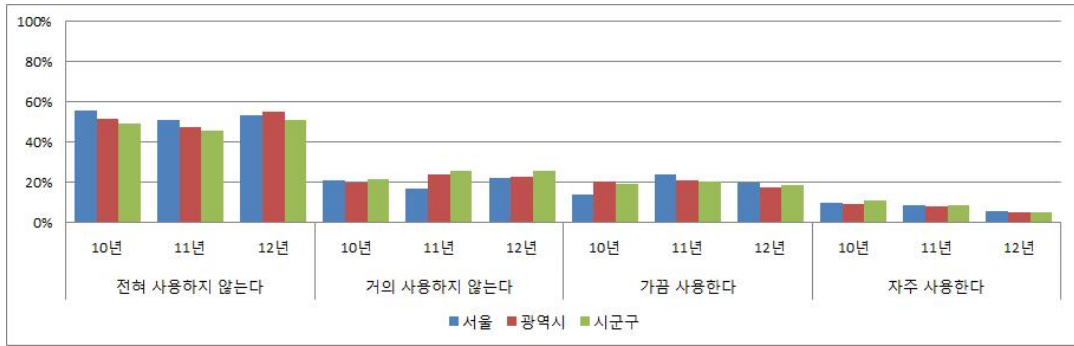
【그림 II-2-38】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성별)

표 II-2-43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성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남자 | N | 549 | 466 | 502 | 229 | 247 | 292 | 267 | 296 | 234 | 156 | 137 | 74 | 1201 | 1146 | 1102 |
| | % | 45.7 | 40.7 | 45.6 | 19.1 | 21.6 | 26.5 | 22.2 | 25.8 | 21.2 | 13.0 | 12.0 | 6.7 | 100 | 100 | 100 |
| 여자 | N | 620 | 563 | 614 | 250 | 268 | 221 | 157 | 173 | 153 | 75 | 54 | 32 | 1102 | 1058 | 1020 |
| | % | 56.3 | 53.2 | 60.2 | 22.7 | 25.3 | 21.7 | 14.2 | 16.4 | 15.0 | 6.8 | 5.1 | 3.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169 | 1029 | 1116 | 479 | 515 | 513 | 424 | 469 | 387 | 231 | 191 | 106 | 2303 | 2204 | 2122 |
| | % | 50.8 | 46.7 | 52.6 | 20.8 | 23.4 | 24.2 | 18.4 | 21.3 | 18.2 | 10 | 8.7 | 5.0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2-43>.

성별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남학생은 2010년 35.2%, 2011년 37.8%, 2012년 27.9%로 2010년 대비 7.3%p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21.1%, 2011년 21.5%, 2012년 18.1%로 2010년 대비 2.9%p 감소하였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 더 많았으며, 학년에 따른 차이도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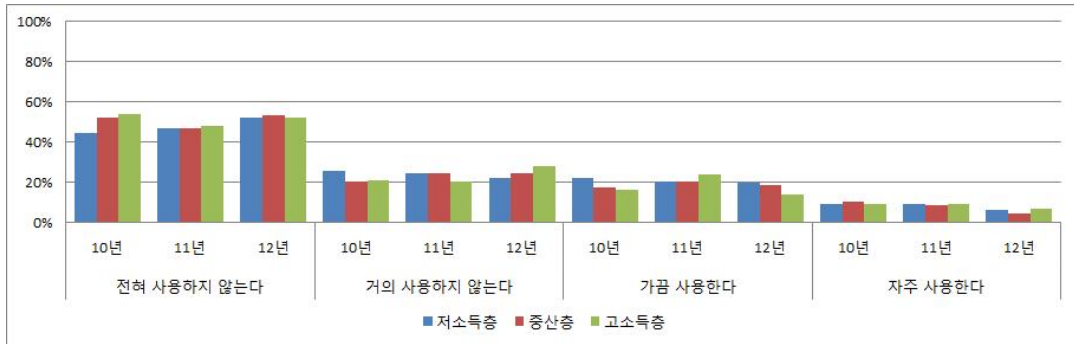
【그림 II-2-39】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지역별)

표 II-2-44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225 | 181 | 97 | 84 | 60 | 40 | 56 | 85 | 36 | 39 | 30 | 10 | 404 | 356 | 183 |
| | % | 55.7 | 50.8 | 53.0 | 20.8 | 16.9 | 21.9 | 13.9 | 23.9 | 19.7 | 9.7 | 8.4 | 5.5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313 | 270 | 373 | 118 | 136 | 153 | 124 | 120 | 117 | 55 | 44 | 33 | 610 | 570 | 676 |
| | % | 51.3 | 47.4 | 55.2 | 19.3 | 23.9 | 22.6 | 20.3 | 21.1 | 17.3 | 9.0 | 7.7 | 4.9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631 | 539 | 618 | 278 | 300 | 308 | 244 | 240 | 224 | 137 | 100 | 61 | 1290 | 1179 | 1211 |
| | % | 48.9 | 45.7 | 51.0 | 21.6 | 25.4 | 25.4 | 18.9 | 20.4 | 18.5 | 10.6 | 8.5 | 5.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169 | 990 | 1088 | 480 | 496 | 501 | 424 | 445 | 377 | 231 | 174 | 104 | 2304 | 2105 | 2070 |
| | % | 50.7 | 47.0 | 52.6 | 20.8 | 23.6 | 24.2 | 18.4 | 21.1 | 18.2 | 10 | 8.3 | 5.0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2-44>.

지역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23.5%, 2011년 32.3%, 2012년 25.1%로 2010년 대비 1.6%p 증가하였으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29.3%, 2011년 28.8%, 2012년 22.2%로 7.2%p 감소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경우 2010년 29.5%, 2011년 28.8%, 2012년 23.5%로 6%p 감소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광역시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그림 II-2-40】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소득별)

표 II-2-45 중1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소득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저소득층 | N | 188 | 193 | 224 | 108 | 99 | 94 | 93 | 84 | 84 | 37 | 36 | 26 | 426 | 412 | 428 |
| | % | 44.1 | 46.8 | 52.3 | 25.4 | 24.0 | 22.0 | 21.8 | 20.4 | 19.6 | 8.7 | 8.7 | 6.1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708 | 598 | 659 | 271 | 315 | 299 | 234 | 261 | 228 | 141 | 110 | 49 | 1354 | 1284 | 1235 |
| | % | 52.3 | 46.6 | 53.4 | 20 | 24.5 | 24.2 | 17.3 | 20.3 | 18.5 | 10.4 | 8.6 | 4.0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211 | 183 | 181 | 82 | 77 | 97 | 62 | 90 | 48 | 35 | 34 | 22 | 390 | 384 | 348 |
| | % | 54.1 | 47.7 | 52.0 | 21.0 | 20.1 | 27.9 | 15.9 | 23.4 | 13.8 | 9.0 | 8.9 | 6.3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107 | 974 | 1064 | 461 | 491 | 490 | 389 | 435 | 360 | 213 | 180 | 97 | 2170 | 2080 | 2011 |
| | % | 51.0 | 46.8 | 52.9 | 21.2 | 23.6 | 24.4 | 17.9 | 20.9 | 17.9 | 9.8 | 8.7 | 4.8 | 100 | 100 | 100 |

중학생에 비해 중학교 2학년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해 컴퓨터를 사용한 경우가 더 많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광역시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해 컴퓨터 사용경험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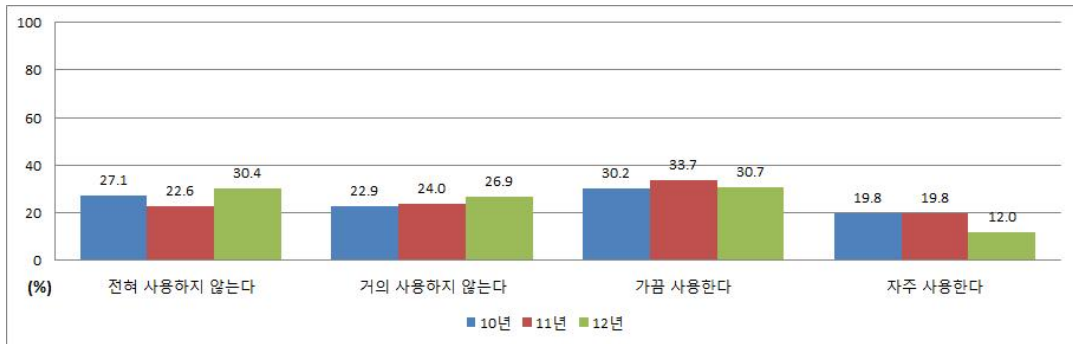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 계층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45>.

소득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30.5%, 2011년 29.1%, 2012년 25.7%로 4.8%p 감소하였고,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27.7%, 2011년 28.9%, 2012년 22.4%로 5.3%p 감소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24.9%, 2011년 32.3%, 2012년 20.1% 으로 4.8%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인 중학생의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를 위해 컴퓨터 사용경험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였다.

⑨ 댓글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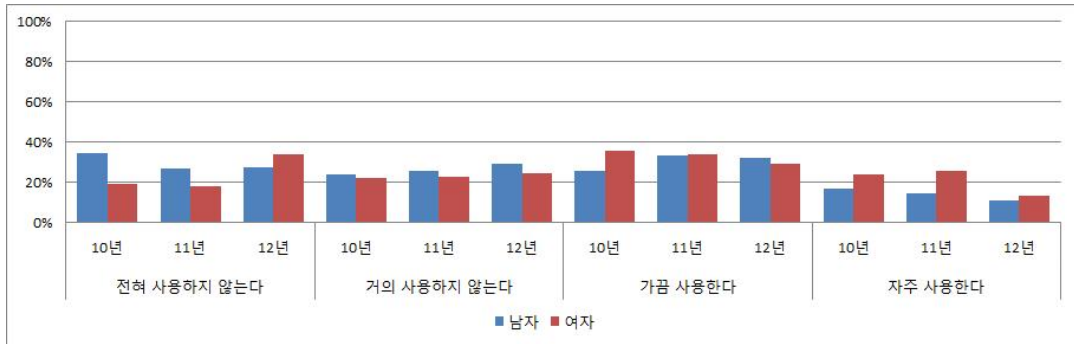
중학생이 댓글 달기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46>. 2010년 50%, 2011년 53.5%, 2012년 42.6%로 중학교 2학년에 댓글 달기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41】 중1 패널- 댓글 달기

표 II-2-46 중1 패널- 댓글 달기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624 | 27.1 | 498 | 22.6 | 646 | 30.4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527 | 22.9 | 528 | 24.0 | 571 | 26.9 |
| 가끔 사용한다 | 695 | 30.2 | 742 | 33.7 | 651 | 30.7 |
| 자주 사용한다 | 457 | 19.8 | 436 | 19.8 | 254 | 12.0 |
| 합계 | 2302 | 100 | 2205 | 100 | 212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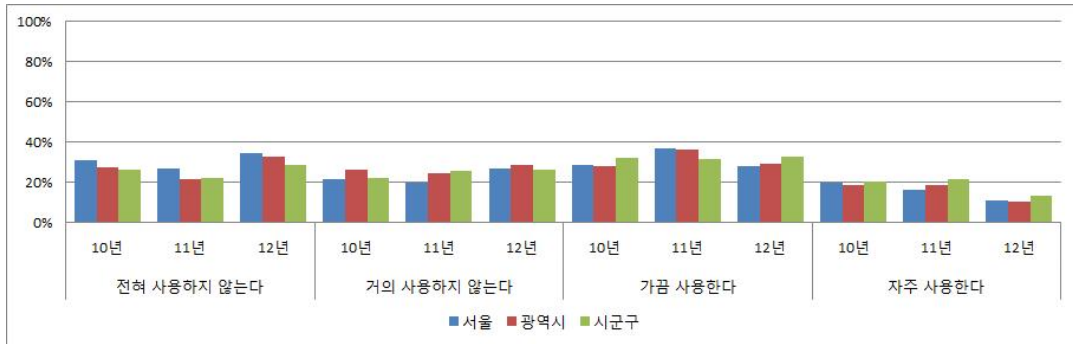
【그림 II-2-42】 중1 패널- 댓글 달기(성별)

표 II-2-47 중1 패널- 댓글 달기(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412 | 309 | 304 | 287 | 291 | 323 | 305 | 382 | 355 | 197 | 164 | 121 | 1201 | 1146 | 1103 |
| | % | 34.3 | 27.0 | 27.6 | 23.9 | 25.4 | 29.3 | 25.4 | 33.3 | 32.2 | 16.4 | 14.3 | 11.0 | 100 | 100 | 100 |
| 여자 | N | 212 | 189 | 342 | 240 | 237 | 248 | 390 | 360 | 296 | 260 | 272 | 133 | 1102 | 1058 | 1019 |
| | % | 19.2 | 17.9 | 33.6 | 21.8 | 22.4 | 24.3 | 35.4 | 34.0 | 29.0 | 23.6 | 25.7 | 13.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24 | 498 | 646 | 527 | 528 | 571 | 695 | 742 | 651 | 457 | 436 | 254 | 2303 | 2204 | 2122 |
| | % | 27.1 | 22.6 | 30.4 | 22.9 | 24.0 | 26.9 | 30.2 | 33.7 | 30.7 | 19.8 | 19.8 | 12.0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댓글달기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47>.

성별에 따라 댓글달기를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남학생은 2010년 41.8%, 2011년 47.6%, 2012년 43.2%로 2010년에 비해 1.4%p 증가하였으나, 여학생은 2010년 59%, 2011년 59.7%, 2012년 42.1%로 2010년 대비 16.9%p 감소하였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댓글달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이 더 많았으며, 중학교 2학년이 학년이 댓글달기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 사용경험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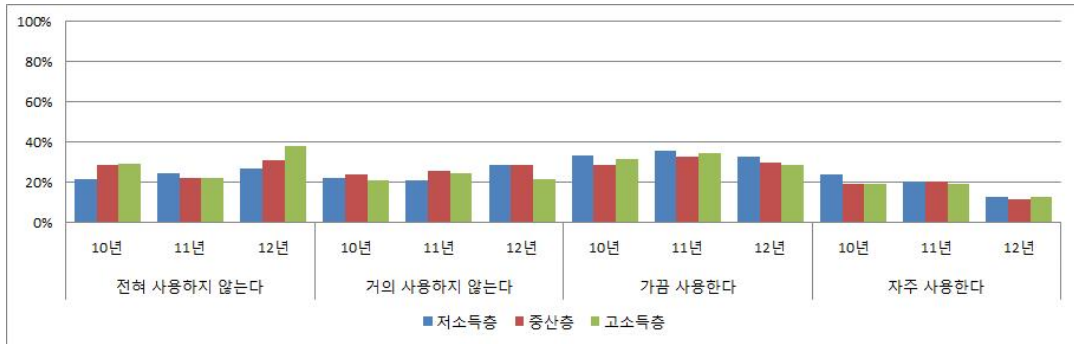
【그림 II-2-43】 중1 패널- 댓글 달기(지역별)

표 II-2-48 중1 패널- 댓글 달기(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23 | 96 | 63 | 85 | 71 | 49 | 115 | 132 | 51 | 79 | 58 | 20 | 402 | 357 | 183 |
| | % | 30.6 | 26.9 | 34.4 | 21.1 | 19.9 | 26.8 | 28.6 | 37.0 | 27.9 | 19.7 | 16.2 | 10.9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68 | 123 | 222 | 158 | 137 | 191 | 171 | 206 | 195 | 114 | 104 | 68 | 611 | 570 | 676 |
| | % | 27.5 | 21.6 | 32.8 | 25.9 | 24.0 | 28.3 | 28.0 | 36.1 | 28.8 | 18.7 | 18.2 | 10.1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333 | 258 | 345 | 284 | 301 | 317 | 409 | 371 | 392 | 264 | 249 | 157 | 1290 | 1179 | 1211 |
| | % | 25.8 | 21.9 | 28.5 | 22.0 | 25.5 | 26.2 | 31.7 | 31.5 | 32.4 | 20.5 | 21.1 | 13.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24 | 477 | 630 | 527 | 509 | 557 | 695 | 709 | 638 | 457 | 411 | 245 | 2303 | 2106 | 2070 |
| | % | 27.1 | 22.6 | 30.4 | 22.9 | 24.2 | 26.9 | 30.2 | 33.7 | 30.8 | 19.8 | 19.5 | 11.8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댓글달기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48>.

지역에 따라 댓글달기를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48.3%, 2011년 53.2%, 2012년 38.8%로 2010년 대비 9.5%p 감소하였으며, 2010년 46.6%, 2011년 54.4%, 2012년 38.9%로 2010년 대비 7.7%p 감소하였고, 2010년 52.2%, 2011년 52.6%, 2012년 45.3% 으로 2010년 대비 6.8%p 감소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댓글달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이 광역시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였다.



【그림 II-2-44】 중1 패널- 댓글 달기(소득별)

표 II-2-49 중1 패널- 댓글 달기(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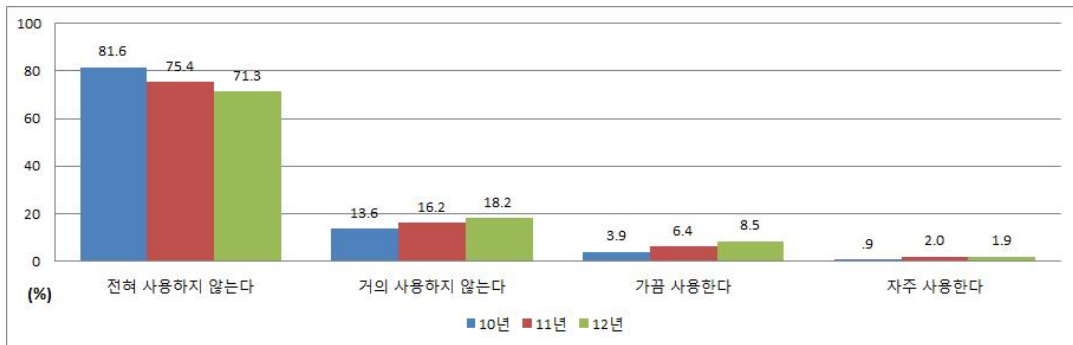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90 | 99 | 113 | 93 | 85 | 123 | 141 | 146 | 139 | 101 | 82 | 53 | 425 | 412 | 428 |
| | % | 21.2 | 24.0 | 26.4 | 21.9 | 20.6 | 28.7 | 33.2 | 35.4 | 32.5 | 23.8 | 19.9 | 12.4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388 | 283 | 378 | 323 | 330 | 348 | 389 | 415 | 367 | 254 | 256 | 143 | 1354 | 1284 | 1236 |
| | % | 28.7 | 22.0 | 30.6 | 23.9 | 25.7 | 28.2 | 28.7 | 32.3 | 29.7 | 18.8 | 19.9 | 11.6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13 | 84 | 131 | 82 | 94 | 75 | 122 | 133 | 98 | 73 | 73 | 44 | 390 | 384 | 348 |
| | % | 29.0 | 21.9 | 37.6 | 21.0 | 24.5 | 21.6 | 31.3 | 34.6 | 28.2 | 18.7 | 19.0 | 12.6 | 100 | 100 | 100 |
| 전체 | N | 591 | 466 | 622 | 498 | 509 | 546 | 652 | 694 | 604 | 428 | 411 | 240 | 2169 | 2080 | 2012 |
| | % | 27.2 | 22.4 | 30.9 | 23.0 | 24.5 | 27.1 | 30.1 | 33.4 | 30 | 19.7 | 19.8 | 11.9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댓글달기를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49>.

소득에 따라 댓글달기를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56.9%, 2011년 55.3%, 2012년 44.9% 12.1%p 감소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47.5%, 2011년 52.3%, 2012년 41.3%로 2010년 대비 6.2%p 감소하였고,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50%, 2011년 53.6%, 2012년 40.8%로 2010년 대비 9.2%p 감소하였다. 중학교 3학년에는 저소득인 중학생의 댓글달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이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인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였다.

⑩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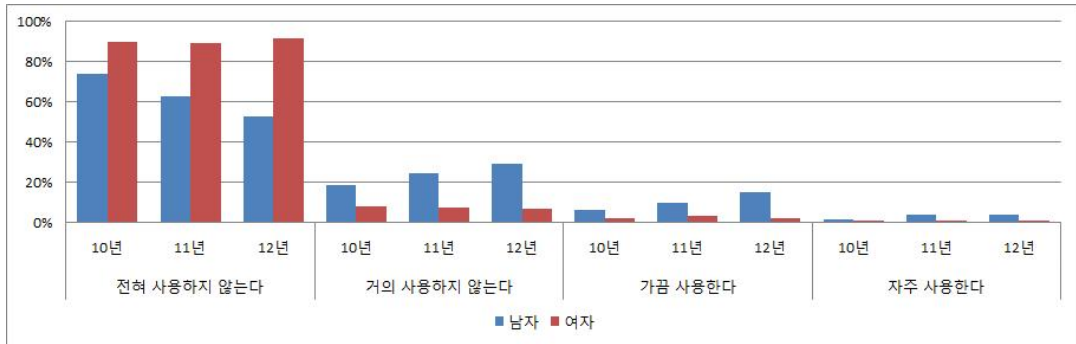
중학생이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50>.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2010년 4.8%, 2011년 8.4%, 2012년 10.5%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45】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표 II-2-50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880 | 81.6 | 1663 | 75.4 | 1514 | 71.3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313 | 13.6 | 357 | 16.2 | 386 | 18.2 |
| 가끔 사용한다 | 89 | 3.9 | 140 | 6.4 | 181 | 8.5 |
| 자주 사용한다 | 20 | 0.9 | 45 | 2.0 | 41 | 1.9 |
| 합계 | 2302 | 100 | 2205 | 100 | 212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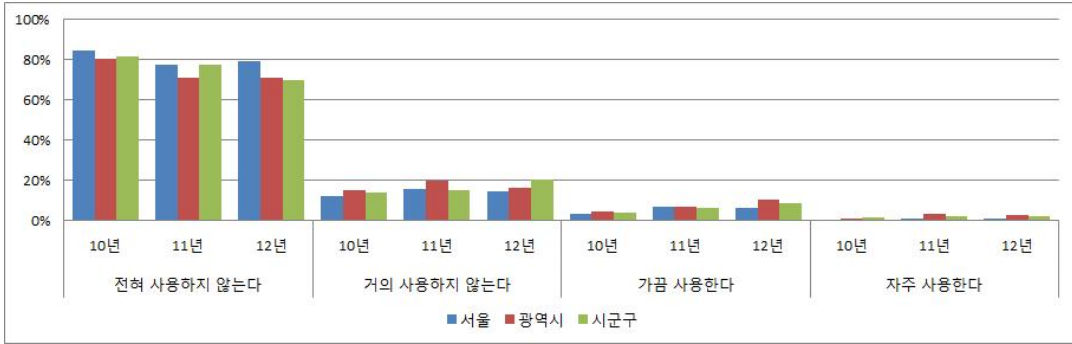
【그림 II-2-46】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성별)

표 II-2-51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성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888 | 718 | 582 | 224 | 281 | 319 | 71 | 107 | 162 | 17 | 41 | 39 | 1200 | 1147 | 1102 |
| | % | 74.0 | 62.6 | 52.8 | 18.7 | 24.5 | 28.9 | 5.9 | 9.3 | 14.7 | 1.4 | 3.6 | 3.5 | 100 | 100 | 100 |
| 여자 | N | 991 | 945 | 932 | 89 | 76 | 67 | 19 | 33 | 19 | 3 | 5 | 2 | 1102 | 1059 | 1020 |
| | % | 89.9 | 89.2 | 91.4 | 8.1 | 7.2 | 6.6 | 1.7 | 3.1 | 1.9 | 0.3 | 0.5 | 0.2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879 | 1663 | 1514 | 313 | 357 | 386 | 90 | 140 | 181 | 20 | 46 | 41 | 2302 | 2206 | 2122 |
| | % | 81.6 | 75.4 | 71.3 | 13.6 | 16.2 | 18.2 | 3.9 | 6.3 | 8.5 | 0.9 | 2.1 | 1.9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51>.

성별에 따라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남학생은 2010년 7.3%, 2011년 12.9%, 2012년 18.2%로 10.9%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2%, 2011년 3.6%, 2012년 2.1%로 중학교 2학년에 가장 높고 1, 3학년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학생의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여학생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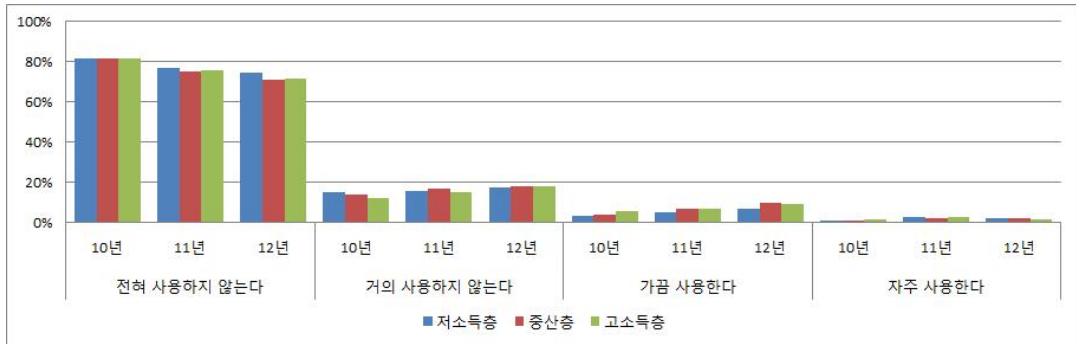
【그림 II-2-47】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지역별)

표 II-2-52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341 | 277 | 145 | 49 | 55 | 26 | 12 | 23 | 11 | 0 | 2 | 1 | 402 | 357 | 183 |
| | % | 84.8 | 77.6 | 79.2 | 12.2 | 15.4 | 14.2 | 3.0 | 6.4 | 6.0 | 0 | 0.6 | 0.5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488 | 405 | 481 | 91 | 111 | 109 | 26 | 37 | 69 | 4 | 17 | 17 | 609 | 570 | 676 |
| | % | 80.1 | 71.1 | 71.2 | 14.9 | 19.5 | 16.1 | 4.3 | 6.5 | 10.2 | 0.7 | 3.0 | 2.5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1051 | 914 | 848 | 173 | 174 | 242 | 51 | 69 | 100 | 16 | 22 | 21 | 1291 | 1179 | 1211 |
| | % | 81.4 | 77.5 | 70 | 13.4 | 14.8 | 20 | 4.0 | 5.9 | 8.3 | 1.2 | 1.9 | 1.7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880 | 1596 | 1474 | 313 | 340 | 377 | 89 | 129 | 180 | 20 | 41 | 39 | 2302 | 2106 | 2070 |
| | % | 81.7 | 75.8 | 71.2 | 13.6 | 16.1 | 18.2 | 3.9 | 6.1 | 8.7 | 0.9 | 1.9 | 1.9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52>.

지역에 따라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3%, 2011년 7%, 2012년 6.6%로 2010년 대비 3.6%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4.9%, 2011년 9.5%, 2012년 12.7%로 7.8%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5.2% 2011년 7.7% 2012년 10%로 4.8%p 증가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중학교 2학년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광역시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위한



【그림 II-2-48】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소득별)

표 II-2-53 중1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소득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 | | | | | |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 | | | | | | | | | |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 346 | 81.4 | 317 | 77.1 | 319 | 74.5 | 62 | 14.6 | 64 | 15.6 | 73 | 17.1 | 13 | 3.1 | 21 | 5.1 | 29 | 6.8 | 4 | .9 | 9 | 2.2 | 7 | 1.6 | 425 | 100 | 411 | 100 | 428 | 100 |
| | 1105 | 81.6 | 965 | 75.2 | 874 | 70.8 | 188 | 13.9 | 215 | 16.7 | 220 | 17.8 | 50 | 3.7 | 83 | 6.5 | 115 | 9.3 | 11 | 0.8 | 21 | 1.6 | 26 | 2.1 | 1354 | 100 | 1284 | 100 | 1235 | 100 |
| 중산층 | 319 | 81.6 | 291 | 75.8 | 249 | 71.6 | 46 | 11.8 | 58 | 15.1 | 63 | 18.1 | 21 | 5.4 | 26 | 6.8 | 31 | 8.9 | 5 | 1.3 | 9 | 2.3 | 5 | 1.4 | 391 | 100 | 384 | 100 | 348 | 100 |
| | 1770 | 81.6 | 1573 | 75.7 | 1442 | 71.7 | 296 | 13.6 | 337 | 16.2 | 356 | 17.7 | 84 | 3.9 | 130 | 6.3 | 175 | 8.7 | 20 | 0.9 | 39 | 1.9 | 38 | 1.9 | 2170 | 100 | 2079 | 100 | 2011 | 100 |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 계층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53>.

소득에 따라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4%, 2011년 7.3%, 2012년 8.4%로 4.4%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4.5%, 2011년 8.1%, 2012년 11.4%로 6.9%p 증가하였으며, 2010년 6.6%, 2011년 9.1%, 2012년 10.3%로 3.7%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인 중학생의 19세 이상 사이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인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1. 초4 패널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2. 중1 패널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제 3 장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1. 초4 패널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4 패널의 3년간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얼마나 자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휴대전화 사용 빈도), 그리고 휴대전화에 얼마나 의존하는지(휴대전화 의존도)를 묻는 문항이었다.

휴대전화 사용 빈도를 조사한 문항은 ① 가족과의 통화, ②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③ 친구와의 통화, ④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⑤ 게임 및 오락, ⑥ 사진 촬영, ⑦ 동영상 감상, ⑧ 음악 듣기, ⑨ 시간 보기로 총 9문항이며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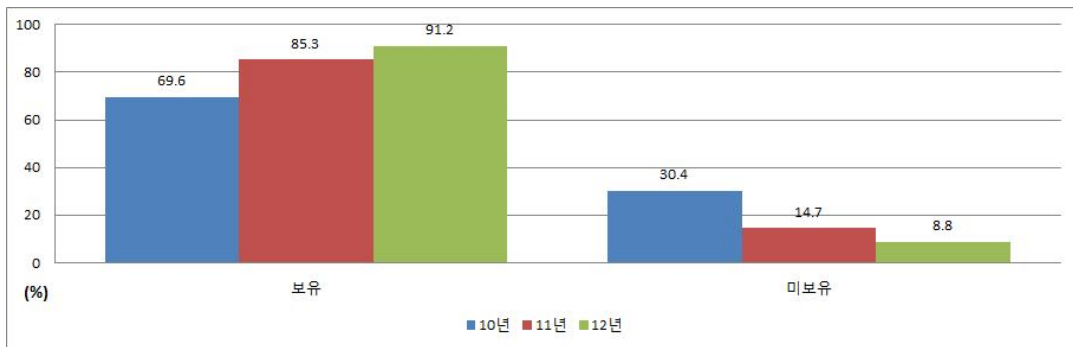
휴대전화 의존도는 이시형 등(2002)의 휴대전화 의존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 문항은 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②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③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④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⑥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⑦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로 총 7문항이며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및 사용 형태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및 사용 형태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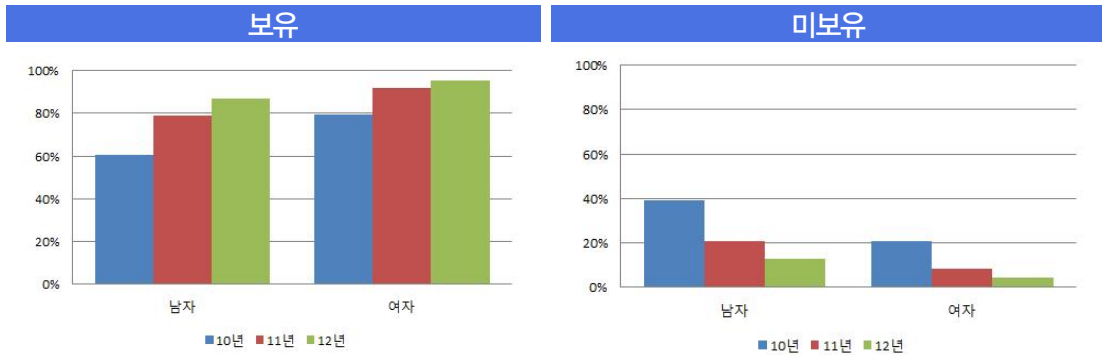
초등학교 4, 5, 6학년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2010년 69.6%에서 2011년 85.3%, 2012년 91.2%로 꾸준히 상승하였다<표 III-1-1>.



【그림 III-1-1】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표 III-1-1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보유 | 1656 | 69.6 | 1930 | 85.3 | 2023 | 91.2 |
| 미보유 | 722 | 30.4 | 334 | 14.7 | 196 | 8.8 |
| 합계 | 2378 | 100 | 2264 | 100 | 2219 | 100 |



【그림 Ⅲ-1-2】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표 Ⅲ-1-2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 항목 | 보유 | | | 미보유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남자 | 사례수 | 756 | 939 | 1012 | 488 | 246 | 150 | 1244 | 1185 | 1162 |
| | 비율 | 60.8 | 79.2 | 87.1 | 39.2 | 20.8 | 12.9 | 100 | 100 | 100 |
| 여자 | 사례수 | 900 | 991 | 1011 | 235 | 88 | 46 | 1135 | 1079 | 1057 |
| | 비율 | 79.3 | 91.8 | 95.6 | 20.7 | 8.2 | 4.4 | 100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1656 | 1930 | 2023 | 723 | 334 | 196 | 2379 | 2264 | 2219 |
| | 비율 | 69.6 | 85.2 | 91.2 | 30.4 | 14.8 | 8.8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보유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휴대전화 보유율이 더 높았다(2012년 남 87.1%, 여 91.8%)<표 Ⅲ-1-2>. 남학생은 2010년 60.8%에서 2012년 87.1%로 26.3%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79.3%에서 2012년 95.6%로 16.4%p 증가하여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보유율도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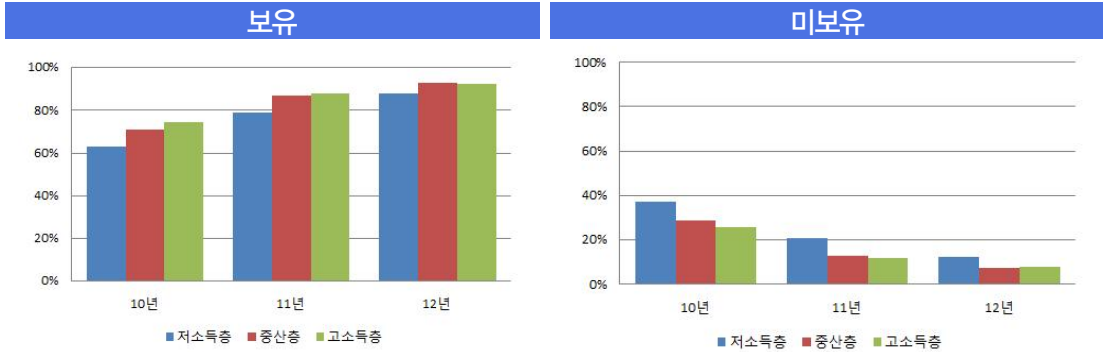


【그림 III-1-3】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지역별)

표 III-1-3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지역별)

| 항목 | 보유 | | | 미보유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서울 | 사례수 | 297 | 316 | 328 | 111 | 57 | 35 | 408 | 373 | 363 |
| | 비율 | 72.8 | 84.7 | 90.4 | 27.2 | 15.3 | 9.6 | 100 | 100 | 100 |
| 광역시 | 사례수 | 442 | 497 | 530 | 176 | 80 | 39 | 618 | 577 | 569 |
| | 비율 | 71.5 | 86.1 | 93.1 | 28.5 | 13.9 | 6.9 | 100 | 100 | 100 |
| 시군구 | 사례수 | 917 | 1070 | 1107 | 435 | 188 | 116 | 1352 | 1258 | 1223 |
| | 비율 | 67.8 | 85.1 | 90.5 | 32.2 | 14.9 | 9.5 | 100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1656 | 1883 | 1965 | 722 | 325 | 190 | 2378 | 2208 | 2155 |
| | 비율 | 69.6 | 85.3 | 91.2 | 30.4 | 14.7 | 8.8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휴대전화 보유율을 살펴보면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보유율(2012년 93.1%)이 서울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보다 더 높았다(2012년 서울시 93.1%, 시군구 90.5%)<표 III-1-3>.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72.8%에서 2012년 90.4%로 17.6%p 증가하였으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71.5%에서 2012년 93.1%로 21.6%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67.8%에서 2012년 90.5%로 22.7%p 증가하여 휴대전화 보유율 증가는 시군구, 광역시,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4】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소득별)

표 III-1-4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소득별)

| 항목 | 보유 | | | 미보유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저소득층 | 사례수 | 285 | 337 | 375 | 168 | 89 | 52 | 453 | 426 | 427 |
| | 비율 | 62.9 | 79.1 | 87.8 | 37.1 | 20.9 | 12.2 | 100 | 100 | 100 |
| 중산층 | 사례수 | 1024 | 1189 | 1246 | 416 | 178 | 97 | 1440 | 1367 | 1343 |
| | 비율 | 71.1 | 87.0 | 92.8 | 28.9 | 13.0 | 7.2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사례수 | 254 | 292 | 286 | 87 | 40 | 24 | 341 | 332 | 310 |
| | 비율 | 74.5 | 88.0 | 92.3 | 25.5 | 12.0 | 7.7 | 100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1563 | 1818 | 1907 | 671 | 307 | 173 | 2234 | 2125 | 2080 |
| | 비율 | 70 | 85.6 | 91.7 | 30 | 14.4 | 8.3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휴대전화 보유율을 살펴보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보유율 (2012년 중산층 92.8%, 고소득층 92.3%)이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보유율보다 더 높았다 (2012년 저소득층 87.8%) <표 III-1-4>. 또한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2010년 62.9%에서 2012년 87.8%로 24.9%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 초등학생은 2010년 71.1%에서 2012년 92.8%로 21.7%p 증가하였고, 고소득층 초등학생은 2010년 74.5%에서 2012년 92.3%로 17.8%p 증가하여 휴대전화 보유율 증가는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순으로 나타났다.

(2) 초등학교생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9개의 문항을 '사용한다'와 '사용하지 않는다'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II-1-5>. 초등학교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2012년(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많이 사용한 형태(90%이상 사용한 항목)는 '가족과의 통화',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시간보기'였다. 가장 드물게 사용한 항목은 '동영상 감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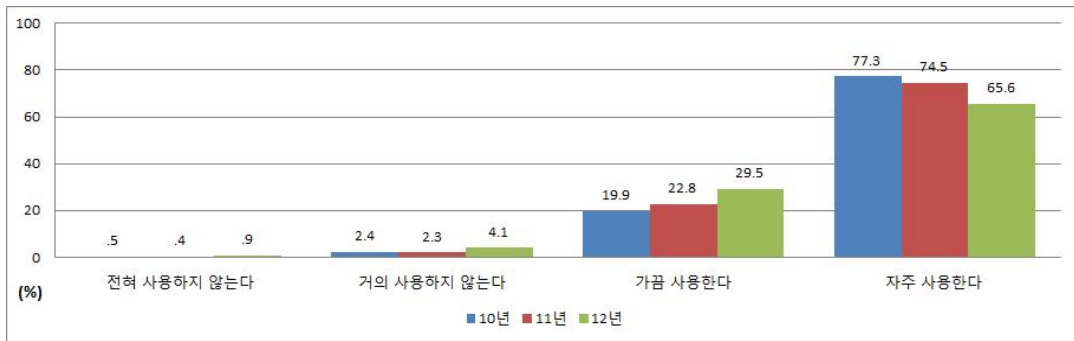
표 III-1-5 초4 휴대전화 사용 형태 변화

| 항목 | 사용한다 | | | 사용하지 않는다 | | | 전체 |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가족과의 통화 | N | 238 | 379 | 1923 | 1418 | 1551 | 100 | 1656 | 1930 | 2023 |
| | % | 14.4 | 19.6 | 95.0 | 85.6 | 80.4 | 5.0 | 100 | 100 | 100 |
|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 N | 143 | 259 | 1730 | 1513 | 1671 | 293 | 1656 | 1930 | 2023 |
| | % | 8.6 | 13.4 | 85.5 | 91.4 | 86.6 | 14.5 | 100 | 100 | 100 |
| 친구와의 통화 | N | 97 | 186 | 1846 | 1558 | 1744 | 177 | 1656 | 1930 | 2022 |
| | % | 5.9 | 9.6 | 91.3 | 94.1 | 90.4 | 8.7 | 100 | 100 | 100 |
|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 N | 270 | 415 | 1865 | 1386 | 1515 | 157 | 1656 | 1930 | 2022 |
| | % | 16.3 | 21.5 | 92.2 | 83.7 | 78.5 | 7.8 | 100 | 100 | 100 |
| 게임 및 오락 | N | 703 | 1042 | 1521 | 952 | 889 | 502 | 1656 | 1930 | 2022 |
| | % | 42.5 | 54.0 | 75.2 | 57.5 | 46.0 | 24.8 | 100 | 100 | 100 |
| 사진 촬영 | N | 1007 | 1236 | 1364 | 649 | 694 | 659 | 1656 | 1930 | 2023 |
| | % | 60.8 | 64.0 | 67.4 | 39.2 | 36.0 | 32.6 | 100 | 100 | 100 |
| 동영상 감상 | N | 479 | 698 | 957 | 1176 | 1232 | 1065 | 1656 | 1930 | 2022 |
| | % | 29.0 | 36.2 | 47.3 | 71.0 | 63.8 | 52.7 | 100 | 100 | 100 |
| 음악 듣기 | N | 804 | 1111 | 1554 | 852 | 819 | 465 | 1656 | 1930 | 2019 |
| | % | 48.6 | 57.5 | 76.9 | 51.4 | 42.5 | 23.1 | 100 | 100 | 100 |
| 시간보기 | N | 1521 | 1699 | 1825 | 135 | 231 | 197 | 1656 | 1930 | 2022 |
| | % | 91.9 | 88.0 | 90.3 | 8.1 | 12.0 | 9.7 | 100 | 100 | 100 |

각 문항별 세부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과의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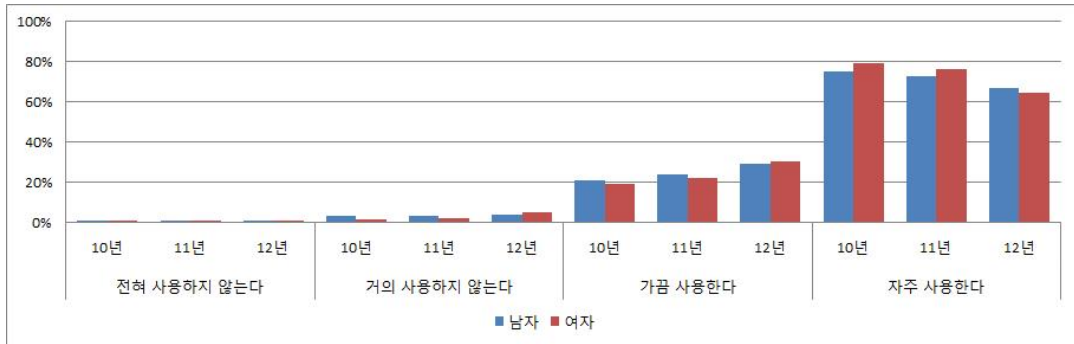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6>.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2010년 97.2%, 2011년 97.3%, 2012년 95.1%로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은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비슷했고 초등학교 6학년은 약간 낮아졌다.



【그림 III-1-5】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

표 III-1-6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8 | 0.5 | 8 | 0.4 | 17 | 0.9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39 | 2.4 | 45 | 2.3 | 83 | 4.1 |
| 가끔 사용한다 | 329 | 19.9 | 439 | 22.8 | 596 | 29.5 |
| 자주 사용한다 | 1280 | 77.3 | 1439 | 74.5 | 1327 | 65.6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23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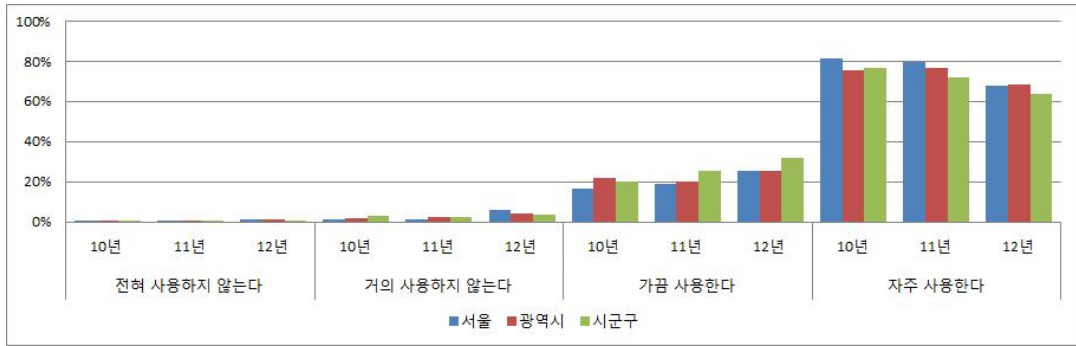
【그림 Ⅲ-1-6】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성별)

표 Ⅲ-1-7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5 | 5 | 7 | 25 | 28 | 36 | 158 | 223 | 292 | 567 | 683 | 676 | 755 | 939 | 1011 |
| | % | 0.7 | 0.5 | 0.7 | 3.3 | 3.0 | 3.6 | 20.9 | 23.7 | 28.9 | 75.1 | 72.7 | 66.9 | 100 | 100 | 100 |
| 여자 | N | 3 | 2 | 10 | 14 | 16 | 47 | 170 | 216 | 304 | 713 | 756 | 651 | 900 | 990 | 1012 |
| | % | 0.3 | 0.2 | 1.0 | 1.6 | 1.6 | 4.6 | 18.9 | 21.8 | 30 | 79.2 | 76.4 | 64.3 | 100 | 100 | 100 |
| 전체 | N | 8 | 7 | 17 | 39 | 44 | 83 | 328 | 439 | 596 | 1280 | 1439 | 1327 | 1655 | 1929 | 2023 |
| | % | 0.5 | 0.4 | 0.8 | 2.4 | 2.3 | 4.1 | 19.8 | 22.8 | 29.5 | 77.3 | 74.6 | 65.6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7>.

성별에 따라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남학생은 2010년 96%, 2011년 96.5%, 2012년 95.7%로 0.3%p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98.1%, 2011년 98.2%, 2012년 94.4%로 3.7%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감소하지만 여학생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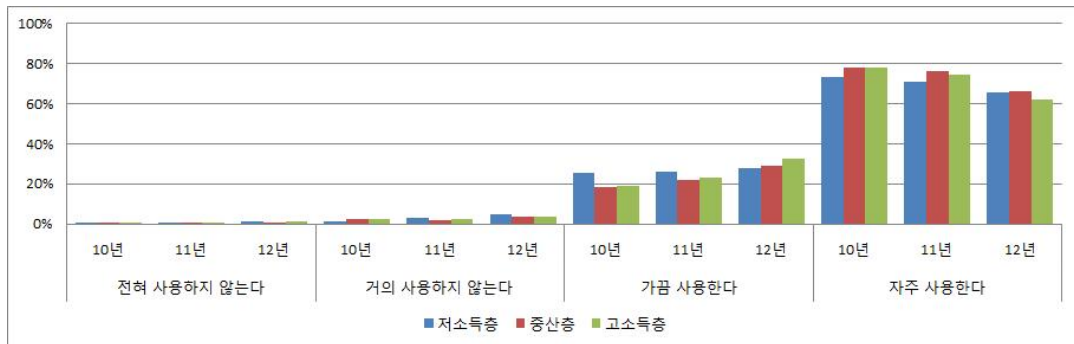
【그림 Ⅲ-1-7】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지역별)

표 Ⅲ-1-8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 | 1 | 4 | 4 | 4 | 19 | 50 | 59 | 83 | 241 | 251 | 223 | 296 | 315 | 329 |
| | % | 0.3 | 0.3 | 1.2 | 1.4 | 1.3 | 5.8 | 16.9 | 18.7 | 25.2 | 81.4 | 79.7 | 67.8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4 | 2 | 6 | 8 | 12 | 23 | 96 | 101 | 136 | 335 | 381 | 365 | 443 | 496 | 530 |
| | % | 0.9 | 0.4 | 1.1 | 1.8 | 2.4 | 4.3 | 21.7 | 20.4 | 25.7 | 75.6 | 76.8 | 68.9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2 | 4 | 5 | 27 | 26 | 38 | 183 | 271 | 356 | 704 | 770 | 708 | 916 | 1071 | 1107 |
| | % | 0.2 | 0.4 | 0.5 | 2.9 | 2.4 | 3.4 | 20 | 25.3 | 32.2 | 76.9 | 71.9 | 64.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 | 7 | 15 | 39 | 42 | 80 | 329 | 431 | 575 | 1280 | 1402 | 1296 | 1655 | 1882 | 1966 |
| | % | 0.4 | 0.4 | 0.8 | 2.4 | 2.2 | 4.1 | 19.9 | 22.9 | 29.2 | 77.3 | 74.5 | 65.9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8>.

지역에 따라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98.3%, 2011년 98.4%, 2012년 93%로 5.3%p 감소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97.3%, 2011년 97.2%, 2012년 94.5%로 2.8%p 감소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96.8% 2011년 97.2% 2012년 96.1%로 약간 감소해 2010년 대비 0.7%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시군구 및 광역시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8】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소득별)

표 Ⅲ-1-9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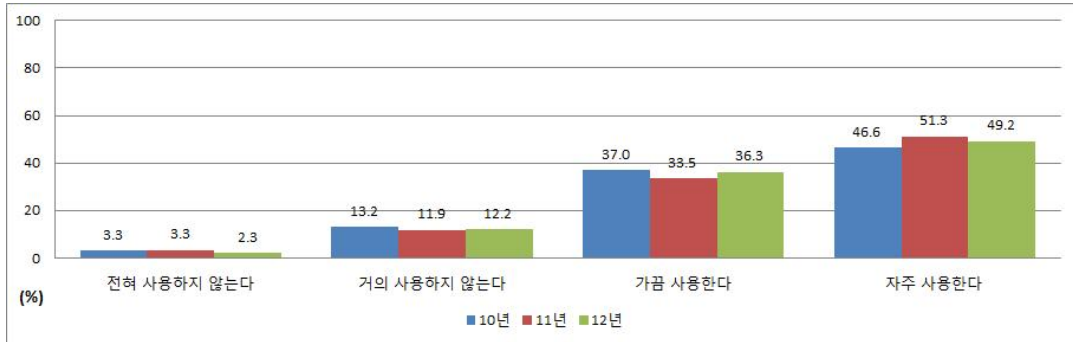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1 | 1 | 4 | 3 | 10 | 19 | 72 | 87 | 105 | 209 | 239 | 246 | 285 | 337 | 374 |
| | % | 0.4 | 0.3 | 1.1 | 1.1 | 3.0 | 5.1 | 25.3 | 25.8 | 28.1 | 73.3 | 70.9 | 65.8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5 | 3 | 8 | 26 | 22 | 48 | 191 | 260 | 362 | 802 | 904 | 828 | 1024 | 1189 | 1246 |
| | % | 0.5 | 0.3 | 0.6 | 2.5 | 1.9 | 3.9 | 18.7 | 21.9 | 29.1 | 78.3 | 76.0 | 66.5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 | 1 | 4 | 7 | 7 | 11 | 48 | 67 | 94 | 198 | 217 | 177 | 254 | 292 | 286 |
| | % | 0.4 | 0.3 | 1.4 | 2.8 | 2.4 | 3.8 | 18.9 | 22.9 | 32.9 | 78.0 | 74.3 | 61.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 | 5 | 16 | 36 | 39 | 78 | 311 | 414 | 561 | 1209 | 1360 | 1251 | 1563 | 1818 | 1906 |
| | % | 0.4 | 0.3 | 0.8 | 2.3 | 2.1 | 4.1 | 19.9 | 22.8 | 29.4 | 77.4 | 74.8 | 65.6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 계층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9>.

소득에 따라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98.6%, 2011년 96.7%, 2012년 93.9%로 4.7%p 감소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97%, 2011년 97.9%, 2012년 95.5%로 1.5%p 감소하였으며, 2010년 96.9%, 2011년 97.3%, 2012년 94.8%로 2.1%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감소하지만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이 고소득층 및 중산층인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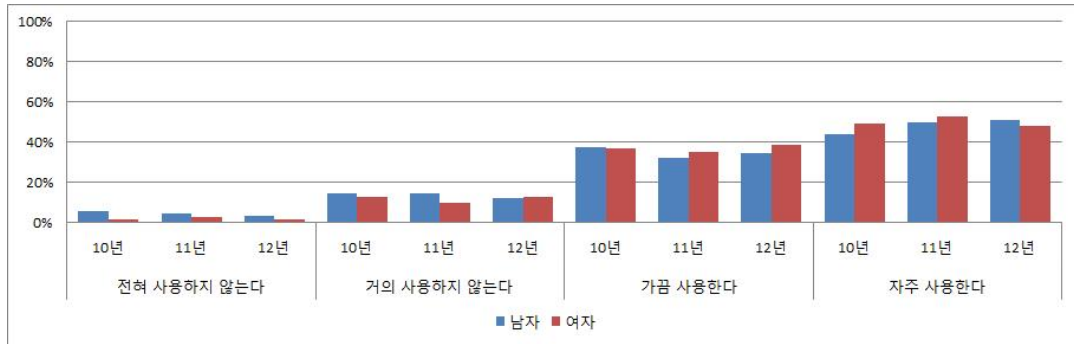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10>. 2010년 83.6%, 2011년 84.8%, 2012년 85.5%로 학년이 높아질 때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림 III-1-9】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표 III-1-10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54 | 3.3 | 64 | 3.3 | 46 | 2.3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218 | 13.2 | 229 | 11.9 | 247 | 12.2 |
| 가끔 사용한다 | 612 | 37.0 | 646 | 33.5 | 735 | 36.3 |
| 자주 사용한다 | 771 | 46.6 | 991 | 51.3 | 995 | 49.2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23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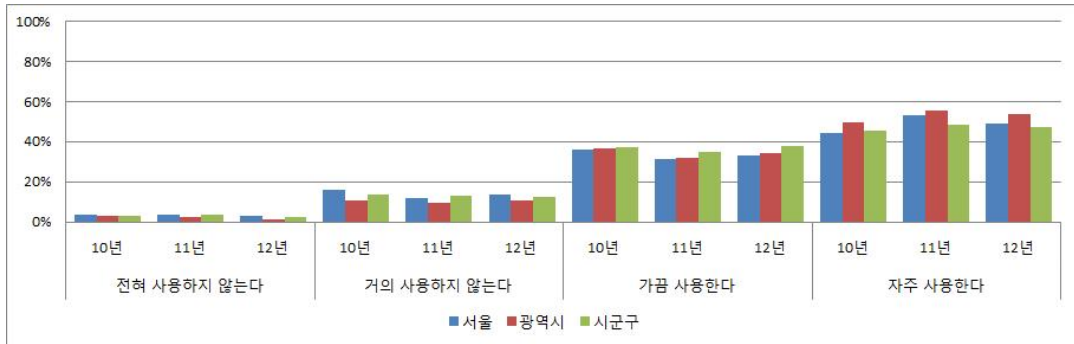
【그림 Ⅲ-1-10】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성별)

표 Ⅲ-1-11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성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남자 | N | 41 | 42 | 30 | 106 | 132 | 123 | 280 | 299 | 347 | 329 | 467 | 513 | 756 | 940 | 1013 |
| | % | 5.4 | 4.5 | 3.0 | 14.0 | 14.0 | 12.1 | 37.0 | 31.8 | 34.3 | 43.5 | 49.7 | 50.6 | 100 | 100 | 100 |
| 여자 | N | 14 | 22 | 16 | 112 | 97 | 124 | 332 | 347 | 388 | 442 | 524 | 483 | 900 | 990 | 1011 |
| | % | 1.6 | 2.2 | 1.6 | 12.4 | 9.8 | 12.3 | 36.9 | 35.1 | 38.4 | 49.1 | 52.9 | 47.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55 | 64 | 46 | 218 | 229 | 247 | 612 | 646 | 735 | 771 | 991 | 996 | 1656 | 1930 | 2024 |
| | % | 3.3 | 3.3 | 2.3 | 13.2 | 11.9 | 12.2 | 37.0 | 33.5 | 36.3 | 46.6 | 51.3 | 49.2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10>.

남학생은 2010년 80.6%, 2011년 81.5%, 2012년 84.9%로 4.3%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86%, 2011년 88%, 2012년 86.2%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0.2%p 증가하였다. 즉, 남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사용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여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에 가장 높고 6학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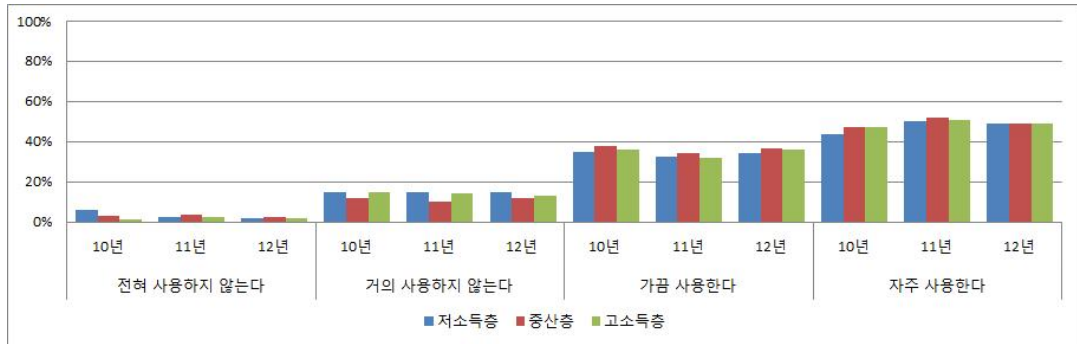
【그림 III-1-II】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표 III-1-12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서울 | N | 11 | 11 | 11 | 47 | 37 | 46 | 107 | 100 | 110 | 133 | 168 | 162 | 298 | 316 | 329 |
| | % | 3.7 | 3.5 | 3.3 | 15.8 | 11.7 | 14.0 | 35.9 | 31.6 | 33.4 | 44.6 | 53.2 | 49.2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4 | 13 | 8 | 47 | 47 | 56 | 161 | 160 | 181 | 220 | 277 | 284 | 442 | 497 | 529 |
| | % | 3.2 | 2.6 | 1.5 | 10.6 | 9.5 | 10.6 | 36.4 | 32.2 | 34.2 | 49.8 | 55.7 | 53.7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30 | 40 | 25 | 124 | 139 | 140 | 344 | 372 | 418 | 419 | 520 | 523 | 917 | 1071 | 1106 |
| | % | 3.3 | 3.7 | 2.3 | 13.5 | 13.0 | 12.7 | 37.5 | 34.7 | 37.8 | 45.7 | 48.6 | 47.3 | 100 | 100 | 100 |
| 전체 | N | 55 | 64 | 44 | 218 | 223 | 242 | 612 | 632 | 709 | 772 | 965 | 969 | 1657 | 1884 | 1964 |
| | % | 3.3 | 3.4 | 2.2 | 13.2 | 11.8 | 12.3 | 36.9 | 33.5 | 36.1 | 46.6 | 51.2 | 49.3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12>.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80.5%, 2011년 84.8%, 2012년 82.7%로 증가하였다가 약간 감소해 2010년 대비 2.1%p 감소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86.2%, 2011년 87.9%, 2012년 87.9%로 1.7%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83.2%, 2011년 83.3%, 2012년 85.1%로 1.9%p 증가하였다. 가족과의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에 가장 높았으나 초등학교 6학년에 가장 낮았으며, 광역시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학년이 높아질



【그림 Ⅲ-1-12】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표 Ⅲ-1-13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N | 17 | 8 | 8 | 43 | 51 | 55 | 100 | 109 | 128 | 125 | 169 | 184 | 285 | 337 |
| 저소득층 | % | 6.0 | 2.4 | 2.1 | 15.1 | 15.1 | 14.7 | 35.1 | 32.3 | 34.1 | 43.9 | 50.1 | 49.1 | 100 | 100 | 100 |
| | N | 29 | 42 | 29 | 122 | 124 | 145 | 387 | 405 | 460 | 485 | 618 | 612 | 1023 | 1189 | 1246 |
| 중산층 | % | 2.8 | 3.5 | 2.3 | 11.9 | 10.4 | 11.6 | 37.8 | 34.1 | 36.9 | 47.4 | 52.0 | 49.1 | 100 | 100 | 100 |
| | N | 3 | 8 | 5 | 38 | 42 | 37 | 92 | 93 | 103 | 120 | 149 | 141 | 253 | 292 | 286 |
| 고소득층 | % | 1.2 | 2.7 | 1.7 | 15.0 | 14.4 | 12.9 | 36.4 | 31.8 | 36.0 | 47.4 | 51.0 | 49.3 | 100 | 100 | 100 |
| | N | 49 | 58 | 42 | 203 | 217 | 237 | 579 | 607 | 691 | 730 | 936 | 937 | 1561 | 1818 | 1907 |
| 전체 | % | 3.1 | 3.2 | 2.2 | 13.0 | 11.9 | 12.4 | 37.1 | 33.4 | 36.2 | 46.8 | 51.5 | 49.1 | 100 | 10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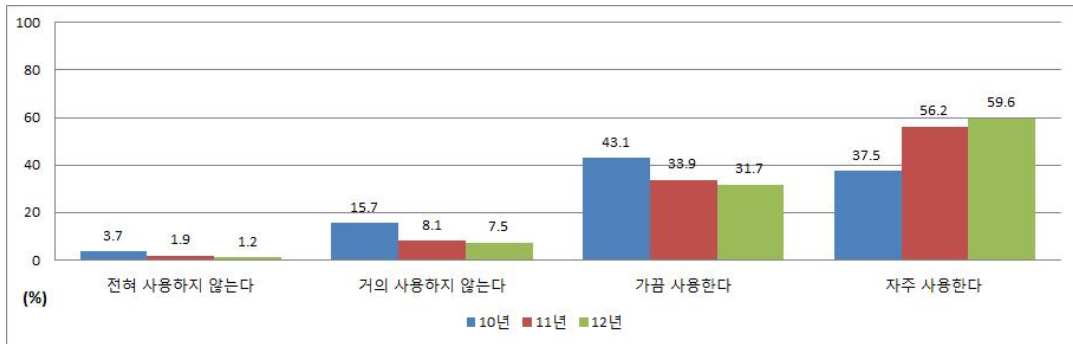
때 가족과의 메시지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든 소득 계층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13>.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저소득층인 초등학교생은 2010년 78.9%, 2011년 82.5%, 2012년 83.2%로 4.3%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교생은 2010년 85.2%, 2011년 86%, 2012년 86% 으로 0.8%p 증가하였고, 고소득층인 초등학교생은 2010년 83.8%, 2011년 82.9%, 2012년 85.3%로 1.5%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증가 비율이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③ 친구와의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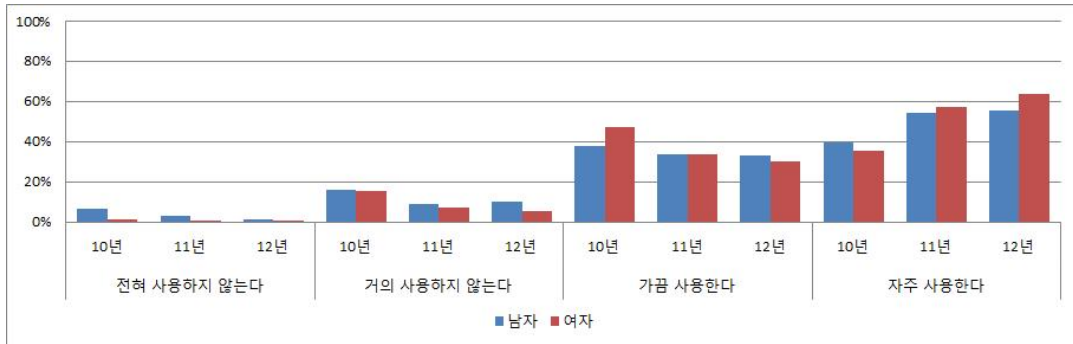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14>. 2010년 80.6%, 2011년 90.1%, 2012년 90.3%로 학년이 높아질 때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13】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

표 III-1-14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61 | 3.7 | 36 | 1.9 | 25 | 1.2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260 | 15.7 | 156 | 8.1 | 152 | 7.5 |
| 가끔 사용한다 | 714 | 43.1 | 654 | 33.9 | 641 | 31.7 |
| 자주 사용한다 | 621 | 37.5 | 1084 | 56.2 | 1205 | 59.6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2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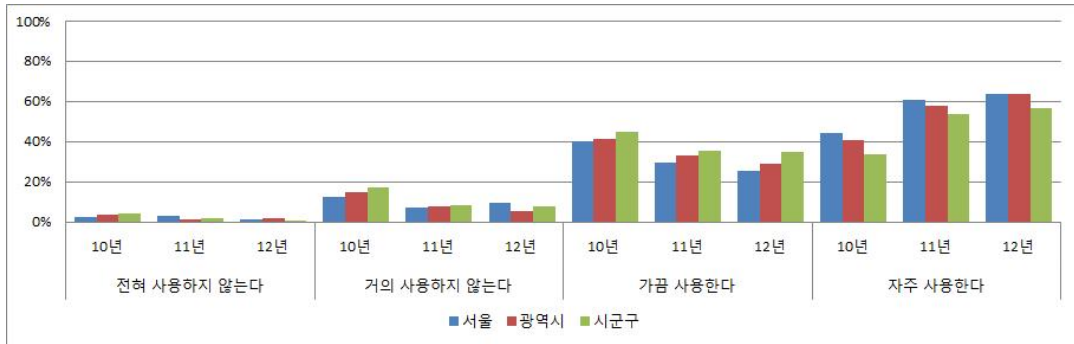
【그림 III-1-14】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성별)

표 III-1-15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성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남자 | N | 48 | 27 | 15 | 120 | 82 | 100 | 288 | 317 | 337 | 301 | 513 | 561 | 757 | 939 | 1013 |
| | % | 6.3 | 2.9 | 1.5 | 15.9 | 8.7 | 9.9 | 38.0 | 33.8 | 33.3 | 39.8 | 54.6 | 55.4 | 100 | 100 | 100 |
| 여자 | N | 13 | 9 | 10 | 140 | 74 | 52 | 426 | 337 | 304 | 320 | 571 | 644 | 899 | 991 | 1010 |
| | % | 1.4 | 0.9 | 1.0 | 15.6 | 7.5 | 5.1 | 47.4 | 34.0 | 30.1 | 35.6 | 57.6 | 63.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1 | 36 | 25 | 260 | 156 | 152 | 714 | 654 | 641 | 621 | 1084 | 1205 | 1656 | 1930 | 2023 |
| | % | 3.7 | 1.9 | 1.2 | 15.7 | 8.1 | 7.5 | 43.1 | 33.9 | 31.7 | 37.5 | 56.2 | 59.6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15>.

남학생은 2010년 77.8%, 2011년 88.4%, 2012년 88.6%로 10.8%p 증가하였고, 여학생은 2010년 83%, 2011년 91.6%, 2012년 93.9%로 10.9%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며, 남녀모두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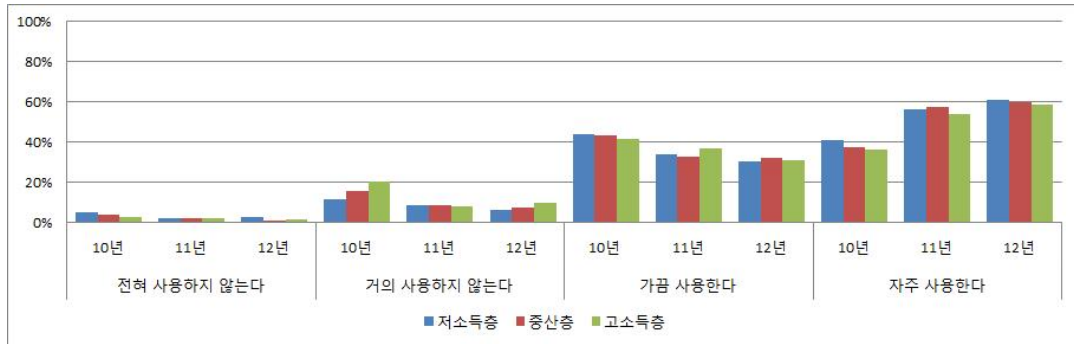
【그림 III-1-15】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지역별)

표 III-1-16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8 | 9 | 4 | 38 | 22 | 31 | 119 | 93 | 83 | 132 | 192 | 210 | 297 | 316 | 328 |
| | % | 2.7 | 2.8 | 1.2 | 12.8 | 7.0 | 9.5 | 40.1 | 29.4 | 25.3 | 44.4 | 60.8 | 64.0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5 | 6 | 9 | 65 | 39 | 29 | 182 | 164 | 154 | 180 | 288 | 339 | 442 | 497 | 531 |
| | % | 3.4 | 1.2 | 1.7 | 14.7 | 7.8 | 5.5 | 41.2 | 33.0 | 29.0 | 40.7 | 57.9 | 63.8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38 | 21 | 9 | 157 | 90 | 88 | 413 | 382 | 384 | 309 | 577 | 625 | 917 | 1070 | 1106 |
| | % | 4.1 | 2.0 | 0.8 | 17.1 | 8.4 | 8.0 | 45.0 | 35.7 | 34.7 | 33.7 | 53.9 | 56.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1 | 36 | 22 | 260 | 151 | 148 | 714 | 639 | 621 | 621 | 1057 | 1174 | 1656 | 1883 | 1965 |
| | % | 3.7 | 1.9 | 1.1 | 15.7 | 8.0 | 7.5 | 43.1 | 33.9 | 31.6 | 37.5 | 56.1 | 59.7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16>.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84.5%, 2011년 90.2%, 2012년 89.3%로 4.8%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81.9%, 2011년 90.9%, 2012년 92.8%로 10.9%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78.7%, 2011년 89.6%, 2012년 91.2%로 12.5%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시군구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증가 비율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III-1-16】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소득별)

표 III-1-17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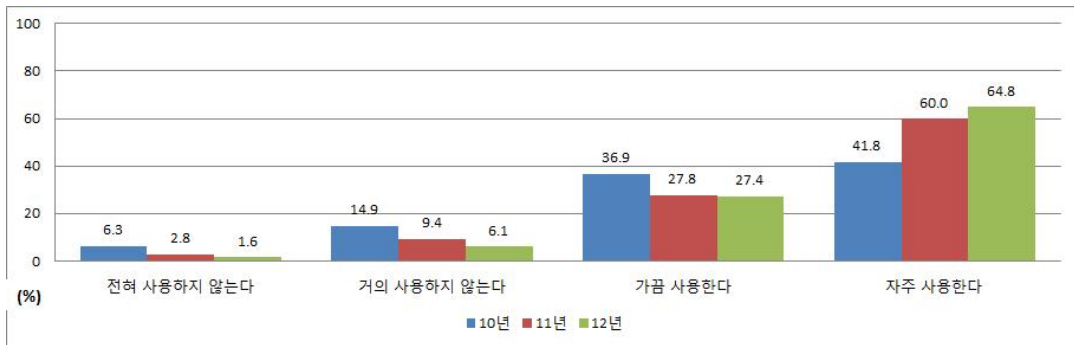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N | 13 | 7 | 10 | 32 | 28 | 23 | 124 | 114 | 114 | 116 | 189 | 228 | 285 | 338 |
| 저소득층 | % | 4.6 | 2.1 | 2.7 | 11.2 | 8.3 | 6.1 | 43.5 | 33.7 | 30.4 | 40.7 | 55.9 | 60.8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40 | 22 | 12 | 161 | 97 | 91 | 441 | 388 | 400 | 382 | 682 | 742 | 1024 | 1189 | 1245 |
| | % | 3.9 | 1.9 | 1.0 | 15.7 | 8.2 | 7.3 | 43.1 | 32.6 | 32.1 | 37.3 | 57.4 | 59.6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6 | 5 | 3 | 51 | 23 | 27 | 106 | 106 | 88 | 92 | 157 | 168 | 255 | 291 | 286 |
| | % | 2.4 | 1.7 | 1.0 | 20 | 7.9 | 9.4 | 41.6 | 36.4 | 30.8 | 36.1 | 54.0 | 58.7 | 100 | 100 | 100 |
| 전체 | N | 59 | 34 | 25 | 244 | 148 | 141 | 671 | 608 | 602 | 590 | 1028 | 1138 | 1564 | 1818 | 1906 |
| | % | 3.8 | 1.9 | 1.3 | 15.6 | 8.1 | 7.4 | 42.9 | 33.4 | 31.6 | 37.7 | 56.5 | 59.7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17>.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84.2%, 2011년 89.6%, 2012년 91.2%로 7%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80.4%, 2011년 90%, 2012년 91.7%로 11.4%p 증가하였고,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77.6%, 2011년 90.4%, 2012년 89.5%로 11.9%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과 중산층인 초등학생의 증가율이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④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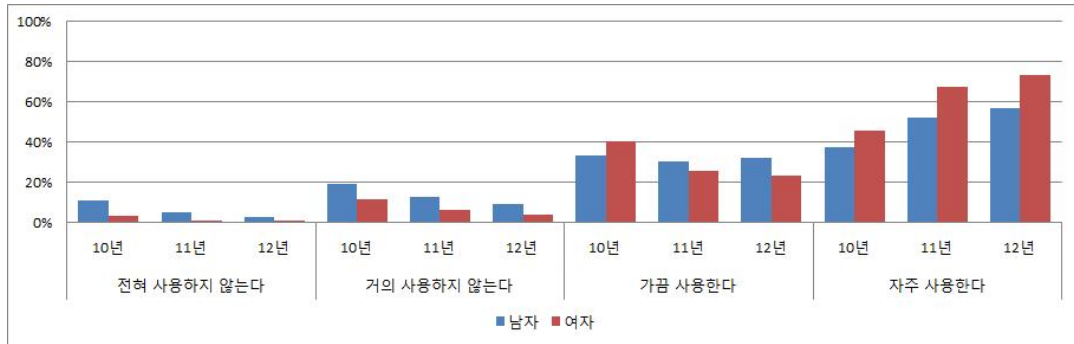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18>.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2010년 78.7%, 2011년 87.8%, 2012년 92.2%로 학년이 높아질 때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17】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표 Ⅲ-1-18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05 | 6.3 | 54 | 2.8 | 33 | 1.6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247 | 14.9 | 182 | 9.4 | 124 | 6.1 |
| 가끔 사용한다 | 611 | 36.9 | 536 | 27.8 | 554 | 27.4 |
| 자주 사용한다 | 693 | 41.8 | 1158 | 60 | 1310 | 64.8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2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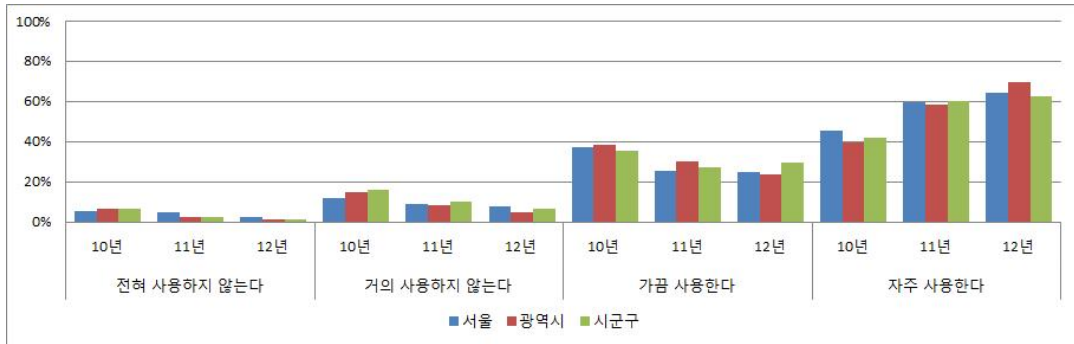
【그림 III-1-18】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성별)

표 III-1-19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80 | 46 | 27 | 144 | 120 | 89 | 249 | 284 | 323 | 283 | 489 | 571 | 756 | 939 | 1010 |
| | % | 10.6 | 4.9 | 2.7 | 19.0 | 12.8 | 8.8 | 32.9 | 30.2 | 32.0 | 37.4 | 52.1 | 56.5 | 100 | 100 | 100 |
| 여자 | N | 25 | 9 | 6 | 104 | 62 | 34 | 361 | 252 | 231 | 409 | 668 | 739 | 899 | 991 | 1010 |
| | % | 2.8 | 0.9 | 0.6 | 11.6 | 6.3 | 3.4 | 40.2 | 25.4 | 22.9 | 45.5 | 67.4 | 73.2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5 | 55 | 33 | 248 | 182 | 123 | 610 | 536 | 554 | 692 | 1157 | 1310 | 1655 | 1930 | 2020 |
| | % | 6.3 | 2.8 | 1.6 | 15.0 | 9.4 | 6.1 | 36.9 | 27.8 | 27.4 | 41.8 | 59.9 | 64.9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19>.

남학생은 2010년 70.4%, 2011년 82.3%, 2012년 88.5%로 8.1%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85.7%, 2011년 92.8%, 2012년 96%로 10.4%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증가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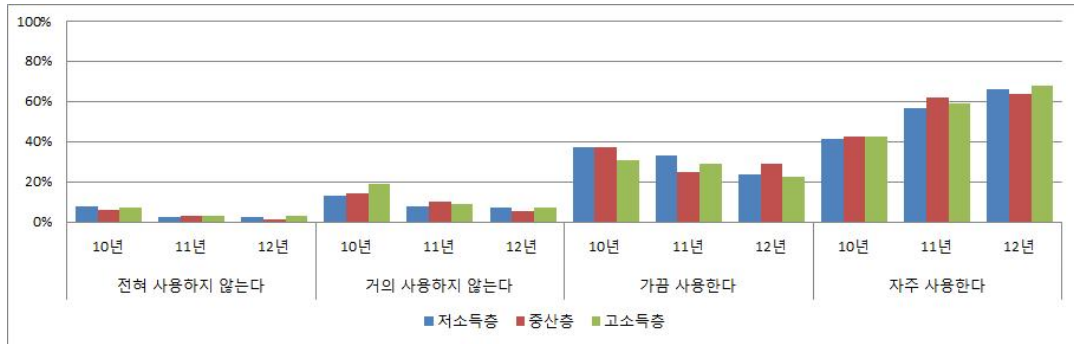
【그림 III-1-19】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표 III-1-20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6 | 16 | 9 | 35 | 29 | 25 | 111 | 81 | 81 | 135 | 189 | 211 | 297 | 315 | 326 |
| | % | 5.4 | 5.1 | 2.8 | 11.8 | 9.2 | 7.7 | 37.4 | 25.7 | 24.8 | 45.5 | 60 | 64.7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30 | 12 | 7 | 66 | 43 | 25 | 171 | 150 | 127 | 174 | 293 | 371 | 441 | 498 | 530 |
| | % | 6.8 | 2.4 | 1.3 | 15.0 | 8.6 | 4.7 | 38.8 | 30.1 | 24.0 | 39.5 | 58.8 | 70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59 | 26 | 15 | 146 | 107 | 71 | 328 | 291 | 327 | 383 | 646 | 694 | 916 | 1070 | 1107 |
| | % | 6.4 | 2.4 | 1.4 | 15.9 | 10 | 6.4 | 35.8 | 27.2 | 29.5 | 41.8 | 60.4 | 62.7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5 | 54 | 31 | 247 | 179 | 121 | 610 | 522 | 535 | 692 | 1128 | 1276 | 1654 | 1883 | 1963 |
| | % | 6.3 | 2.9 | 1.6 | 14.9 | 9.5 | 6.2 | 36.9 | 27.7 | 27.3 | 41.8 | 59.9 | 65.0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20>.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82.8%, 2011년 85.7%, 2012년 89.6%로 6.7%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78.2%, 2011년 89%, 2012년 94%로 15.7%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77.6%, 2011년 87.6%, 2012년 92.2%로 14.6%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와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증가 비율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III-1-20】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표 III-1-21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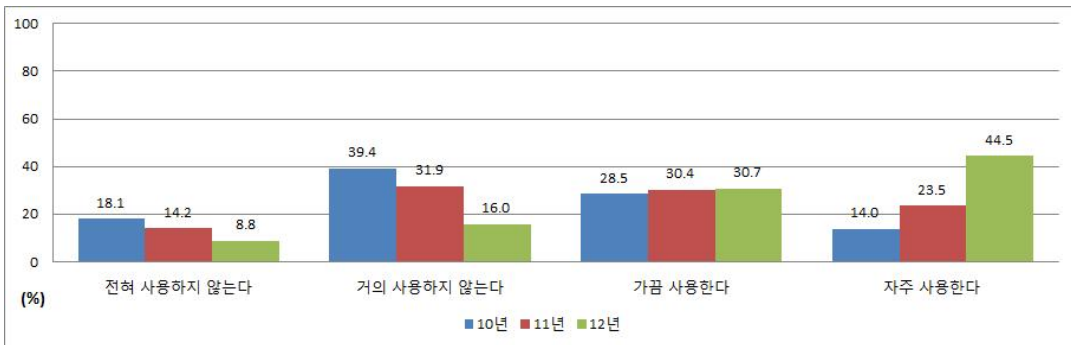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 N | 23 | 9 | 9 | 38 | 26 | 27 | 107 | 111 | 89 | 118 | 191 | 248 | 286 | 337 | 373 |
| | % | 8.0 | 2.7 | 2.4 | 13.3 | 7.7 | 7.2 | 37.4 | 32.9 | 23.9 | 41.3 | 56.7 | 66.5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59 | 33 | 16 | 146 | 118 | 69 | 384 | 298 | 363 | 435 | 740 | 798 | 1024 | 1189 | 1246 |
| | % | 5.8 | 2.8 | 1.3 | 14.3 | 9.9 | 5.5 | 37.5 | 25.1 | 29.1 | 42.5 | 62.2 | 64.0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8 | 9 | 8 | 49 | 27 | 20 | 79 | 84 | 64 | 108 | 172 | 193 | 254 | 292 | 285 |
| | % | 7.1 | 3.1 | 2.8 | 19.3 | 9.2 | 7.0 | 31.1 | 28.8 | 22.5 | 42.5 | 58.9 | 67.7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0 | 51 | 33 | 233 | 171 | 116 | 570 | 493 | 516 | 661 | 1103 | 1239 | 1564 | 1818 | 1904 |
| | % | 6.4 | 2.8 | 1.7 | 14.9 | 9.4 | 6.1 | 36.4 | 27.1 | 27.1 | 42.3 | 60.7 | 65.1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21>.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78.7%, 2011년 89.6%, 2012년 90.3%로 11.7%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80%, 2011년 87.3%, 2012년 93.2%로 13.2%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73.6%, 2011년 87.7%, 2012년 90.2%로 16.6%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의 증가 비율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⑤ 게임 및 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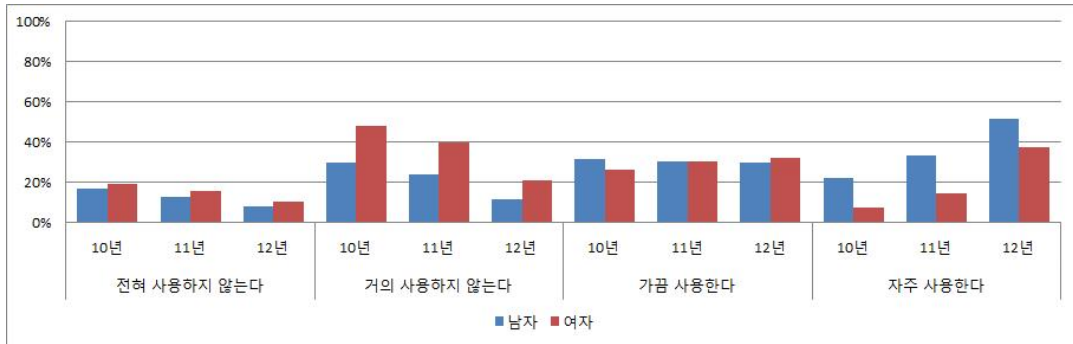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초등학교 4, 5학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초등학교 6학년은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22>.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2010년 42.5%, 2011년 53.9%, 2012년 75.2%로 학년이 높아질 때,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그림 III-1-21】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표 III-1-22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300 | 18.1 | 274 | 14.2 | 178 | 8.8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652 | 39.4 | 615 | 31.9 | 324 | 16.0 |
| 가끔 사용한다 | 472 | 28.5 | 588 | 30.4 | 621 | 30.7 |
| 자주 사용한다 | 231 | 14.0 | 454 | 23.5 | 900 | 44.5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2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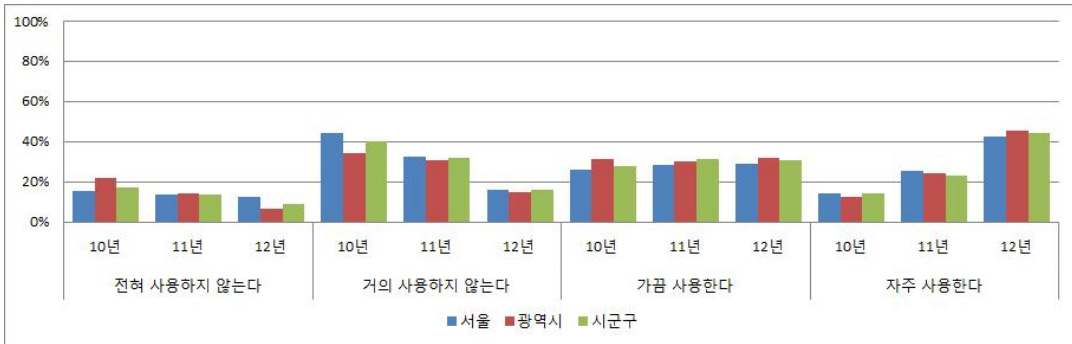
【그림 III-1-22】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표 III-1-23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128 | 120 | 78 | 222 | 222 | 115 | 238 | 286 | 299 | 168 | 312 | 521 | 756 | 940 | 1013 |
| | % | 16.9 | 12.8 | 7.7 | 29.4 | 23.6 | 11.4 | 31.5 | 30.4 | 29.5 | 22.2 | 33.2 | 51.4 | 100 | 100 | 100 |
| 여자 | N | 173 | 153 | 100 | 431 | 393 | 209 | 234 | 302 | 322 | 63 | 142 | 379 | 901 | 990 | 1010 |
| | % | 19.2 | 15.5 | 9.9 | 47.8 | 39.7 | 20.7 | 26.0 | 30.5 | 31.9 | 7.0 | 14.3 | 37.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301 | 273 | 178 | 653 | 615 | 324 | 472 | 588 | 621 | 231 | 454 | 900 | 1657 | 1930 | 2023 |
| | % | 18.2 | 14.1 | 8.8 | 39.4 | 31.9 | 16.0 | 28.5 | 30.5 | 30.7 | 13.9 | 23.5 | 44.5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23>.

남학생은 2010년 53.7%, 2011년 63.6%, 2012년 80.9%로 27.2%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33%, 2011년 44.8%, 2012년 69.4%로 36.4%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증가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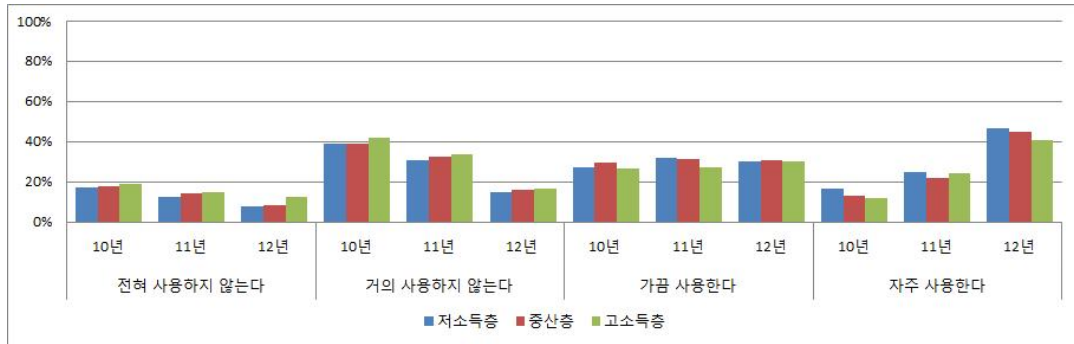
[그림 Ⅲ-1-23]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표 Ⅲ-1-24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45 | 43 | 41 | 131 | 103 | 53 | 78 | 90 | 95 | 42 | 80 | 139 | 296 | 316 | 328 |
| | % | 15.2 | 13.6 | 12.5 | 44.3 | 32.6 | 16.2 | 26.4 | 28.5 | 29.0 | 14.2 | 25.3 | 42.4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97 | 72 | 36 | 151 | 154 | 80 | 139 | 149 | 170 | 55 | 121 | 242 | 442 | 496 | 528 |
| | % | 21.9 | 14.5 | 6.8 | 34.2 | 31.0 | 15.2 | 31.4 | 30 | 32.2 | 12.4 | 24.4 | 45.8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158 | 148 | 97 | 370 | 342 | 180 | 255 | 333 | 341 | 133 | 247 | 488 | 916 | 1070 | 1106 |
| | % | 17.2 | 13.8 | 8.8 | 40.4 | 32.0 | 16.3 | 27.8 | 31.1 | 30.8 | 14.5 | 23.1 | 44.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300 | 263 | 174 | 652 | 599 | 313 | 472 | 572 | 606 | 230 | 448 | 869 | 1654 | 1882 | 1962 |
| | % | 18.1 | 14.0 | 8.9 | 39.4 | 31.8 | 16.0 | 28.5 | 30.4 | 30.9 | 13.9 | 23.8 | 44.3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24>.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40.5%, 2011년 53.8%, 2012년 71.3%로 30.8%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43.9%, 2011년 54.4%, 2012년 78%로 34.1%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42.4%, 2011년 54.2%, 2012년 75%로 32.6%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광역시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증가 비율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III-1-24】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표 III-1-25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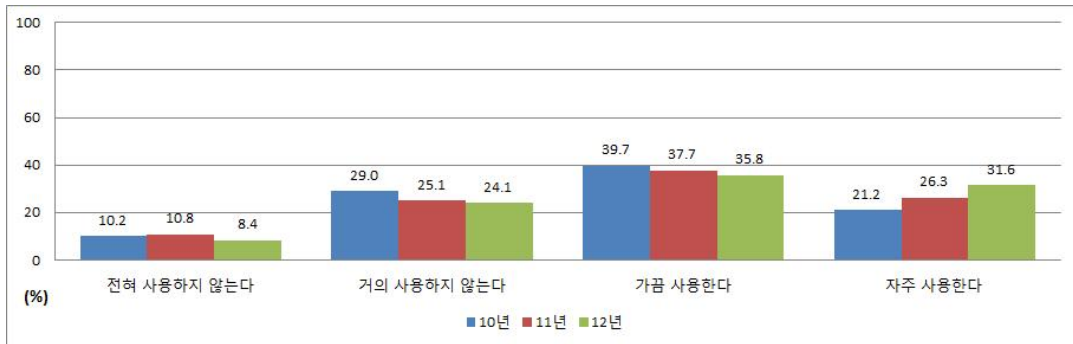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 N | 49 | 42 | 30 | 112 | 104 | 56 | 77 | 107 | 114 | 47 | 84 | 175 | 285 | 337 | 375 |
| | % | 17.2 | 12.5 | 8.0 | 39.3 | 30.9 | 14.9 | 27.0 | 31.8 | 30.4 | 16.5 | 24.9 | 46.7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181 | 167 | 104 | 402 | 385 | 199 | 305 | 373 | 384 | 135 | 264 | 558 | 1023 | 1189 | 1245 |
| | % | 17.7 | 14.0 | 8.4 | 39.3 | 32.4 | 16.0 | 29.8 | 31.4 | 30.8 | 13.2 | 22.2 | 44.8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48 | 43 | 35 | 107 | 99 | 48 | 68 | 79 | 86 | 31 | 70 | 117 | 254 | 291 | 286 |
| | % | 18.9 | 14.8 | 12.2 | 42.1 | 34.0 | 16.8 | 26.8 | 27.1 | 30.1 | 12.2 | 24.1 | 40.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78 | 252 | 169 | 621 | 588 | 303 | 450 | 559 | 584 | 213 | 418 | 850 | 1562 | 1817 | 1906 |
| | % | 17.8 | 13.9 | 8.9 | 39.8 | 32.4 | 15.9 | 28.8 | 30.8 | 30.6 | 13.6 | 23.0 | 44.6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25>.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43.5%, 2011년 56.7%, 2012년 77.1%로 33.6%p 증가하였고,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43%, 2011년 53.6%, 2012년 75.7%로 32.7%p 증가하였고,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39%, 2011년 51.2%, 2012년 71%로 32%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의 증가 비율이 중산층 및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⑥ 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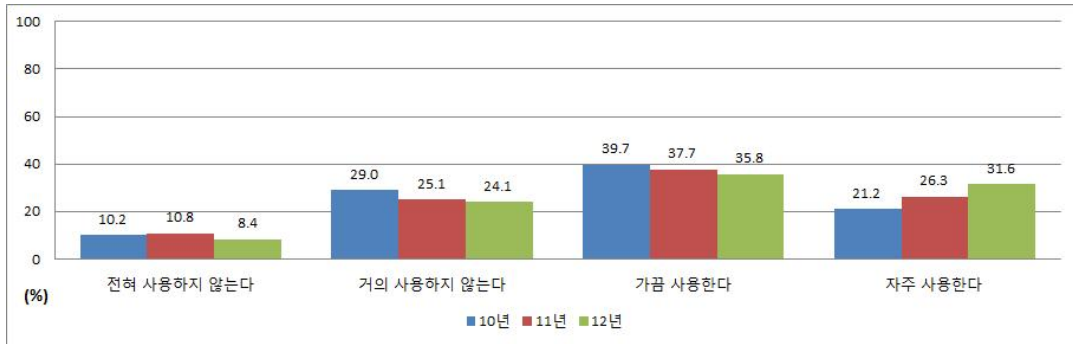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26>. 2010년 60.9%, 2011년 64%, 2012년 67.4%로 학년이 높아질 때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그림 Ⅲ-1-25】 초4 패널- 사진 촬영

표 Ⅲ-1-26 초4 패널- 사진 촬영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69 | 10.2 | 209 | 10.8 | 171 | 8.4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480 | 29.0 | 485 | 25.1 | 488 | 24.1 |
| 가끔 사용한다 | 657 | 39.7 | 728 | 37.7 | 725 | 35.8 |
| 자주 사용한다 | 350 | 21.2 | 508 | 26.3 | 639 | 31.6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23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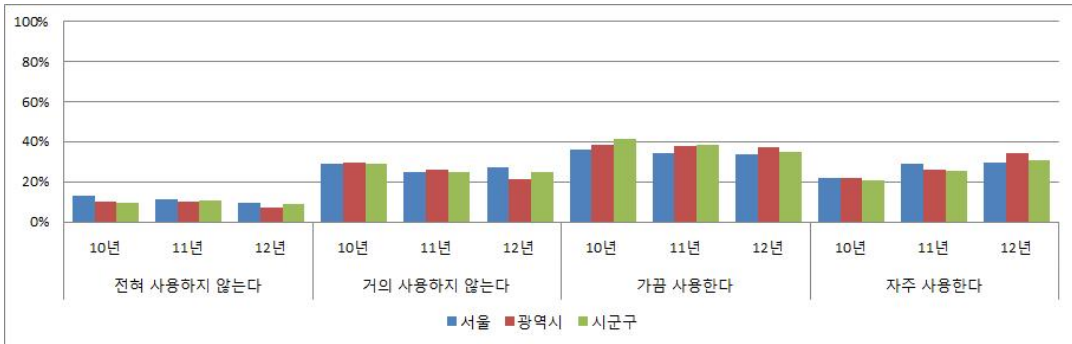
【그림 III-1-26】 초4 패널- 사진 촬영(성별)

표 III-1-27 초4 패널- 사진 촬영(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103 | 150 | 118 | 240 | 269 | 300 | 282 | 323 | 357 | 131 | 196 | 237 | 756 | 938 | 1012 |
| | % | 13.6 | 16.0 | 11.7 | 31.7 | 28.7 | 29.6 | 37.3 | 34.4 | 35.3 | 17.3 | 20.9 | 23.4 | 100 | 100 | 100 |
| 여자 | N | 66 | 59 | 53 | 240 | 216 | 188 | 375 | 405 | 368 | 220 | 312 | 402 | 901 | 992 | 1011 |
| | % | 7.3 | 5.9 | 5.2 | 26.6 | 21.8 | 18.6 | 41.6 | 40.8 | 36.4 | 24.4 | 31.5 | 39.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69 | 209 | 171 | 480 | 485 | 488 | 657 | 728 | 725 | 351 | 508 | 639 | 1657 | 1930 | 2023 |
| | % | 10.2 | 10.8 | 8.5 | 29.0 | 25.1 | 24.1 | 39.6 | 37.7 | 35.8 | 21.2 | 26.3 | 31.6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2년 기준)<표 III-1-27>.

남학생은 2010년 54.6%, 2011년 55.3%, 2012년 58.7%로 4.1%p 증가하였고, 여학생은 2010년 66%, 2011년 72.3%, 2012년 76.2%로 10.1%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증가 비율이 남학생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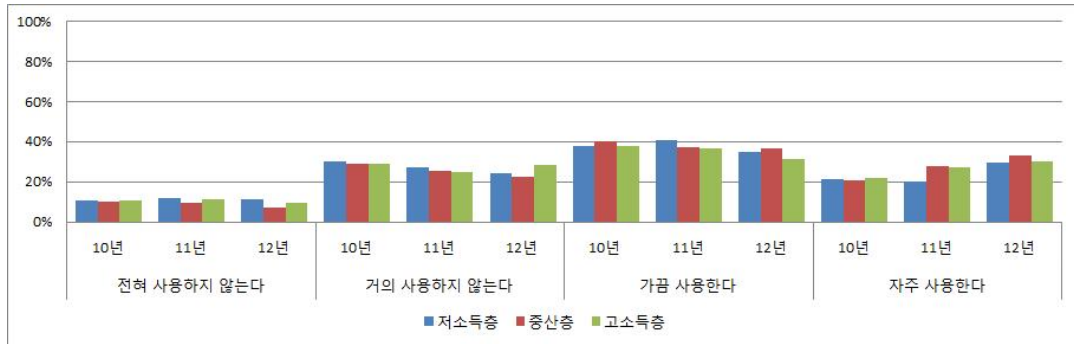
【그림 Ⅲ-1-27】 초4 패널- 사진 촬영(지역별)

표 Ⅲ-1-28 초4 패널- 사진 촬영(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39 | 36 | 32 | 86 | 79 | 89 | 108 | 109 | 110 | 65 | 91 | 97 | 298 | 315 | 328 |
| | % | 13.1 | 11.4 | 9.8 | 28.9 | 25.1 | 27.1 | 36.2 | 34.6 | 33.5 | 21.8 | 28.9 | 29.6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45 | 50 | 39 | 130 | 130 | 112 | 170 | 188 | 197 | 96 | 129 | 183 | 441 | 497 | 531 |
| | % | 10.2 | 10.1 | 7.3 | 29.5 | 26.2 | 21.1 | 38.5 | 37.8 | 37.1 | 21.8 | 26.0 | 34.5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85 | 117 | 97 | 264 | 267 | 277 | 379 | 411 | 388 | 189 | 276 | 344 | 917 | 1071 | 1106 |
| | % | 9.3 | 10.9 | 8.8 | 28.8 | 24.9 | 25.0 | 41.3 | 38.4 | 35.1 | 20.6 | 25.8 | 31.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69 | 203 | 168 | 480 | 476 | 478 | 657 | 708 | 695 | 350 | 496 | 624 | 1656 | 1883 | 1965 |
| | % | 10.2 | 10.8 | 8.5 | 29.0 | 25.3 | 24.3 | 39.7 | 37.6 | 35.4 | 21.1 | 26.3 | 31.8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28>.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58.1%, 2011년 63.5%, 2012년 63.1%로 5.1%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60.3%, 2011년 63.8%, 2012년 71.6%로 11.2%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61.9%, 2011년 64.1%, 2012년 66.2%로 4.2%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증가 비율이 서울이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III-1-28】 초4 패널- 사진 촬영(소득별)

표 III-1-29 초4 패널- 사진 촬영(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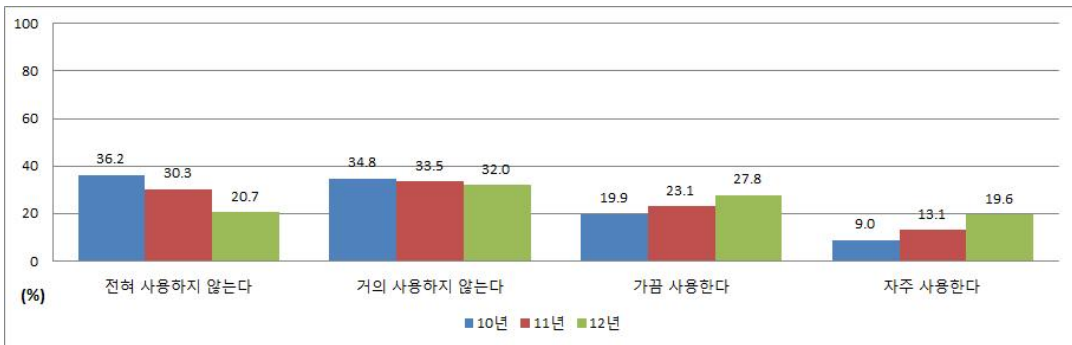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 N | 30 | 40 | 43 | 86 | 91 | 90 | 108 | 138 | 130 | 61 | 68 | 111 | 285 | 337 | 374 |
| | % | 10.5 | 11.9 | 11.5 | 30.2 | 27.0 | 24.1 | 37.9 | 40.9 | 34.8 | 21.4 | 20.2 | 29.7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101 | 114 | 92 | 299 | 301 | 281 | 414 | 445 | 459 | 210 | 329 | 414 | 1024 | 1189 | 1246 |
| | % | 9.9 | 9.6 | 7.4 | 29.2 | 25.3 | 22.6 | 40.4 | 37.4 | 36.8 | 20.5 | 27.7 | 33.2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28 | 33 | 28 | 74 | 72 | 82 | 97 | 107 | 89 | 56 | 80 | 87 | 255 | 292 | 286 |
| | % | 11.0 | 11.3 | 9.8 | 29.0 | 24.7 | 28.7 | 38.0 | 36.6 | 31.1 | 22.0 | 27.4 | 30.4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59 | 187 | 163 | 459 | 464 | 453 | 619 | 690 | 678 | 327 | 477 | 612 | 1564 | 1818 | 1906 |
| | % | 10.2 | 10.3 | 8.6 | 29.3 | 25.5 | 23.8 | 39.6 | 38.0 | 35.6 | 20.9 | 26.2 | 32.1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 계층에서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29>.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59.3%, 2011년 61.1%, 2012년 64.4%로 5.1%p 증가하였고,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60.9%, 2011년 65.1%, 2012년 70.1%로 9.1%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60%, 2011년 64%, 2012년 61.5%로 15%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의 증가 비율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⑦ 동영상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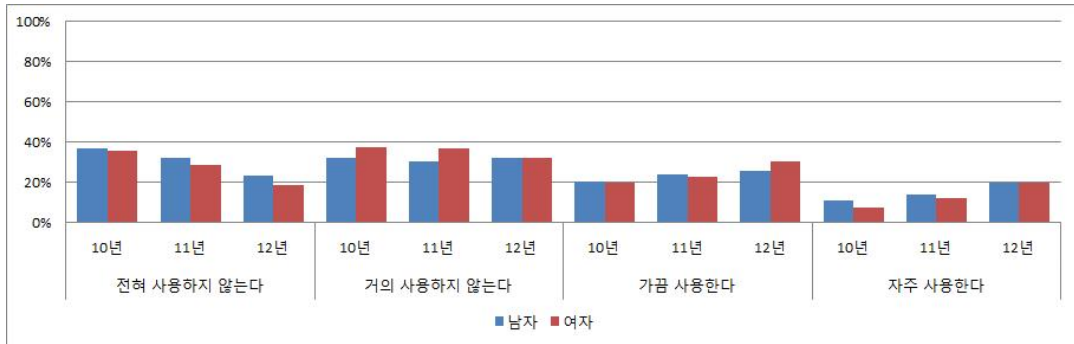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30>. 2010년 28.9%, 2011년 36.2%, 2012년 46.4%로 학년이 높아질 때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29】 초4 패널- 동영상 감상

표 Ⅲ-1-30 초4 패널- 동영상 감상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600 | 36.2 | 586 | 30.3 | 418 | 20.7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576 | 34.8 | 647 | 33.5 | 647 | 32.0 |
| 가끔 사용한다 | 330 | 19.9 | 445 | 23.1 | 561 | 27.8 |
| 자주 사용한다 | 149 | 9.0 | 252 | 13.1 | 396 | 19.6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2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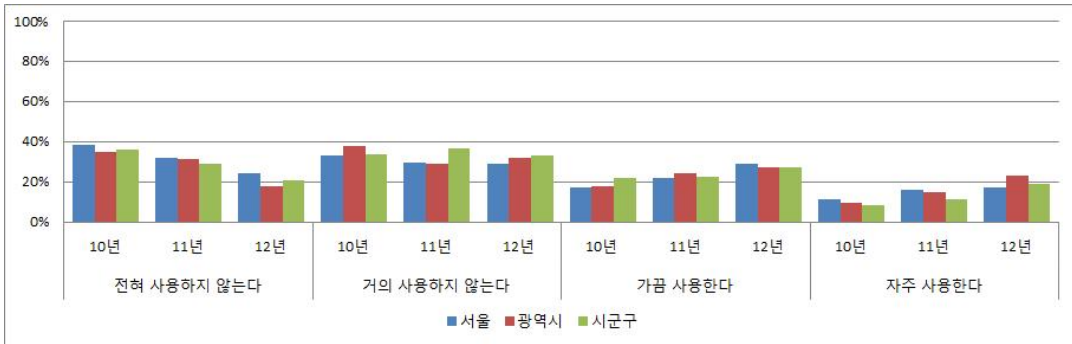
【그림 III-1-30】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성별)

표 III-1-31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성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남자 | N | 279 | 303 | 233 | 240 | 284 | 323 | 154 | 221 | 258 | 83 | 131 | 197 | 756 | 939 | 1011 |
| | % | 36.9 | 32.3 | 23.0 | 31.7 | 30.2 | 31.9 | 20.4 | 23.5 | 25.5 | 11.0 | 14.0 | 19.5 | 100 | 100 | 100 |
| 여자 | N | 321 | 283 | 185 | 336 | 363 | 324 | 176 | 224 | 303 | 66 | 121 | 198 | 899 | 991 | 1010 |
| | % | 35.7 | 28.6 | 18.3 | 37.4 | 36.6 | 32.1 | 19.6 | 22.6 | 30 | 7.3 | 12.2 | 19.6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00 | 586 | 418 | 576 | 647 | 647 | 330 | 445 | 561 | 149 | 252 | 395 | 1655 | 1930 | 2021 |
| | % | 36.3 | 30.4 | 20.7 | 34.8 | 33.5 | 32.0 | 19.9 | 23.1 | 27.8 | 9.0 | 13.1 | 19.5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1-31>.

남학생은 2010년 31.3%, 2011년 37.5%, 2012년 45%로 13.7%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26.9%, 2011년 34.8%, 2012년 49.6%로 22.7%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증가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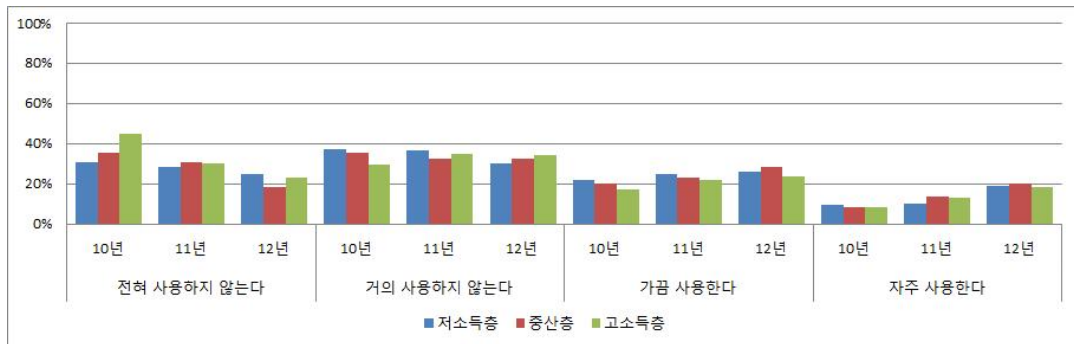
[그림 III-1-31]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지역별)

표 III-1-32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지역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서울 | N | 114 | 101 | 80 | 99 | 94 | 96 | 51 | 70 | 96 | 33 | 51 | 56 | 297 | 316 | 328 |
| | % | 38.4 | 32.0 | 24.4 | 33.3 | 29.7 | 29.3 | 17.2 | 22.2 | 29.3 | 11.1 | 16.1 | 17.1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54 | 156 | 95 | 167 | 145 | 170 | 80 | 122 | 143 | 41 | 73 | 121 | 442 | 496 | 529 |
| | % | 34.8 | 31.5 | 18.0 | 37.8 | 29.2 | 32.1 | 18.1 | 24.6 | 27.0 | 9.3 | 14.7 | 22.9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332 | 313 | 229 | 310 | 391 | 365 | 199 | 242 | 303 | 75 | 124 | 210 | 916 | 1070 | 1107 |
| | % | 36.2 | 29.3 | 20.7 | 33.8 | 36.5 | 33.0 | 21.7 | 22.6 | 27.4 | 8.2 | 11.6 | 19.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00 | 570 | 404 | 576 | 630 | 631 | 330 | 434 | 542 | 149 | 248 | 387 | 1655 | 1882 | 1964 |
| | % | 36.3 | 30.3 | 20.6 | 34.8 | 33.5 | 32.1 | 19.9 | 23.1 | 27.6 | 9.0 | 13.2 | 19.7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1-32>.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28.3%, 2011년 38.3%, 2012년 46.3%로 18.1%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27.4%, 2011년 39.3%, 2012년 49.9%로 22.5%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2010년 29.9%, 2011년 34.2%, 2012년 46.3%로 16.4%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증가 비율이 서울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III-1-32】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소득별)

표 III-1-33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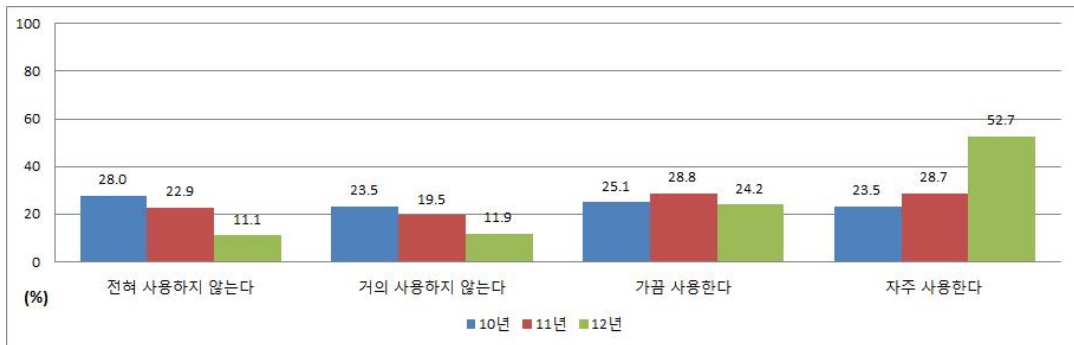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 N | 88 | 96 | 94 | 107 | 124 | 112 | 63 | 83 | 97 | 27 | 34 | 71 | 285 | 337 | 374 |
| | % | 30.9 | 28.5 | 25.1 | 37.5 | 36.8 | 29.9 | 22.1 | 24.6 | 25.9 | 9.5 | 10.1 | 19.0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365 | 363 | 230 | 365 | 388 | 406 | 205 | 278 | 355 | 88 | 160 | 253 | 1023 | 1189 | 1244 |
| | % | 35.7 | 30.5 | 18.5 | 35.7 | 32.6 | 32.6 | 20 | 23.4 | 28.5 | 8.6 | 13.5 | 20.3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14 | 88 | 66 | 75 | 102 | 98 | 44 | 64 | 68 | 21 | 38 | 53 | 254 | 292 | 285 |
| | % | 44.9 | 30.1 | 23.2 | 29.5 | 34.9 | 34.4 | 17.3 | 21.9 | 23.9 | 8.3 | 13.0 | 18.6 | 100 | 100 | 100 |
| 전체 | N | 567 | 547 | 390 | 547 | 614 | 616 | 312 | 425 | 520 | 136 | 232 | 377 | 1562 | 1818 | 1903 |
| | % | 36.3 | 30.1 | 20.5 | 35.0 | 33.8 | 32.4 | 20 | 23.4 | 27.3 | 8.7 | 12.8 | 19.8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1-33>.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31.6%, 2011년 34.7%, 2012년 44.9%로 13.3%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28.6%, 2011년 36.8%, 2012년 48.9%로 20.2%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25.6%, 2011년 34.9%, 2012년 42.5%로 16.9%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의 증가 비율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⑧ 음악 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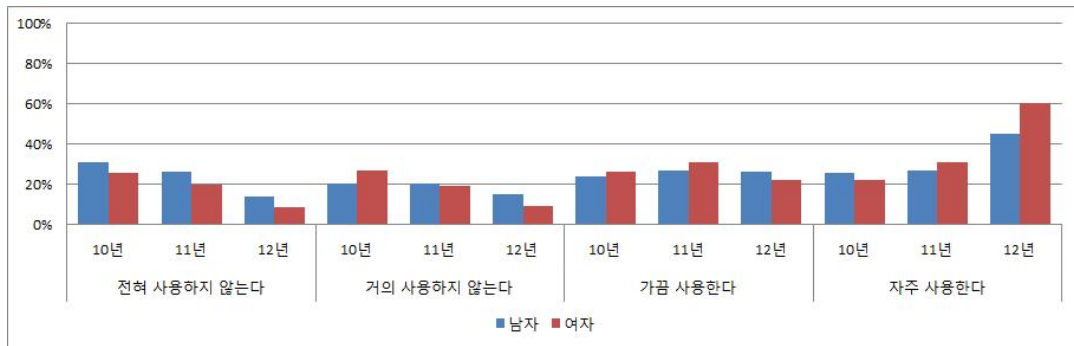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초등학교 5학년은 가끔 사용한다, 초등학교 6학년은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34>. 2010년 48.6%, 2011년 57.5%, 2012년 76.9%로 학년이 높아질 때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33】 초4 패널- 음악 듣기

표 III-1-34 초4 패널- 음악 듣기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463 | 28.0 | 443 | 22.9 | 224 | 11.1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389 | 23.5 | 377 | 19.5 | 241 | 11.9 |
| 가끔 사용한다 | 415 | 25.1 | 556 | 28.8 | 489 | 24.2 |
| 자주 사용한다 | 389 | 23.5 | 555 | 28.7 | 1064 | 52.7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19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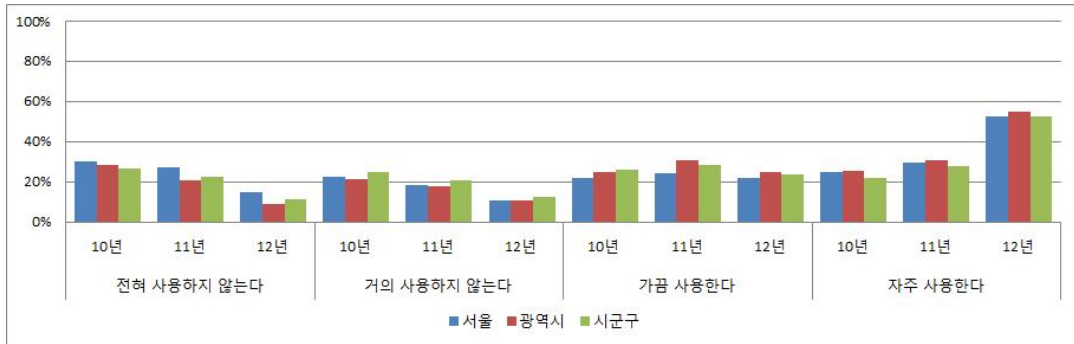
【그림 III-1-34】 초4 패널- 음악 듣기(성별)

표 III-1-35 초4 패널- 음악 듣기(성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232 | 246 | 141 | 151 | 188 | 148 | 180 | 253 | 265 | 193 | 252 | 457 | 756 | 939 | 1011 |
| | % | 30.7 | 26.2 | 13.9 | 20 | 20 | 14.6 | 23.8 | 26.9 | 26.2 | 25.5 | 26.8 | 45.2 | 100 | 100 | 100 |
| 여자 | N | 231 | 196 | 84 | 238 | 189 | 93 | 235 | 303 | 224 | 196 | 303 | 607 | 900 | 991 | 1008 |
| | % | 25.7 | 19.8 | 8.3 | 26.4 | 19.1 | 9.2 | 26.1 | 30.6 | 22.2 | 21.8 | 30.6 | 60.2 | 100 | 100 | 100 |
| 전체 | N | 463 | 442 | 225 | 389 | 377 | 241 | 415 | 556 | 489 | 389 | 555 | 1064 | 1656 | 1930 | 2019 |
| | % | 28.0 | 22.9 | 11.1 | 23.5 | 19.5 | 11.9 | 25.1 | 28.8 | 24.2 | 23.5 | 28.8 | 52.7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1-35>.

남학생은 2010년 49.3%, 2011년 53.8%, 2012년 71.4%로 22.1%p 증가하였고, 여학생은 2010년 47.9%, 2011년 61.2%, 2012년 82.4%로 34.6%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증가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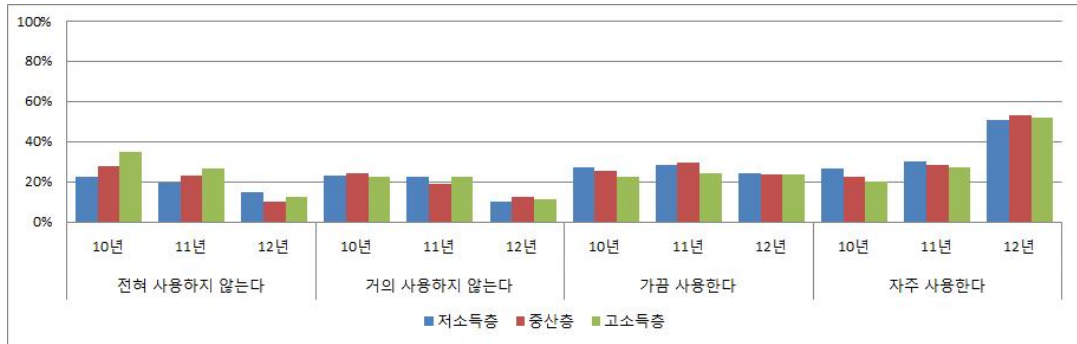
【그림 III-1-35】 초4 패널- 음악 듣기(지역별)

표 III-1-36 초4 패널- 음악 듣기(지역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90 | 87 | 48 | 67 | 58 | 34 | 66 | 78 | 72 | 74 | 94 | 171 | 297 | 317 | 325 |
| | % | 30.3 | 27.4 | 14.8 | 22.6 | 18.3 | 10.5 | 22.2 | 24.6 | 22.2 | 24.9 | 29.7 | 52.6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25 | 104 | 47 | 95 | 89 | 57 | 109 | 152 | 133 | 112 | 153 | 293 | 441 | 498 | 530 |
| | % | 28.3 | 20.9 | 8.9 | 21.5 | 17.9 | 10.8 | 24.7 | 30.5 | 25.1 | 25.4 | 30.7 | 55.3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247 | 242 | 122 | 226 | 225 | 138 | 240 | 306 | 265 | 203 | 298 | 579 | 916 | 1071 | 1104 |
| | % | 27.0 | 22.6 | 11.1 | 24.7 | 21.0 | 12.5 | 26.2 | 28.6 | 24.0 | 22.2 | 27.8 | 52.4 | 100 | 100 | 100 |
| 전체 | N | 462 | 433 | 217 | 388 | 372 | 229 | 415 | 536 | 470 | 389 | 545 | 1043 | 1654 | 1886 | 1959 |
| | % | 27.9 | 23.0 | 11.1 | 23.5 | 19.7 | 11.7 | 25.1 | 28.4 | 24.0 | 23.5 | 28.9 | 53.2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1-36>.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47.1%, 2011년 54.3%, 2012년 74.8%로 27.6%p 증가하였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50.1%, 2011년 61.2%, 2012년 80.4%로 30.3%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48.4%, 2011년 56.4%, 2012년 76.4%로 28.1%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의 증가 비율이 시군구 및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III-1-36】 초4 패널- 음악 듣기(소득별)

표 III-1-37 초4 패널- 음악 듣기(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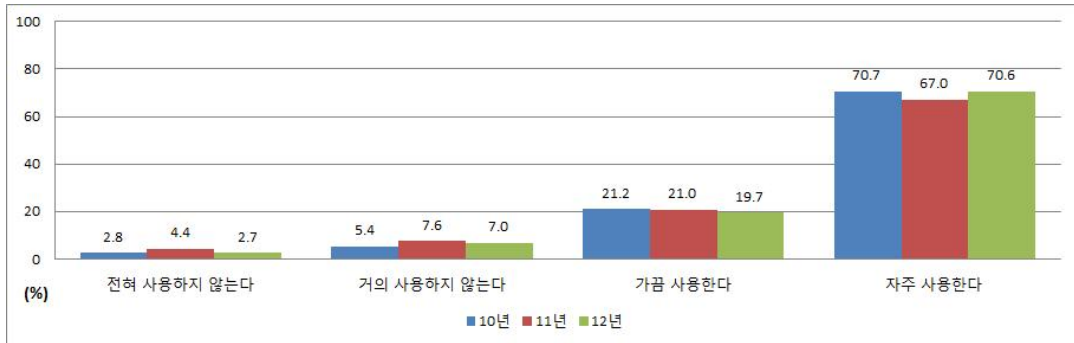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 N | 65 | 65 | 55 | 66 | 75 | 38 | 78 | 95 | 90 | 76 | 101 | 189 | 285 | 336 | 372 |
| | % | 22.8 | 19.3 | 14.8 | 23.2 | 22.3 | 10.2 | 27.4 | 28.3 | 24.2 | 26.7 | 30.1 | 50.8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285 | 277 | 123 | 251 | 226 | 159 | 260 | 350 | 297 | 228 | 335 | 665 | 1024 | 1188 | 1244 |
| | % | 27.8 | 23.3 | 9.9 | 24.5 | 19.0 | 12.8 | 25.4 | 29.5 | 23.9 | 22.3 | 28.2 | 53.5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89 | 77 | 36 | 57 | 65 | 32 | 58 | 70 | 68 | 51 | 79 | 149 | 255 | 291 | 285 |
| | % | 34.9 | 26.5 | 12.6 | 22.4 | 22.3 | 11.2 | 22.7 | 24.1 | 23.9 | 20 | 27.1 | 52.3 | 100 | 100 | 100 |
| 전체 | N | 439 | 419 | 214 | 374 | 366 | 229 | 396 | 515 | 455 | 355 | 515 | 1003 | 1564 | 1815 | 1901 |
| | % | 28.1 | 23.1 | 11.3 | 23.9 | 20.2 | 12.0 | 25.3 | 28.4 | 23.9 | 22.7 | 28.4 | 52.8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1-37>.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54%, 2011년 58.3%, 2012년 75%로 21%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47.7%, 2011년 57.7%, 2012년 77.3%로 29.7%p 증가하였고,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42.7%, 2011년 51.2%, 2012년 76.1%로 33.4%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의 증가 비율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⑨ 시간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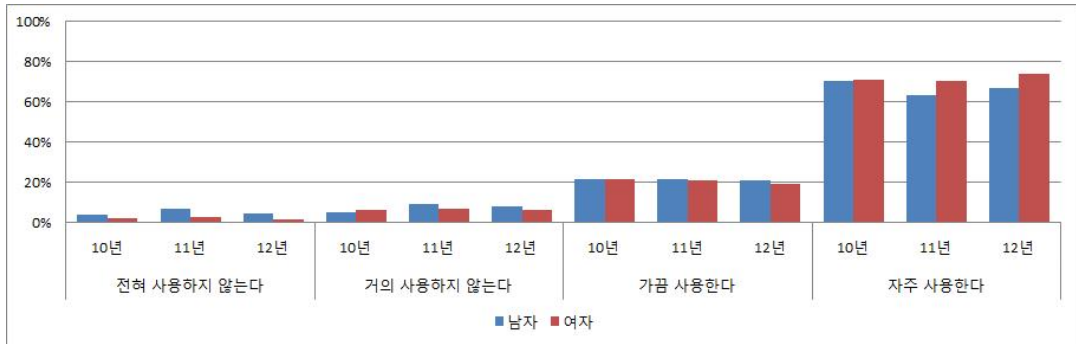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시간 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38>. 사용 여부를 계산해보면 2010년 91.9%, 2011년 88%, 2012년 90.3%로 초등학교 4학년에 시간 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37】 초4 패널- 시간 보기

표 Ⅲ-1-38 초4 패널- 시간 보기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46 | 2.8 | 85 | 4.4 | 55 | 2.7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89 | 5.4 | 146 | 7.6 | 141 | 7.0 |
| 가끔 사용한다 | 351 | 21.2 | 405 | 21.0 | 398 | 19.7 |
| 자주 사용한다 | 1170 | 70.7 | 1294 | 67.0 | 1427 | 70.6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2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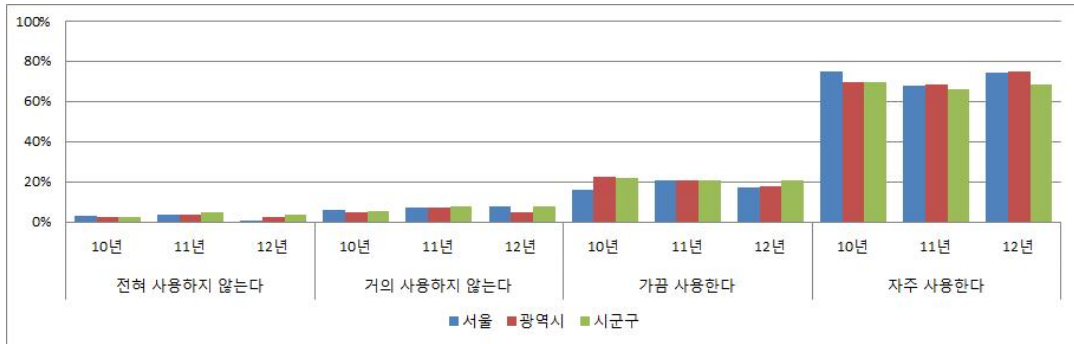
【그림 III-1-38】 초4 패널- 시간 보기(성별)

표 III-1-39 초4 패널- 시간 보기(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29 | 60 | 43 | 36 | 83 | 81 | 160 | 201 | 209 | 531 | 594 | 678 | 756 | 938 | 1011 |
| | % | 3.8 | 6.4 | 4.3 | 4.8 | 8.8 | 8.0 | 21.2 | 21.4 | 20.7 | 70.2 | 63.3 | 67.1 | 100 | 100 | 100 |
| 여자 | N | 17 | 24 | 12 | 53 | 63 | 60 | 190 | 204 | 190 | 640 | 700 | 749 | 900 | 991 | 1011 |
| | % | 1.9 | 2.4 | 1.2 | 5.9 | 6.4 | 5.9 | 21.1 | 20.6 | 18.8 | 71.1 | 70.6 | 74.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46 | 84 | 55 | 89 | 146 | 141 | 350 | 405 | 399 | 1171 | 1294 | 1427 | 1656 | 1929 | 2022 |
| | % | 2.8 | 4.4 | 2.7 | 5.4 | 7.6 | 7.0 | 21.1 | 21.0 | 19.7 | 70.7 | 67.1 | 70.6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시간 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39>.

남학생은 2010년 91.4%, 2011년 84.8%, 2012년 87.7%로 증가했다가 감소해 2010년 대비 3.7%p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92.2%, 2011년 91.2%, 2012년 92.9%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2010년 대비 0.7%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간 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남학생의 증가 비율은 여학생의 증가비율에 비해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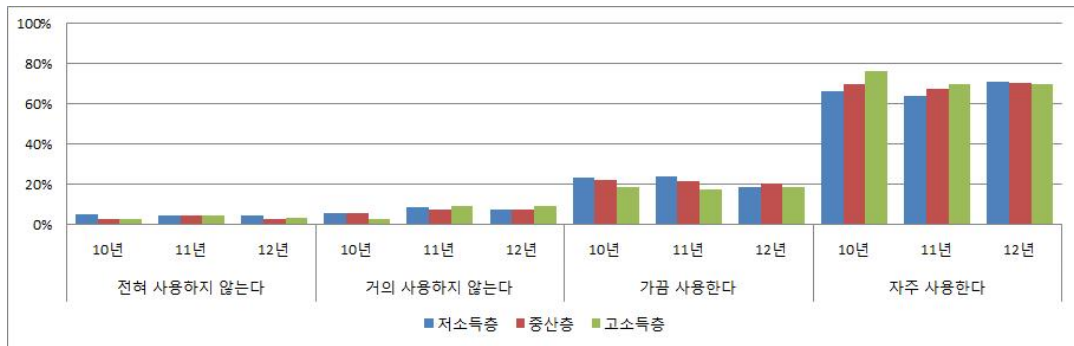
【그림 III-1-39】 초4 패널- 시간 보기(지역별)

표 III-1-40 초4 패널- 시간 보기(지역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9 | 11 | 1 | 18 | 23 | 25 | 48 | 66 | 57 | 223 | 215 | 245 | 298 | 315 | 328 |
| | % | 3.0 | 3.5 | .3 | 6.0 | 7.3 | 7.6 | 16.1 | 21.0 | 17.4 | 74.8 | 68.3 | 74.7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2 | 17 | 13 | 22 | 36 | 26 | 100 | 102 | 93 | 309 | 342 | 398 | 443 | 497 | 530 |
| | % | 2.7 | 3.4 | 2.5 | 5.0 | 7.2 | 4.9 | 22.6 | 20.5 | 17.5 | 69.8 | 68.8 | 75.1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25 | 52 | 38 | 50 | 85 | 84 | 203 | 223 | 228 | 639 | 711 | 755 | 917 | 1071 | 1105 |
| | % | 2.7 | 4.9 | 3.4 | 5.5 | 7.9 | 7.6 | 22.1 | 20.8 | 20.6 | 69.7 | 66.4 | 68.3 | 100 | 100 | 100 |
| 전체 | N | 46 | 80 | 52 | 90 | 144 | 135 | 351 | 391 | 378 | 1171 | 1268 | 1398 | 1658 | 1883 | 1963 |
| | % | 2.8 | 4.2 | 2.6 | 5.4 | 7.6 | 6.9 | 21.2 | 20.8 | 19.3 | 70.6 | 67.3 | 71.2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시간 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40>.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90.9%, 2011년 89.2%, 2012년 92.1%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해 2010년 대비 1.1%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92.3%, 2011년 89.3%, 2012년 92.6%로 역시 감소하였다가 증가해 2010년 대비 0.3%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91.8%, 2011년 87.2%, 2012년 89%로 감소하였다가 약간 증가해 2010년 대비 2.9%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간 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해 초등학교 5학년에 감소하였다가 초등학교



【그림 III-1-40】 초4 패널- 시간 보기(소득별)

표 III-1-41 초4 패널- 시간 보기(소득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N | 13 | 14 | 15 | 16 | 29 | 26 | 67 | 79 | 68 | 190 | 214 | 265 | 286 | 336 |
| 저소득층 | % | 4.5 | 4.2 | 4.0 | 5.6 | 8.6 | 7.0 | 23.4 | 23.5 | 18.2 | 66.4 | 63.7 | 70.9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24 | 52 | 30 | 58 | 85 | 87 | 225 | 253 | 250 | 716 | 799 | 877 | 1023 | 1189 | 1244 |
| | % | 2.3 | 4.4 | 2.4 | 5.7 | 7.1 | 7.0 | 22.0 | 21.3 | 20.1 | 70 | 67.2 | 70.5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6 | 12 | 8 | 7 | 27 | 25 | 47 | 50 | 53 | 194 | 203 | 200 | 254 | 292 | 286 |
| | % | 2.4 | 4.1 | 2.8 | 2.8 | 9.2 | 8.7 | 18.5 | 17.1 | 18.5 | 76.4 | 69.5 | 69.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43 | 78 | 53 | 81 | 141 | 138 | 339 | 382 | 371 | 1100 | 1216 | 1342 | 1563 | 1817 | 1904 |
| | % | 2.8 | 4.3 | 2.8 | 5.2 | 7.8 | 7.2 | 21.7 | 21.0 | 19.5 | 70.4 | 66.9 | 70.5 | 100 | 100 | 100 |

6학년에 증가하였다.

소득에 따라 시간 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41>.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89.9%, 2011년 87.2%, 2012년 89%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0.8%p 감소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92%, 2011년 88.5%, 2012년 90.6%p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1.4%p 감소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94.9%, 2011년 86.6%, 2012년 88.5%로 6.4%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간 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고소득층 초등학생은 감소하였으나, 저소득층과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에 약간 증가하였다.

2) 초등학교의 휴대전화 의존정도

초등학교 4, 5, 6학년의 휴대전화 의존정도를 7개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들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2010년 .807, 2011년 .870, 2012년 .892이다.

휴대전화 의존도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7개 문항을 4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표 III-1-42>.

분석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더 높았으며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 때 휴대전화 의존도도 높아졌다. 또한 서울, 광역시 시군구 역시 학년이 높아질 때 휴대전화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모든 소득계층에서도 학년이 높아질 때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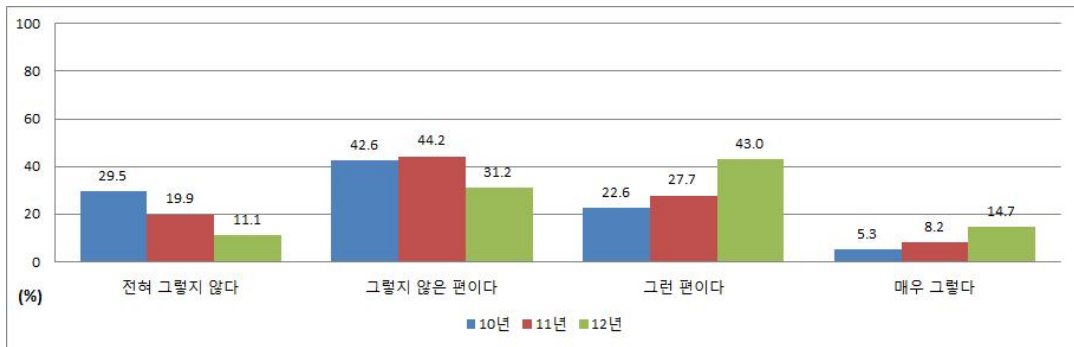
표 III-1-42 초4 패널의 컴퓨터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 항목 | 2010년(초4) | | | 2011년(초5) | | | 2012년(초6) |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성별 | 남자 | 756 | 11.44 | 4.20 | 939 | 12.49 | 4.80 | 1004 | 13.89 | 5.09 |
| | 여자 | 900 | 11.48 | 3.88 | 991 | 12.58 | 4.39 | 1000 | 15.06 | 4.79 |
| | 합계 | 1656 | 11.46 | 4.03 | 1930 | 12.54 | 4.60 | 2004 | 14.47 | 4.98 |
| 지역 | 서울 | 297 | 11.66 | 3.93 | 316 | 12.59 | 5.20 | 324 | 14.17 | 4.97 |
| | 광역시 | 442 | 11.24 | 3.83 | 497 | 12.75 | 4.66 | 526 | 14.71 | 4.97 |
| | 시군구 | 917 | 11.50 | 4.15 | 1070 | 12.40 | 4.36 | 1097 | 14.42 | 4.97 |
| | 합계 | 1656 | 11.46 | 4.03 | 1883 | 12.53 | 4.59 | 1947 | 14.46 | 4.97 |
| 소득 | 저소득층 | 285 | 11.93 | 4.14 | 337 | 13.06 | 5.23 | 370 | 14.30 | 5.02 |
| | 중산층 | 1024 | 11.38 | 4.01 | 1189 | 12.39 | 4.40 | 1235 | 14.51 | 4.89 |
| | 고소득층 | 254 | 11.27 | 4.06 | 292 | 12.78 | 4.62 | 283 | 14.52 | 5.24 |
| | 합계 | 1563 | 11.46 | 4.04 | 1817 | 12.58 | 4.61 | 1888 | 14.47 | 4.97 |

각 문항별 세부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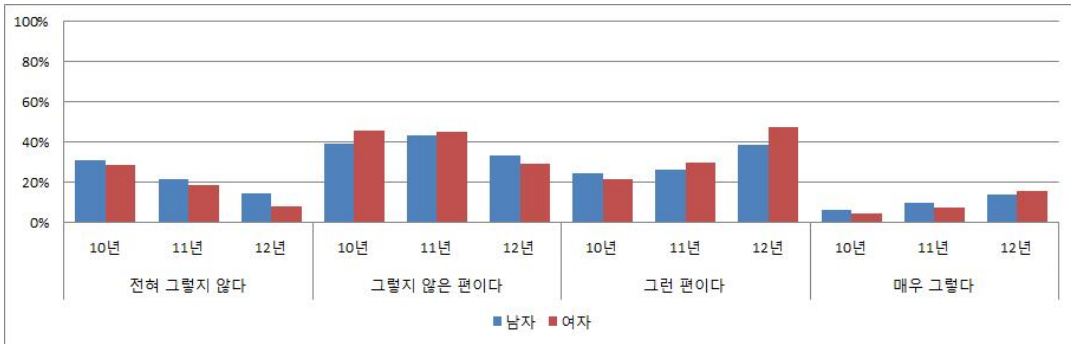
초등학생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43>.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5.3%, 2011년 8.2%, 2012년 14.7%로 9.4%p 증가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41】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표 Ⅲ-1-43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489 | 29.5 | 384 | 19.9 | 224 | 11.1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706 | 42.6 | 853 | 44.2 | 629 | 31.2 |
| 그런 편이다 | 374 | 22.6 | 535 | 27.7 | 868 | 43.0 |
| 매우 그렇다 | 87 | 5.3 | 158 | 8.2 | 296 | 14.7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18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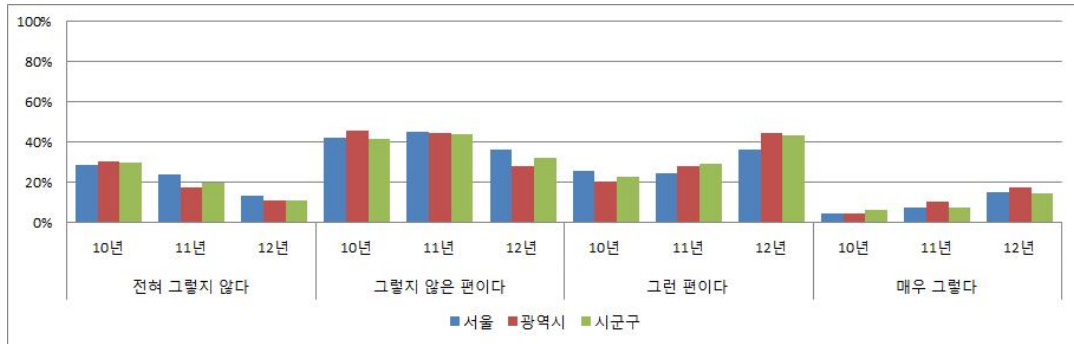


[그림 Ⅲ-1-42]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성별)

표 Ⅲ-1-44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성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231 | 202 | 147 | 294 | 405 | 336 | 183 | 243 | 389 | 47 | 89 | 138 | 755 | 939 | 1010 |
| | % | 30.6 | 21.5 | 14.6 | 38.9 | 43.1 | 33.3 | 24.2 | 25.9 | 38.5 | 6.2 | 9.5 | 13.7 | 100 | 100 | 100 |
| 여자 | N | 258 | 182 | 77 | 411 | 448 | 294 | 190 | 292 | 479 | 40 | 69 | 158 | 899 | 991 | 1008 |
| | % | 28.7 | 18.4 | 7.6 | 45.7 | 45.2 | 29.2 | 21.1 | 29.5 | 47.5 | 4.4 | 7.0 | 15.7 | 100 | 100 | 100 |
| 전체 | N | 489 | 384 | 224 | 705 | 853 | 630 | 373 | 535 | 868 | 87 | 158 | 296 | 1654 | 1930 | 2018 |
| | % | 29.6 | 19.9 | 11.1 | 42.6 | 44.2 | 31.2 | 22.6 | 27.7 | 43.0 | 5.3 | 8.2 | 14.7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른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기준)<표 Ⅲ-1-44>.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6.2%, 2011년 9.5%, 2012년 13.7%로 매년 증가해 총 7.4%p 증가했으며, 여학생은 2010년 4.4%, 2011년 7%, 2012년 15.7%로 매년 증가해 총 11.2%p 증가하였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녀 모두 점점 더 많은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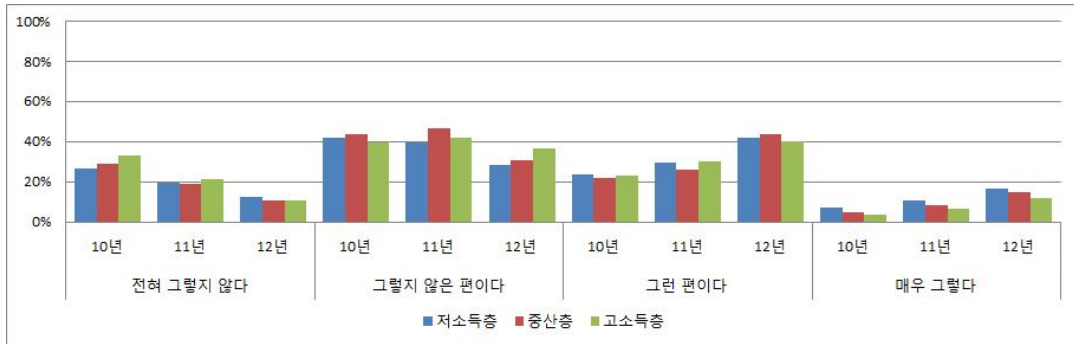


【그림 III-1-43】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지역별)

표 III-1-45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지역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84 | 75 | 42 | 124 | 141 | 118 | 76 | 77 | 118 | 13 | 22 | 49 | 297 | 315 | 327 |
| | % | 28.3 | 23.8 | 12.8 | 41.8 | 44.8 | 36.1 | 25.6 | 24.4 | 36.1 | 4.4 | 7.0 | 15.0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33 | 87 | 57 | 201 | 222 | 147 | 89 | 139 | 235 | 19 | 49 | 90 | 442 | 497 | 529 |
| | % | 30.1 | 17.5 | 10.8 | 45.5 | 44.7 | 27.8 | 20.1 | 28.0 | 44.4 | 4.3 | 9.9 | 17.0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272 | 210 | 116 | 381 | 470 | 352 | 209 | 310 | 479 | 55 | 80 | 157 | 917 | 1070 | 1104 |
| | % | 29.7 | 19.6 | 10.5 | 41.5 | 43.9 | 31.9 | 22.8 | 29.0 | 43.4 | 6.0 | 7.5 | 14.2 | 100 | 100 | 100 |
| 전체 | N | 489 | 372 | 215 | 706 | 833 | 617 | 374 | 526 | 832 | 87 | 151 | 296 | 1656 | 1882 | 1960 |
| | % | 29.5 | 19.8 | 11.0 | 42.6 | 44.3 | 31.5 | 22.6 | 27.9 | 42.4 | 5.3 | 8.0 | 15.1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른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1-45>.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4.4%, 2011년 7%, 2012년 15%로 매년 증가하여 총 10.6%p 증가하였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4.3%, 2011년 9.9%, 2012년 17%로 매년 증가하여 총 12.7%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6%, 2011년 7.5%, 2012년 14.2%로 매년 증가하여 총 8.2%p 증가하였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모든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44]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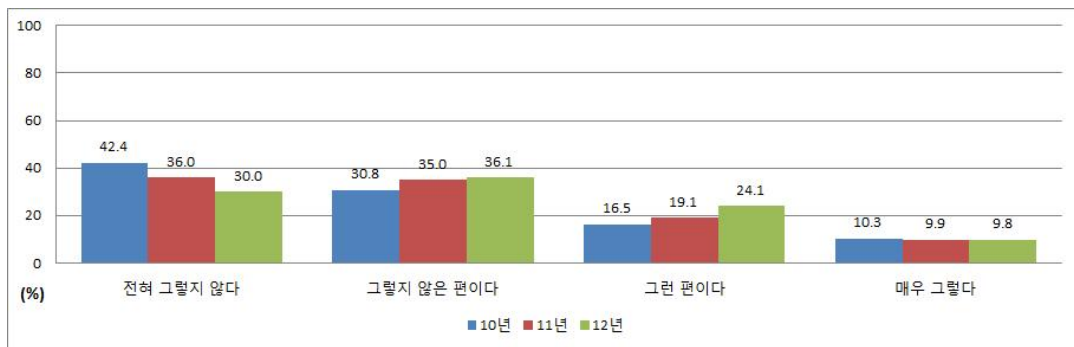
표 III-1-46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소득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77 | 67 | 47 | 121 | 135 | 107 | 68 | 100 | 157 | 20 | 36 | 63 | 286 | 338 | 374 |
| | % | 26.9 | 19.8 | 12.6 | 42.3 | 39.9 | 28.6 | 23.8 | 29.6 | 42.0 | 7.0 | 10.7 | 16.8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299 | 224 | 133 | 449 | 556 | 382 | 225 | 311 | 545 | 50 | 98 | 183 | 1023 | 1189 | 1243 |
| | % | 29.2 | 18.8 | 10.7 | 43.9 | 46.8 | 30.7 | 22.0 | 26.2 | 43.8 | 4.9 | 8.2 | 14.7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85 | 62 | 31 | 101 | 122 | 105 | 59 | 89 | 115 | 9 | 19 | 34 | 254 | 292 | 285 |
| | % | 33.5 | 21.2 | 10.9 | 39.8 | 41.8 | 36.8 | 23.2 | 30.5 | 40.4 | 3.5 | 6.5 | 11.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461 | 353 | 211 | 671 | 813 | 594 | 352 | 500 | 817 | 79 | 153 | 280 | 1563 | 1819 | 1902 |
| | % | 29.5 | 19.4 | 11.1 | 42.9 | 44.7 | 31.2 | 22.5 | 27.5 | 43.0 | 5.1 | 8.4 | 14.7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른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 계층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 <표 III-1-46>.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초등학교생은 2010년 7%, 2011년 10.7%, 2012년 16.8%로 매년 증가하여 총 9.9%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교생은 2010년 4.9%, 2011년 8.2%, 2012년 14.7%로 매년 증가하여 총 9.8%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초등학교생은 2010년 3.5%, 2011년 6.5%, 2012년 11.9%로 매년 증가하여 총 8.4%p 증가하였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모든 소득계층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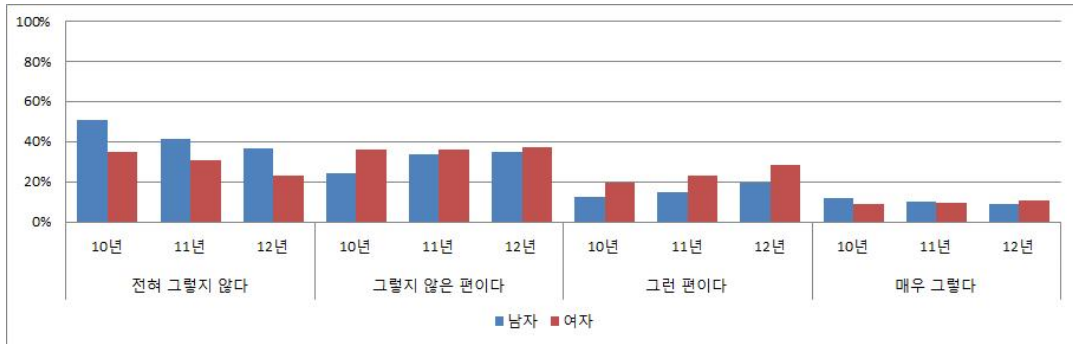
초등학생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4학년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5, 6학년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47>.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10.3%, 2011년 9.9%, 2012년 9.8%로 매년 감소하여 0.5%p 감소하여 학년이 높아져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비율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45】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표 III-1-47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702 | 42.4 | 695 | 36.0 | 607 | 30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509 | 30.8 | 675 | 35.0 | 729 | 36.1 |
| 그런 편이다 | 273 | 16.5 | 369 | 19.1 | 486 | 24.1 |
| 매우 그렇다 | 171 | 10.3 | 191 | 9.9 | 199 | 9.8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2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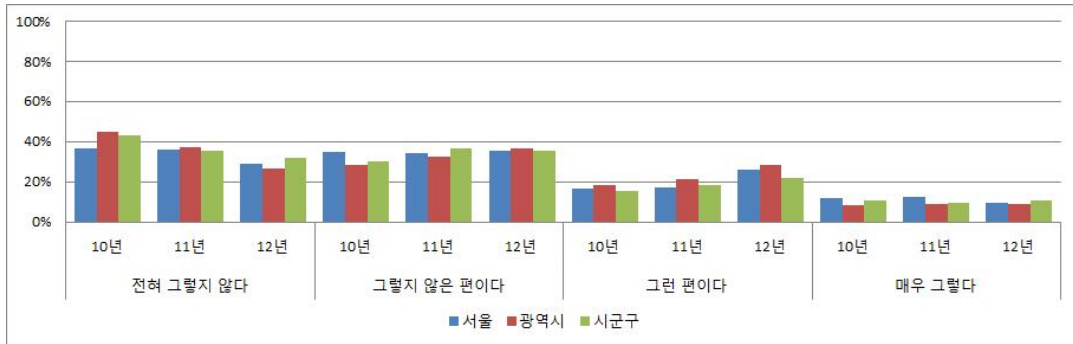


【그림 III-1-46】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표 III-1-48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385 | 388 | 374 | 183 | 318 | 351 | 96 | 138 | 197 | 92 | 96 | 89 | 756 | 940 | 1011 |
| | % | 50.9 | 41.3 | 37.0 | 24.2 | 33.8 | 34.7 | 12.7 | 14.7 | 19.5 | 12.2 | 10.2 | 8.8 | 100 | 100 | 100 |
| 여자 | N | 316 | 307 | 234 | 326 | 357 | 379 | 177 | 232 | 289 | 79 | 95 | 109 | 898 | 991 | 1011 |
| | % | 35.2 | 31.0 | 23.1 | 36.3 | 36.0 | 37.5 | 19.7 | 23.4 | 28.6 | 8.8 | 9.6 | 10.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01 | 695 | 608 | 509 | 675 | 730 | 273 | 370 | 486 | 171 | 191 | 198 | 1654 | 1931 | 2022 |
| | % | 42.4 | 36.0 | 30.1 | 30.8 | 35.0 | 36.1 | 16.5 | 19.2 | 24.0 | 10.3 | 9.9 | 9.8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남학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48>.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12.2%, 2011년 10.2%, 2012년 8.8%로 매년 감소하여 총 3.4%p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8.8%, 2011년 9.6%, 2012년 10.8%로 매년 증가하여 총 2%p 증가하였다. 즉, 남학생은 학년이 높아져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비율은 증가하지 않지만 여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불안해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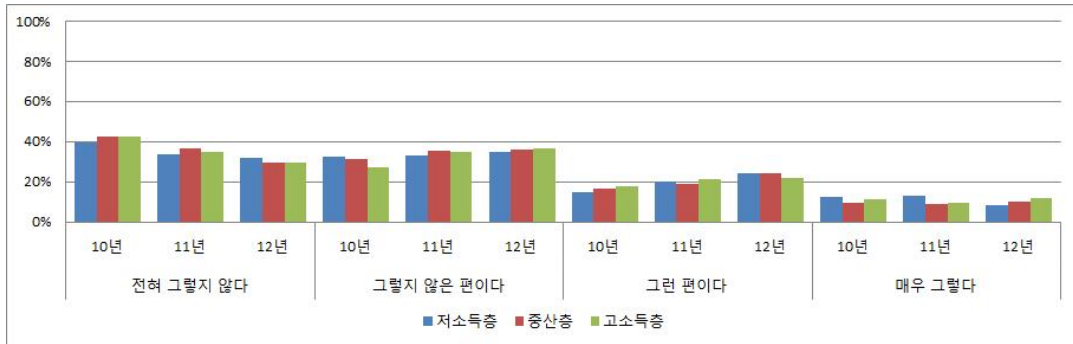


【그림 III-1-47】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표 III-1-49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09 | 113 | 94 | 104 | 108 | 117 | 49 | 55 | 85 | 35 | 39 | 31 | 297 | 315 | 327 |
| | % | 36.7 | 35.9 | 28.7 | 35.0 | 34.3 | 35.8 | 16.5 | 17.5 | 26.0 | 11.8 | 12.4 | 9.5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99 | 186 | 141 | 126 | 161 | 193 | 80 | 106 | 149 | 36 | 45 | 46 | 441 | 498 | 529 |
| | % | 45.1 | 37.3 | 26.7 | 28.6 | 32.3 | 36.5 | 18.1 | 21.3 | 28.2 | 8.2 | 9.0 | 8.7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394 | 379 | 356 | 280 | 392 | 391 | 144 | 196 | 240 | 100 | 103 | 119 | 918 | 1070 | 1106 |
| | % | 42.9 | 35.4 | 32.2 | 30.5 | 36.6 | 35.4 | 15.7 | 18.3 | 21.7 | 10.9 | 9.6 | 10.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02 | 678 | 591 | 510 | 661 | 701 | 273 | 357 | 474 | 171 | 187 | 196 | 1656 | 1883 | 1962 |
| | % | 42.4 | 36.0 | 30.1 | 30.8 | 35.1 | 35.7 | 16.5 | 19.0 | 24.2 | 10.3 | 9.9 | 10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49>.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11.8%, 2011년 12.4%, 2012년 9.5%로 증가했다 감소하여 2010년 대비 2.3%p 감소하였으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8.2%, 2011년 9%, 2012년 8.7%로 증가했다 감소하여 2010년 대비 0.5%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10.9%, 2011년 9.6%, 2012년 10.8%로 감소하다 증가하여 2010년 대비 0.1%p 감소하였다. 즉, 서울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비율이 5학년에 가장 높았으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4학년에



【그림 III-1-48】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소득별)

표 III-1-50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소득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114 | 113 | 120 | 93 | 111 | 132 | 43 | 68 | 91 | 36 | 45 | 32 | 286 | 337 | 375 |
| | % | 39.9 | 33.5 | 32.0 | 32.5 | 32.9 | 35.2 | 15.0 | 20.2 | 24.3 | 12.6 | 13.4 | 8.5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435 | 435 | 367 | 321 | 424 | 452 | 169 | 224 | 304 | 99 | 105 | 124 | 1024 | 1188 | 1247 |
| | % | 42.5 | 36.6 | 29.4 | 31.3 | 35.7 | 36.2 | 16.5 | 18.9 | 24.4 | 9.7 | 8.8 | 9.9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09 | 101 | 84 | 70 | 101 | 105 | 46 | 62 | 62 | 29 | 27 | 34 | 254 | 291 | 285 |
| | % | 42.9 | 34.7 | 29.5 | 27.6 | 34.7 | 36.8 | 18.1 | 21.3 | 21.8 | 11.4 | 9.3 | 11.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58 | 649 | 571 | 484 | 636 | 689 | 258 | 354 | 457 | 164 | 177 | 190 | 1564 | 1816 | 1907 |
| | % | 42.1 | 35.7 | 29.9 | 30.9 | 35.0 | 36.1 | 16.5 | 19.5 | 24.0 | 10.5 | 9.7 | 10 | 100 | 10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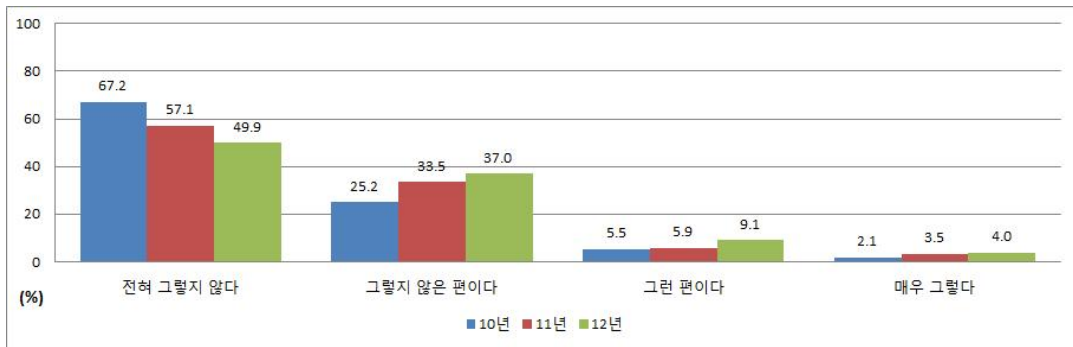
가장 높았다.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50>.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12.6%, 2011년 13.4%, 2012년 8.5%로 증가했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4.1%p 감소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9.7%, 2011년 8.8%, 2012년 9.9%로 감소했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0.3%p 증가하였고,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11.4%, 2011년 9.3%, 2012년 11.9%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0.5%p 증가하였다. 즉,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비율이 5학년에 가장 높았으나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6학년에 가장 높았다.

③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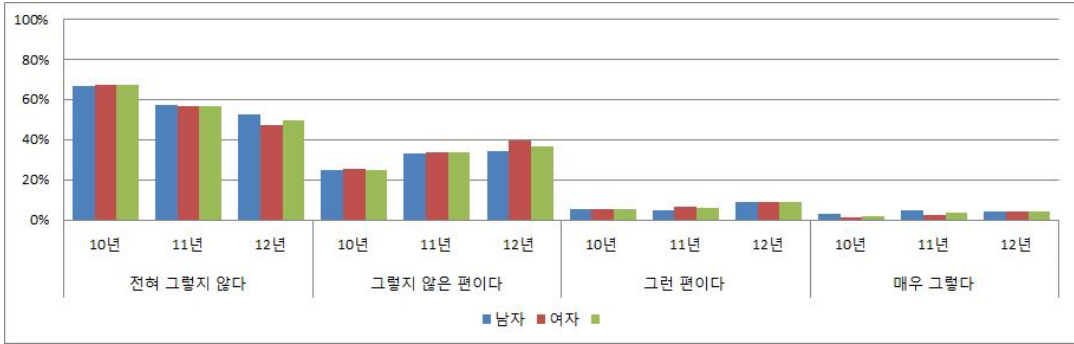
초등학생은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51>.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2.1%, 2011년 3.5%, 2012년 4.0%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49】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표 III-1-51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1113 | 67.2 | 1102 | 57.1 | 1006 | 49.9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17 | 25.2 | 647 | 33.5 | 746 | 37.0 |
| 그런 편이다 | 90 | 5.5 | 114 | 5.9 | 184 | 9.1 |
| 매우 그렇다 | 35 | 2.1 | 68 | 3.5 | 80 | 4.0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16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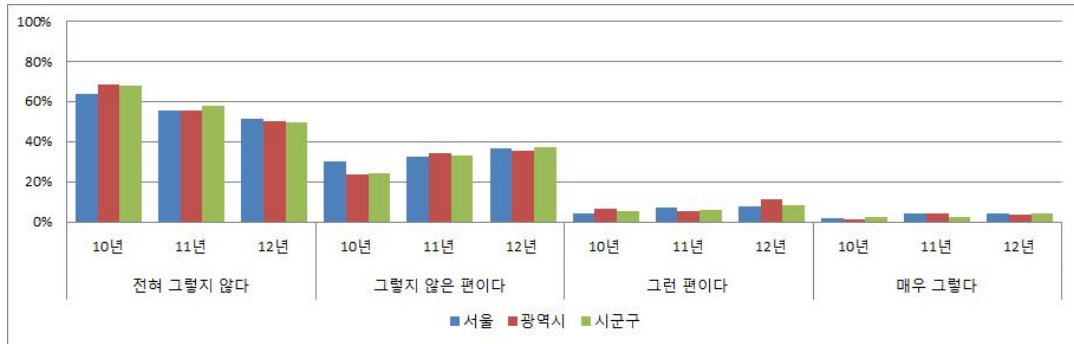


【그림 Ⅲ-1-50】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표 Ⅲ-1-52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505 | 538 | 528 | 187 | 312 | 346 | 40 | 46 | 93 | 24 | 44 | 40 | 756 | 940 | 1007 |
| | % | 66.8 | 57.2 | 52.4 | 24.7 | 33.2 | 34.4 | 5.3 | 4.9 | 9.2 | 3.2 | 4.7 | 4.0 | 100 | 100 | 100 |
| 여자 | N | 608 | 564 | 478 | 230 | 335 | 400 | 50 | 68 | 91 | 11 | 24 | 40 | 899 | 991 | 1009 |
| | % | 67.6 | 56.9 | 47.4 | 25.6 | 33.8 | 39.6 | 5.6 | 6.9 | 9.0 | 1.2 | 2.4 | 4.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113 | 1102 | 1006 | 417 | 647 | 746 | 90 | 114 | 184 | 35 | 68 | 80 | 1655 | 1931 | 2016 |
| | % | 67.3 | 57.1 | 49.9 | 25.2 | 33.5 | 37.0 | 5.4 | 5.9 | 9.1 | 2.1 | 3.5 | 4.0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52>.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6.2%, 2011년 6.7%, 2012년 12%로 매년 증가하여 총 5.8%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3.7%, 2011년 5.4%, 2012년 13.1%로 매년 증가하여 총 9.4%p 증가하였다. 즉,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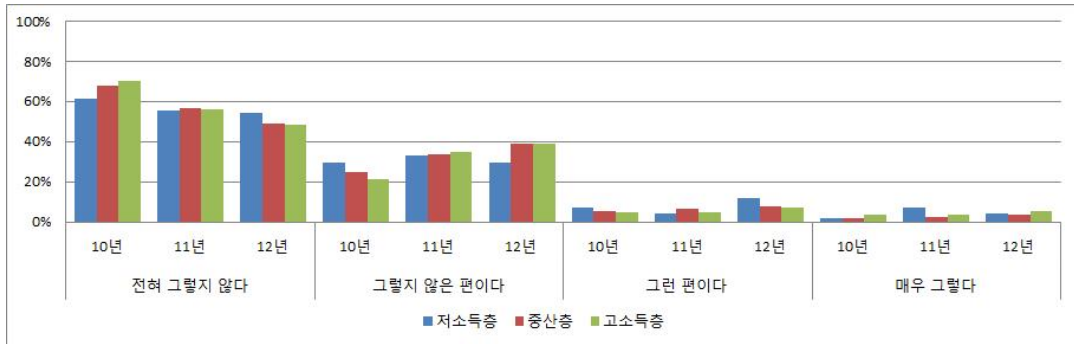


【그림 III-1-51】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표 III-1-53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90 | 176 | 168 | 90 | 103 | 120 | 12 | 23 | 25 | 6 | 14 | 13 | 298 | 316 | 326 |
| | % | 63.8 | 55.7 | 51.5 | 30.2 | 32.6 | 36.8 | 4.0 | 7.3 | 7.7 | 2.0 | 4.4 | 4.0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302 | 277 | 265 | 104 | 172 | 187 | 28 | 28 | 60 | 7 | 20 | 18 | 441 | 497 | 530 |
| | % | 68.5 | 55.7 | 50 | 23.6 | 34.6 | 35.3 | 6.3 | 5.6 | 11.3 | 1.6 | 4.0 | 3.4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621 | 622 | 551 | 223 | 357 | 413 | 50 | 62 | 91 | 22 | 29 | 48 | 916 | 1070 | 1103 |
| | % | 67.8 | 58.1 | 50 | 24.3 | 33.4 | 37.4 | 5.5 | 5.8 | 8.3 | 2.4 | 2.7 | 4.4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113 | 1075 | 984 | 417 | 632 | 720 | 90 | 113 | 176 | 35 | 63 | 79 | 1655 | 1883 | 1959 |
| | % | 67.3 | 57.1 | 50.2 | 25.2 | 33.6 | 36.8 | 5.4 | 6.0 | 9.0 | 2.1 | 3.3 | 4.0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53>.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4.7%, 2011년 7.9%, 2012년 10.2%로 매년 증가하여 총 5.5%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3.6%, 2011년 6.6%, 2012년 12.5%로 매년 증가하여 총 8.8%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교생은 2010년 5.5%, 2011년 5.5%, 2012년 13.2%로 매년 증가하여 총 7.7%p 증가하였다. 즉, 모든 지역의 초등학교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광역시, 시군구, 서울 순이었다.



【그림 Ⅲ-1-52】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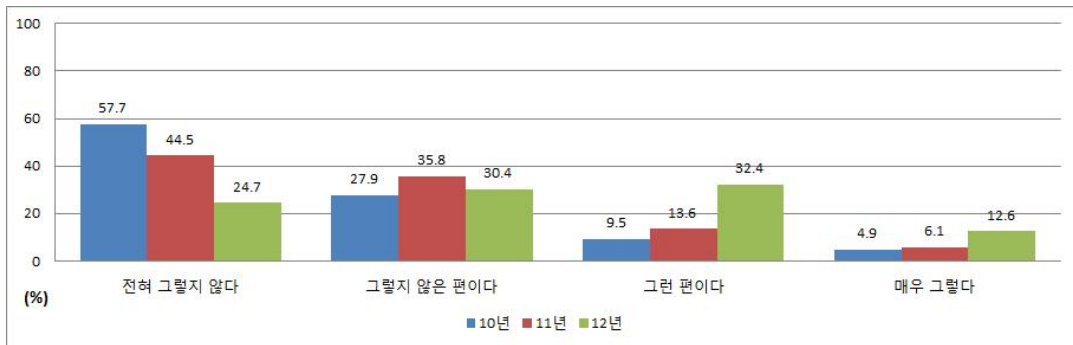
표 Ⅲ-1-54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소득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175 | 187 | 203 | 84 | 111 | 111 | 20 | 15 | 45 | 6 | 24 | 16 | 285 | 337 | 375 |
| | % | 61.4 | 55.5 | 54.1 | 29.5 | 32.9 | 29.6 | 7.0 | 4.5 | 12.0 | 2.1 | 7.1 | 4.3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695 | 679 | 609 | 256 | 399 | 487 | 55 | 81 | 98 | 18 | 31 | 47 | 1024 | 1190 | 1241 |
| | % | 67.9 | 57.1 | 49.1 | 25.0 | 33.5 | 39.2 | 5.4 | 6.8 | 7.9 | 1.8 | 2.6 | 3.8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78 | 164 | 138 | 55 | 102 | 112 | 12 | 14 | 20 | 9 | 11 | 15 | 254 | 291 | 285 |
| | % | 70.1 | 56.4 | 48.4 | 21.7 | 35.1 | 39.3 | 4.7 | 4.8 | 7.0 | 3.5 | 3.8 | 5.3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48 | 1030 | 950 | 395 | 612 | 710 | 87 | 110 | 163 | 33 | 66 | 78 | 1563 | 1818 | 1901 |
| | % | 67.1 | 56.7 | 50 | 25.3 | 33.7 | 37.3 | 5.6 | 6.1 | 8.6 | 2.1 | 3.6 | 4.1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54>.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2.1%, 2011년 7.1%, 2012년 4.3%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2.2%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1.8%, 2011년 2.6%, 2012년 3.8%로 매년 증가하여 총 2%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초등학생도 2010년 3.5%, 2011년 3.8%, 2012년 5.3%로 매년 증가하여 총 1.7%p 증가하였다. 즉, 중산층과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5학년에 가장 높았다.

④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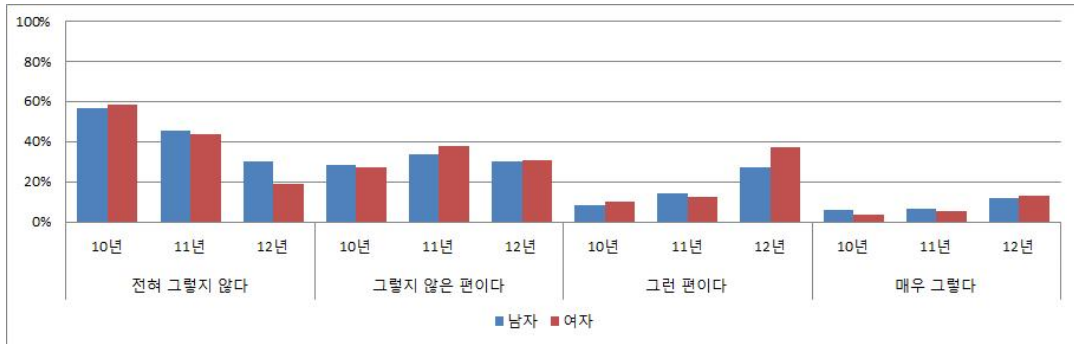
초등학생은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 4, 5, 6학년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55>.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4.9%, 2011년 6.1%, 2012년 12.6%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에 몰입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53】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표 Ⅲ-1-55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955 | 57.7 | 859 | 44.5 | 498 | 24.7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63 | 27.9 | 692 | 35.8 | 614 | 30.4 |
| 그런 편이다 | 157 | 9.5 | 262 | 13.6 | 653 | 32.4 |
| 매우 그렇다 | 80 | 4.9 | 117 | 6.1 | 253 | 12.6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18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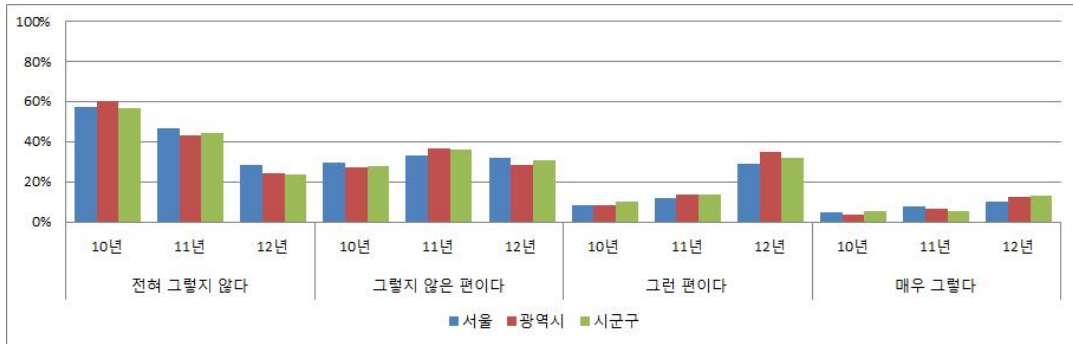


【그림 Ⅲ-1-54】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성별)

표 Ⅲ-1-56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성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430 | 426 | 306 | 215 | 315 | 305 | 64 | 136 | 277 | 47 | 63 | 121 | 756 | 940 | 1009 |
| | % | 56.9 | 45.3 | 30.3 | 28.4 | 33.5 | 30.2 | 8.5 | 14.5 | 27.5 | 6.2 | 6.7 | 12.0 | 100 | 100 | 100 |
| 여자 | N | 526 | 434 | 191 | 248 | 377 | 309 | 93 | 126 | 376 | 33 | 54 | 132 | 900 | 991 | 1008 |
| | % | 58.4 | 43.8 | 18.9 | 27.6 | 38.0 | 30.7 | 10.3 | 12.7 | 37.3 | 3.7 | 5.4 | 13.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956 | 860 | 497 | 463 | 692 | 614 | 157 | 262 | 653 | 80 | 117 | 253 | 1656 | 1931 | 2017 |
| | % | 57.7 | 44.5 | 24.6 | 28.0 | 35.8 | 30.4 | 9.5 | 13.6 | 32.4 | 4.8 | 6.1 | 12.5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56>.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6.2%, 2011년 6.7%, 2012년 12%로 매년 증가하여 총 5.8%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3.7%, 2011년 5.4%, 2012년 13.1%로 매년 증가하여 총 9.4%p 증가하였다. 즉, 남녀 모두 휴대전화에 몰입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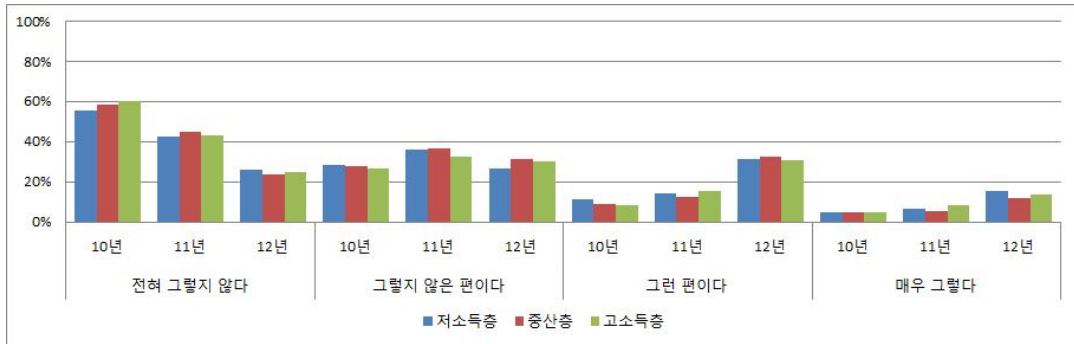


【그림 Ⅲ-1-55】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지역별)

표 Ⅲ-1-57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지역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70 | 148 | 93 | 88 | 104 | 103 | 25 | 38 | 95 | 14 | 25 | 33 | 297 | 315 | 324 |
| | % | 57.2 | 47.0 | 28.7 | 29.6 | 33.0 | 31.8 | 8.4 | 12.1 | 29.3 | 4.7 | 7.9 | 10.2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267 | 214 | 129 | 121 | 183 | 150 | 37 | 68 | 185 | 16 | 33 | 66 | 441 | 498 | 530 |
| | % | 60.5 | 43.0 | 24.3 | 27.4 | 36.7 | 28.3 | 8.4 | 13.7 | 34.9 | 3.6 | 6.6 | 12.5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519 | 477 | 262 | 253 | 386 | 343 | 95 | 148 | 356 | 50 | 59 | 146 | 917 | 1070 | 1107 |
| | % | 56.6 | 44.6 | 23.7 | 27.6 | 36.1 | 31.0 | 10.4 | 13.8 | 32.2 | 5.5 | 5.5 | 13.2 | 100 | 100 | 100 |
| 전체 | N | 956 | 839 | 484 | 462 | 673 | 596 | 157 | 254 | 636 | 80 | 117 | 245 | 1655 | 1883 | 1961 |
| | % | 57.8 | 44.6 | 24.7 | 27.9 | 35.7 | 30.4 | 9.5 | 13.5 | 32.4 | 4.8 | 6.2 | 12.5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57>.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4.7%, 2011년 7.9%, 2012년 10.2%로 매년 증가하여 총 5.5%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3.6%, 2011년 6.6%, 2012년 12.5%로 매년 증가하여 총 8.8%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5.5%, 2011년 5.5%, 2012년 13.2%로 매년 증가하여 총 7.7%p 증가하였다. 즉,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에 몰입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와 시군구가 서울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Ⅲ-1-56】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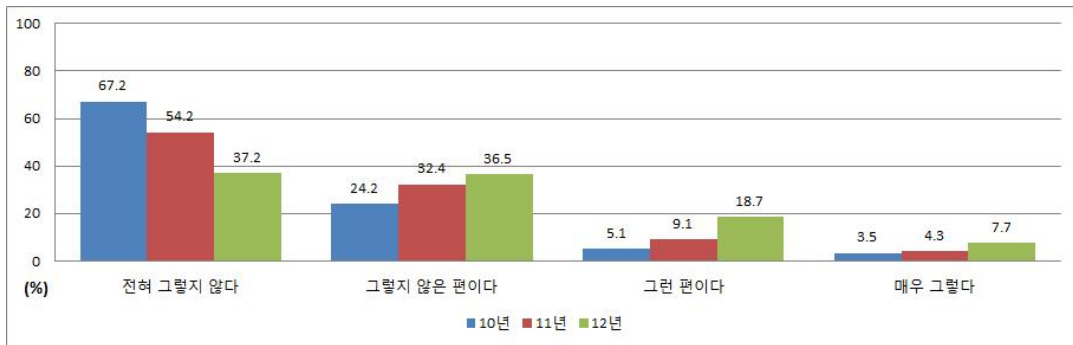
표 Ⅲ-1-58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소득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159 | 144 | 98 | 82 | 122 | 100 | 32 | 49 | 118 | 13 | 22 | 58 | 286 | 337 | 374 |
| | % | 55.6 | 42.7 | 26.2 | 28.7 | 36.2 | 26.7 | 11.2 | 14.5 | 31.6 | 4.5 | 6.5 | 15.5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597 | 537 | 298 | 286 | 438 | 393 | 91 | 150 | 408 | 49 | 65 | 145 | 1023 | 1190 | 1244 |
| | % | 58.4 | 45.1 | 24.0 | 28.0 | 36.8 | 31.6 | 8.9 | 12.6 | 32.8 | 4.8 | 5.5 | 11.7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52 | 127 | 71 | 68 | 96 | 86 | 21 | 46 | 87 | 12 | 24 | 39 | 253 | 293 | 283 |
| | % | 60.1 | 43.3 | 25.1 | 26.9 | 32.8 | 30.4 | 8.3 | 15.7 | 30.7 | 4.7 | 8.2 | 13.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908 | 808 | 467 | 436 | 656 | 579 | 144 | 245 | 613 | 74 | 111 | 242 | 1562 | 1820 | 1901 |
| | % | 58.1 | 44.4 | 24.6 | 27.9 | 36.0 | 30.5 | 9.2 | 13.5 | 32.2 | 4.7 | 6.1 | 12.7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58>.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4.5%, 2011년 6.5%, 2012년 15.5%로 매년 증가하여 총 11%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4.8%, 2011년 5.5%, 2012년 11.7%로 매년 증가하여 총 6.9%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4.7%, 2011년 8.2%, 2012년 13.8%로 매년 증가하여 총 9%p 증가하였다. 즉, 모든 소득계층에서 휴대전화에 몰입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과 중산층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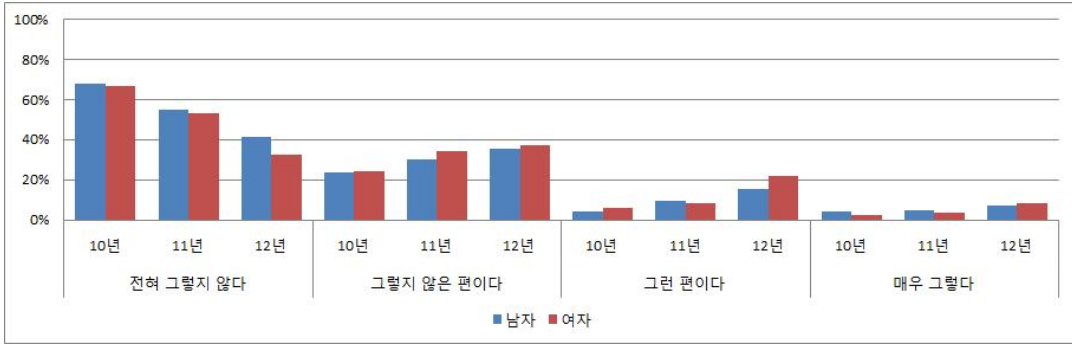
초등학생은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 4, 5, 6학년 모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59>.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3.5%, 2011년 4.3%, 2012년 7.7%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57】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표 III-1-59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1113 | 67.2 | 1047 | 54.2 | 751 | 37.2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00 | 24.2 | 624 | 32.4 | 737 | 36.5 |
| 그런 편이다 | 85 | 5.1 | 176 | 9.1 | 378 | 18.7 |
| 매우 그렇다 | 58 | 3.5 | 83 | 4.3 | 155 | 7.7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21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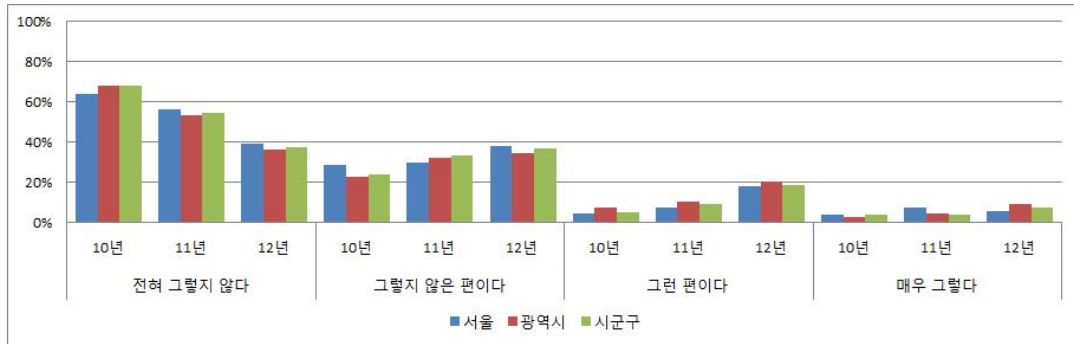


【그림 Ⅲ-1-58】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성별)

표 Ⅲ-1-60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성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512 | 517 | 421 | 180 | 285 | 358 | 30 | 92 | 158 | 34 | 45 | 73 | 756 | 939 | 1010 |
| | % | 67.7 | 55.1 | 41.7 | 23.8 | 30.4 | 35.4 | 4.0 | 9.8 | 15.6 | 4.5 | 4.8 | 7.2 | 100 | 100 | 100 |
| 여자 | N | 601 | 529 | 330 | 219 | 339 | 379 | 54 | 84 | 220 | 24 | 37 | 82 | 898 | 989 | 1011 |
| | % | 66.9 | 53.5 | 32.6 | 24.4 | 34.3 | 37.5 | 6.0 | 8.5 | 21.8 | 2.7 | 3.7 | 8.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113 | 1046 | 751 | 399 | 624 | 737 | 84 | 176 | 378 | 58 | 82 | 155 | 1654 | 1928 | 2021 |
| | % | 67.3 | 54.3 | 37.2 | 24.1 | 32.4 | 36.5 | 5.1 | 9.1 | 18.7 | 3.5 | 4.3 | 7.7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60>.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4.5%, 2011년 4.8%, 2012년 7.2%로 매년 증가해 총 2.7%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2.7%, 2011년 3.7%, 2012년 8.1%로 매년 증가해 총 5.4%p 증가하였다. 즉,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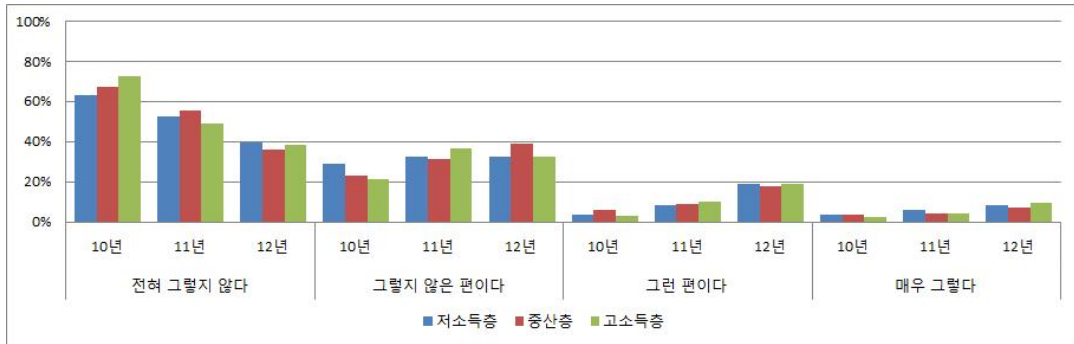


【그림 Ⅲ-1-59】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지역별)

표 Ⅲ-1-61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지역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91 | 178 | 128 | 84 | 93 | 123 | 12 | 23 | 59 | 11 | 22 | 17 | 298 | 316 | 327 |
| | % | 64.1 | 56.3 | 39.1 | 28.2 | 29.4 | 37.6 | 4.0 | 7.3 | 18.0 | 3.7 | 7.0 | 5.2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301 | 264 | 191 | 99 | 160 | 183 | 31 | 51 | 108 | 11 | 21 | 47 | 442 | 496 | 529 |
| | % | 68.1 | 53.2 | 36.1 | 22.4 | 32.3 | 34.6 | 7.0 | 10.3 | 20.4 | 2.5 | 4.2 | 8.9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621 | 581 | 415 | 217 | 356 | 408 | 42 | 97 | 202 | 36 | 36 | 81 | 916 | 1070 | 1106 |
| | % | 67.8 | 54.3 | 37.5 | 23.7 | 33.3 | 36.9 | 4.6 | 9.1 | 18.3 | 3.9 | 3.4 | 7.3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113 | 1023 | 734 | 400 | 609 | 714 | 85 | 171 | 369 | 58 | 79 | 145 | 1656 | 1882 | 1962 |
| | % | 67.2 | 54.4 | 37.4 | 24.2 | 32.4 | 36.4 | 5.1 | 9.1 | 18.8 | 3.5 | 4.2 | 7.4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61>.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3.7%, 2011년 7%, 2012년 5.2%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2.5%, 2011년 4.2%, 2012년 8.9%로 매년 증가하여 총 6.4%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3.9%, 2011년 3.4%, 2012년 7.3%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3.4%p 증가하였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비율이 5학년에 가장 높았고, 광역시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6학년에 가장 높았다.



【그림 III-1-60】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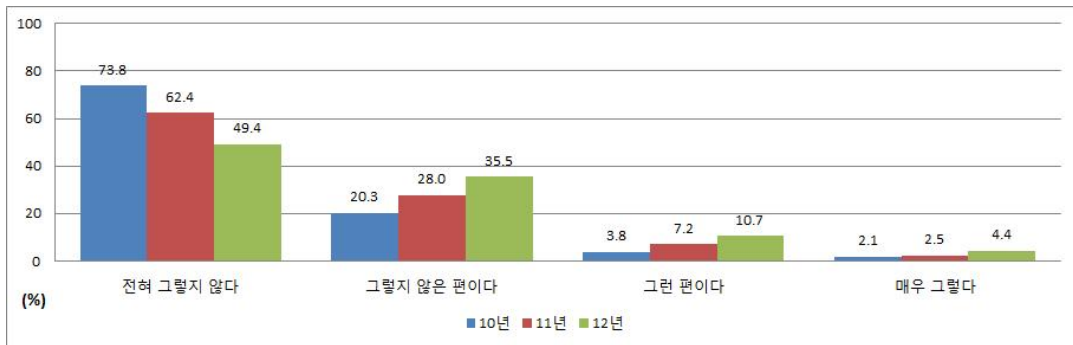
표 III-1-62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소득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181 | 177 | 149 | 82 | 109 | 122 | 11 | 29 | 70 | 11 | 21 | 32 | 285 | 336 | 373 |
| | % | 63.5 | 52.7 | 39.9 | 28.8 | 32.4 | 32.7 | 3.9 | 8.6 | 18.8 | 3.9 | 6.3 | 8.6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688 | 658 | 448 | 238 | 376 | 486 | 61 | 108 | 222 | 36 | 47 | 90 | 1023 | 1189 | 1246 |
| | % | 67.3 | 55.3 | 36.0 | 23.3 | 31.6 | 39.0 | 6.0 | 9.1 | 17.8 | 3.5 | 4.0 | 7.2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84 | 143 | 109 | 55 | 107 | 93 | 8 | 29 | 55 | 7 | 12 | 28 | 254 | 291 | 285 |
| | % | 72.4 | 49.1 | 38.2 | 21.7 | 36.8 | 32.6 | 3.1 | 10 | 19.3 | 2.8 | 4.1 | 9.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53 | 978 | 706 | 375 | 592 | 701 | 80 | 166 | 347 | 54 | 80 | 150 | 1562 | 1816 | 1904 |
| | % | 67.4 | 53.9 | 37.1 | 24.0 | 32.6 | 36.8 | 5.1 | 9.1 | 18.2 | 3.5 | 4.4 | 7.9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62>.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초등학교생은 2010년 3.9%, 2011년 6.3%, 2012년 8.6%로 매년 증가하여 총 4.7%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교생은 2010년 3.5%, 2011년 4%, 2012년 7.2%로 매년 증가하여 총 3.7%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초등학교생은 2010년 2.8%, 2011년 4.1%, 2012년 9.8%로 매년 증가하여 총 7.1%p 증가하였다. 즉, 모든 소득계층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은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순이었다.

⑥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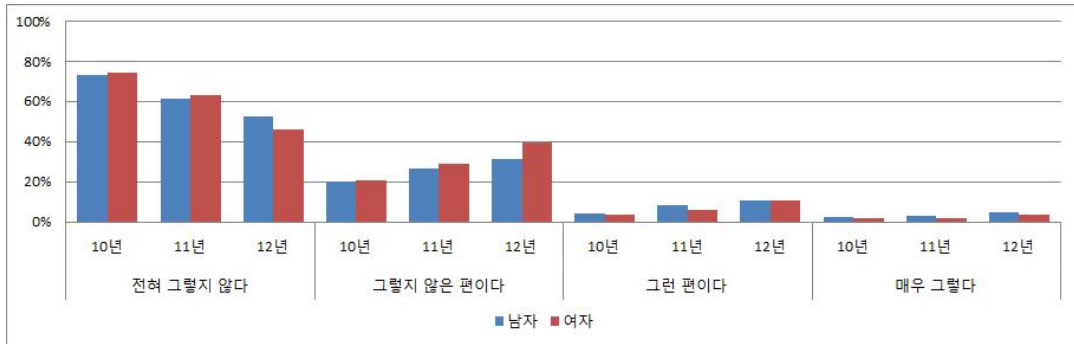
초등학생은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 4, 5, 6학년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63>.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2.1%, 2011년 2.5%, 2012년 4.4%로 매년 증가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가 없을 때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61】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표 III-1-63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1222 | 73.8 | 1204 | 62.4 | 996 | 49.4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36 | 20.3 | 540 | 28.0 | 717 | 35.5 |
| 그런 편이다 | 63 | 3.8 | 138 | 7.2 | 216 | 10.7 |
| 매우 그렇다 | 34 | 2.1 | 48 | 2.5 | 89 | 4.4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19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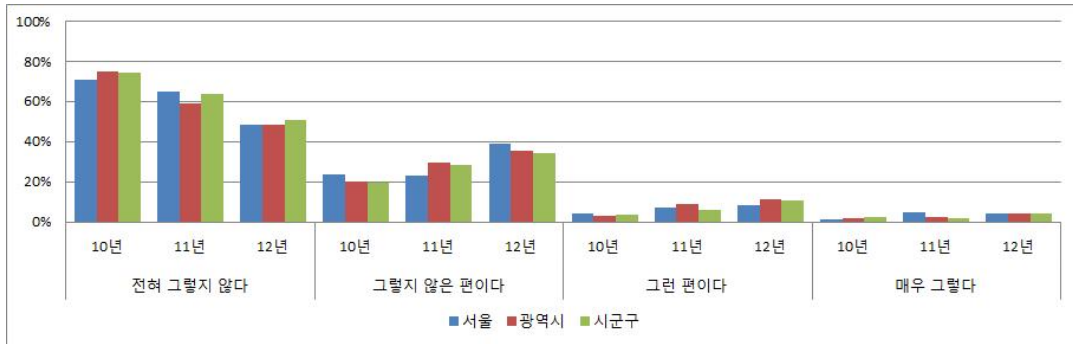


【그림 III-1-62】 초4 패널- 휴대전화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성별)

표 III-1-64 초4 패널- 휴대전화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성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554 | 580 | 531 | 151 | 252 | 319 | 31 | 78 | 110 | 20 | 30 | 51 | 756 | 940 | 1011 |
| | % | 73.3 | 61.7 | 52.5 | 20 | 26.8 | 31.6 | 4.1 | 8.3 | 10.9 | 2.6 | 3.2 | 5.0 | 100 | 100 | 100 |
| 여자 | N | 668 | 625 | 465 | 185 | 288 | 399 | 32 | 61 | 106 | 15 | 17 | 38 | 900 | 991 | 1008 |
| | % | 74.2 | 63.1 | 46.1 | 20.6 | 29.1 | 39.6 | 3.6 | 6.2 | 10.5 | 1.7 | 1.7 | 3.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222 | 1205 | 996 | 336 | 540 | 718 | 63 | 139 | 216 | 35 | 47 | 89 | 1656 | 1931 | 2019 |
| | % | 73.8 | 62.4 | 49.3 | 20.3 | 28.0 | 35.6 | 3.8 | 7.2 | 10.7 | 2.1 | 2.4 | 4.4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휴대전화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64>.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2.6%, 2011년 3.2%, 2012년 5%로 매년 증가하여 총 2.4%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1.7%, 2011년 1.7%, 2012년 3.8%로 매년 증가하여 총 2.1%p 증가하였다. 즉,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없을 때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증가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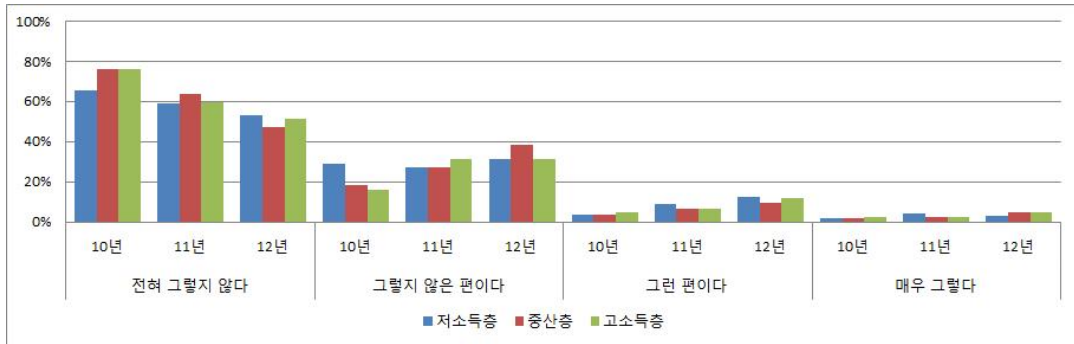


【그림 III-1-63】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지역별)

표 III-1-65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지역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210 | 206 | 158 | 71 | 73 | 128 | 13 | 22 | 28 | 3 | 15 | 13 | 297 | 316 | 327 |
| | % | 70.7 | 65.2 | 48.3 | 23.9 | 23.1 | 39.1 | 4.4 | 7.0 | 8.6 | 1.0 | 4.7 | 4.0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332 | 293 | 257 | 88 | 146 | 188 | 13 | 45 | 61 | 9 | 13 | 23 | 442 | 497 | 529 |
| | % | 75.1 | 59.0 | 48.6 | 19.9 | 29.4 | 35.5 | 2.9 | 9.1 | 11.5 | 2.0 | 2.6 | 4.3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680 | 681 | 561 | 177 | 307 | 382 | 36 | 64 | 116 | 23 | 19 | 46 | 916 | 1071 | 1105 |
| | % | 74.2 | 63.6 | 50.8 | 19.3 | 28.7 | 34.6 | 3.9 | 6.0 | 10.5 | 2.5 | 1.8 | 4.2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222 | 1180 | 976 | 336 | 526 | 698 | 62 | 131 | 205 | 35 | 47 | 82 | 1655 | 1884 | 1961 |
| | % | 73.8 | 62.6 | 49.8 | 20.3 | 27.9 | 35.6 | 3.7 | 7.0 | 10.5 | 2.1 | 2.5 | 4.2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65>.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1%, 2011년 4.7%, 2012년 4%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3%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2010년 2%, 2011년 2.6%, 2012년 4.3%로 매년 증가하여 총 2.3%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교생은 2010년 2.5%, 2011년 1.8%, 2012년 4.2%로 감소했다가 증가하여 총 1.7%p 증가하였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휴대전화가 없을 때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비율이 5학년에 가장 높았으나, 광역시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은 6학년에 가장 높았다.



【그림 III-1-64】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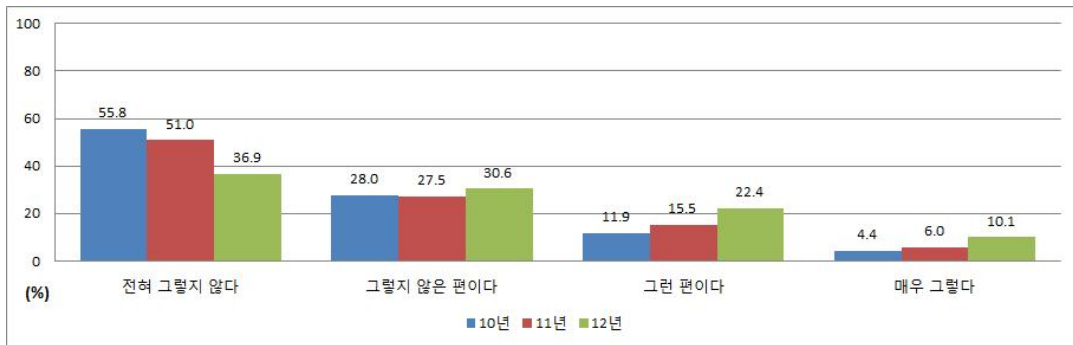
표 III-1-66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소득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186 | 199 | 200 | 83 | 93 | 117 | 10 | 31 | 46 | 5 | 15 | 11 | 284 | 338 | 374 |
| | % | 65.5 | 58.9 | 53.5 | 29.2 | 27.5 | 31.3 | 3.5 | 9.2 | 12.3 | 1.8 | 4.4 | 2.9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778 | 757 | 592 | 189 | 327 | 477 | 35 | 79 | 116 | 21 | 26 | 59 | 1023 | 1189 | 1244 |
| | % | 76.1 | 63.7 | 47.6 | 18.5 | 27.5 | 38.3 | 3.4 | 6.6 | 9.3 | 2.1 | 2.2 | 4.7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95 | 174 | 147 | 41 | 91 | 90 | 12 | 19 | 34 | 7 | 7 | 13 | 255 | 291 | 284 |
| | % | 76.5 | 59.8 | 51.8 | 16.1 | 31.3 | 31.7 | 4.7 | 6.5 | 12.0 | 2.7 | 2.4 | 4.6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159 | 1130 | 939 | 313 | 511 | 684 | 57 | 129 | 196 | 33 | 48 | 83 | 1562 | 1818 | 1902 |
| | % | 74.2 | 62.2 | 49.4 | 20 | 28.1 | 36.0 | 3.6 | 7.1 | 10.3 | 2.1 | 2.6 | 4.4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소득 계층에서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66>.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1.8%, 2011년 4.4%, 2012년 2.9%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1.2%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2.1%, 2011년 2.2%, 2012년 4.7%로 매년 증가하여 총 2.7%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2.7%, 2011년 2.4%, 2012년 4.6%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1.8%p 증가하였다. 즉,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휴대전화가 없을 때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비율이 5학년에 가장 높았으나,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6학년에 가장 높았다.

⑦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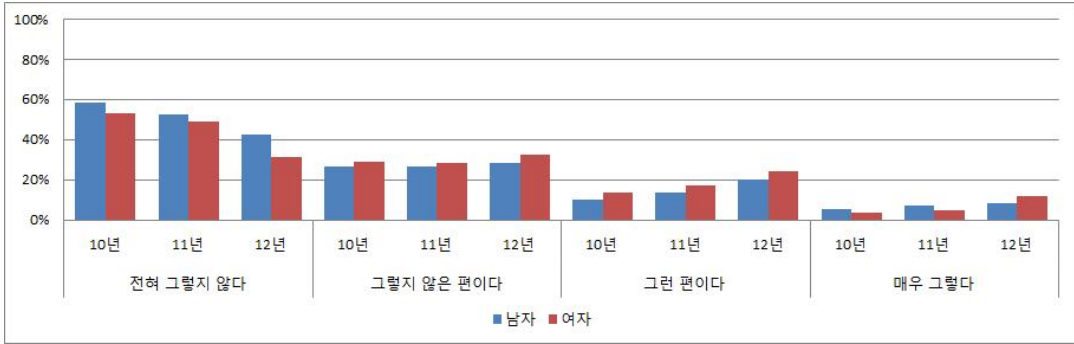
초등학생은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 4, 5, 6학년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67>.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4.4%, 2011년 6%, 2012년 10.1%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가 없을 때 불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65】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표 Ⅲ-1-67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 항목 | 2010년(초4) | | 2011년(초5) | | 2012년(초6)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923 | 55.8 | 985 | 51.0 | 745 | 36.9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63 | 28.0 | 530 | 27.5 | 618 | 30.6 |
| 그런 편이다 | 198 | 11.9 | 299 | 15.5 | 453 | 22.4 |
| 매우 그렇다 | 72 | 4.4 | 115 | 6.0 | 204 | 10.1 |
| 합계 | 1656 | 100 | 1930 | 100 | 202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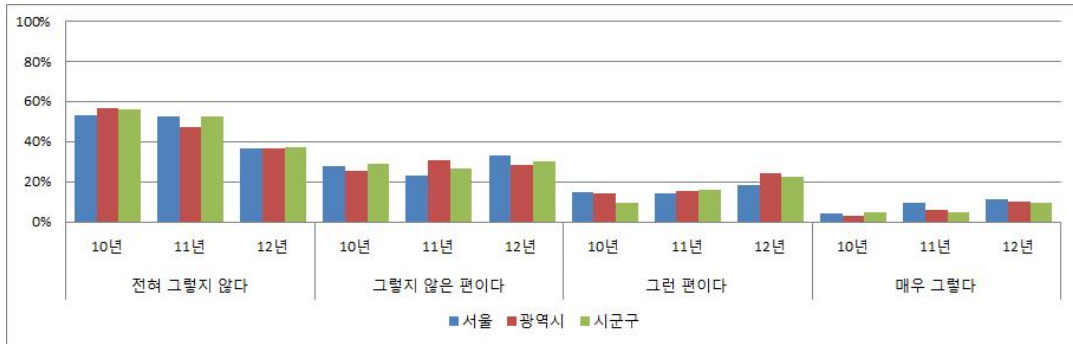


【그림 III-1-66】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성별)

표 III-1-68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성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442 | 496 | 429 | 200 | 249 | 290 | 75 | 127 | 206 | 39 | 67 | 86 | 756 | 939 | 1011 |
| | % | 58.5 | 52.8 | 42.4 | 26.5 | 26.5 | 28.7 | 9.9 | 13.5 | 20.4 | 5.2 | 7.1 | 8.5 | 100 | 100 | 100 |
| 여자 | N | 481 | 489 | 316 | 263 | 281 | 328 | 122 | 172 | 247 | 34 | 48 | 118 | 900 | 990 | 1009 |
| | % | 53.4 | 49.4 | 31.3 | 29.2 | 28.4 | 32.5 | 13.6 | 17.4 | 24.5 | 3.8 | 4.8 | 11.7 | 100 | 100 | 100 |
| 전체 | N | 923 | 985 | 745 | 463 | 530 | 618 | 197 | 299 | 453 | 73 | 115 | 204 | 1656 | 1929 | 2020 |
| | % | 55.7 | 51.1 | 36.9 | 28.0 | 27.5 | 30.6 | 11.9 | 15.5 | 22.4 | 4.4 | 6.0 | 10.1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1-68>.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5.2%, 2011년 7.1%, 2012년 8.5%로 매년 증가하여 총 3.3%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3.8%, 2011년 4.8%, 2012년 11.7%로 매년 증가하여 총 7.9%p 증가하였다. 즉,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가 없을 때 불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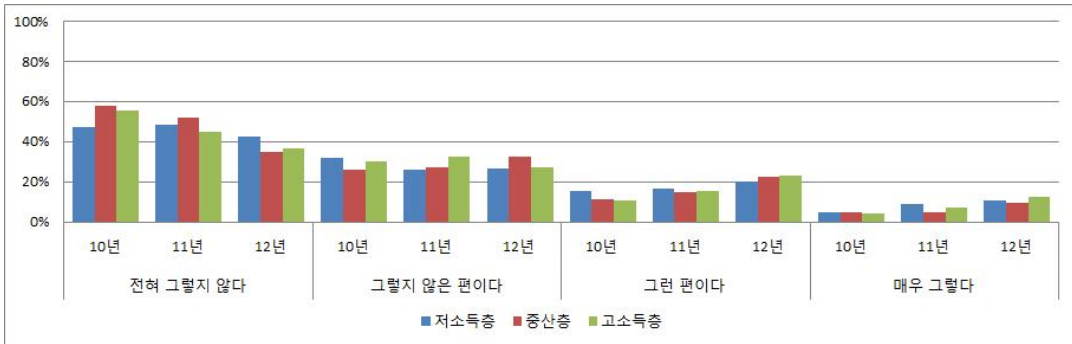


【그림 Ⅲ-1-67】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지역별)

표 Ⅲ-1-69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지역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58 | 166 | 120 | 82 | 73 | 109 | 45 | 45 | 60 | 12 | 31 | 38 | 297 | 315 | 327 |
| | % | 53.2 | 52.7 | 36.7 | 27.6 | 23.2 | 33.3 | 15.2 | 14.3 | 18.3 | 4.0 | 9.8 | 11.6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251 | 236 | 194 | 113 | 154 | 151 | 64 | 78 | 130 | 13 | 29 | 55 | 441 | 497 | 530 |
| | % | 56.9 | 47.5 | 36.6 | 25.6 | 31.0 | 28.5 | 14.5 | 15.7 | 24.5 | 2.9 | 5.8 | 10.4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514 | 564 | 415 | 268 | 285 | 336 | 88 | 170 | 250 | 47 | 52 | 104 | 917 | 1071 | 1105 |
| | % | 56.1 | 52.7 | 37.6 | 29.2 | 26.6 | 30.4 | 9.6 | 15.9 | 22.6 | 5.1 | 4.9 | 9.4 | 100 | 100 | 100 |
| 전체 | N | 923 | 966 | 729 | 463 | 512 | 596 | 197 | 293 | 440 | 72 | 112 | 197 | 1655 | 1883 | 1962 |
| | % | 55.8 | 51.3 | 37.2 | 28.0 | 27.2 | 30.4 | 11.9 | 15.6 | 22.4 | 4.4 | 5.9 | 10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69>.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4%, 2011년 9.8%, 2012년 11.6%로 매년 증가하여 총 7.6%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2.9%, 2011년 5.8%, 2012년 10.4%로 매년 증가하여 총 7.4%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2010년 5.1%, 2011년 4.9%, 2012년 9.4%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4.3%p 증가하였다. 즉, 서울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가 없을 때 불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5학년이 가장 낮고,



【그림 Ⅲ-1-68】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소득별)

표 Ⅲ-1-70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소득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136 | 163 | 159 | 92 | 87 | 101 | 45 | 57 | 75 | 13 | 30 | 40 | 286 | 337 | 375 |
| | % | 47.6 | 48.4 | 42.4 | 32.2 | 25.8 | 26.9 | 15.7 | 16.9 | 20 | 4.5 | 8.9 | 10.7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590 | 622 | 437 | 268 | 326 | 409 | 118 | 180 | 278 | 47 | 60 | 120 | 1023 | 1188 | 1244 |
| | % | 57.7 | 52.4 | 35.1 | 26.2 | 27.4 | 32.9 | 11.5 | 15.2 | 22.3 | 4.6 | 5.1 | 9.6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40 | 131 | 105 | 76 | 95 | 78 | 27 | 45 | 66 | 10 | 21 | 36 | 253 | 292 | 285 |
| | % | 55.3 | 44.9 | 36.8 | 30 | 32.5 | 27.4 | 10.7 | 15.4 | 23.2 | 4.0 | 7.2 | 12.6 | 100 | 100 | 100 |
| 전체 | N | 866 | 916 | 701 | 436 | 508 | 588 | 190 | 282 | 419 | 70 | 111 | 196 | 1562 | 1817 | 1904 |
| | % | 55.4 | 50.4 | 36.8 | 27.9 | 28.0 | 30.9 | 12.2 | 15.5 | 22.0 | 4.5 | 6.1 | 10.3 | 100 | 100 | 100 |

6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소득 계층에서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1-70>.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4.5%, 2011년 8.9%, 2012년 10.7%로 매년 증가하여 총 6.1%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4.6%, 2011년 5.1%, 2012년 9.6%로 매년 증가하여 총 5.1%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은 2010년 4%, 2011년 7.2%, 2012년 12.6%로 매년 증가하여 8.7%p 증가하였다. 즉, 모든 소득계층의 초등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가 없을 때 불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중1 패널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중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1 패널의 3년간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얼마나 자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휴대전화사용 빈도), 그리고 휴대전화에 얼마나 의존하는지(휴대전화 의존도)를 묻는 문항이었다.

휴대전화 사용 빈도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컴퓨터 사용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 문항은 ① 가족과의 통화, ②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③ 친구와의 통화, ④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⑤ 게임 및 오락, ⑥ 사진 촬영, ⑦ 동영상 감상, ⑧ 음악 듣기, ⑨ 시간 보기로 총 9문항이며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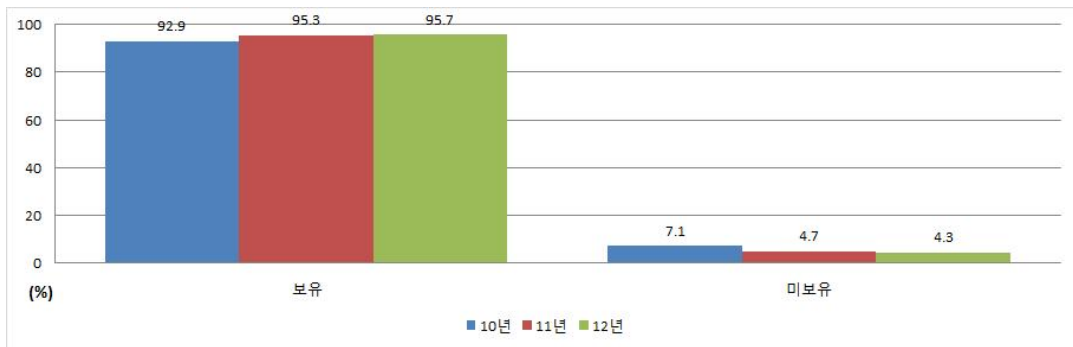
휴대전화 의존도는 이시형 등(2002)의 휴대전화 의존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 문항은 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②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③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④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⑥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⑦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고 총 7문항이며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중학생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및 사용 형태

중1 패년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및 사용 형태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학생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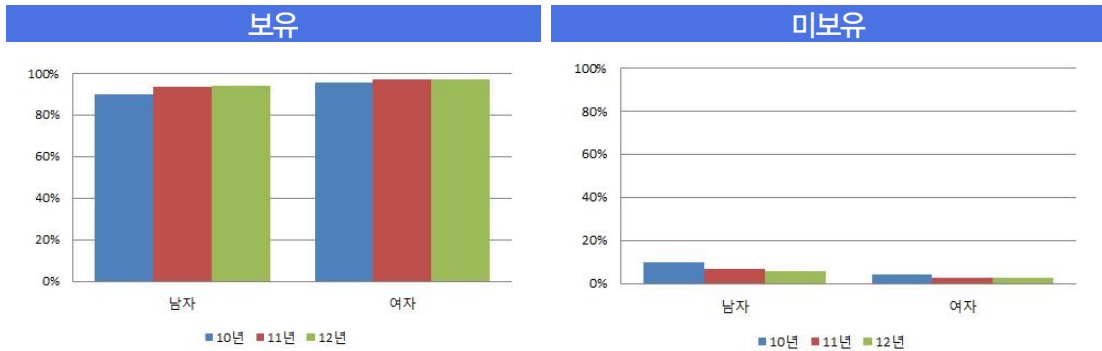
중학교 1, 2, 3학년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2010년 92.9%, 2011년 95.3%, 2012년 95.7%로 꾸준히 증가했다<표 III-2-1>.



【그림 III-2-1】 중1 패년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표 III-2-1 중1 패년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보유 | 2184 | 92.9 | 2173 | 95.3 | 2162 | 95.7 |
| 미보유 | 167 | 7.1 | 107 | 4.7 | 97 | 4.3 |
| 합계 | 2351 | 100 | 2280 | 100 | 2259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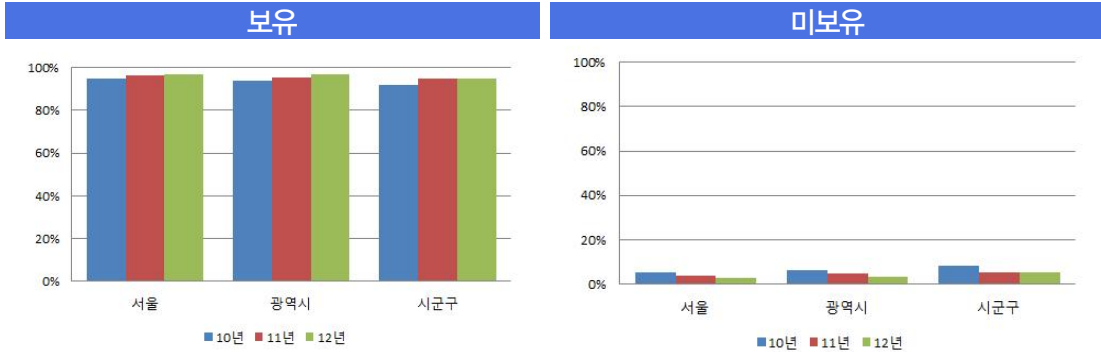


【그림 III-2-2】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표 III-2-2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 항목 | 보유 | | | 미보유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남자 | 사례수 | 1096 | 1108 | 1075 | 119 | 77 | 65 | 1215 | 1185 | 1140 |
| | 비율 | 90.2 | 93.5 | 94.3 | 9.8 | 6.5 | 5.7 | 100 | 100 | 100 |
| 여자 | 사례수 | 1088 | 1064 | 1087 | 48 | 31 | 32 | 1136 | 1095 | 1119 |
| | 비율 | 95.8 | 97.2 | 97.1 | 4.2 | 2.8 | 2.9 | 100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2184 | 2172 | 2162 | 167 | 108 | 97 | 2351 | 2280 | 2259 |
| | 비율 | 92.9 | 95.3 | 95.7 | 7.1 | 4.7 | 4.3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보유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휴대전화 보유율이 더 높았다(2012년 남 94.3%, 여 97.1%)<표 III-2-2>. 또한 남학생은 2010년 90.2%에서 2011년 93.5%, 2012년 94.3%로 4.1%p 증가하여 학년이 높아질 때 휴대전화 보유율도 높았으나, 여학생은 2010년 95.8%에서 2011년 97.2%, 2012년 97.1%로 2010년에 비해 1.4%p 증가하여 중학교 2학년에 휴대전화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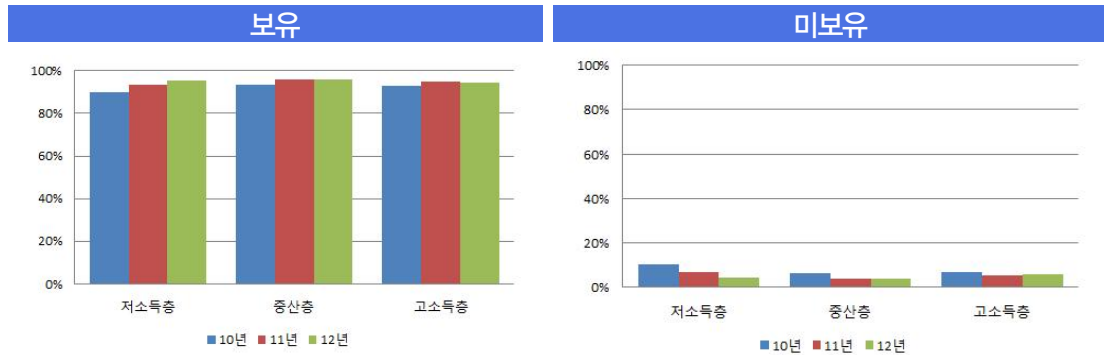


【그림 III-2-3】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지역별)

표 III-2-3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지역별)

| 항목 | | 보유 | | | 미보유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사례수 | 386 | 362 | 194 | 21 | 14 | 6 | 407 | 376 | 200 |
| | 비율 | 94.8 | 96.3 | 97.0 | 5.2 | 3.7 | 3.0 | 100 | 100 | 100 |
| 광역시 | 사례수 | 587 | 564 | 693 | 39 | 28 | 23 | 626 | 592 | 716 |
| | 비율 | 93.8 | 95.3 | 96.8 | 6.2 | 4.7 | 3.2 | 100 | 100 | 100 |
| 시군구 | 사례수 | 1210 | 1147 | 1214 | 107 | 63 | 68 | 1317 | 1210 | 1282 |
| | 비율 | 91.9 | 94.8 | 94.7 | 8.1 | 5.2 | 5.3 | 100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2183 | 2073 | 2101 | 167 | 105 | 97 | 2350 | 2178 | 2198 |
| | 비율 | 92.9 | 95.2 | 95.6 | 7.1 | 4.8 | 4.4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휴대전화 보유율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휴대전화 보유율 (2012년 97%)이 광역시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보다 더 높았다(2012년 광역시 96.8%, 시군구 94.7%)<표 III-2-3>.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94.8%, 2011년 96.3%, 2012년 97%로 2.2%p 증가하였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93.8%, 2011년 95.3%, 2012년 96.8%로 3%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91.9%, 2011년 94.8%, 2012년 94.7%로 2.8%p 증가하였다.



【그림 III-2-4】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소득별)

표 III-2-4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소득별)

| 항목 | | 보유 | | | 미보유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사례수 | 392 | 390 | 429 | 44 | 28 | 20 | 436 | 418 | 449 |
| | 비율 | 89.9 | 93.3 | 95.5 | 10.1 | 6.7 | 4.5 | 100 | 100 | 100 |
| 중산층 | 사례수 | 1288 | 1285 | 1269 | 87 | 52 | 53 | 1375 | 1337 | 1322 |
| | 비율 | 93.7 | 96.1 | 96.0 | 6.3 | 3.9 | 4.0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사례수 | 374 | 373 | 346 | 28 | 21 | 21 | 402 | 394 | 367 |
| | 비율 | 93.0 | 94.7 | 94.3 | 7.0 | 5.3 | 5.7 | 100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2054 | 2048 | 2044 | 159 | 101 | 94 | 2213 | 2149 | 2138 |
| | 비율 | 92.8 | 95.3 | 95.6 | 7.2 | 4.7 | 4.4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휴대전화 보유율을 살펴보면 중산층인 중학생(2012년 96%)이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의 중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2012년 저소득층 95.5%, 고소득층 94.7%)<표 III-2-4>.

저소득층의 중학생은 2010년 89.9%, 2011년 93.3%, 2012년 95.5%로 5.6%p 증가하였고, 중산층의 중학생은 2010년 93.7%, 2011년 96.1%, 2012년 96%로 2.3%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의 중학생은 2010년 93%, 2011년 94.7%, 2012년 94.3%로 1.2%p 증가하였다. 휴대전화 보유율은 저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산층, 고소득층 순으로 나타났다.

(2) 중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

중학교 1, 2, 3학년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9개의 문항을 '사용한다'와 '사용하지 않는다'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II-2-5>. 중학생이 휴대전화로 많이 사용한 항목(90%이상 사용한 항목)은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시간보기', '가족과의 통화', '친구와의 통화'였다. 가장 드물게 사용한 항목은 '동영상 감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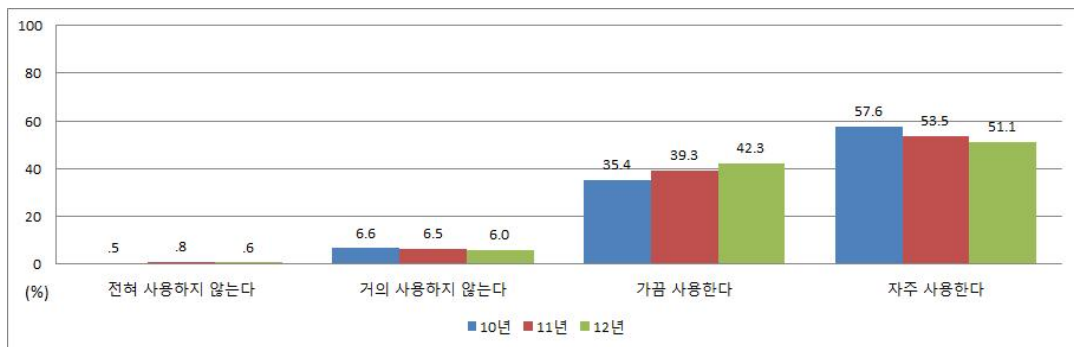
표 III-2-5 중1 휴대전화 사용 형태 변화

| 항목 | 사용한다 | | | 사용하지 않는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가족과의 통화 | N | 2030 | 2015 | 2014 | 154 | 158 | 151 | 2184 | 2173 | 2165 |
| | % | 93.0 | 92.7 | 93.0 | 7.0 | 7.3 | 7.0 | 100 | 100 | 100 |
|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 N | 1500 | 1641 | 1729 | 683 | 532 | 436 | 2184 | 2173 | 2165 |
| | % | 68.7 | 75.5 | 79.8 | 31.3 | 24.5 | 20.2 | 100 | 100 | 100 |
| 친구와의 통화 | N | 2016 | 2047 | 1980 | 168 | 125 | 180 | 2184 | 2173 | 2161 |
| | % | 92.3 | 94.2 | 91.7 | 7.7 | 5.8 | 8.3 | 100 | 100 | 100 |
|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 N | 2096 | 2082 | 2054 | 88 | 90 | 105 | 2184 | 2173 | 2159 |
| | % | 96.0 | 95.8 | 95.1 | 4.0 | 4.2 | 4.9 | 100 | 100 | 100 |
| 게임 및 오락 | N | 1162 | 1443 | 1611 | 1021 | 730 | 552 | 2184 | 2173 | 2163 |
| | % | 53.2 | 66.4 | 74.5 | 46.8 | 33.6 | 25.5 | 100 | 100 | 100 |
| 사진 촬영 | N | 1341 | 1392 | 1560 | 843 | 781 | 605 | 2184 | 2173 | 2165 |
| | % | 61.4 | 64.1 | 72.1 | 38.6 | 35.9 | 27.9 | 100 | 100 | 100 |
| 동영상 감상 | N | 483 | 803 | 1126 | 1701 | 1369 | 1036 | 2184 | 2172 | 2162 |
| | % | 22.1 | 37.0 | 52.1 | 77.9 | 63.0 | 47.9 | 100 | 100 | 100 |
| 음악 듣기 | N | 1166 | 1484 | 1866 | 1017 | 689 | 299 | 2184 | 2173 | 2165 |
| | % | 53.4 | 68.3 | 86.2 | 46.6 | 31.7 | 13.8 | 100 | 100 | 100 |
| 시간보기 | N | 2058 | 1998 | 2034 | 125 | 174 | 131 | 2184 | 2173 | 2165 |
| | % | 94.3 | 92.0 | 93.9 | 5.7 | 8.0 | 6.1 | 100 | 100 | 100 |

각 문항별 세부 분석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과의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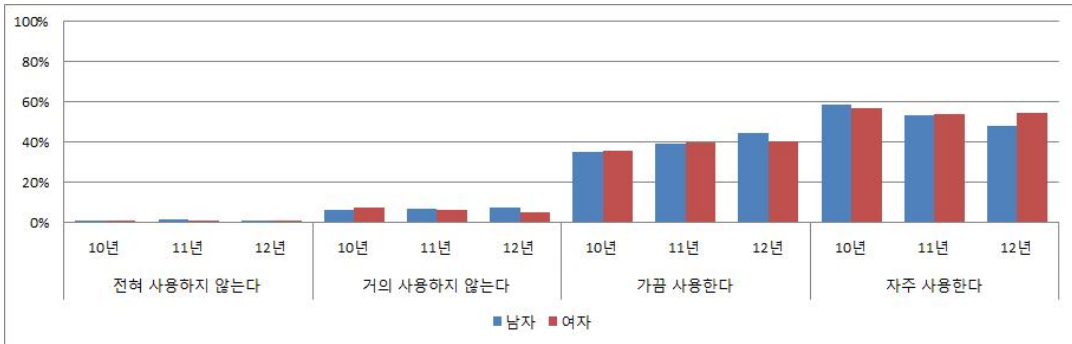
중학생이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6>.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93%, 2011년 92.7%, 2012년 93.4%로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은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비슷했고, 중학교 2학년은 약간 낮았다.



【그림 III-2-5】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

표 III-2-6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0 | 0.5 | 17 | 0.8 | 13 | 0.6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144 | 6.6 | 141 | 6.5 | 130 | 6.0 |
| 가끔 사용한다 | 773 | 35.4 | 853 | 39.3 | 914 | 42.3 |
| 자주 사용한다 | 1257 | 57.6 | 1161 | 53.5 | 1105 | 51.1 |
| 합계 | 2184 | 100 | 2173 | 100 | 216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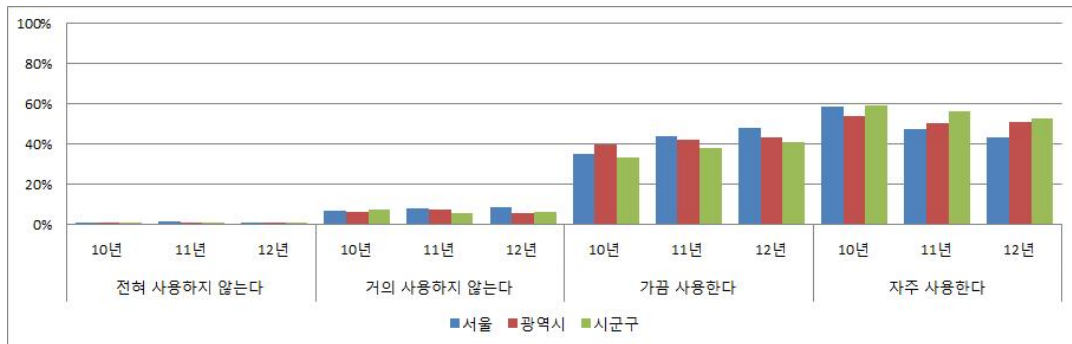
【그림 III-2-6】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성별)

표 III-2-7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6 | 12 | 7 | 67 | 76 | 80 | 383 | 431 | 475 | 640 | 588 | 513 | 1096 | 1107 | 1075 |
| | % | 0.5 | 1.1 | 0.7 | 6.1 | 6.9 | 7.4 | 34.9 | 38.9 | 44.2 | 58.4 | 53.1 | 47.7 | 100 | 100 | 100 |
| 여자 | N | 4 | 4 | 6 | 76 | 65 | 50 | 389 | 422 | 439 | 617 | 573 | 592 | 1086 | 1064 | 1087 |
| | % | 0.4 | 0.4 | 0.6 | 7.0 | 6.1 | 4.6 | 35.8 | 39.7 | 40.4 | 56.8 | 53.9 | 54.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 | 16 | 13 | 143 | 141 | 130 | 772 | 853 | 914 | 1257 | 1161 | 1105 | 2182 | 2171 | 2162 |
| | % | 0.5 | 0.7 | 0.6 | 6.6 | 6.5 | 6.0 | 35.4 | 39.3 | 42.3 | 57.6 | 53.5 | 51.1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7>.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남학생은 2010년 93.3%, 2011년 92.1%, 2012년 91.9%로 1.4%p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92.6%, 2011년 93.5%, 2012년 94.8%로 2.2%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감소하였지만 여학생의 감소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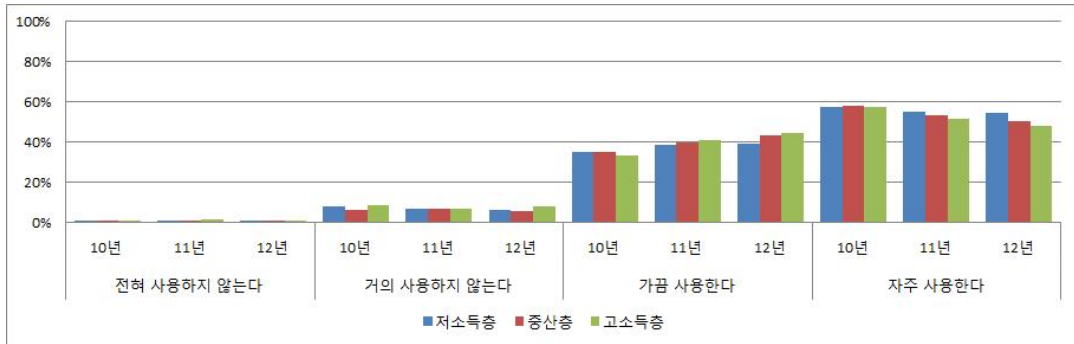
【그림 III-2-7】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지역별)

표 III-2-8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2 | 4 | 1 | 25 | 29 | 16 | 134 | 159 | 93 | 225 | 171 | 84 | 386 | 363 | 194 |
| | % | 0.5 | 1.1 | 0.5 | 6.5 | 8.0 | 8.2 | 34.7 | 43.8 | 47.9 | 58.3 | 47.1 | 43.3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4 | 4 | 3 | 34 | 39 | 39 | 234 | 236 | 298 | 316 | 284 | 353 | 588 | 563 | 693 |
| | % | 0.7 | 0.7 | 0.4 | 5.8 | 6.9 | 5.6 | 39.8 | 41.9 | 43.0 | 53.7 | 50.4 | 50.9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5 | 7 | 7 | 84 | 63 | 70 | 405 | 436 | 498 | 717 | 642 | 639 | 1211 | 1148 | 1214 |
| | % | 0.4 | 0.6 | 0.6 | 6.9 | 5.5 | 5.8 | 33.4 | 38.0 | 41.0 | 59.2 | 55.9 | 52.6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1 | 15 | 11 | 143 | 131 | 125 | 773 | 831 | 889 | 1258 | 1097 | 1076 | 2185 | 2074 | 2101 |
| | % | 0.5 | 0.7 | 0.5 | 6.5 | 6.3 | 5.9 | 35.4 | 40.1 | 42.3 | 57.6 | 52.9 | 51.2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광역시와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8>.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93%, 2011년 90.9%, 2012년 91.2%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1.8%p 감소하였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93.5%, 2011년 92.4%, 2012년 93.9%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0.4%p 증가했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92.7%, 2011년 93.9%, 2012년 93.7%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해 1%p 감소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그림 III-2-8】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소득별)

표 III-2-9 중1 패널- 가족과의 통화(소득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저소득층 | N | 1 | 1 | 3 | 30 | 25 | 25 | 137 | 149 | 168 | 224 | 215 | 233 | 392 | 390 | 429 |
| | % | 0.3 | 0.3 | 0.7 | 7.7 | 6.4 | 5.8 | 34.9 | 38.2 | 39.2 | 57.1 | 55.1 | 54.3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8 | 12 | 8 | 79 | 83 | 72 | 452 | 509 | 550 | 749 | 681 | 639 | 1288 | 1285 | 1269 |
| | % | 0.6 | 0.9 | 0.6 | 6.1 | 6.5 | 5.7 | 35.1 | 39.6 | 43.3 | 58.2 | 53.0 | 50.4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2 | 4 | 1 | 32 | 25 | 26 | 125 | 152 | 154 | 216 | 192 | 165 | 375 | 373 | 346 |
| | % | 0.5 | 1.1 | 0.3 | 8.5 | 6.7 | 7.5 | 33.3 | 40.8 | 44.5 | 57.6 | 51.5 | 47.7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1 | 17 | 12 | 141 | 133 | 123 | 714 | 810 | 872 | 1189 | 1088 | 1037 | 2055 | 2048 | 2044 |
| | % | 0.5 | 0.8 | 0.6 | 6.9 | 6.5 | 6.0 | 34.7 | 39.6 | 42.7 | 57.9 | 53.1 | 50.7 | 100 | 100 | 100 |

사용하는 비율은 시군구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에서는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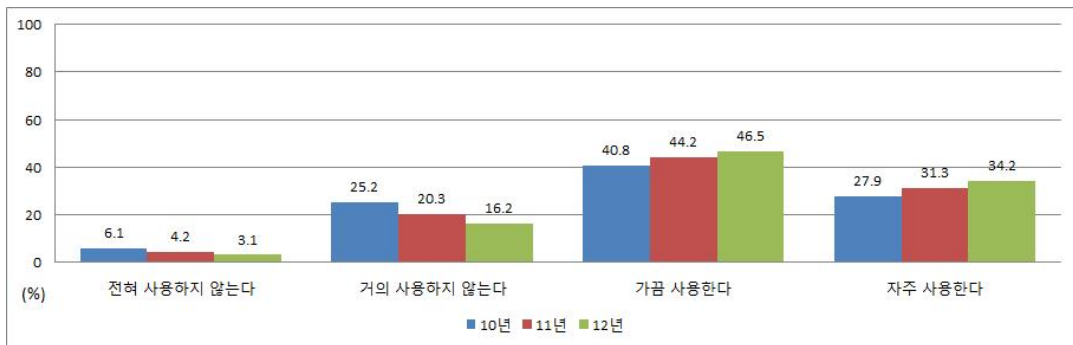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9>.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92.1%, 2011년 93.3%, 2012년 93.5%로 1.4%p 증가하였고,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93.2%, 2011년 92.6%, 2012년 93.7%로 0.5%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90.9%, 2011년 92.2%, 2012년 92.2%로 1.3%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인 중학생의 증가 비율이 중산층인 중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②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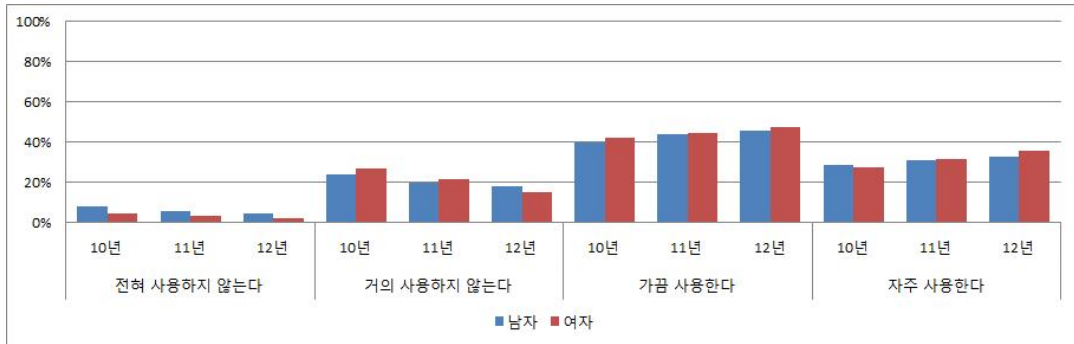
중학생이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2-10>.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68.7%, 2011년 75.5%, 2012년 80.7%로 학년이 높아질 때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그림 Ⅲ-2-9】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표 Ⅲ-2-10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33 | 6.1 | 90 | 4.2 | 67 | 3.1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551 | 25.2 | 442 | 20.3 | 350 | 16.2 |
| 가끔 사용한다 | 890 | 40.8 | 960 | 44.2 | 1005 | 46.5 |
| 자주 사용한다 | 610 | 27.9 | 681 | 31.3 | 740 | 34.2 |
| 합계 | 2184 | 100 | 2173 | 100 | 216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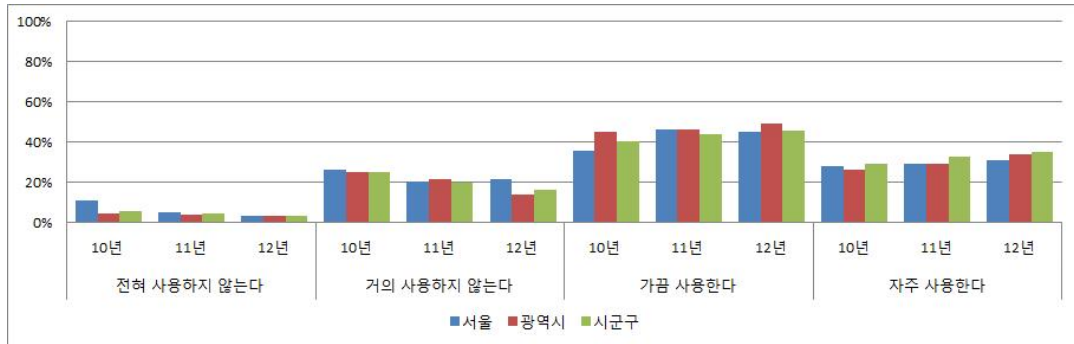
【그림 III-2-10】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성별)

표 III-2-11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87 | 59 | 45 | 260 | 217 | 191 | 436 | 488 | 488 | 312 | 344 | 351 | 1095 | 1108 | 1075 |
| | % | 7.9 | 5.3 | 4.2 | 23.7 | 19.6 | 17.8 | 39.8 | 44.0 | 45.4 | 28.5 | 31.0 | 32.7 | 100 | 100 | 100 |
| 여자 | N | 45 | 31 | 22 | 290 | 225 | 159 | 455 | 472 | 517 | 298 | 337 | 389 | 1088 | 1065 | 1087 |
| | % | 4.1 | 2.9 | 2.0 | 26.7 | 21.1 | 14.6 | 41.8 | 44.3 | 47.6 | 27.4 | 31.6 | 35.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32 | 90 | 67 | 550 | 442 | 350 | 891 | 960 | 1005 | 610 | 681 | 740 | 2183 | 2173 | 2162 |
| | % | 6.0 | 4.1 | 3.1 | 25.2 | 20.3 | 16.2 | 40.8 | 44.2 | 46.5 | 27.9 | 31.3 | 34.2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11>.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남학생은 2010년 68.3%, 2011년 75.1%, 2012년 78%로 9.7%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69.2%, 2011년 76%, 2012년 83.3%로 14.1%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나 여학생의 증가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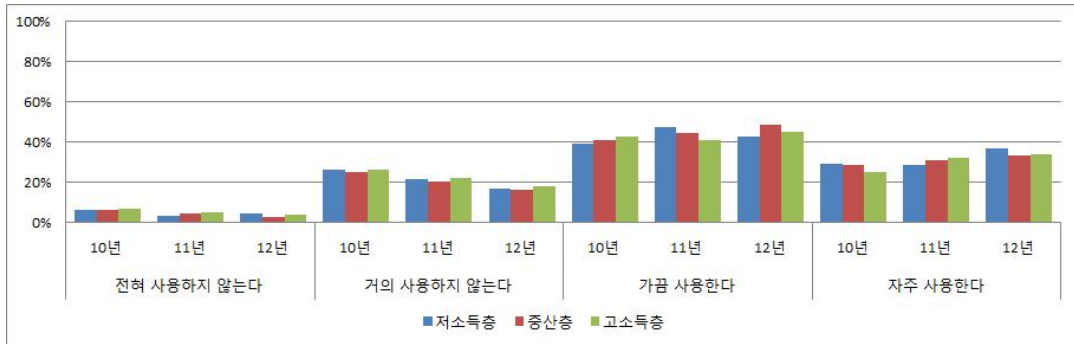
【그림 III-2-II】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표 III-2-12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41 | 17 | 6 | 100 | 73 | 41 | 137 | 168 | 87 | 108 | 105 | 60 | 386 | 363 | 194 |
| | % | 10.6 | 4.7 | 3.1 | 25.9 | 20.1 | 21.1 | 35.5 | 46.3 | 44.8 | 28.0 | 28.9 | 30.9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25 | 20 | 22 | 147 | 120 | 96 | 264 | 260 | 339 | 153 | 165 | 236 | 589 | 565 | 693 |
| | % | 4.2 | 3.5 | 3.2 | 25.0 | 21.2 | 13.9 | 44.8 | 46.0 | 48.9 | 26.0 | 29.2 | 34.1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67 | 47 | 37 | 304 | 226 | 198 | 490 | 501 | 552 | 349 | 373 | 427 | 1210 | 1147 | 1214 |
| | % | 5.5 | 4.1 | 3.0 | 25.1 | 19.7 | 16.3 | 40.5 | 43.7 | 45.5 | 28.8 | 32.5 | 35.2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33 | 84 | 65 | 551 | 419 | 335 | 891 | 929 | 978 | 610 | 643 | 723 | 2185 | 2075 | 2101 |
| | % | 6.1 | 4.0 | 3.1 | 25.2 | 20.2 | 15.9 | 40.8 | 44.8 | 46.5 | 27.9 | 31.0 | 34.4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12>.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63.5%, 2011년 75.2%, 2012년 75.8%로 12.3%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70.8%, 2011년 75.2%, 2012년 83%로 12.2%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69.3%, 2011년 76.2%, 2012년 80.6%로 11.3%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증가 비율이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III-2-12】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표 III-2-13 중1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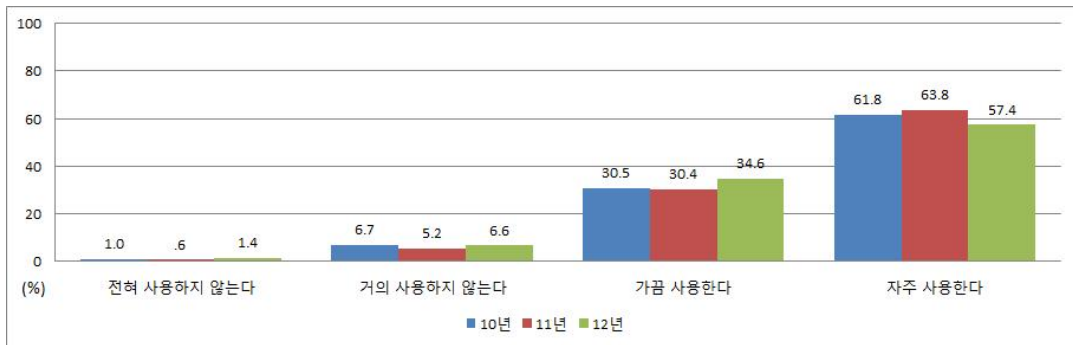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 23 | 11 | 18 | 102 | 83 | 71 | 152 | 184 | 182 | 114 | 112 | 158 | 391 | 390 | 429 | |
| | 5.9 | 2.8 | 4.2 | 26.1 | 21.3 | 16.6 | 38.9 | 47.2 | 42.4 | 29.2 | 28.7 | 36.8 | 100 | 100 | 100 | |
| 중산층 | 77 | 53 | 31 | 321 | 262 | 204 | 524 | 571 | 613 | 366 | 399 | 421 | 1288 | 1285 | 1269 | |
| | 6.0 | 4.1 | 2.4 | 24.9 | 20.4 | 16.1 | 40.7 | 44.4 | 48.3 | 28.4 | 31.1 | 33.2 | 100 | 100 | 100 | |
| 고소득층 | 24 | 19 | 12 | 98 | 81 | 62 | 159 | 153 | 155 | 93 | 120 | 117 | 374 | 373 | 346 | |
| | 6.4 | 5.1 | 3.5 | 26.2 | 21.7 | 17.9 | 42.5 | 41.0 | 44.8 | 24.9 | 32.2 | 33.8 | 100 | 100 | 100 | |
| 전체 | 124 | 83 | 61 | 521 | 426 | 337 | 835 | 908 | 950 | 573 | 631 | 696 | 2053 | 2048 | 2044 | |
| | 6.0 | 4.1 | 3.0 | 25.4 | 20.8 | 16.5 | 40.7 | 44.3 | 46.5 | 27.9 | 30.8 | 34.1 | 100 | 100 | 100 | |

소득에 따라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13>.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63.5%, 2011년 75.2%, 2012년 75.8%로 12.3%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70.8%, 2011년 75.2%, 2012년 83%로 12.2%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69.3%, 2011년 76.2%, 2012년 80.6%로 11.3%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증가비율이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③ 친구와의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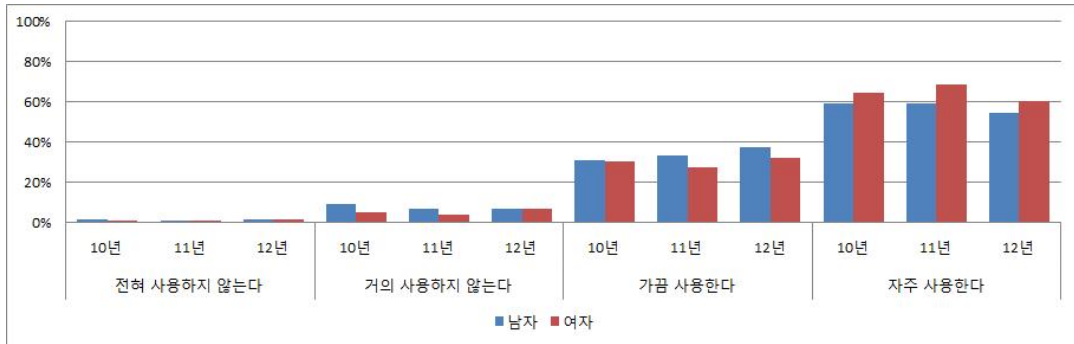
중학생이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2-14>.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92.3%, 2011년 94.2%, 2012년 92%로 중학교 2학년이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중학교 1, 3학년에 비해 높았다.



【그림 Ⅲ-2-13】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

표 Ⅲ-2-14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22 | 1.0 | 13 | 0.6 | 30 | 1.4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146 | 6.7 | 112 | 5.2 | 143 | 6.6 |
| 가끔 사용한다 | 667 | 30.5 | 661 | 30.4 | 748 | 34.6 |
| 자주 사용한다 | 1349 | 61.8 | 1386 | 63.8 | 1239 | 57.4 |
| 합계 | 2184 | 100 | 2173 | 100 | 216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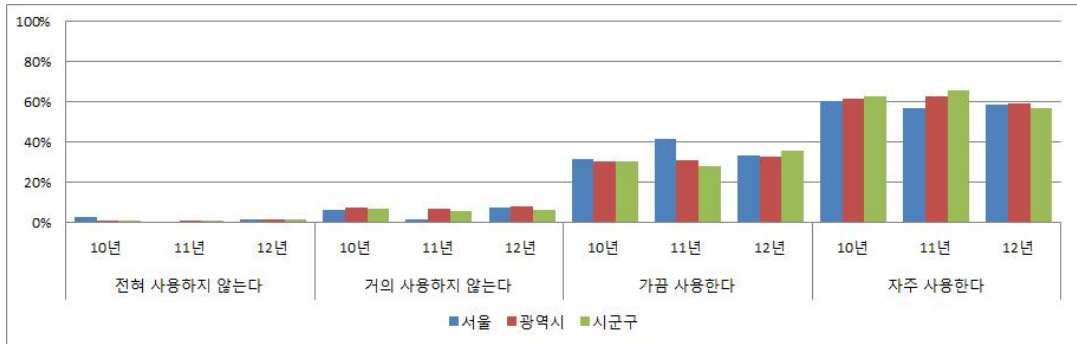
【그림 Ⅲ-2-14】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성별)

표 Ⅲ-2-15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14 | 11 | 17 | 96 | 73 | 70 | 337 | 370 | 401 | 649 | 654 | 586 | 1096 | 1108 | 1074 |
| | % | 1.3 | 1.0 | 1.6 | 8.8 | 6.6 | 6.5 | 30.7 | 33.4 | 37.3 | 59.2 | 59.0 | 54.6 | 100 | 100 | 100 |
| 여자 | N | 8 | 2 | 13 | 50 | 39 | 73 | 330 | 291 | 347 | 700 | 731 | 653 | 1088 | 1063 | 1086 |
| | % | 0.7 | 0.2 | 1.2 | 4.6 | 3.7 | 6.7 | 30.3 | 27.4 | 32.0 | 64.3 | 68.8 | 60.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2 | 13 | 30 | 146 | 112 | 143 | 667 | 661 | 748 | 1349 | 1385 | 1239 | 2184 | 2171 | 2160 |
| | % | 1.0 | 0.6 | 1.4 | 6.7 | 5.2 | 6.6 | 30.5 | 30.4 | 34.6 | 61.8 | 63.8 | 57.4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2-15>.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남학생은 2010년 90%, 2011년 92.4%, 2012년 91.9%로 1.9%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94.7%, 2011년 96.1%, 2012년 92.1%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26%p 감소하였다. 남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여학생의 비율은 중학교 2학년에 가장 높고 중학교 3학년에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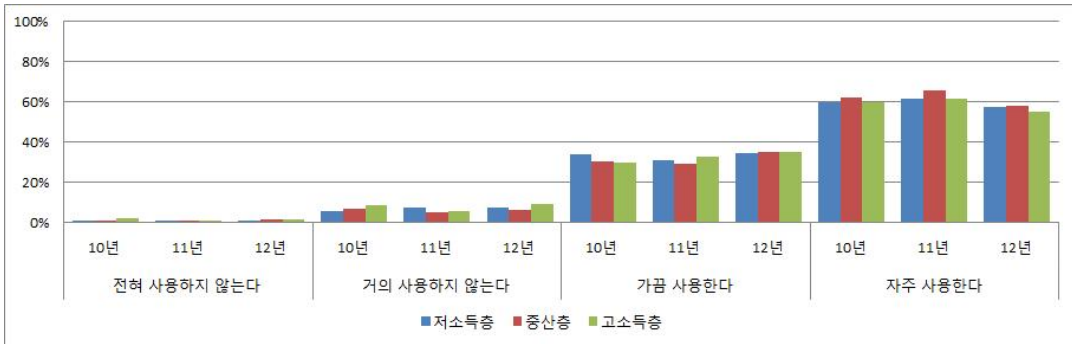
【그림 III-2-15】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지역별)

표 III-2-16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9 | 0 | 2 | 24 | 5 | 14 | 121 | 151 | 64 | 232 | 206 | 113 | 386 | 362 | 193 |
| | % | 2.3 | 0 | 1.0 | 6.2 | 1.4 | 7.3 | 31.3 | 41.7 | 33.2 | 60.1 | 56.9 | 58.5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3 | 2 | 8 | 44 | 37 | 52 | 179 | 173 | 225 | 362 | 352 | 408 | 588 | 564 | 693 |
| | % | 0.5 | 0.4 | 1.2 | 7.5 | 6.6 | 7.5 | 30.4 | 30.7 | 32.5 | 61.6 | 62.4 | 58.9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10 | 11 | 18 | 78 | 63 | 74 | 366 | 318 | 432 | 755 | 756 | 689 | 1209 | 1148 | 1213 |
| | % | .8 | 1.0 | 1.5 | 6.5 | 5.5 | 6.1 | 30.3 | 27.7 | 35.6 | 62.4 | 65.9 | 56.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2 | 13 | 28 | 146 | 105 | 140 | 666 | 642 | 721 | 1349 | 1314 | 1210 | 2183 | 2074 | 2099 |
| | % | 1.0 | 0.6 | 1.3 | 6.7 | 5.1 | 6.7 | 30.5 | 31.0 | 34.3 | 61.8 | 63.4 | 57.6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16>.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91.5%, 2011년 98.6%, 2012년 91.7%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0.3%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92%, 2011년 93.1%, 2012년 91.3%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0.7%p 감소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2010년 92.7%, 2011년 93.6%, 2012년 92.4%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0.3%p 감소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중학교 2학년이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광역시나



【그림 III-2-16】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소득별)

표 III-2-17 중1 패널- 친구와의 통화(소득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N | 2 | 1 | 4 | 22 | 27 | 31 | 133 | 121 | 147 | 234 | 241 | 247 | 391 | 390 |
| 저소득층 | % | 0.5 | 0.3 | .9 | 5.6 | 6.9 | 7.2 | 34.0 | 31.0 | 34.3 | 59.8 | 61.8 | 57.6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12 | 9 | 17 | 88 | 64 | 75 | 386 | 372 | 441 | 802 | 840 | 734 | 1288 | 1285 | 1267 |
| | % | 0.9 | 0.7 | 1.3 | 6.8 | 5.0 | 5.9 | 30 | 28.9 | 34.8 | 62.3 | 65.4 | 57.9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8 | 3 | 4 | 31 | 20 | 31 | 111 | 121 | 120 | 224 | 230 | 191 | 374 | 374 | 346 |
| | % | 2.1 | 0.8 | 1.2 | 8.3 | 5.3 | 9.0 | 29.7 | 32.4 | 34.7 | 59.9 | 61.5 | 55.2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2 | 13 | 25 | 141 | 111 | 137 | 630 | 614 | 708 | 1260 | 1311 | 1172 | 2053 | 2049 | 2042 |
| | % | 1.1 | 0.6 | 1.2 | 6.9 | 5.4 | 6.7 | 30.7 | 30 | 34.7 | 61.4 | 64.0 | 57.4 | 100 | 100 | 100 |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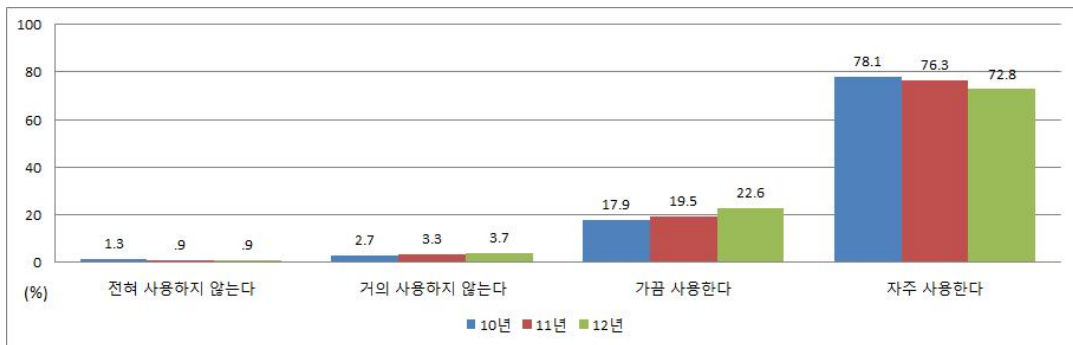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17>.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93.9%, 2011년 92.8%, 2012년 91.8%로 매년 감소하여 총 2%p 감소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92.2%, 2011년 94.3%, 2012년 92.7%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0.5%p 증가하였고,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89.6%, 2011년 93.9%, 2012년 89.9%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0.3%p 증가하였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중학교 2학년이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인 중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④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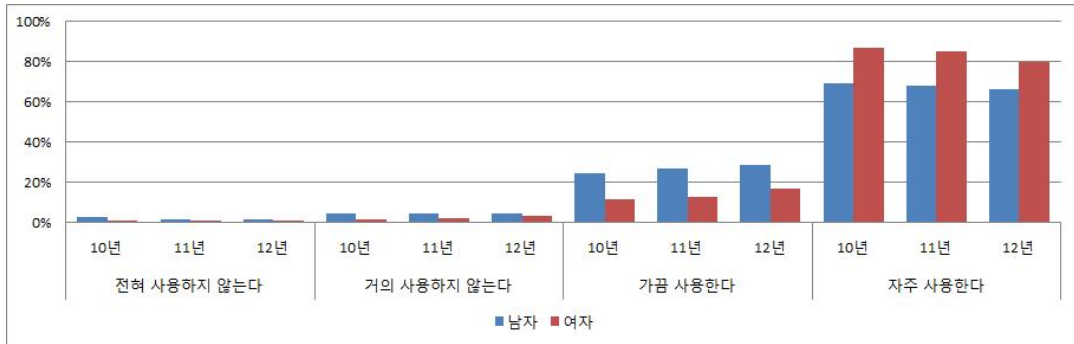
중학생이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2-18>.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96%, 2011년 95.8%, 2012년 95.4%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17】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표 Ⅲ-2-18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29 | 1.3 | 19 | 0.9 | 20 | 0.9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59 | 2.7 | 71 | 3.3 | 79 | 3.7 |
| 가끔 사용한다 | 391 | 17.9 | 424 | 19.5 | 488 | 22.6 |
| 자주 사용한다 | 1705 | 78.1 | 1659 | 76.3 | 1572 | 72.8 |
| 합계 | 2184 | 100 | 2173 | 100 | 2159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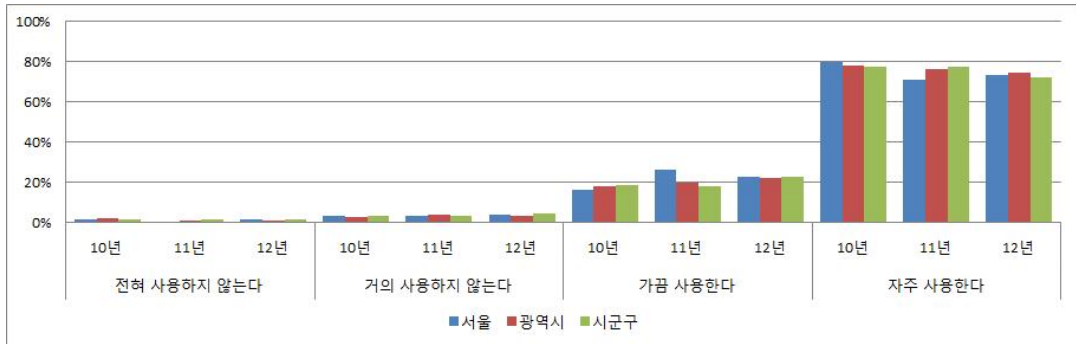
【그림 Ⅲ-2-18】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성별)

표 Ⅲ-2-19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26 | 16 | 14 | 44 | 48 | 46 | 266 | 294 | 305 | 760 | 751 | 709 | 1096 | 1109 | 1074 |
| | % | 2.4 | 1.4 | 1.3 | 4.0 | 4.3 | 4.3 | 24.3 | 26.5 | 28.4 | 69.3 | 67.7 | 66.0 | 100 | 100 | 100 |
| 여자 | N | 3 | 3 | 6 | 15 | 23 | 33 | 125 | 130 | 183 | 945 | 908 | 863 | 1088 | 1064 | 1085 |
| | % | 0.3 | 0.3 | 0.6 | 1.4 | 2.2 | 3.0 | 11.5 | 12.2 | 16.9 | 86.9 | 85.3 | 79.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9 | 19 | 20 | 59 | 71 | 79 | 391 | 424 | 488 | 1705 | 1659 | 1572 | 2184 | 2173 | 2159 |
| | % | 1.3 | 0.9 | 0.9 | 2.7 | 3.3 | 3.7 | 17.9 | 19.5 | 22.6 | 78.1 | 76.3 | 72.8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남녀 모두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2-19>.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남학생은 2010년 93.6%, 2011년 94.2%, 2012년 94.4%로 매년 증가해 총 0.8%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98.3%, 2011년 97.6%, 2012년 96.4%로 매년 감소해 총 1.9%p 감소하였다. 남학생은 학년이 높을 때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학년이 높을 때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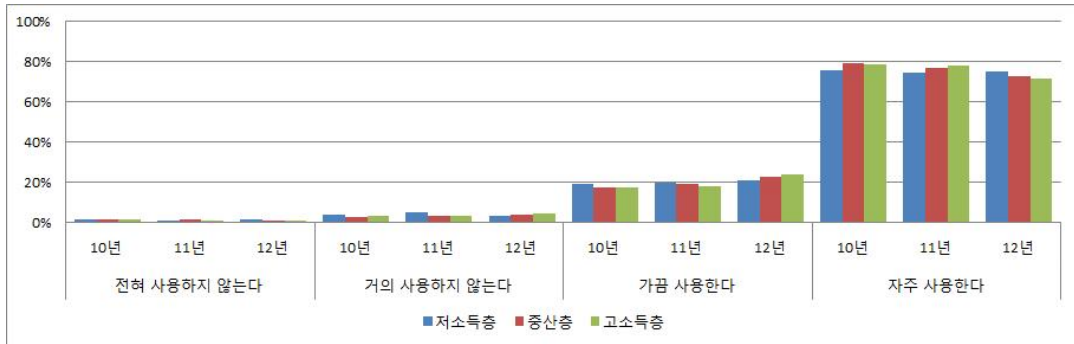
【그림 III-2-19】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표 III-2-20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서울 | N | 4 | 0 | 2 | 11 | 11 | 7 | 62 | 94 | 43 | 310 | 258 | 141 | 387 | 363 | 193 |
| | % | 1.0 | 0 | 1.0 | 2.8 | 3.0 | 3.6 | 16.0 | 25.9 | 22.3 | 80.1 | 71.1 | 73.1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1 | 3 | 2 | 14 | 21 | 22 | 105 | 111 | 153 | 458 | 429 | 515 | 588 | 564 | 692 |
| | % | 1.9 | 0.5 | 0.3 | 2.4 | 3.7 | 3.2 | 17.9 | 19.7 | 22.1 | 77.9 | 76.1 | 74.4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14 | 16 | 15 | 35 | 35 | 50 | 225 | 207 | 274 | 936 | 889 | 874 | 1210 | 1147 | 1213 |
| | % | 1.2 | 1.4 | 1.2 | 2.9 | 3.1 | 4.1 | 18.6 | 18.0 | 22.6 | 77.4 | 77.5 | 72.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9 | 19 | 19 | 60 | 67 | 79 | 392 | 412 | 470 | 1704 | 1576 | 1530 | 2185 | 2074 | 2098 |
| | % | 1.3 | 0.9 | 0.9 | 2.7 | 3.2 | 3.8 | 17.9 | 19.9 | 22.4 | 78.0 | 76.0 | 72.9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20>.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96.1%, 2011년 97%, 2012년 95.3%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0.8%p 감소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95.7%, 2011년 95.7%, 2012년 96.5%로 총 0.8%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96%, 2011년 95.6%, 2012년 94.6%로 매년 감소하여 총 1.3%p 감소하였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학년이 높을 때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서울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학년이 높을 때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그림 III-2-20】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표 III-2-21 중1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소득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N | 6 | 3 | 5 | 15 | 19 | 13 | 74 | 77 | 90 | 296 | 291 | 321 | 391 | 390 |
| 저소득층 | % | 1.5 | 0.8 | 1.2 | 3.8 | 4.9 | 3.0 | 18.9 | 19.7 | 21.0 | 75.7 | 74.6 | 74.8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17 | 13 | 10 | 29 | 38 | 47 | 224 | 248 | 289 | 1018 | 986 | 921 | 1288 | 1285 | 1267 |
| | % | 1.3 | 1.0 | 0.8 | 2.3 | 3.0 | 3.7 | 17.4 | 19.3 | 22.8 | 79.0 | 76.7 | 72.7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4 | 3 | 3 | 12 | 12 | 14 | 64 | 66 | 81 | 294 | 292 | 247 | 374 | 373 | 345 |
| | % | 1.1 | 0.8 | 0.9 | 3.2 | 3.2 | 4.1 | 17.1 | 17.7 | 23.5 | 78.6 | 78.3 | 71.6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7 | 19 | 18 | 56 | 69 | 74 | 362 | 391 | 460 | 1608 | 1569 | 1489 | 2053 | 2048 | 2041 |
| | % | 1.3 | 0.9 | 0.9 | 2.7 | 3.4 | 3.6 | 17.6 | 19.1 | 22.5 | 78.3 | 76.6 | 73.0 | 100 | 100 | 100 |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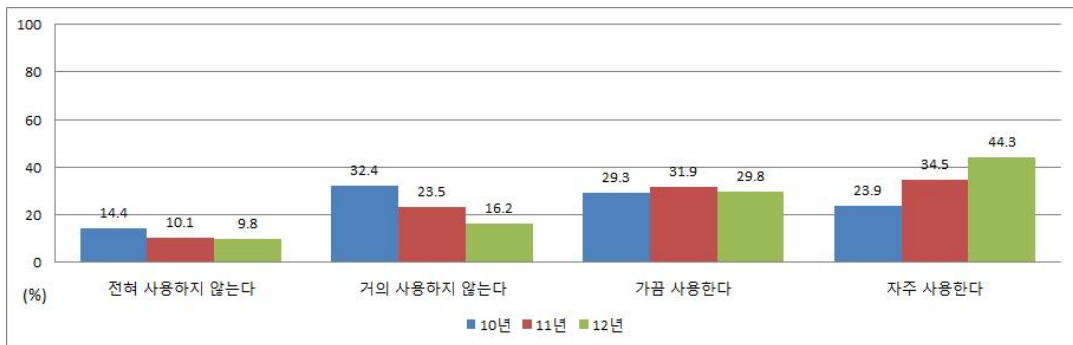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21>.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94.6%, 2011년 94.4%, 2012년 95.8%로 약간 감소했다가 증가하여 2010 대비 1.2%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96.4%, 2011년 96%, 2012년 95.5%로 매년 감소하여 총 0.9%p 감소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95.7%, 2011년 96%, 2012년 95.1%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0.6%p 감소하였다. 중산층인 중학생은 학년이 높을 때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고소득층 및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학년에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⑤ 게임 및 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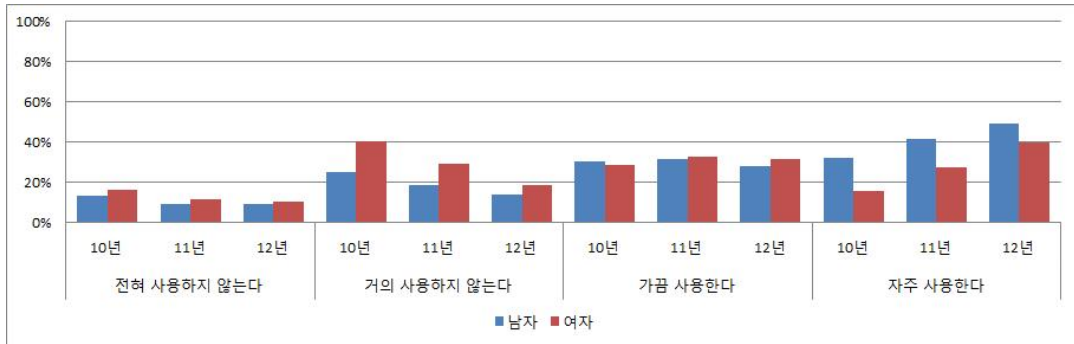
중학생이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1학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2, 3학년에는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2-22>.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53.2%, 2011년 66.4%, 2012년 74.1%로 학년이 높아질 때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21】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

표 III-2-22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315 | 14.4 | 220 | 10.1 | 211 | 9.8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707 | 32.4 | 510 | 23.5 | 349 | 16.2 |
| 가끔 사용한다 | 640 | 29.3 | 692 | 31.9 | 643 | 29.8 |
| 자주 사용한다 | 522 | 23.9 | 750 | 34.5 | 957 | 44.3 |
| 합계 | 2184 | 100 | 2173 | 100 | 216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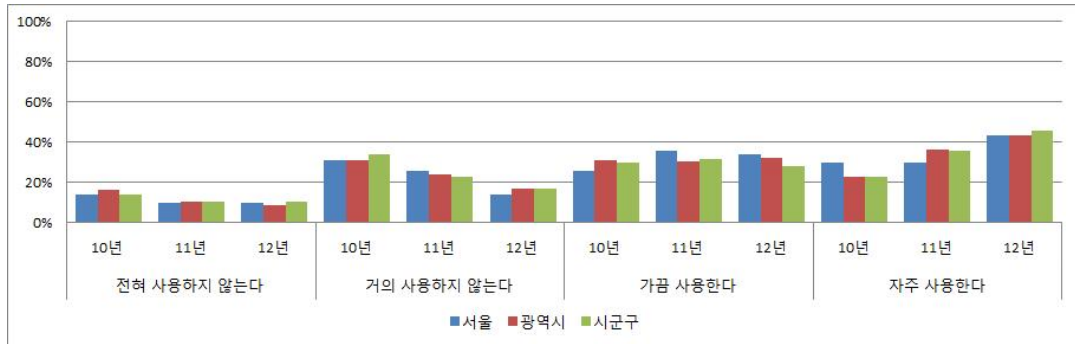
【그림 Ⅲ-2-22】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표 Ⅲ-2-23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142 | 98 | 98 | 272 | 202 | 149 | 330 | 347 | 300 | 353 | 462 | 527 | 1097 | 1109 | 1074 |
| | % | 12.9 | 8.8 | 9.1 | 24.8 | 18.2 | 13.9 | 30.1 | 31.3 | 27.9 | 32.2 | 41.7 | 49.1 | 100 | 100 | 100 |
| 여자 | N | 173 | 122 | 113 | 435 | 308 | 200 | 311 | 345 | 343 | 169 | 289 | 430 | 1088 | 1064 | 1086 |
| | % | 15.9 | 11.5 | 10.4 | 40 | 28.9 | 18.4 | 28.6 | 32.4 | 31.6 | 15.5 | 27.2 | 39.6 | 100 | 100 | 100 |
| 전체 | N | 315 | 220 | 211 | 707 | 510 | 349 | 641 | 692 | 643 | 522 | 751 | 957 | 2185 | 2173 | 2160 |
| | % | 14.4 | 10.1 | 9.8 | 32.4 | 23.5 | 16.2 | 29.3 | 31.8 | 29.8 | 23.9 | 34.6 | 44.3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Ⅲ-2-23>.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62.3%, 2011년 72.9%, 2012년 77%로 매년 증가해 총 14.7%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44.1%, 2011년 59.6%, 2012년 71.2%로 매년 증가해 총 27.1%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높아졌으며, 여학생의 증가 비율이 남학생보다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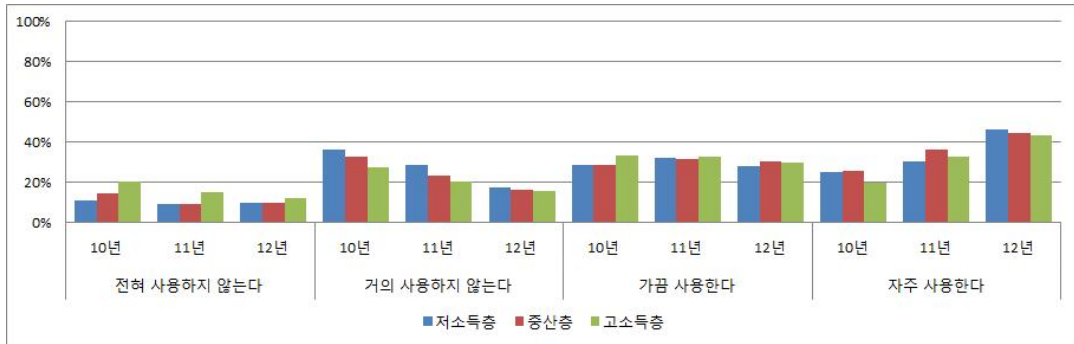
【그림 III-2-23】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표 III-2-24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53 | 35 | 19 | 120 | 92 | 26 | 98 | 128 | 65 | 115 | 107 | 84 | 386 | 362 | 194 |
| | % | 13.7 | 9.7 | 9.8 | 31.1 | 25.4 | 13.4 | 25.4 | 35.4 | 33.5 | 29.8 | 29.6 | 43.3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94 | 58 | 59 | 181 | 133 | 114 | 181 | 170 | 220 | 132 | 203 | 300 | 588 | 564 | 693 |
| | % | 16.0 | 10.3 | 8.5 | 30.8 | 23.6 | 16.5 | 30.8 | 30.1 | 31.7 | 22.4 | 36.0 | 43.3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168 | 116 | 123 | 406 | 259 | 202 | 362 | 362 | 337 | 274 | 410 | 550 | 1210 | 1147 | 1212 |
| | % | 13.9 | 10.1 | 10.1 | 33.6 | 22.6 | 16.7 | 29.9 | 31.6 | 27.8 | 22.6 | 35.7 | 45.4 | 100 | 100 | 100 |
| 전체 | N | 315 | 209 | 201 | 707 | 484 | 342 | 641 | 660 | 622 | 521 | 720 | 934 | 2184 | 2073 | 2099 |
| | % | 14.4 | 10.1 | 9.6 | 32.4 | 23.3 | 16.3 | 29.3 | 31.8 | 29.6 | 23.9 | 34.7 | 44.5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2-24>.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55.2%, 2011년 64.9%, 2012년 76.8%로 매년 증가해 총 21.6%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53.2%, 2011년 66.1%, 2012년 75%로 매년 증가해 총 21.8%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52.6%, 2011년 67.3%, 2012년 73.2%로 매년 증가해 총 20.6%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높아졌으며, 서울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증가 비율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보다 더 컸다.



[그림 Ⅲ-2-24]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표 Ⅲ-2-25 중1 패널- 게임 및 오락(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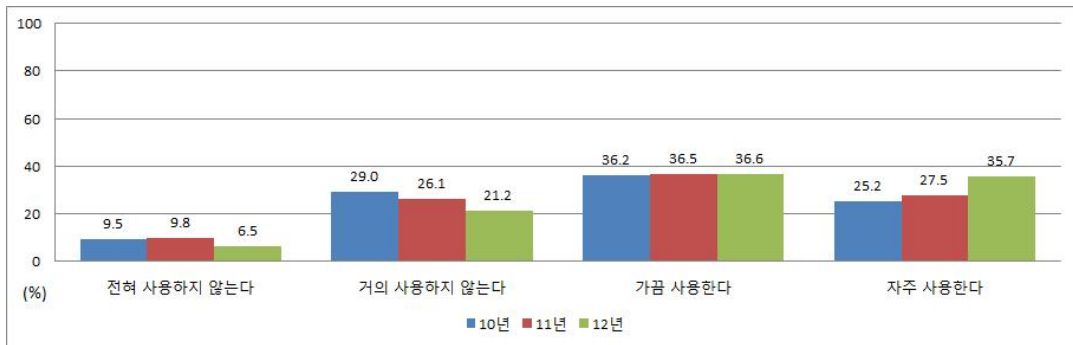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 N | 43 | 35 | 40 | 141 | 111 | 73 | 111 | 125 | 119 | 97 | 119 | 197 | 392 | 390 | 429 |
| | % | 11.0 | 9.0 | 9.3 | 36.0 | 28.5 | 17.0 | 28.3 | 32.1 | 27.7 | 24.7 | 30.5 | 45.9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183 | 116 | 119 | 417 | 299 | 206 | 363 | 404 | 384 | 325 | 466 | 560 | 1288 | 1285 | 1269 |
| | % | 14.2 | 9.0 | 9.4 | 32.4 | 23.3 | 16.2 | 28.2 | 31.4 | 30.3 | 25.2 | 36.3 | 44.1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75 | 55 | 40 | 102 | 74 | 54 | 125 | 121 | 102 | 73 | 122 | 148 | 375 | 372 | 344 |
| | % | 20 | 14.8 | 11.6 | 27.2 | 19.9 | 15.7 | 33.3 | 32.5 | 29.7 | 19.5 | 32.8 | 43.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301 | 206 | 199 | 660 | 484 | 333 | 599 | 650 | 605 | 495 | 707 | 905 | 2055 | 2047 | 2042 |
| | % | 14.6 | 10.1 | 9.7 | 32.1 | 23.6 | 16.3 | 29.1 | 31.8 | 29.6 | 24.1 | 34.5 | 44.3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 계층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Ⅲ-2-25>.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53.1%, 2011년 62.6%, 2012년 73.7%로 매년 증가해 총 20.6%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53.4%, 2011년 67.7%, 2012년 74.4%로 매년 증가해 총 21%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52.8%, 2011년 65.3%, 2012년 72.7%로 매년 증가해 19.9%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높아졌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의 증가 비율이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인 중학생보다 더 컸다.

⑥ 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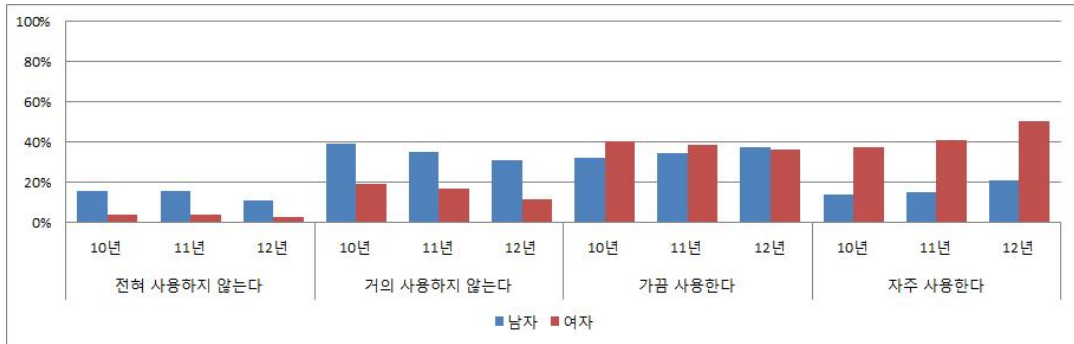
중학생이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2-26>.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61.4%, 2011년 64.1%, 2012년 72.3%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2-25】 중1 패널- 사진 촬영

표 Ⅲ-2-26 중1 패널- 사진 촬영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208 | 9.5 | 213 | 9.8 | 141 | 6.5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634 | 29.0 | 568 | 26.1 | 458 | 21.2 |
| 가끔 사용한다 | 790 | 36.2 | 794 | 36.5 | 792 | 36.6 |
| 자주 사용한다 | 551 | 25.2 | 598 | 27.5 | 771 | 35.7 |
| 합계 | 2184 | 100 | 2173 | 100 | 216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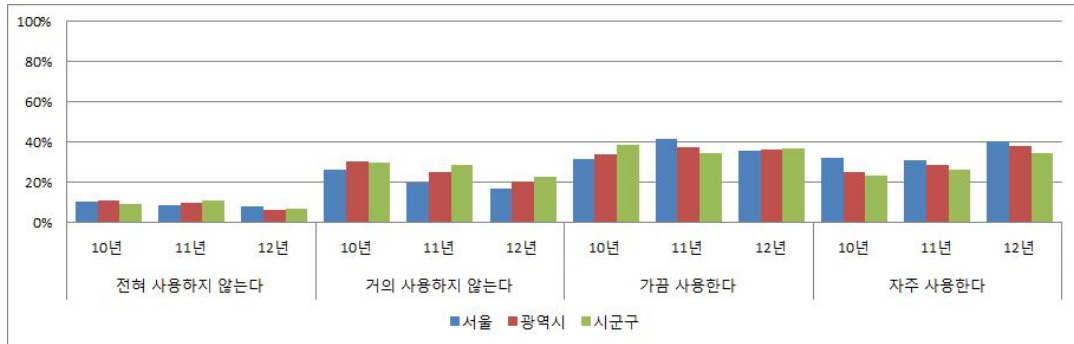
【그림 III-2-26】 중1 패널- 사진 촬영(성별)

표 III-2-27 중1 패널- 사진 촬영(성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남자 | N | 171 | 171 | 115 | 428 | 390 | 333 | 349 | 381 | 401 | 148 | 167 | 226 | 1096 | 1109 | 1075 |
| | % | 15.6 | 15.4 | 10.7 | 39.1 | 35.2 | 31.0 | 31.8 | 34.4 | 37.3 | 13.5 | 15.1 | 21.0 | 100 | 100 | 100 |
| 여자 | N | 37 | 42 | 26 | 207 | 178 | 125 | 441 | 412 | 391 | 403 | 432 | 545 | 1088 | 1064 | 1087 |
| | % | 3.4 | 3.9 | 2.4 | 19.0 | 16.7 | 11.5 | 40.5 | 38.7 | 36.0 | 37.0 | 40.6 | 50.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08 | 213 | 141 | 635 | 568 | 458 | 790 | 793 | 792 | 551 | 599 | 771 | 2184 | 2173 | 2162 |
| | % | 9.5 | 9.8 | 6.5 | 29.1 | 26.1 | 21.2 | 36.2 | 36.5 | 36.6 | 25.2 | 27.6 | 35.7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학생은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2-27>.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남학생은 2010년 45.3%, 2011년 49.4%, 2012년 58.3%로 매년 증가하여 총 13%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77.6%, 2011년 79.3%, 2012년 86.1%로 매년 증가하여 총 8.5%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높아졌으며, 남학생의 증가 비율이 여학생보다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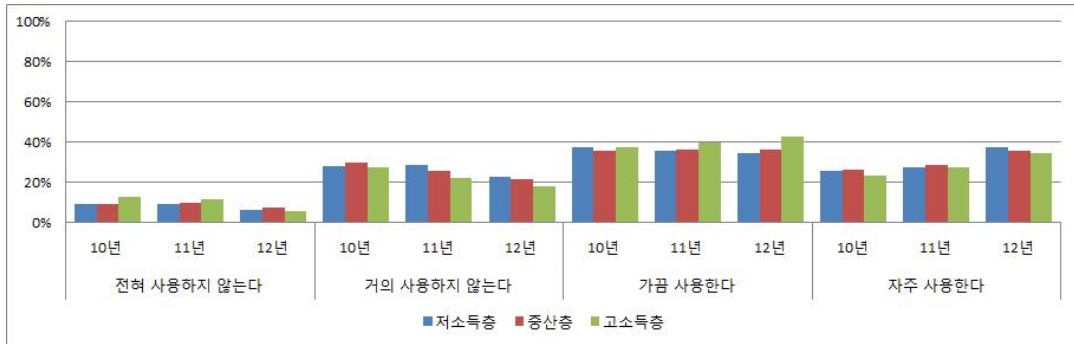
【그림 III-2-27】 중1 패널- 사진 촬영(지역별)

표 III-2-28 중1 패널- 사진 촬영(지역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38 | 30 | 15 | 101 | 70 | 32 | 122 | 151 | 69 | 124 | 111 | 78 | 385 | 362 | 194 |
| | % | 9.9 | 8.3 | 7.7 | 26.2 | 19.3 | 16.5 | 31.7 | 41.7 | 35.6 | 32.2 | 30.7 | 40.2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63 | 54 | 43 | 178 | 140 | 138 | 199 | 210 | 250 | 147 | 160 | 262 | 587 | 564 | 693 |
| | % | 10.7 | 9.6 | 6.2 | 30.3 | 24.8 | 19.9 | 33.9 | 37.2 | 36.1 | 25.0 | 28.4 | 37.8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107 | 122 | 78 | 355 | 326 | 275 | 468 | 397 | 445 | 280 | 302 | 416 | 1210 | 1147 | 1214 |
| | % | 8.8 | 10.6 | 6.4 | 29.3 | 28.4 | 22.7 | 38.7 | 34.6 | 36.7 | 23.1 | 26.3 | 34.3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08 | 206 | 136 | 634 | 536 | 445 | 789 | 758 | 764 | 551 | 573 | 756 | 2182 | 2073 | 2101 |
| | % | 9.5 | 9.9 | 6.5 | 29.1 | 25.9 | 21.2 | 36.2 | 36.6 | 36.4 | 25.3 | 27.6 | 36.0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 및 광역시는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시군구는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2-28>.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63.9%, 2011년 72.4%, 2012년 75.8%로 매년 증가하여 총 11.9%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58.9%, 2011년 65.6%, 2012년 73.9%로 매년 증가하여 총 14.9%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61.8%, 2011년 60.9%, 2012년 70.9%로 매년 증가하여 총 9.1%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높아졌으며,



【그림 III-2-28】 중1 패널- 사진 촬영(소득별)

표 III-2-29 중1 패널- 사진 촬영(소득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34 | 35 | 25 | 110 | 110 | 96 | 147 | 139 | 148 | 101 | 106 | 160 | 392 | 390 | 429 |
| | % | 8.7 | 9.0 | 5.8 | 28.1 | 28.2 | 22.4 | 37.5 | 35.6 | 34.5 | 25.8 | 27.2 | 37.3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116 | 124 | 89 | 383 | 330 | 270 | 455 | 462 | 459 | 335 | 368 | 451 | 1289 | 1284 | 1269 |
| | % | 9.0 | 9.7 | 7.0 | 29.7 | 25.7 | 21.3 | 35.3 | 36.0 | 36.2 | 26.0 | 28.7 | 35.5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46 | 42 | 19 | 101 | 82 | 62 | 140 | 149 | 147 | 87 | 101 | 118 | 374 | 374 | 346 |
| | % | 12.3 | 11.2 | 5.5 | 27.0 | 21.9 | 17.9 | 37.4 | 39.8 | 42.5 | 23.3 | 27.0 | 34.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96 | 201 | 133 | 594 | 522 | 428 | 742 | 750 | 754 | 523 | 575 | 729 | 2055 | 2048 | 2044 |
| | % | 9.5 | 9.8 | 6.5 | 28.9 | 25.5 | 20.9 | 36.1 | 36.6 | 36.9 | 25.5 | 28.1 | 35.7 | 100 | 100 | 100 |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증가 비율이 서울이나 시군구의 증가 비율보다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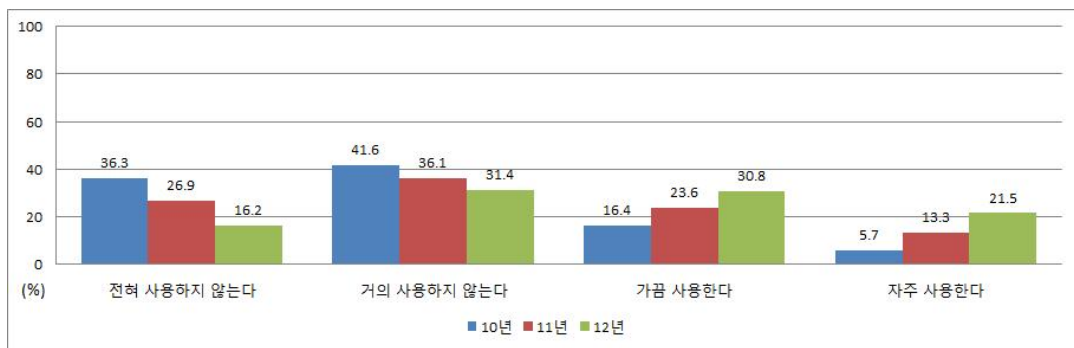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중산층과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2-29>.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63.3%, 2011년 62.8%, 2012년 71.8%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8.5%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61.3%, 2011년 64.6%, 2012년 71.7%로 매년 증가하여 총 10.4%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60.7%, 2011년 66.8%, 2012년 76.6%로 매년 증가하여 총 15.9%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높아졌으며, 고소득층인 중학생의 증가 비율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인 중학생의 증가 비율보다 더 컸다.

⑦ 동영상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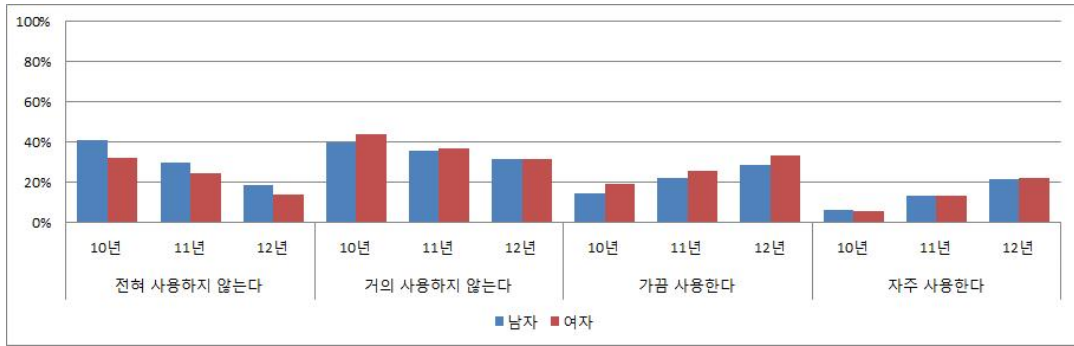
중학생이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30>.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22.1%, 2011년 37%, 2012년 52.4%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29】 중1 패널- 동영상 감상

표 III-2-30 중1 패널- 동영상 감상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792 | 36.3 | 584 | 26.9 | 350 | 16.2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909 | 41.6 | 785 | 36.1 | 679 | 31.4 |
| 가끔 사용한다 | 357 | 16.4 | 513 | 23.6 | 666 | 30.8 |
| 자주 사용한다 | 125 | 5.7 | 289 | 13.3 | 465 | 21.5 |
| 합계 | 2184 | 100 | 2172 | 100 | 216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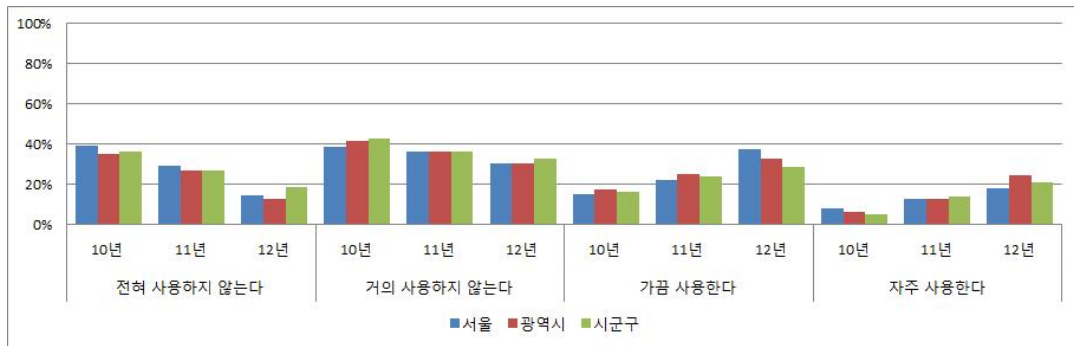
【그림 III-2-30】 중1 패널- 동영상 감상(성별)

표 III-2-31 중1 패널- 동영상 감상(성별)

| 항목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남자 | N | 445 | 326 | 199 | 433 | 393 | 338 | 154 | 241 | 309 | 64 | 148 | 229 | 1096 | 1108 | 1075 |
| | % | 40.6 | 29.4 | 18.5 | 39.5 | 35.5 | 31.4 | 14.1 | 21.8 | 28.7 | 5.8 | 13.4 | 21.3 | 100 | 100 | 100 |
| 여자 | N | 347 | 258 | 151 | 475 | 393 | 341 | 204 | 272 | 357 | 62 | 141 | 236 | 1088 | 1064 | 1085 |
| | % | 31.9 | 24.2 | 13.9 | 43.7 | 36.9 | 31.4 | 18.8 | 25.6 | 32.9 | 5.7 | 13.3 | 21.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92 | 584 | 350 | 908 | 786 | 679 | 358 | 513 | 666 | 126 | 289 | 465 | 2184 | 2172 | 2160 |
| | % | 36.3 | 26.9 | 16.2 | 41.6 | 36.2 | 31.4 | 16.4 | 23.6 | 30.8 | 5.8 | 13.3 | 21.5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은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2-31>.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남학생은 2010년 19.9%, 2011년 35.1%, 2012년 50%로 매년 증가하여 총 30.2%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24.4%, 2011년 38.8%, 2012년 54.7%로 매년 증가하여 총 30.2%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비슷하게 증가하였으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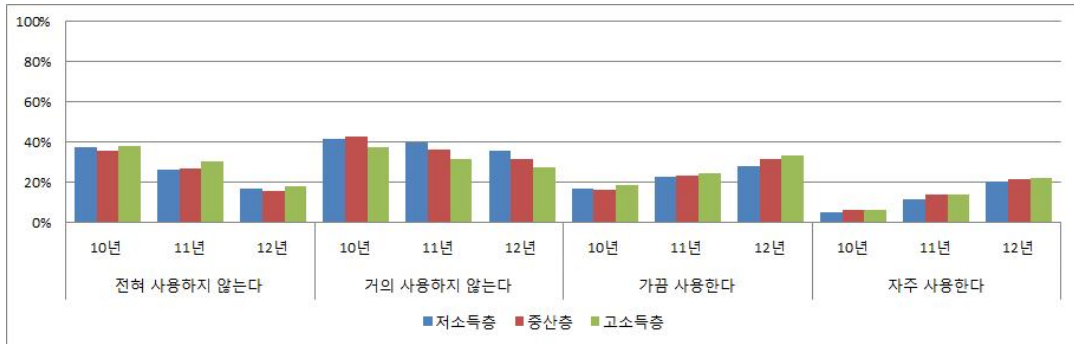
【그림 Ⅲ-2-31】 중1 패널- 동영상 감상(지역별)

표 Ⅲ-2-32 중1 패널- 동영상 감상(지역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50 | 106 | 28 | 149 | 132 | 59 | 57 | 80 | 72 | 30 | 45 | 35 | 386 | 363 | 194 |
| | % | 38.9 | 29.2 | 14.4 | 38.6 | 36.4 | 30.4 | 14.8 | 22.0 | 37.1 | 7.8 | 12.4 | 18.0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205 | 150 | 88 | 244 | 205 | 210 | 103 | 140 | 224 | 36 | 69 | 170 | 588 | 564 | 692 |
| | % | 34.9 | 26.6 | 12.7 | 41.5 | 36.3 | 30.3 | 17.5 | 24.8 | 32.4 | 6.1 | 12.2 | 24.6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437 | 303 | 220 | 516 | 414 | 393 | 197 | 272 | 347 | 60 | 158 | 253 | 1210 | 1147 | 1213 |
| | % | 36.1 | 26.4 | 18.1 | 42.6 | 36.1 | 32.4 | 16.3 | 23.7 | 28.6 | 5.0 | 13.8 | 20.9 | 100 | 100 | 100 |
| 전체 | % | 792 | 559 | 336 | 909 | 751 | 662 | 357 | 492 | 643 | 126 | 272 | 458 | 2184 | 2074 | 2099 |
| | N | 36.3 | 27.0 | 16.0 | 41.6 | 36.2 | 31.5 | 16.3 | 23.7 | 30.6 | 5.8 | 13.1 | 21.8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2-32>.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22.5%, 2011년 34.4%, 2012년 55.2%로 매년 증가하여 총 32.6%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23.6%, 2011년 37.1%, 2012년 56.9%로 매년 증가하여 총 33.3%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21.2%, 2011년 37.5%, 2012년 49.5%로 매년 증가하여 총 28.2%p 증가하였다.



【그림 III-2-32】 중1 패널- 동영상 감상(소득별)

표 III-2-33 중1 패널- 동영상 감상(소득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145 | 101 | 71 | 162 | 155 | 152 | 64 | 88 | 120 | 20 | 45 | 86 | 391 | 389 | 429 |
| | % | 37.1 | 26.0 | 16.6 | 41.4 | 39.8 | 35.4 | 16.4 | 22.6 | 28.0 | 5.1 | 11.6 | 20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455 | 340 | 199 | 549 | 468 | 398 | 207 | 299 | 397 | 78 | 178 | 273 | 1289 | 1285 | 1267 |
| | % | 35.3 | 26.5 | 15.7 | 42.6 | 36.4 | 31.4 | 16.1 | 23.3 | 31.3 | 6.1 | 13.9 | 21.5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42 | 114 | 61 | 141 | 118 | 95 | 70 | 90 | 115 | 22 | 52 | 75 | 375 | 374 | 346 |
| | % | 37.9 | 30.5 | 17.6 | 37.6 | 31.6 | 27.5 | 18.7 | 24.1 | 33.2 | 5.9 | 13.9 | 21.7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42 | 555 | 331 | 852 | 741 | 645 | 341 | 477 | 632 | 120 | 275 | 434 | 2055 | 2048 | 2042 |
| | % | 36.1 | 27.1 | 16.2 | 41.5 | 36.2 | 31.6 | 16.6 | 23.3 | 31.0 | 5.8 | 13.4 | 21.3 | 100 | 100 | 100 |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광역시 및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증가 비율이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보다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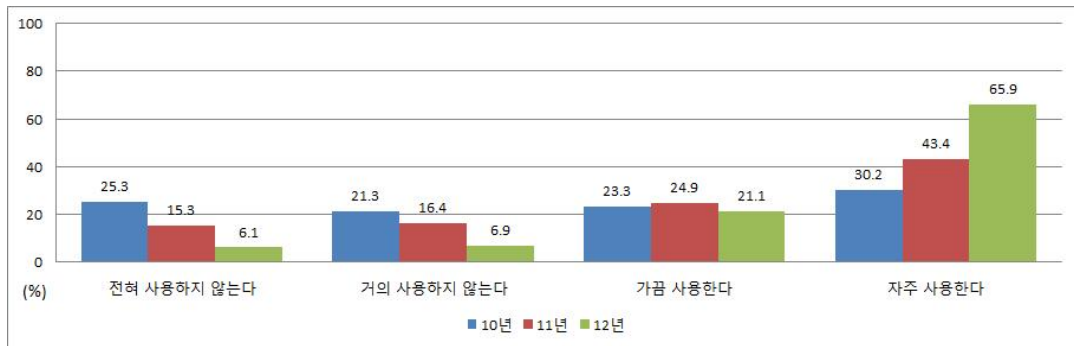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과 중산층인 중학생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2-33>.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21.5%, 2011년 34.2%, 2012년 48%로 매년 증가하여 총 26.5%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22.1%, 2011년 37.1%, 2012년

52.9%로 매년 증가하여 총 30.8%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24.5%, 2011년 38%, 2012년 54.9%로 매년 증가하여 총 30.4%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영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고소득층 및 중산층인 중학생의 증가 비율이 저소득층인 중학생보다 더 컸다.

⑧ 음악 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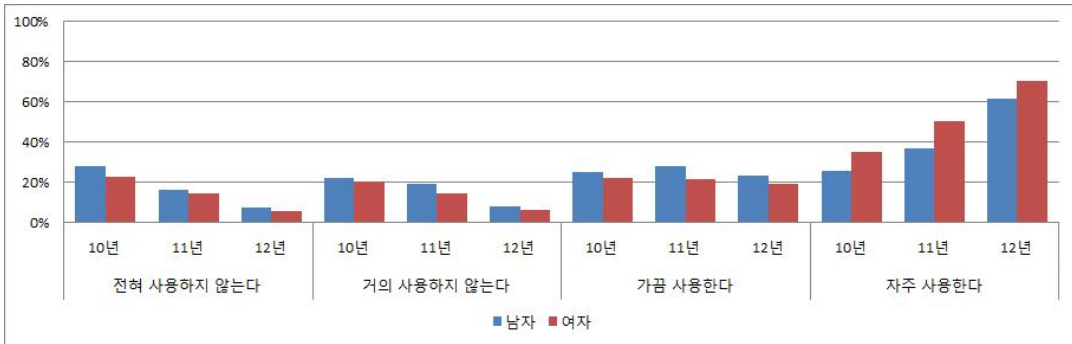
중학생이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34>.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53.4%, 2011년 68.3%, 2012년 87%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33】 중1 패널- 음악 듣기

표 III-2-34 중1 패널- 음악 듣기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552 | 25.3 | 332 | 15.3 | 132 | 6.1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465 | 21.3 | 357 | 16.4 | 149 | 6.9 |
| 가끔 사용한다 | 508 | 23.3 | 541 | 24.9 | 456 | 21.1 |
| 자주 사용한다 | 659 | 30.2 | 943 | 43.4 | 1424 | 65.9 |
| 합계 | 2184 | 100 | 2173 | 100 | 2161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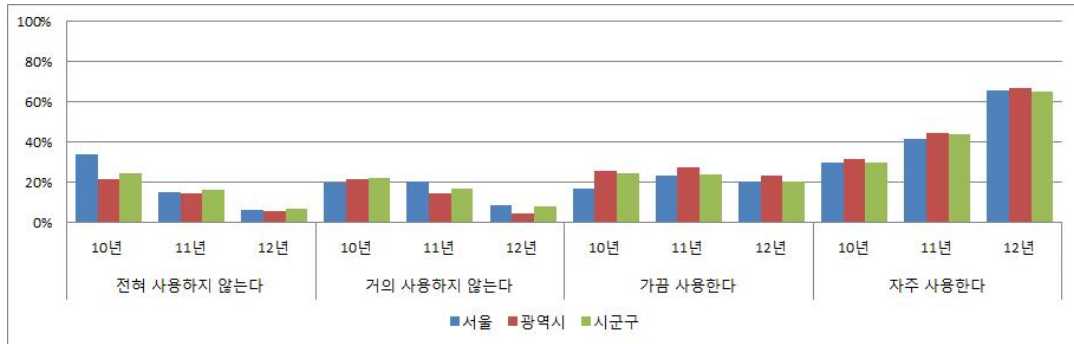
【그림 III-2-34】 중1 패널- 음악 듣기(성별)

표 III-2-35 중1 패널- 음악 듣기(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306 | 178 | 76 | 243 | 209 | 86 | 270 | 311 | 251 | 277 | 410 | 661 | 1096 | 1108 | 1074 |
| | % | 27.9 | 16.1 | 7.1 | 22.2 | 18.9 | 8.0 | 24.6 | 28.1 | 23.4 | 25.3 | 37.0 | 61.5 | 100 | 100 | 100 |
| 여자 | N | 246 | 153 | 56 | 222 | 149 | 63 | 238 | 230 | 205 | 382 | 532 | 763 | 1088 | 1064 | 1087 |
| | % | 22.6 | 14.4 | 5.2 | 20.4 | 14.0 | 5.8 | 21.9 | 21.6 | 18.9 | 35.1 | 50 | 70.2 | 100 | 100 | 100 |
| 전체 | N | 552 | 331 | 132 | 465 | 358 | 149 | 508 | 541 | 456 | 659 | 942 | 1424 | 2184 | 2172 | 2161 |
| | % | 25.3 | 15.2 | 6.1 | 21.3 | 16.5 | 6.9 | 23.3 | 24.9 | 21.1 | 30.2 | 43.4 | 65.9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2-35>.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남학생은 2010년 49.9%, 2011년 65.1%, 2012년 84.9%로 매년 증가하여 총 35%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57%, 2011년 71.6%, 2012년 89.1%로 매년 증가하여 총 32.1%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의 증가 비율이 여학생보다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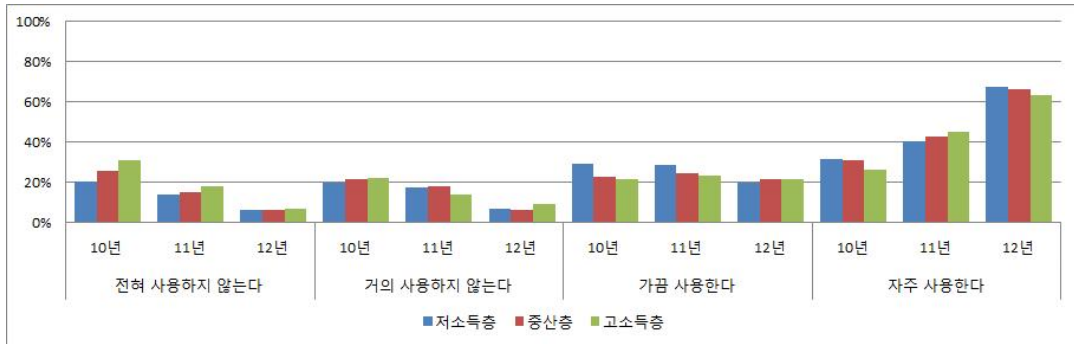
【그림 III-2-35】 중1 패널- 음악 듣기(지역별)

표 III-2-36 중1 패널- 음악 듣기(지역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31 | 53 | 12 | 76 | 74 | 16 | 65 | 84 | 39 | 115 | 151 | 127 | 387 | 362 | 194 |
| | % | 33.9 | 14.6 | 6.2 | 19.6 | 20.4 | 8.2 | 16.8 | 23.2 | 20.1 | 29.7 | 41.7 | 65.5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27 | 79 | 39 | 127 | 80 | 30 | 150 | 155 | 159 | 183 | 250 | 465 | 587 | 564 | 693 |
| | % | 21.6 | 14.0 | 5.6 | 21.6 | 14.2 | 4.3 | 25.6 | 27.5 | 22.9 | 31.2 | 44.3 | 67.1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294 | 181 | 77 | 263 | 188 | 97 | 293 | 273 | 248 | 360 | 505 | 791 | 1210 | 1147 | 1213 |
| | % | 24.3 | 15.8 | 6.3 | 21.7 | 16.4 | 8.0 | 24.2 | 23.8 | 20.4 | 29.8 | 44.0 | 65.2 | 100 | 100 | 100 |
| 전체 | N | 552 | 313 | 128 | 466 | 342 | 143 | 508 | 512 | 446 | 658 | 906 | 1383 | 2184 | 2073 | 2100 |
| | % | 25.3 | 15.1 | 6.1 | 21.3 | 16.5 | 6.8 | 23.3 | 24.7 | 21.2 | 30.1 | 43.7 | 65.9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2-36>.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46.5%, 2011년 64.9%, 2012년 85.6%로 매년 증가하여 총 39.1%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56.7%, 2011년 71.8%, 2012년 90%로 매년 증가하여 총 33.3%p 증가하였으며, 2010년 54%, 2011년 67.8%, 2012년 85.7%로 매년 증가하여 총 31.7%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증가비율이 광역시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더 컸다.



【그림 III-2-36】 중1 패널- 음악 듣기(소득별)

표 III-2-37 중1 패널- 음악 듣기(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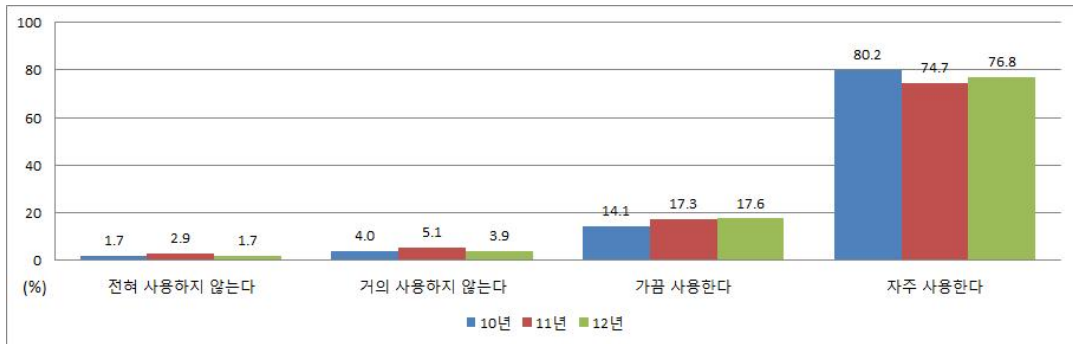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N | 79 | 53 | 27 | 76 | 67 | 28 | 114 | 112 | 84 | 124 | 158 | 289 | 393 | 390 |
| 저소득층 | % | 20.1 | 13.6 | 6.3 | 19.3 | 17.2 | 6.5 | 29.0 | 28.7 | 19.6 | 31.6 | 40.5 | 67.5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329 | 190 | 78 | 276 | 230 | 80 | 287 | 315 | 271 | 397 | 550 | 840 | 1289 | 1285 | 1269 |
| | % | 25.5 | 14.8 | 6.1 | 21.4 | 17.9 | 6.3 | 22.3 | 24.5 | 21.4 | 30.8 | 42.8 | 66.2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15 | 67 | 22 | 82 | 52 | 32 | 79 | 86 | 74 | 98 | 167 | 218 | 374 | 372 | 346 |
| | % | 30.7 | 18.0 | 6.4 | 21.9 | 14.0 | 9.2 | 21.1 | 23.1 | 21.4 | 26.2 | 44.9 | 63.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523 | 310 | 127 | 434 | 349 | 140 | 480 | 513 | 429 | 619 | 875 | 1347 | 2056 | 2047 | 2043 |
| | % | 25.4 | 15.1 | 6.2 | 21.1 | 17.0 | 6.9 | 23.3 | 25.1 | 21.0 | 30.1 | 42.7 | 65.9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2-37>.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60.6%, 2011년 69.2%, 2012년 87.1%로 매년 증가하여 총 26.6%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53.1%, 2011년 67.3%, 2012년 87.5%로 매년 증가하여 총 34.5%p 증가하였고,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47.3%, 2011년 68%, 2012년 84.4%로 매년 증가하여 총 37.1%p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악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중학생의 증가비율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중학생에 비해 더 컸다.

⑨ 시간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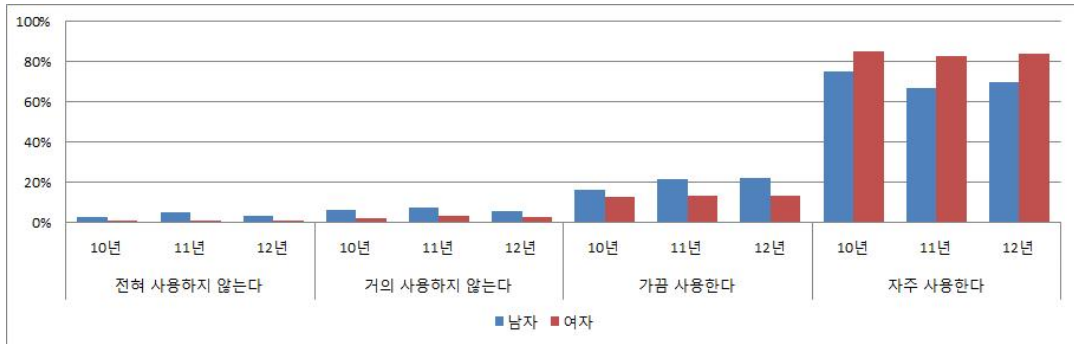
중학생이 시간 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2-38>.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2010년 94.3%, 2011년 92%, 2012년 94.4%로 2학년이 가장 낮고 3학년이 가장 높았다.



【그림 Ⅲ-2-37】 중1 패널- 시간 보기

표 Ⅲ-2-38 중1 패널- 시간 보기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38 | 1.7 | 63 | 2.9 | 36 | 1.7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87 | 4.0 | 112 | 5.1 | 85 | 3.9 |
| 가끔 사용한다 | 308 | 14.1 | 376 | 17.3 | 380 | 17.6 |
| 자주 사용한다 | 1750 | 80.2 | 1622 | 74.7 | 1661 | 76.8 |
| 합계 | 2184 | 100 | 2173 | 100 | 216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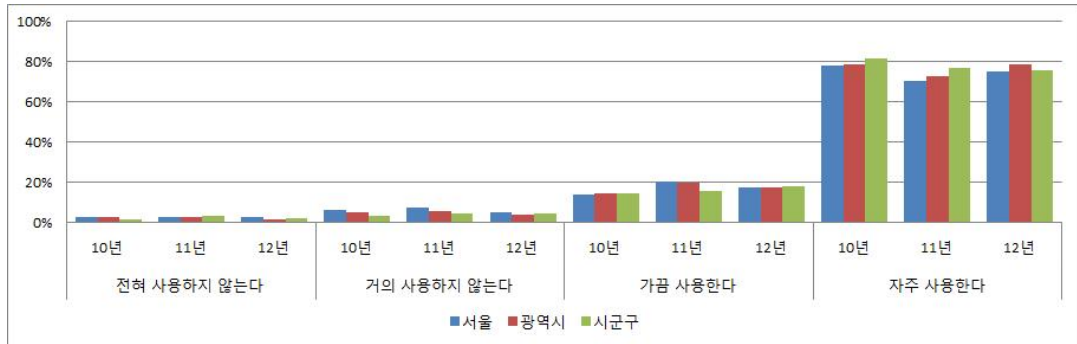
[그림 Ⅲ-2-38] 중1 패널- 시간 보기(성별)

표 Ⅲ-2-39 중1 패널- 시간 보기(성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29 | 56 | 30 | 67 | 78 | 56 | 175 | 234 | 239 | 825 | 740 | 750 | 1096 | 1108 | 1075 |
| | % | 2.6 | 5.1 | 2.8 | 6.1 | 7.0 | 5.2 | 16.0 | 21.1 | 22.2 | 75.3 | 66.8 | 69.8 | 100 | 100 | 100 |
| 여자 | N | 9 | 6 | 6 | 21 | 34 | 29 | 134 | 142 | 141 | 925 | 882 | 911 | 1089 | 1064 | 1087 |
| | % | 0.8 | 0.6 | 0.6 | 1.9 | 3.2 | 2.7 | 12.3 | 13.3 | 13.0 | 84.9 | 82.9 | 83.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38 | 62 | 36 | 88 | 112 | 85 | 309 | 376 | 380 | 1750 | 1622 | 1661 | 2185 | 2172 | 2162 |
| | % | 1.7 | 2.9 | 1.7 | 4.0 | 5.2 | 3.9 | 14.1 | 17.3 | 17.6 | 80.1 | 74.7 | 76.8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시간 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2-39>.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남학생은 2010년 91.2%, 2011년 87.9%, 2012년 92%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0.8%p 증가하였고, 여학생은 2010년 97.2%, 2011년 96.2%, 2012년 96.8%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0.5%p 감소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시간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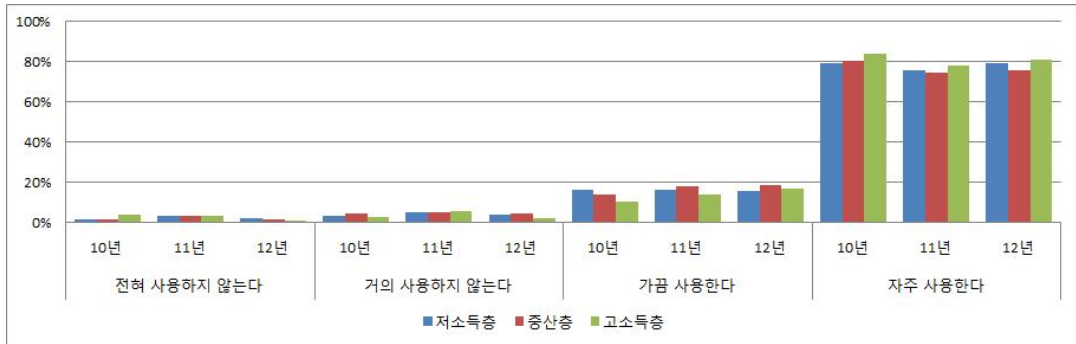
【그림 III-2-39】 중1 패널- 시간 보기(지역별)

표 III-2-40 중1 패널- 시간 보기(지역별)

| 항목 |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0 | 8 | 5 | 23 | 26 | 9 | 52 | 74 | 34 | 302 | 255 | 146 | 387 | 363 | 194 |
| | % | 2.6 | 2.2 | 2.6 | 5.9 | 7.2 | 4.6 | 13.4 | 20.4 | 17.5 | 78.0 | 70.2 | 75.3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3 | 15 | 7 | 27 | 29 | 24 | 84 | 110 | 118 | 464 | 410 | 544 | 588 | 564 | 693 |
| | % | 2.2 | 2.7 | 1.0 | 4.6 | 5.1 | 3.5 | 14.3 | 19.5 | 17.0 | 78.9 | 72.7 | 78.5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16 | 36 | 24 | 37 | 51 | 52 | 172 | 177 | 216 | 985 | 883 | 922 | 1210 | 1147 | 1214 |
| | % | 1.3 | 3.1 | 2.0 | 3.1 | 4.4 | 4.3 | 14.2 | 15.4 | 17.8 | 81.4 | 77.0 | 75.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39 | 59 | 36 | 87 | 106 | 85 | 308 | 361 | 368 | 1751 | 1548 | 1612 | 2185 | 2074 | 2101 |
| | % | 1.8 | 2.8 | 1.7 | 4.0 | 5.1 | 4.0 | 14.1 | 17.4 | 17.5 | 80.1 | 74.6 | 76.7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시간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40>.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91.5%, 2011년 90.6%, 2012년 92.8%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1.3%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93.2%, 2011년 92.2%, 2012년 95.5%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2.3%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95.6%, 2011년 92.4%, 2012년 93.7%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1.9%p 감소하였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시간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의 증가율이 시군구와 서울에 비해 더 높았다.



【그림 III-2-40】 중1 패널- 시간 보기(소득별)

표 III-2-41 중1 패널- 시간 보기(소득별)

| 항목 | N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 가끔 사용한다 | | | 자주 사용한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 N | 6 | 12 | 8 | 13 | 19 | 15 | 63 | 63 | 67 | 309 | 296 | 339 | 391 | 390 | 429 |
| | % | 1.5 | 3.1 | 1.9 | 3.3 | 4.9 | 3.5 | 16.1 | 16.2 | 15.6 | 79.0 | 75.9 | 79.0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18 | 40 | 19 | 58 | 63 | 57 | 178 | 228 | 236 | 1033 | 955 | 957 | 1287 | 1286 | 1269 |
| | % | 1.4 | 3.1 | 1.5 | 4.5 | 4.9 | 4.5 | 13.8 | 17.7 | 18.6 | 80.3 | 74.3 | 75.4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3 | 11 | 3 | 9 | 21 | 6 | 39 | 50 | 57 | 315 | 291 | 280 | 376 | 373 | 346 |
| | % | 3.5 | 2.9 | 0.9 | 2.4 | 5.6 | 1.7 | 10.4 | 13.4 | 16.5 | 83.8 | 78.0 | 80.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37 | 63 | 30 | 80 | 103 | 78 | 280 | 341 | 360 | 1657 | 1542 | 1576 | 2054 | 2049 | 2044 |
| | % | 1.8 | 3.1 | 1.5 | 3.9 | 5.0 | 3.8 | 13.6 | 16.6 | 17.6 | 80.7 | 75.3 | 77.1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시간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41>.

사용 여부를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95.1%, 2011년 92.1%, 2012년 94.6%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94.1%, 2011년 92%, 2012년 94%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0.1%p 감소하였으며, 고소득층은 2010년 94.1%, 2011년 91.4%, 2012년 97.4%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3.2%p 증가하였다. 시간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고소득층 중학생은 증가한 반면, 중산층 및 저소득층 중학생은 감소하였다.

2)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정도

중학교 1, 2, 3학년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7개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들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2010년 .858, 2011년 .896, 2012년 .895이다.

휴대전화 의존도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7개 문항을 4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표 III-2-42>.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더 높았으며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 때 휴대전화 의존도도 높아졌다. 또한 서울, 광역시 시군구 역시 학년이 높아질 때 휴대전화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비해 서울과 광역시가 더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모든 소득계층에서도 학년이 높아질 때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휴대전화 의존도는 저소득층에 비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서 더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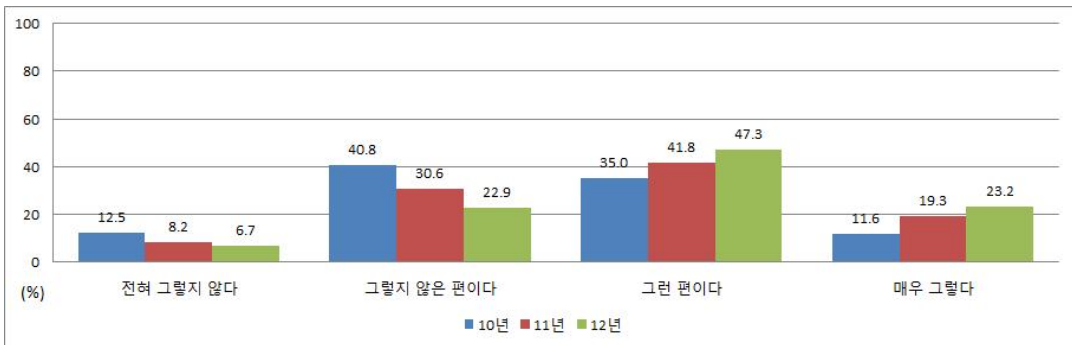
표 III-2-42 중1 패널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 항목 | 2010년(중1) | | | 2011년(중2) | | | 2012년(중3) |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성별 | 남자 | 1096 | 13.14 | 4.32 | 1108 | 15.24 | 4.98 | 1108 | 16.01 | 5.04 |
| | 여자 | 1088 | 15.66 | 4.80 | 1064 | 17.24 | 5.28 | 1053 | 17.92 | 4.94 |
| | 합계 | 2184 | 14.40 | 4.74 | 2173 | 16.22 | 5.22 | 2160 | 16.94 | 5.08 |
| 지역 | 서울 | 386 | 14.59 | 5.04 | 362 | 16.72 | 5.19 | 353 | 17.52 | 5.19 |
| | 광역시 | 587 | 14.11 | 4.51 | 564 | 16.26 | 5.16 | 571 | 17.16 | 5.09 |
| | 시군구 | 1210 | 14.48 | 4.75 | 1147 | 16.08 | 5.25 | 1147 | 16.64 | 5.02 |
| | 합계 | 2184 | 14.40 | 4.74 | 2073 | 16.24 | 5.22 | 2072 | 16.93 | 5.08 |
| 소득 | 저소득층 | 392 | 14.35 | 4.81 | 390 | 15.59 | 5.04 | 395 | 16.54 | 5.05 |
| | 중산층 | 1288 | 14.53 | 4.71 | 1285 | 16.37 | 5.23 | 1275 | 17.04 | 5.02 |
| | 고소득층 | 374 | 14.35 | 4.95 | 373 | 16.41 | 5.54 | 367 | 17.21 | 5.36 |
| | 합계 | 2054 | 14.46 | 4.77 | 2049 | 16.23 | 5.26 | 2037 | 16.98 | 5.09 |

각 문항별 세부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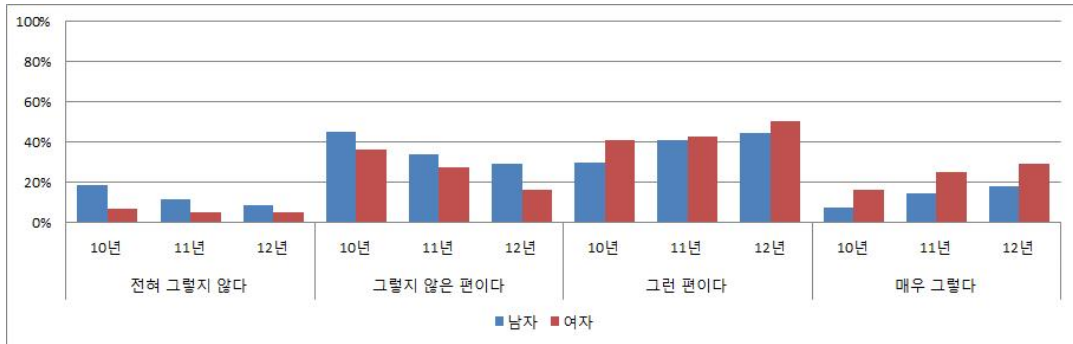
중학생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2-43>.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12%에서 2012년 23.2%로 23.1%p 증가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41】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표 Ⅲ-2-43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273 | 12.5 | 179 | 8.2 | 145 | 6.7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891 | 40.8 | 665 | 30.6 | 495 | 22.9 |
| 그런 편이다 | 765 | 35.0 | 909 | 41.8 | 1024 | 47.3 |
| 매우 그렇다 | 254 | 11.6 | 420 | 19.3 | 502 | 23.2 |
| 합계 | 2184 | 100 | 2173 | 100 | 2165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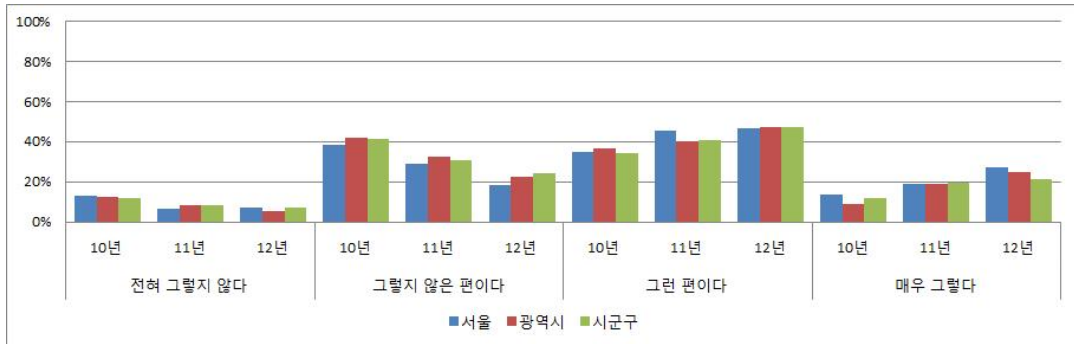
【그림 Ⅲ-2-42】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성별)

표 Ⅲ-2-44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성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200 | 124 | 95 | 496 | 375 | 325 | 323 | 454 | 493 | 77 | 155 | 197 | 1096 | 1108 | 1110 |
| | % | 18.2 | 11.2 | 8.6 | 45.3 | 33.8 | 29.3 | 29.5 | 41.0 | 44.4 | 7.0 | 14.0 | 17.7 | 100 | 100 | 100 |
| 여자 | N | 73 | 54 | 49 | 395 | 291 | 170 | 442 | 455 | 531 | 177 | 264 | 305 | 1087 | 1064 | 1055 |
| | % | 6.7 | 5.1 | 4.6 | 36.3 | 27.3 | 16.1 | 40.7 | 42.8 | 50.3 | 16.3 | 24.8 | 28.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73 | 178 | 144 | 891 | 666 | 495 | 765 | 909 | 1024 | 254 | 419 | 502 | 2183 | 2172 | 2165 |
| | % | 12.5 | 8.2 | 6.7 | 40.8 | 30.7 | 22.9 | 35.0 | 41.9 | 47.3 | 11.6 | 19.3 | 23.2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른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2-44>.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7%, 2011년 14%, 2012년 17.7%로 10.7%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16.3%, 2011년 24.8%, 2012년 28.9%로 12.6%p 증가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녀 모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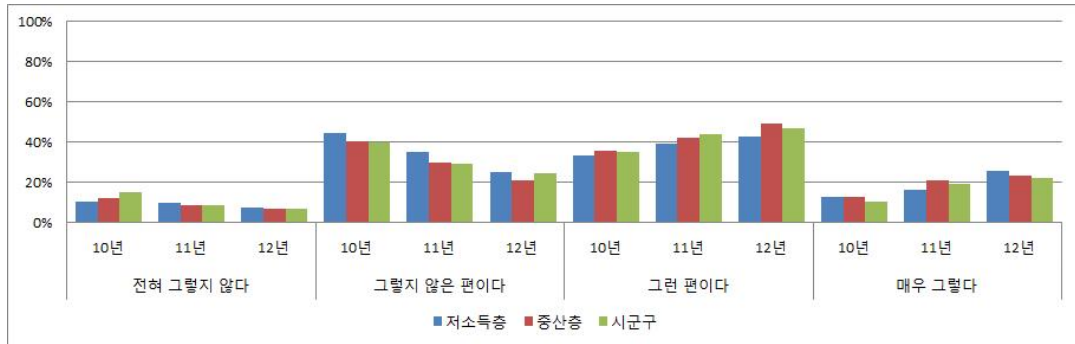


【그림 Ⅲ-2-43】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지역별)

표 Ⅲ-2-45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지역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51 | 24 | 26 | 148 | 105 | 66 | 134 | 164 | 164 | 53 | 69 | 97 | 386 | 362 | 353 |
| | % | 13.2 | 6.6 | 7.4 | 38.3 | 29.0 | 18.7 | 34.7 | 45.3 | 46.5 | 13.7 | 19.1 | 27.5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74 | 46 | 31 | 245 | 184 | 128 | 214 | 225 | 271 | 54 | 108 | 141 | 587 | 563 | 571 |
| | % | 12.6 | 8.2 | 5.4 | 41.7 | 32.7 | 22.4 | 36.5 | 40 | 47.5 | 9.2 | 19.2 | 24.7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147 | 99 | 84 | 499 | 351 | 278 | 417 | 471 | 544 | 147 | 226 | 246 | 1210 | 1147 | 1152 |
| | % | 12.1 | 8.6 | 7.3 | 41.2 | 30.6 | 24.1 | 34.5 | 41.1 | 47.2 | 12.1 | 19.7 | 21.4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72 | 169 | 141 | 892 | 640 | 472 | 765 | 860 | 979 | 254 | 403 | 484 | 2183 | 2072 | 2076 |
| | % | 12.5 | 8.2 | 6.8 | 40.9 | 30.9 | 22.7 | 35.0 | 41.5 | 47.2 | 11.6 | 19.4 | 23.3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른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Ⅲ-2-45>.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13.7%, 2011년 19.1%, 2012년 27.5%로 13.7%p 증가하였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9.2%, 2011년 19.2%, 2012년 24.7%로 15.5%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12.1%, 2011년 19.7%, 2012년 21.4%로 9.2%p 증가하여,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서울이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였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중학생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44】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소득별)

표 Ⅲ-2-46 중1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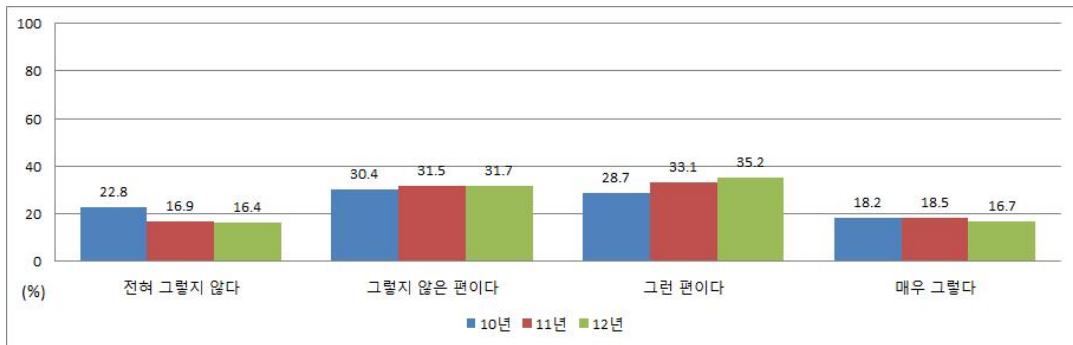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40 | 38 | 28 | 174 | 136 | 98 | 129 | 152 | 169 | 49 | 63 | 102 | 392 | 389 | 397 |
| | % | 10.2 | 9.8 | 7.1 | 44.4 | 35.0 | 24.7 | 32.9 | 39.1 | 42.6 | 12.5 | 16.2 | 25.7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155 | 105 | 86 | 518 | 380 | 267 | 455 | 537 | 629 | 160 | 264 | 293 | 1288 | 1286 | 1275 |
| | % | 12.0 | 8.2 | 6.7 | 40.2 | 29.5 | 20.9 | 35.3 | 41.8 | 49.3 | 12.4 | 20.5 | 23.0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56 | 31 | 25 | 149 | 108 | 90 | 131 | 163 | 172 | 39 | 72 | 81 | 375 | 374 | 368 |
| | % | 14.9 | 8.3 | 6.8 | 39.7 | 28.9 | 24.5 | 34.9 | 43.6 | 46.7 | 10.4 | 19.3 | 22.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251 | 174 | 139 | 841 | 624 | 455 | 715 | 852 | 970 | 248 | 399 | 476 | 2055 | 2049 | 2040 |
| | % | 12.2 | 8.5 | 6.8 | 40.9 | 30.5 | 22.3 | 34.8 | 41.6 | 47.5 | 12.1 | 19.5 | 23.3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른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Ⅲ-2-46>.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12.5%, 2011년 16.2%, 2012년 25.7%로 13.2%p 증가했으며, 중산층은 2010년 12.4%, 2011년 20.5%, 2012년 23%로 10.6%p 증가했고, 고소득층은 2010년 10.4%, 2011년 19.3%, 2012년 22%로 11.6%p 증가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였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중학생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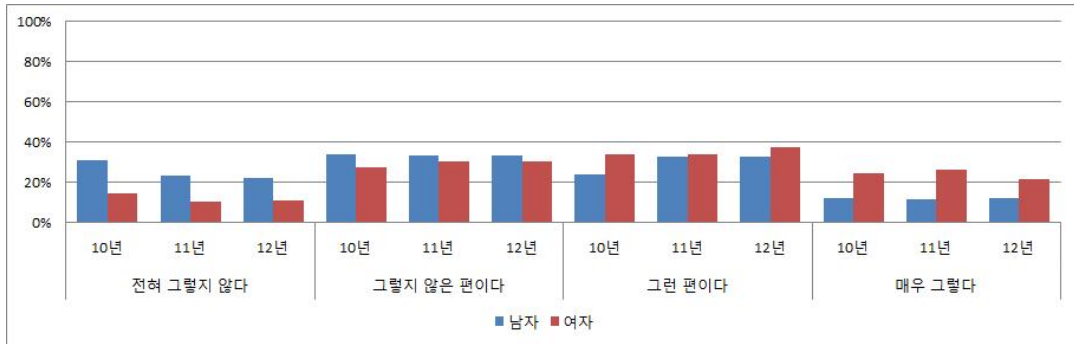
중학생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2-47>.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18%에서 2012년 16.7%로 16.5%p 증가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45】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표 Ⅲ-2-47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497 | 22.8 | 367 | 16.9 | 356 | 16.4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664 | 30.4 | 685 | 31.5 | 687 | 31.7 |
| 그런 편이다 | 626 | 28.7 | 718 | 33.1 | 761 | 35.2 |
| 매우 그렇다 | 396 | 18.2 | 402 | 18.5 | 361 | 16.7 |
| 합계 | 2184 | 100 | 2173 | 100 | 2165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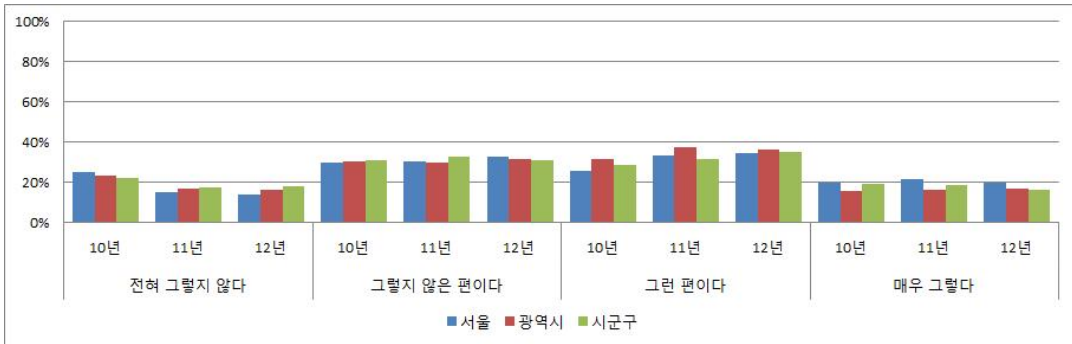
【그림 III-2-46】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표 III-2-48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339 | 256 | 244 | 368 | 366 | 367 | 257 | 359 | 365 | 132 | 127 | 135 | 1096 | 1108 | 1111 |
| | % | 30.9 | 23.1 | 22.0 | 33.6 | 33.0 | 33.0 | 23.4 | 32.4 | 32.9 | 12.0 | 11.5 | 12.2 | 100 | 100 | 100 |
| 여자 | N | 158 | 111 | 112 | 296 | 319 | 320 | 369 | 359 | 396 | 264 | 275 | 227 | 1087 | 1064 | 1055 |
| | % | 14.5 | 10.4 | 10.6 | 27.2 | 30.0 | 30.3 | 33.9 | 33.7 | 37.5 | 24.3 | 25.8 | 21.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497 | 367 | 356 | 664 | 685 | 687 | 626 | 718 | 761 | 396 | 402 | 362 | 2183 | 2172 | 2166 |
| | % | 22.8 | 16.9 | 16.4 | 30.4 | 31.5 | 31.7 | 28.7 | 33.1 | 35.1 | 18.1 | 18.5 | 16.7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48>.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12%, 2011년 11.5%, 2012년 12.2%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였으나, 여학생은 2010년 24.3%, 2011년 25.8%, 2012년 21.5%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다. 즉, 남학생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경향이 2학년에 가장 낮고 3학년에 가장 높았으나 여학생은 2학년이 가장 높고 3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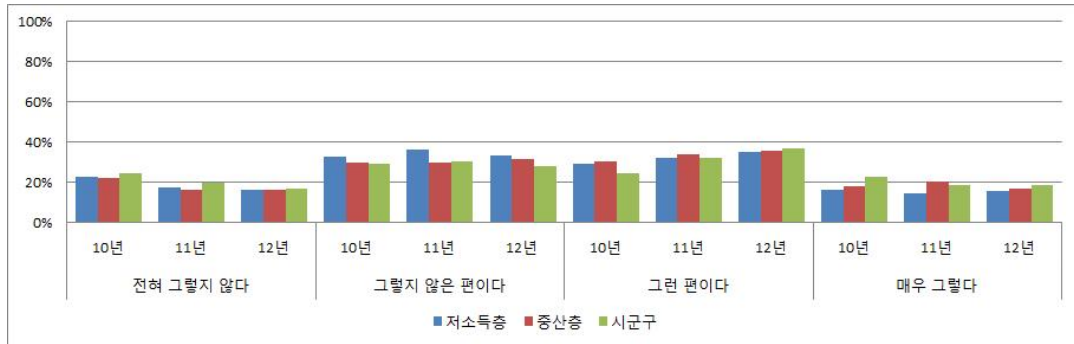
【그림 Ⅲ-2-47】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표 Ⅲ-2-49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97 | 54 | 48 | 115 | 110 | 116 | 98 | 120 | 121 | 76 | 78 | 69 | 386 | 362 | 354 |
| | % | 25.1 | 14.9 | 13.6 | 29.8 | 30.4 | 32.8 | 25.4 | 33.1 | 34.2 | 19.7 | 21.5 | 19.5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35 | 95 | 93 | 177 | 168 | 180 | 186 | 209 | 205 | 90 | 92 | 94 | 588 | 564 | 572 |
| | % | 23.0 | 16.8 | 16.3 | 30.1 | 29.8 | 31.5 | 31.6 | 37.1 | 35.8 | 15.3 | 16.3 | 16.4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265 | 197 | 205 | 372 | 375 | 356 | 342 | 363 | 402 | 231 | 213 | 188 | 1210 | 1148 | 1151 |
| | % | 21.9 | 17.2 | 17.8 | 30.7 | 32.7 | 30.9 | 28.3 | 31.6 | 34.9 | 19.1 | 18.6 | 16.3 | 100 | 100 | 100 |
| 전체 | N | 497 | 346 | 346 | 664 | 653 | 652 | 626 | 692 | 728 | 397 | 383 | 351 | 2184 | 2074 | 2077 |
| | % | 22.8 | 16.7 | 16.7 | 30.4 | 31.5 | 31.4 | 28.7 | 33.4 | 35.1 | 18.2 | 18.5 | 16.9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2-49>.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19.7%, 2011년 21.5%, 2012년 19.5%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2010년 15.3%, 2011년 16.3%, 2012년 16.4%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19.1%, 2011년 18.6%, 2012년 16.3%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였다. 즉, 서울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경향이 2학년에 가장 높았으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48】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소득별)

표 III-2-50 중1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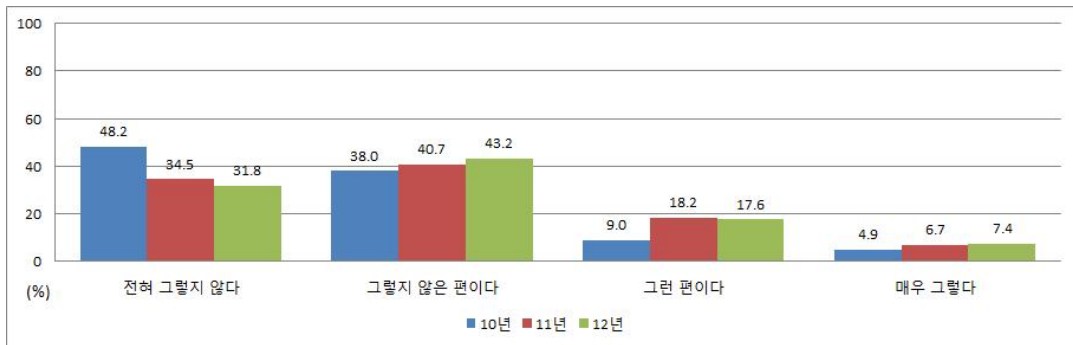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89 | 68 | 63 | 128 | 142 | 133 | 113 | 125 | 140 | 63 | 56 | 62 | 393 | 391 | 398 |
| | % | 22.6 | 17.4 | 15.8 | 32.6 | 36.3 | 33.4 | 28.8 | 32.0 | 35.2 | 16.0 | 14.3 | 15.6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284 | 207 | 207 | 384 | 384 | 403 | 387 | 433 | 451 | 233 | 261 | 214 | 1288 | 1285 | 1275 |
| | % | 22.0 | 16.1 | 16.2 | 29.8 | 29.9 | 31.6 | 30.0 | 33.7 | 35.4 | 18.1 | 20.3 | 16.8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92 | 72 | 61 | 108 | 112 | 103 | 91 | 120 | 136 | 84 | 69 | 68 | 375 | 373 | 368 |
| | % | 24.5 | 19.3 | 16.6 | 28.8 | 30.0 | 28.0 | 24.3 | 32.2 | 37.0 | 22.4 | 18.5 | 18.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465 | 347 | 331 | 620 | 638 | 639 | 591 | 678 | 727 | 380 | 386 | 344 | 2056 | 2049 | 2041 |
| | % | 22.6 | 16.9 | 16.2 | 30.2 | 31.1 | 31.3 | 28.7 | 33.1 | 35.6 | 18.5 | 18.8 | 16.9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2-50>.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16%, 2011년 14.3%, 2012년 15.6%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였고,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18.1%, 2011년 20.3%, 2012년 16.8%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고,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22.4%, 2011년 18.5%, 2012년 18.5%로 감소하였다. 즉,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경향이 2학년에 가장 낮았으나, 중산층 및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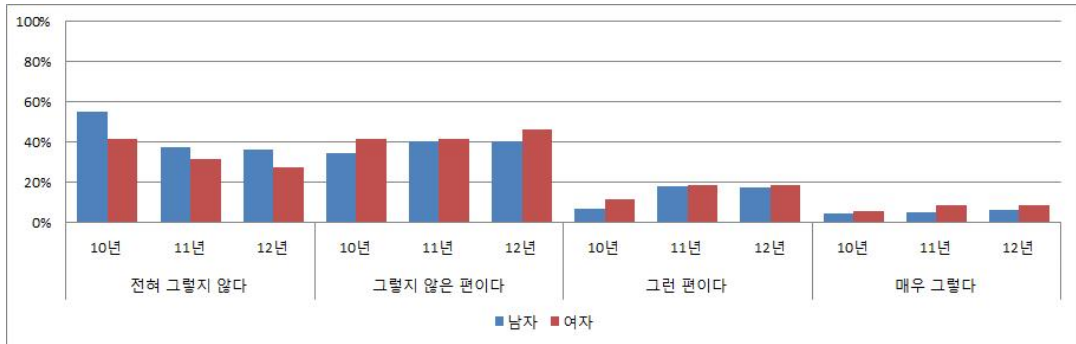
중학생은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2-51>.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5%에서 2012년 7.4%로 7.3%p 증가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49】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표 Ⅲ-2-51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1051 | 48.2 | 749 | 34.5 | 689 | 31.8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829 | 38.0 | 883 | 40.7 | 936 | 43.2 |
| 그런 편이다 | 196 | 9.0 | 395 | 18.2 | 380 | 17.6 |
| 매우 그렇다 | 107 | 4.9 | 145 | 6.7 | 160 | 7.4 |
| 합계 | 2184 | 100 | 2173 | 100 | 2165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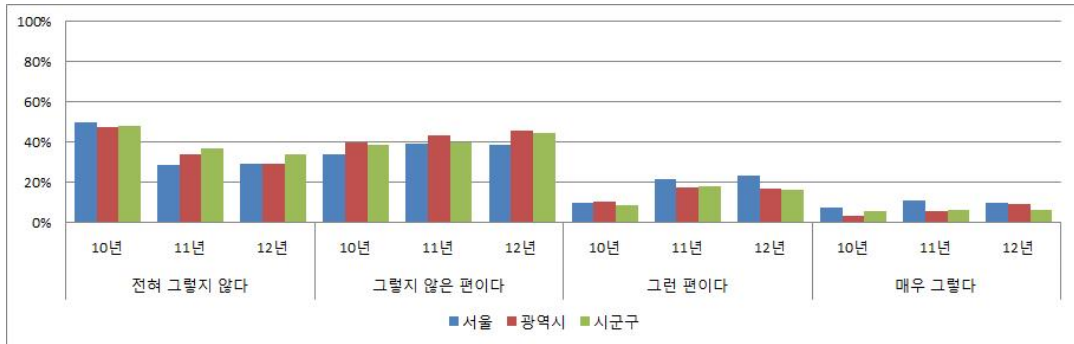
【그림 III-2-50】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표 III-2-52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601 | 414 | 403 | 375 | 443 | 449 | 74 | 196 | 188 | 47 | 55 | 69 | 1097 | 1108 | 1109 |
| | % | 54.8 | 37.4 | 36.3 | 34.2 | 40 | 40.5 | 6.7 | 17.7 | 17.0 | 4.3 | 5.0 | 6.2 | 100 | 100 | 100 |
| 여자 | N | 451 | 335 | 286 | 454 | 440 | 487 | 122 | 199 | 192 | 61 | 90 | 90 | 1088 | 1064 | 1055 |
| | % | 41.5 | 31.5 | 27.1 | 41.7 | 41.4 | 46.2 | 11.2 | 18.7 | 18.2 | 5.6 | 8.5 | 8.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52 | 749 | 689 | 829 | 883 | 936 | 196 | 395 | 380 | 108 | 145 | 159 | 2185 | 2172 | 2164 |
| | % | 48.1 | 34.5 | 31.8 | 37.9 | 40.7 | 43.3 | 9.0 | 18.2 | 17.6 | 4.9 | 6.7 | 7.3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 <표 III-2-52>.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4.3%, 2011년 5%, 2012년 6.2%로 매년 증가하여 총 1.9%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5.6%, 2011년 8.5%, 2012년 8.5%로 매년 증가하여 2.9%p 증가하였다. 즉, 남녀 모두 휴대전화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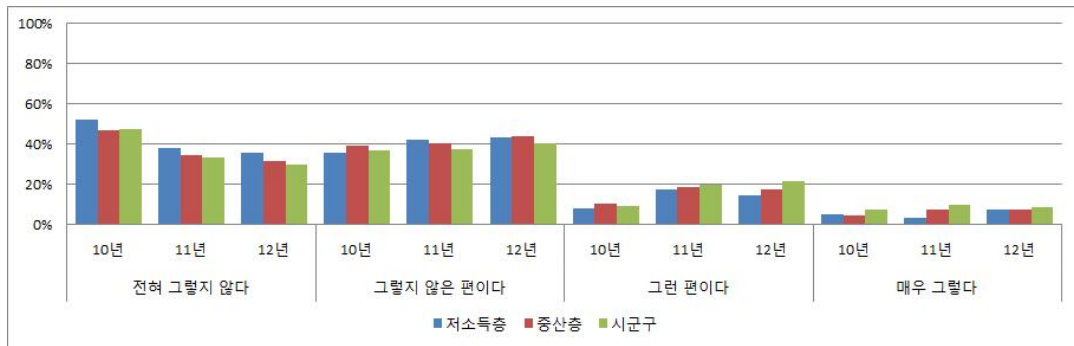
【그림 Ⅲ-2-51】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표 Ⅲ-2-53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91 | 104 | 103 | 130 | 141 | 135 | 38 | 78 | 82 | 27 | 39 | 33 | 386 | 362 | 353 |
| | % | 49.5 | 28.7 | 29.2 | 33.7 | 39.0 | 38.2 | 9.8 | 21.5 | 23.2 | 7.0 | 10.8 | 9.3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278 | 191 | 167 | 232 | 245 | 259 | 60 | 97 | 95 | 17 | 31 | 50 | 587 | 564 | 571 |
| | % | 47.4 | 33.9 | 29.2 | 39.5 | 43.4 | 45.4 | 10.2 | 17.2 | 16.6 | 2.9 | 5.5 | 8.8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582 | 419 | 387 | 467 | 455 | 510 | 98 | 204 | 185 | 63 | 70 | 70 | 1210 | 1148 | 1152 |
| | % | 48.1 | 36.5 | 33.6 | 38.6 | 39.6 | 44.3 | 8.1 | 17.8 | 16.1 | 5.2 | 6.1 | 6.1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51 | 714 | 657 | 829 | 841 | 904 | 196 | 379 | 362 | 107 | 140 | 153 | 2183 | 2074 | 2076 |
| | % | 48.1 | 34.4 | 31.6 | 38.0 | 40.5 | 43.5 | 9.0 | 18.3 | 17.4 | 4.9 | 6.8 | 7.4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 <표 Ⅲ-2-53>.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7%, 2011년 10.8%, 2012년 9.3%로 증가했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24%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29%, 2011년 5.5%, 2012년 8.8%로 매년 증가하여 총 5.9%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5.2%, 2011년 6.1%, 2012년 6.1%로 매년 증가하여 총 0.9%p 증가하였다. 즉, 광역시와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3학년이 휴대전화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비율이



【그림 III-2-25】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소득별)

표 III-2-54 중1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소득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204 | 147 | 141 | 140 | 163 | 172 | 30 | 68 | 57 | 18 | 12 | 28 | 392 | 390 | 398 |
| | % | 52.0 | 37.7 | 35.4 | 35.7 | 41.8 | 43.2 | 7.7 | 17.4 | 14.3 | 4.6 | 3.1 | 7.0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603 | 445 | 403 | 500 | 517 | 560 | 128 | 234 | 220 | 58 | 90 | 92 | 1289 | 1286 | 1275 |
| | % | 46.8 | 34.6 | 31.6 | 38.8 | 40.2 | 43.9 | 9.9 | 18.2 | 17.3 | 4.5 | 7.0 | 7.2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77 | 124 | 110 | 138 | 140 | 149 | 34 | 73 | 78 | 26 | 36 | 32 | 375 | 373 | 369 |
| | % | 47.2 | 33.2 | 29.8 | 36.8 | 37.5 | 40.4 | 9.1 | 19.6 | 21.1 | 6.9 | 9.7 | 8.7 | 100 | 100 | 100 |
| 전체 | N | 984 | 716 | 654 | 778 | 820 | 881 | 192 | 375 | 355 | 102 | 138 | 152 | 2056 | 2049 | 2042 |
| | % | 47.9 | 34.9 | 32.0 | 37.8 | 40 | 43.1 | 9.3 | 18.3 | 17.4 | 5.0 | 6.7 | 7.4 | 100 | 100 | 100 |

가장 높았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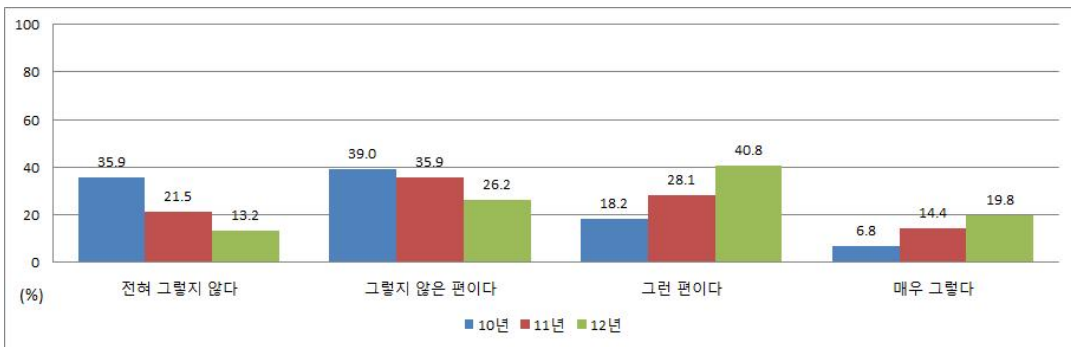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 <표 III-2-54>.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4.6%, 2011년 3.1%, 2012년 7%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 대비 2.4%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4.5%, 2011년 7%, 2012년 7.2%로 매년 증가하여 총 2.7%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6.9%, 2011년 9.7%, 2012년 8.7%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1.7%p

증가하였다. 즉, 저소득층과 중산층인 중학생은 휴대전화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비율이 3학년에 가장 높았지만,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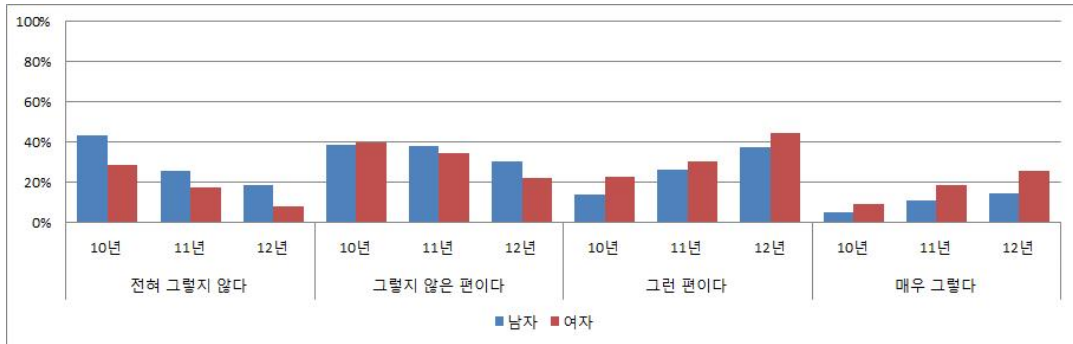
중학생은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 1학년은 '전혀 그렇지 않다', 2학년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 3학년은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55>.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6.8%에서 2012년 19.8%로 19.7%p 증가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에 몰입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53】 중1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표 III-2-55 중1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784 | 35.9 | 467 | 21.5 | 287 | 13.2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852 | 39.0 | 781 | 35.9 | 567 | 26.2 |
| 그런 편이다 | 398 | 18.2 | 611 | 28.1 | 884 | 40.8 |
| 매우 그렇다 | 149 | 6.8 | 314 | 14.4 | 428 | 19.8 |
| 합계 | 2184 | 100 | 2173 | 100 | 2165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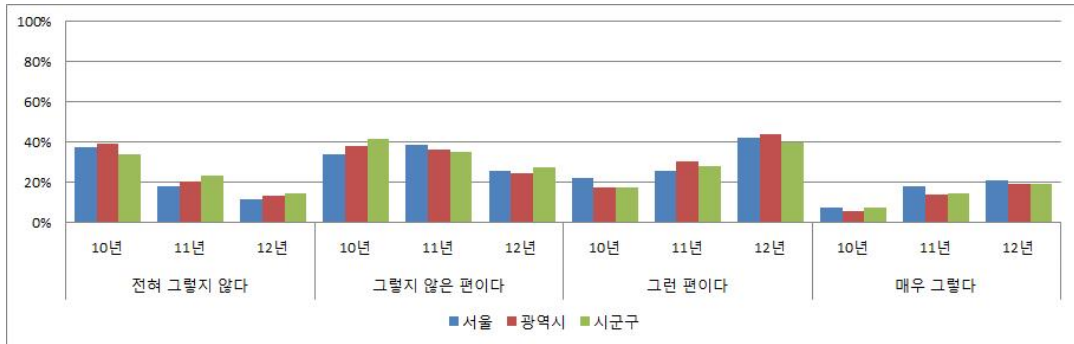
【그림 Ⅲ-2-54】 중1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성별)

표 Ⅲ-2-56 중1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성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474 | 284 | 205 | 420 | 417 | 333 | 152 | 288 | 413 | 50 | 119 | 159 | 1096 | 1108 | 1110 |
| | % | 43.2 | 25.6 | 18.5 | 38.3 | 37.6 | 30 | 13.9 | 26.0 | 37.2 | 4.6 | 10.7 | 14.3 | 100 | 100 | 100 |
| 여자 | N | 309 | 183 | 81 | 433 | 364 | 234 | 247 | 323 | 471 | 98 | 195 | 269 | 1087 | 1065 | 1055 |
| | % | 28.4 | 17.2 | 7.7 | 39.8 | 34.2 | 22.2 | 22.7 | 30.3 | 44.6 | 9.0 | 18.3 | 25.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83 | 467 | 286 | 853 | 781 | 567 | 399 | 611 | 884 | 148 | 314 | 428 | 2183 | 2173 | 2165 |
| | % | 35.9 | 21.5 | 13.2 | 39.1 | 35.9 | 26.2 | 18.3 | 28.1 | 40.8 | 6.8 | 14.5 | 19.8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Ⅲ-2-56>.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4.6%, 2011년 10.7%, 2012년 14.3%로 매년 증가하여 총 9.8%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9%, 2011년 18.3%, 2012년 25.5%로 매년 증가하여 총 16.5%p 증가하였다. 즉,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에 몰입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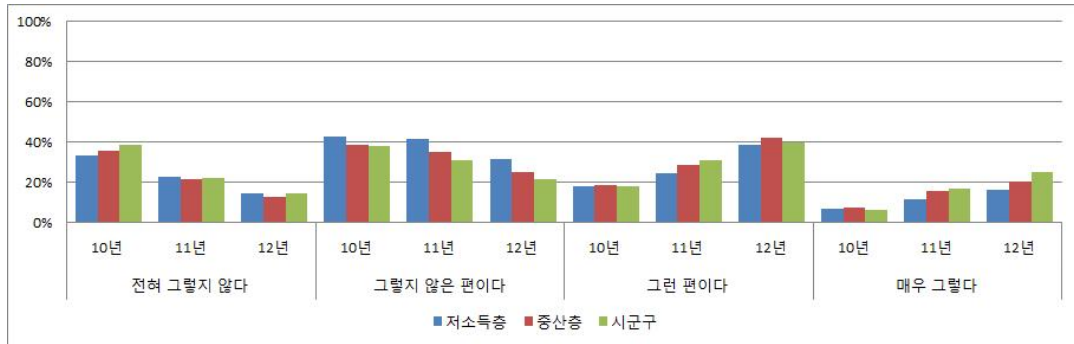
【그림 Ⅲ-2-55】 중1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지역별)

표 Ⅲ-2-57 중1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지역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44 | 65 | 39 | 130 | 140 | 91 | 85 | 92 | 149 | 27 | 64 | 74 | 386 | 361 | 353 |
| | % | 37.3 | 18.0 | 11.0 | 33.7 | 38.8 | 25.8 | 22.0 | 25.5 | 42.2 | 7.0 | 17.7 | 21.0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230 | 113 | 75 | 223 | 203 | 138 | 102 | 171 | 250 | 32 | 78 | 108 | 587 | 565 | 571 |
| | % | 39.2 | 20 | 13.1 | 38.0 | 35.9 | 24.2 | 17.4 | 30.3 | 43.8 | 5.5 | 13.8 | 18.9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410 | 268 | 164 | 499 | 398 | 311 | 212 | 320 | 456 | 89 | 161 | 221 | 1210 | 1147 | 1152 |
| | % | 33.9 | 23.4 | 14.2 | 41.2 | 34.7 | 27.0 | 17.5 | 27.9 | 39.6 | 7.4 | 14.0 | 19.2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84 | 446 | 278 | 852 | 741 | 540 | 399 | 583 | 855 | 148 | 303 | 403 | 2183 | 2073 | 2076 |
| | % | 35.9 | 21.5 | 13.4 | 39.0 | 35.7 | 26.0 | 18.3 | 28.1 | 41.2 | 6.8 | 14.6 | 19.4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Ⅲ-2-57>.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7%, 2011년 17.7%, 2012년 21%로 매년 증가하여 총 14%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5.5%, 2011년 13.8%, 2012년 18.9%로 매년 증가하여 총 13.5%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7.4%, 2011년 14%, 2012년 19.2%로 매년 증가하여 총 11.8%p 증가하였다. 즉,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에 몰입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 비율은 서울과 광역시의 중학생이 시군구의 중학생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56】 중1 패널- 현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소득별)

표 Ⅲ-2-58 중1 패널- 현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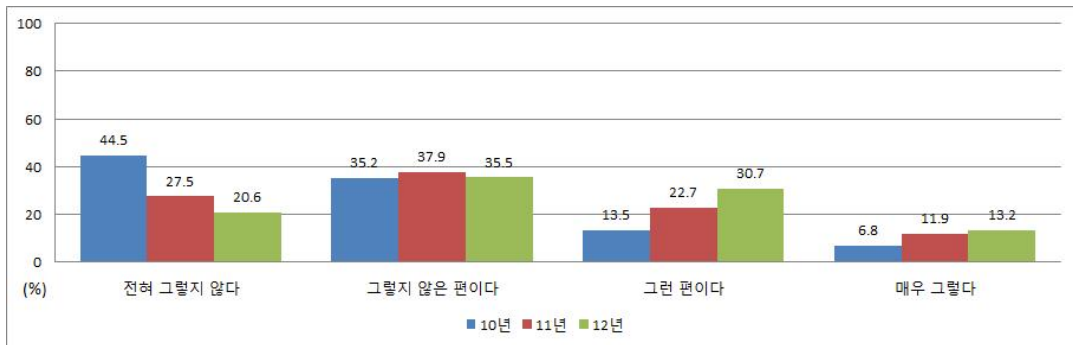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129 | 89 | 56 | 166 | 161 | 124 | 70 | 95 | 153 | 27 | 45 | 65 | 392 | 390 | 398 |
| | % | 32.9 | 22.8 | 14.1 | 42.3 | 41.3 | 31.2 | 17.9 | 24.4 | 38.4 | 6.9 | 11.5 | 16.3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458 | 278 | 162 | 495 | 449 | 320 | 240 | 362 | 536 | 96 | 196 | 257 | 1289 | 1285 | 1275 |
| | % | 35.5 | 21.6 | 12.7 | 38.4 | 34.9 | 25.1 | 18.6 | 28.2 | 42.0 | 7.4 | 15.3 | 20.2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44 | 82 | 52 | 142 | 116 | 79 | 66 | 114 | 146 | 23 | 61 | 92 | 375 | 373 | 369 |
| | % | 38.4 | 22.0 | 14.1 | 37.9 | 31.1 | 21.4 | 17.6 | 30.6 | 39.6 | 6.1 | 16.4 | 24.9 | 100 | 100 | 100 |
| 전체 | N | 731 | 449 | 270 | 803 | 726 | 523 | 376 | 571 | 835 | 146 | 302 | 414 | 2056 | 2048 | 2042 |
| | % | 35.6 | 21.9 | 13.2 | 39.1 | 35.4 | 25.6 | 18.3 | 27.9 | 40.9 | 7.1 | 14.7 | 20.3 | 100 | 100 | 100 |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현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Ⅲ-2-58>.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6.9%, 2011년 11.5%, 2012년 16.3%로 매년 증가하여 총 9.4%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7.4%, 2011년 15.3%, 2012년 20.2%로 매년 증가하여 총 12.7%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6.1%, 2011년 16.4%, 2012년 24.9%로 매년 증가하여 총 18.8%p 증가하였다. 즉, 모든 소득 계층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현대전화에 몰입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 비율은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순으로 나타났다.

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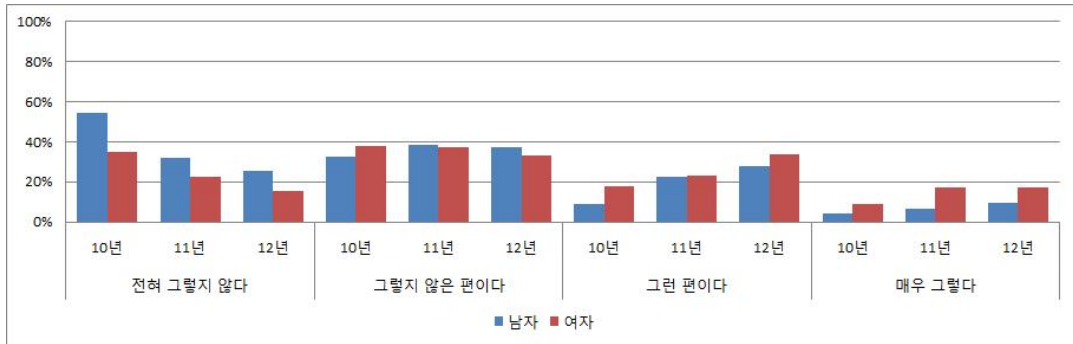
중학생은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 1학년은 '전혀 그렇지 않다', 2, 3학년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59>.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7%에서 2012년 13.2%로 3.1%p 증가하여 2010년 7%에서 2012년 19.8%로 12.8%p 증가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57】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표 III-2-59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972 | 44.5 | 597 | 27.5 | 446 | 20.6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769 | 35.2 | 822 | 37.9 | 767 | 35.5 |
| 그런 편이다 | 294 | 13.5 | 494 | 22.7 | 663 | 30.7 |
| 매우 그렇다 | 148 | 6.8 | 259 | 11.9 | 285 | 13.2 |
| 합계 | 2184 | 100 | 2173 | 100 | 216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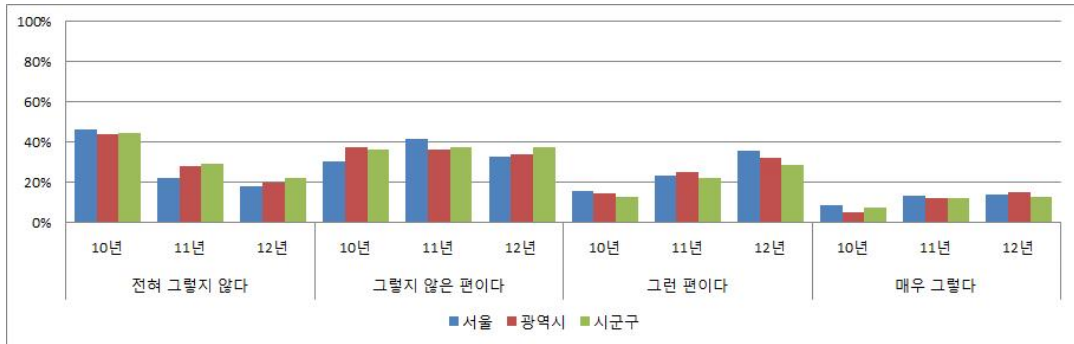
【그림 III-2-58】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성별)

표 III-2-60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성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594 | 357 | 280 | 357 | 428 | 416 | 98 | 248 | 306 | 47 | 76 | 106 | 1096 | 1109 | 1108 |
| | % | 54.2 | 32.2 | 25.3 | 32.6 | 38.6 | 37.5 | 8.9 | 22.4 | 27.6 | 4.3 | 6.9 | 9.6 | 100 | 100 | 100 |
| 여자 | N | 378 | 240 | 166 | 413 | 395 | 352 | 196 | 246 | 357 | 100 | 183 | 179 | 1087 | 1064 | 1054 |
| | % | 34.8 | 22.6 | 15.7 | 38.0 | 37.1 | 33.4 | 18.0 | 23.1 | 33.9 | 9.2 | 17.2 | 17.0 | 100 | 100 | 100 |
| 전체 | N | 972 | 597 | 446 | 770 | 823 | 768 | 294 | 494 | 663 | 147 | 259 | 285 | 2183 | 2173 | 2162 |
| | % | 44.5 | 27.5 | 20.6 | 35.3 | 37.9 | 35.5 | 13.5 | 22.7 | 30.7 | 6.7 | 11.9 | 13.2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여학생은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2-60>.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4.3%, 2011년 6.9%, 2012년 9.6%로 매년 증가해 총 5.3%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도 2010년 9.2%, 2011년 17.2%, 2012년 17%로 매년 증가하여 총 7.8%p 증가하였다. 즉,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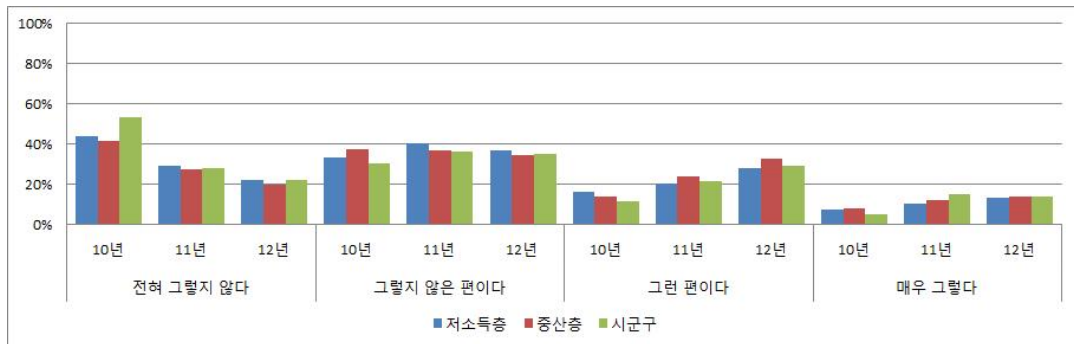
【그림 III-2-59】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지역별)

표 III-2-61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지역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78 | 80 | 63 | 116 | 151 | 116 | 60 | 84 | 125 | 32 | 47 | 49 | 386 | 362 | 353 |
| | % | 46.1 | 22.1 | 17.8 | 30.1 | 41.7 | 32.9 | 15.5 | 23.2 | 35.4 | 8.3 | 13.0 | 13.9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259 | 156 | 111 | 218 | 203 | 192 | 84 | 140 | 184 | 27 | 66 | 84 | 588 | 565 | 571 |
| | % | 44.0 | 27.6 | 19.4 | 37.1 | 35.9 | 33.6 | 14.3 | 24.8 | 32.2 | 4.6 | 11.7 | 14.7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535 | 332 | 252 | 435 | 428 | 426 | 151 | 253 | 329 | 89 | 135 | 141 | 1210 | 1148 | 1148 |
| | % | 44.2 | 28.9 | 22.0 | 36.0 | 37.3 | 37.1 | 12.5 | 22.0 | 28.7 | 7.4 | 11.8 | 12.3 | 100 | 100 | 100 |
| 전체 | N | 972 | 568 | 426 | 769 | 782 | 734 | 295 | 477 | 638 | 148 | 248 | 274 | 2184 | 2075 | 2072 |
| | % | 44.5 | 27.4 | 20.6 | 35.2 | 37.7 | 35.4 | 13.5 | 23.0 | 30.8 | 6.8 | 12.0 | 13.2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광역시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2-61>.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8.3%, 2011년 13%, 2012년 13.9%로 매년 증가하여 총 5.6%p 증가한 반면,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4.6%, 2011년 11.7%, 2012년 14.7%로 매년 증가하여 총 10.1%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7.4%, 2011년 11.8%, 2012년 12.3%로 매년 증가하여 총 4.9%p 증가하였다. 즉,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비율이 높은



【그림 III-2-60】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소득별)

표 III-2-62 중1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소득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171 | 114 | 87 | 129 | 157 | 146 | 64 | 79 | 111 | 28 | 39 | 51 | 392 | 389 | 395 |
| | % | 43.6 | 29.3 | 22.0 | 32.9 | 40.4 | 37.0 | 16.3 | 20.3 | 28.1 | 7.1 | 10 | 12.9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537 | 349 | 251 | 478 | 472 | 436 | 177 | 308 | 416 | 97 | 156 | 172 | 1289 | 1285 | 1275 |
| | % | 41.7 | 27.2 | 19.7 | 37.1 | 36.7 | 34.2 | 13.7 | 24.0 | 32.6 | 7.5 | 12.1 | 13.5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200 | 104 | 82 | 114 | 134 | 129 | 43 | 80 | 107 | 17 | 55 | 51 | 374 | 373 | 369 |
| | % | 53.5 | 27.9 | 22.2 | 30.5 | 35.9 | 35.0 | 11.5 | 21.4 | 29.0 | 4.5 | 14.7 | 13.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908 | 567 | 420 | 721 | 763 | 711 | 284 | 467 | 634 | 142 | 250 | 274 | 2055 | 2047 | 2039 |
| | % | 44.2 | 27.7 | 20.6 | 35.1 | 37.3 | 34.9 | 13.8 | 22.8 | 31.1 | 6.9 | 12.2 | 13.4 | 100 | 100 | 100 |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서울이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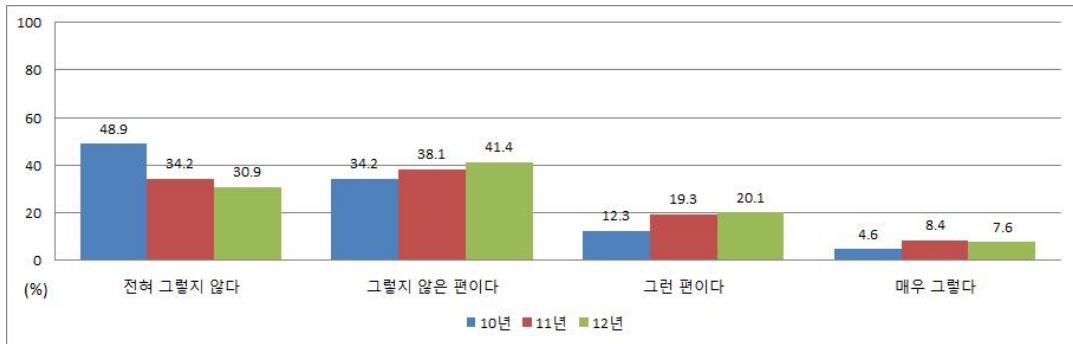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소득 계층에서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 <표 III-2-62>.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2010년 7.1%, 2011년 10%, 2012년 12.9%로 매년 증가하여 총 5.8%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은 2010년 7.5%, 2011년 12.1%, 2012년 13.5%로 매년 증가하여 총 6%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은 2010년 4.5%, 2011년 14.7%, 2012년

13.8%로 매년 증가하여 총 9.3%p 증가하였다. 즉, 모든 소득 계층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인 중학생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⑥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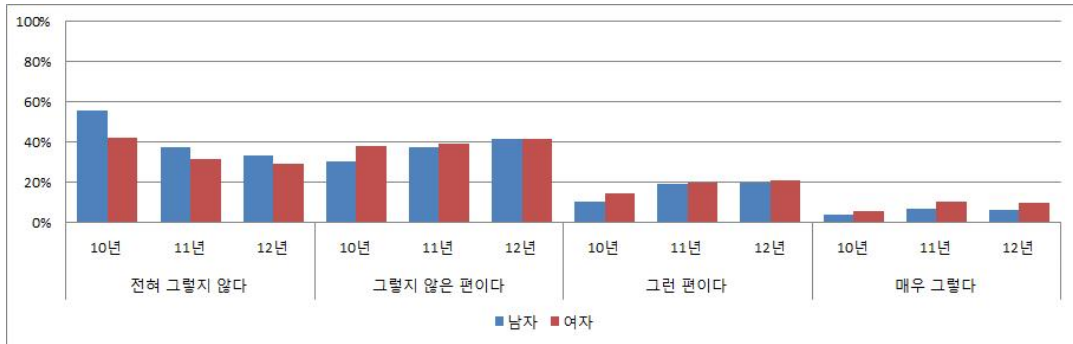
중학생은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 1학년은 ‘전혀 그렇지 않다’, 2, 3학년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63>.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5%에서 2012년 7.6%로 2.6%p 증가하였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가 없을 때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61】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표 III-2-63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1068 | 48.9 | 743 | 34.2 | 669 | 30.9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747 | 34.2 | 828 | 38.1 | 895 | 41.4 |
| 그런 편이다 | 268 | 12.3 | 419 | 19.3 | 434 | 20.1 |
| 매우 그렇다 | 101 | 4.6 | 183 | 8.4 | 165 | 7.6 |
| 합계 | 2184 | 100 | 2173 | 100 | 2163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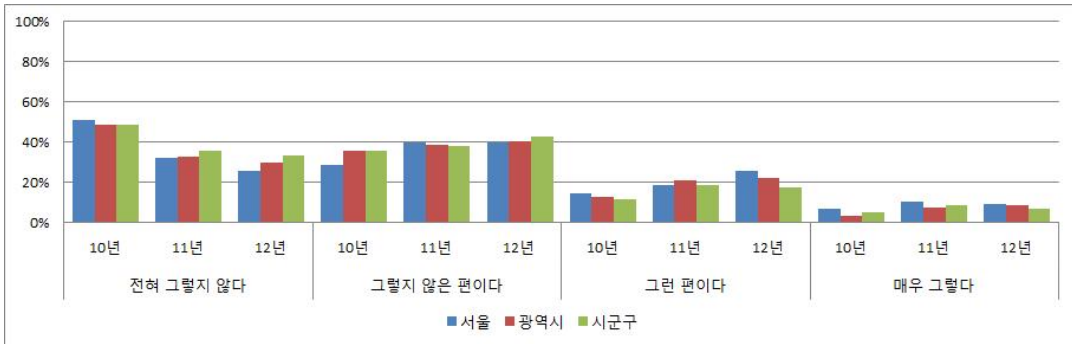
【그림 Ⅲ-2-62】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성별)

표 Ⅲ-2-64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성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610 | 411 | 366 | 333 | 414 | 461 | 113 | 211 | 217 | 40 | 73 | 65 | 1096 | 1109 | 1109 |
| | % | 55.7 | 37.1 | 33.0 | 30.4 | 37.3 | 41.6 | 10.3 | 19.0 | 19.6 | 3.6 | 6.6 | 5.9 | 100 | 100 | 100 |
| 여자 | N | 458 | 332 | 303 | 413 | 414 | 434 | 155 | 208 | 217 | 61 | 110 | 100 | 1087 | 1064 | 1054 |
| | % | 42.1 | 31.2 | 28.7 | 38.0 | 38.9 | 41.2 | 14.3 | 19.5 | 20.6 | 5.6 | 10.3 | 9.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68 | 743 | 669 | 746 | 828 | 895 | 268 | 419 | 434 | 101 | 183 | 165 | 2183 | 2173 | 2163 |
| | % | 48.9 | 34.2 | 30.9 | 34.2 | 38.1 | 41.4 | 12.3 | 19.3 | 20.1 | 4.6 | 8.4 | 7.6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Ⅲ-2-64>.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3.6%, 2011년 6.6%, 2012년 5.9%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2.2%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도 2010년 5.6%, 2011년 10.3%, 2012년 9.5%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3.9%p 증가하였다. 즉, 남녀 모두 휴대전화가 없을 때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비율은 2학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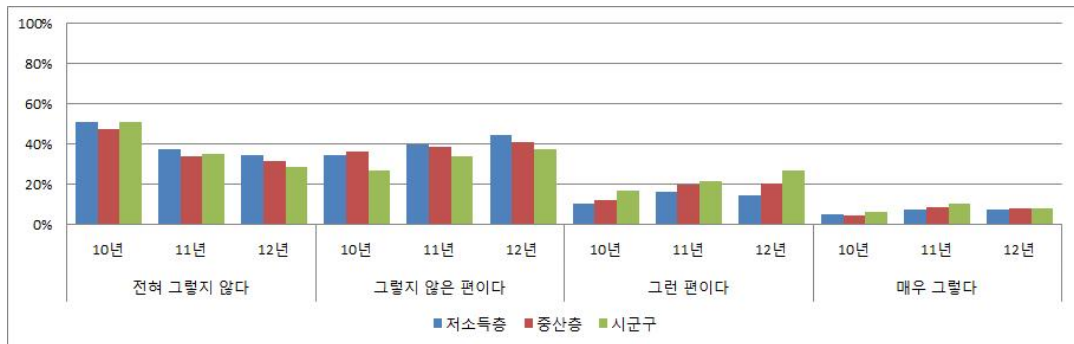
[그림 III-2-63]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지역별)

표 III-2-65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지역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96 | 116 | 91 | 110 | 144 | 141 | 55 | 66 | 91 | 25 | 37 | 31 | 386 | 363 | 354 |
| | % | 50.8 | 32.0 | 25.7 | 28.5 | 39.7 | 39.8 | 14.2 | 18.2 | 25.7 | 6.5 | 10.2 | 8.8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286 | 185 | 169 | 210 | 218 | 229 | 73 | 118 | 125 | 19 | 42 | 48 | 588 | 563 | 571 |
| | % | 48.6 | 32.9 | 29.6 | 35.7 | 38.7 | 40.1 | 12.4 | 21.0 | 21.9 | 3.2 | 7.5 | 8.4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587 | 406 | 384 | 427 | 435 | 491 | 139 | 214 | 198 | 57 | 93 | 78 | 1210 | 1148 | 1151 |
| | % | 48.5 | 35.4 | 33.4 | 35.3 | 37.9 | 42.7 | 11.5 | 18.6 | 17.2 | 4.7 | 8.1 | 6.8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69 | 707 | 644 | 747 | 797 | 861 | 267 | 398 | 414 | 101 | 172 | 157 | 2184 | 2074 | 2076 |
| | % | 48.9 | 34.1 | 31.0 | 34.2 | 38.4 | 41.5 | 12.2 | 19.2 | 19.9 | 4.6 | 8.3 | 7.6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2-65>.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6.5%, 2011년 10.2%, 2012년 8.8%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에 비해 2.3%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3.2%, 2011년 7.5%, 2012년 8.4%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에 비해 5.2%p 증가하였으며,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4.7%, 2011년 8.1%, 2012년 6.8%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2.1%p 증가하였다. 즉,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 없을 때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비율은 2학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가



【그림 Ⅲ-2-64】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소득별)

표 Ⅲ-2-35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소득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200 | 145 | 136 | 135 | 154 | 178 | 39 | 63 | 57 | 19 | 28 | 28 | 393 | 390 | 399 |
| | % | 50.9 | 37.2 | 34.1 | 34.4 | 39.5 | 44.6 | 9.9 | 16.2 | 14.3 | 4.8 | 7.2 | 7.0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610 | 430 | 397 | 465 | 491 | 521 | 156 | 254 | 256 | 57 | 109 | 101 | 1288 | 1284 | 1275 |
| | % | 47.4 | 33.5 | 31.1 | 36.1 | 38.2 | 40.9 | 12.1 | 19.8 | 20.1 | 4.4 | 8.5 | 7.9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90 | 131 | 104 | 100 | 125 | 136 | 62 | 80 | 98 | 23 | 37 | 28 | 375 | 373 | 366 |
| | % | 50.7 | 35.1 | 28.4 | 26.7 | 33.5 | 37.2 | 16.5 | 21.4 | 26.8 | 6.1 | 9.9 | 7.7 | 100 | 100 | 100 |
| 전체 | N | 1000 | 706 | 637 | 700 | 770 | 835 | 257 | 397 | 411 | 99 | 174 | 157 | 2056 | 2047 | 2040 |
| | % | 48.6 | 34.5 | 31.2 | 34.0 | 37.6 | 40.9 | 12.5 | 19.4 | 20.1 | 4.8 | 8.5 | 7.7 | 100 | 100 | 100 |

서울이나 시군구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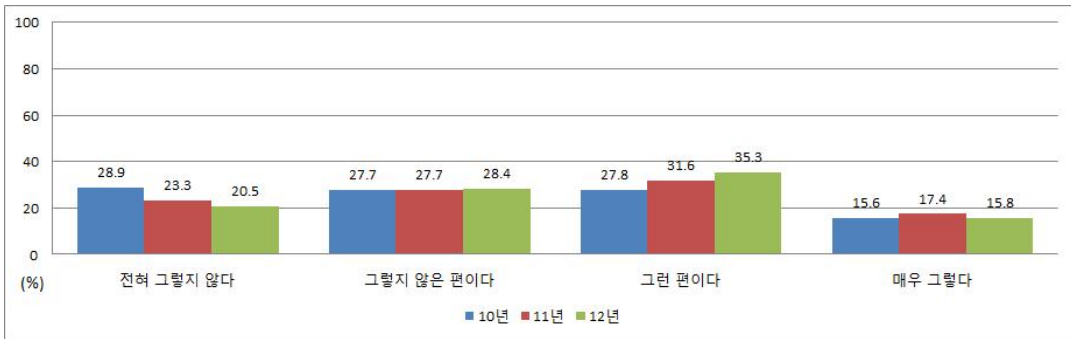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Ⅲ-2-66>.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4.8%, 2011년 7.2%, 2012년 7%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2.2%p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4.4%, 2011년 8.5%, 2012년 7.9%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3.5%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6.1%, 2011년 9.9%, 2012년 7.7%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1.5%p 증가하였다. 즉, 모든 소득계층에서 휴대전화가 없을 때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비율은 2학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산층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다.

⑦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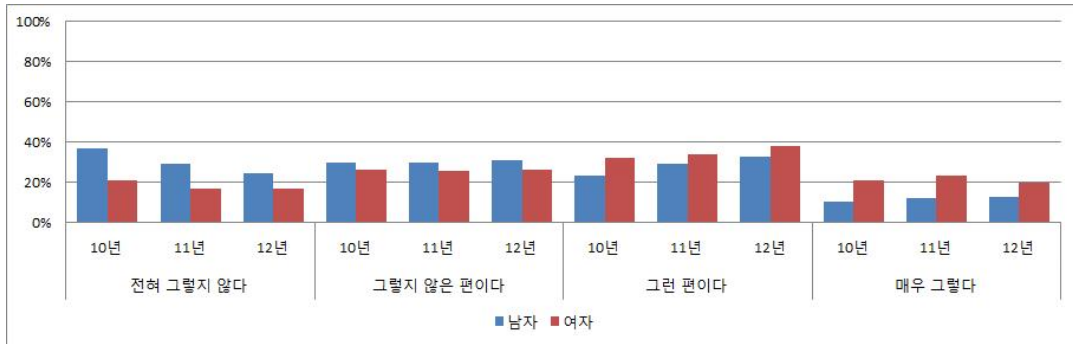
중학생은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 1학년은 '전혀 그렇지 않다', 2, 3학년은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2-67>.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16%에서 2012년 15.8%로 15.6%p 증가하였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가 없을 때 불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65】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표 III-2-67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 항목 | 2010년(중1) |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631 | 28.9 | 506 | 23.3 | 444 | 20.5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605 | 27.7 | 601 | 27.7 | 615 | 28.4 |
| 그런 편이다 | 606 | 27.8 | 687 | 31.6 | 764 | 35.3 |
| 매우 그렇다 | 341 | 15.6 | 379 | 17.4 | 342 | 15.8 |
| 합계 | 2184 | 100 | 2173 | 100 | 2165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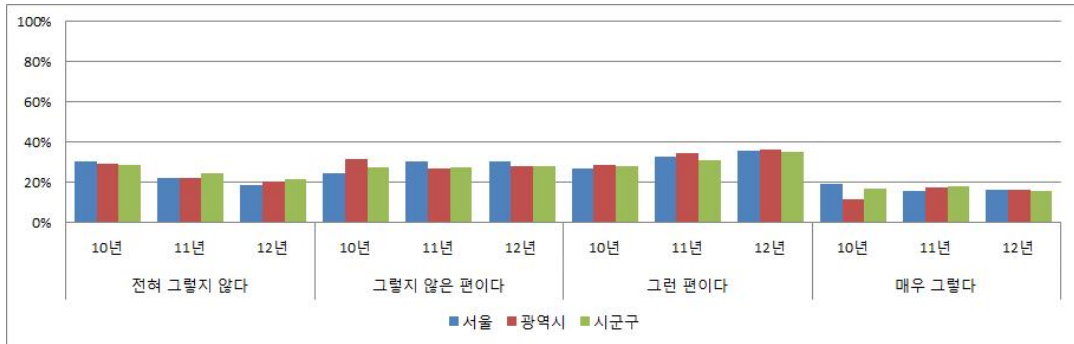
【그림 III-2-66】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성별)

표 III-2-68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성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405 | 325 | 270 | 323 | 328 | 341 | 255 | 325 | 362 | 113 | 130 | 137 | 1096 | 1108 | 1110 |
| | % | 37.0 | 29.3 | 24.3 | 29.5 | 29.6 | 30.7 | 23.3 | 29.3 | 32.6 | 10.3 | 11.7 | 12.3 | 100 | 100 | 100 |
| 여자 | N | 227 | 180 | 174 | 283 | 273 | 274 | 351 | 362 | 402 | 227 | 249 | 205 | 1088 | 1064 | 1055 |
| | % | 20.9 | 16.9 | 16.5 | 26.0 | 25.7 | 26.0 | 32.3 | 34.0 | 38.1 | 20.9 | 23.4 | 19.4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32 | 505 | 444 | 606 | 601 | 615 | 606 | 687 | 764 | 340 | 379 | 342 | 2184 | 2172 | 2165 |
| | % | 28.9 | 23.3 | 20.5 | 27.7 | 27.7 | 28.4 | 27.7 | 31.6 | 35.3 | 15.6 | 17.4 | 15.8 | 100 | 100 | 100 |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III-2-68>.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0년 10.3%, 2011년 11.7%, 2012년 12.3%로 매년 증가하여 총 2%p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2010년 20.9%, 2011년 23.4%, 2012년 19.4%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1.4%p 감소하였다. 즉, 남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가 없을 때 불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2학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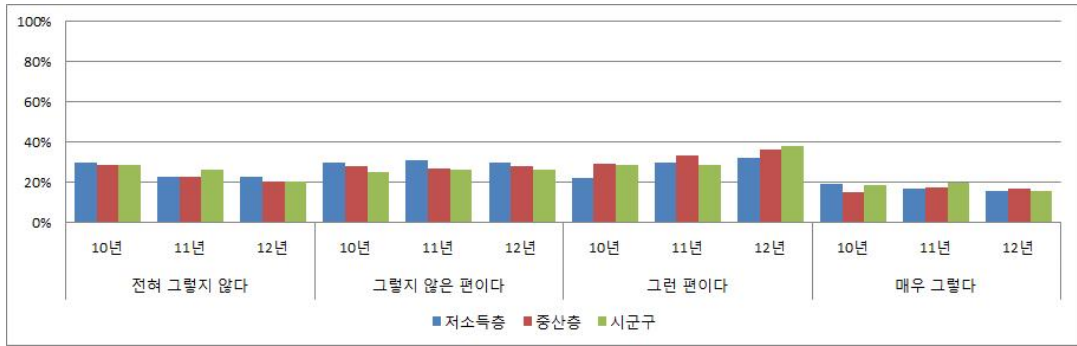
【그림 Ⅲ-2-67】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지역별)

표 Ⅲ-2-69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지역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116 | 79 | 64 | 94 | 109 | 107 | 102 | 117 | 126 | 74 | 57 | 56 | 386 | 362 | 353 |
| | % | 30.1 | 21.8 | 18.1 | 24.4 | 30.1 | 30.3 | 26.4 | 32.3 | 35.7 | 19.2 | 15.7 | 15.9 | 100 | 100 | 100 |
| 광역시 | N | 170 | 123 | 116 | 184 | 150 | 159 | 167 | 193 | 205 | 66 | 97 | 91 | 587 | 563 | 571 |
| | % | 29.0 | 21.8 | 20.3 | 31.3 | 26.6 | 27.8 | 28.4 | 34.3 | 35.9 | 11.2 | 17.2 | 15.9 | 100 | 100 | 100 |
| 시군구 | N | 344 | 280 | 249 | 327 | 310 | 322 | 337 | 352 | 402 | 201 | 206 | 178 | 1209 | 1148 | 1151 |
| | % | 28.5 | 24.4 | 21.6 | 27.0 | 27.0 | 28.0 | 27.9 | 30.7 | 34.9 | 16.6 | 17.9 | 15.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630 | 482 | 429 | 605 | 569 | 588 | 606 | 662 | 733 | 341 | 360 | 325 | 2182 | 2073 | 2075 |
| | % | 28.9 | 23.3 | 20.7 | 27.7 | 27.4 | 28.3 | 27.8 | 31.9 | 35.3 | 15.6 | 17.4 | 15.7 | 100 | 100 | 100 |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Ⅲ-2-69>.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19.2%, 2011년 15.7%, 2012년 15.9%로 매년 감소하여 2010년 대비 3.3%p 감소하였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11.2%, 2011년 17.2%, 2012년 15.9%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4.7%p 증가하였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10년 16.6%, 2011년 17.9%, 2012년 15.5%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0년 대비 1.2%p 감소하였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휴대전화가 없을 때 불편감을 느끼는 비율이 1학년에 가장 높았으나, 광역시와 시군구에 거주하는



【그림 Ⅲ-2-68】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소득별)

표 Ⅲ-2-70 중1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소득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 그런 편이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10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117 | 89 | 91 | 116 | 121 | 118 | 86 | 116 | 128 | 74 | 64 | 62 | 393 | 390 | 399 |
| | % | 29.8 | 22.8 | 22.8 | 29.5 | 31.0 | 29.6 | 21.9 | 29.7 | 32.1 | 18.8 | 16.4 | 15.5 | 100 | 100 | 100 |
| 중산층 | N | 365 | 293 | 254 | 359 | 346 | 352 | 373 | 423 | 461 | 191 | 223 | 209 | 1288 | 1285 | 1276 |
| | % | 28.3 | 22.8 | 19.9 | 27.9 | 26.9 | 27.6 | 29.0 | 32.9 | 36.1 | 14.8 | 17.4 | 16.4 | 10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106 | 97 | 75 | 93 | 97 | 96 | 106 | 107 | 140 | 69 | 72 | 57 | 374 | 373 | 368 |
| | % | 28.3 | 26.0 | 20.4 | 24.9 | 26.0 | 26.1 | 28.3 | 28.7 | 38.0 | 18.4 | 19.3 | 15.5 | 100 | 100 | 100 |
| 전체 | N | 588 | 479 | 420 | 568 | 564 | 566 | 565 | 646 | 729 | 334 | 359 | 328 | 2055 | 2048 | 2043 |
| | % | 28.6 | 23.4 | 20.6 | 27.6 | 27.5 | 27.7 | 27.5 | 31.5 | 35.7 | 16.3 | 17.5 | 16.1 | 100 | 100 | 100 |

중학생은 2학년에 가장 높았다.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기준)<표 Ⅲ-2-70>.

또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18.8%, 2011년 16.4%, 2012년 15.5%로 매년 감소해 총 3.3%p 감소하였으며, 중산층인 중학생은 2010년 14.8%, 2011년 17.4%, 2012년 16.4%로 증가했다가 감소해 2010년 대비 1.6%p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010년 18.4%, 2011년 19.3%, 2012년 15.5%로 매년 감소해 총 3%p 감소하였다. 즉, 저소득층인 중학생은 휴대전화가 없을 때 불편감을 느끼는 비율이 1학년에 가장 높았으나, 중산층과 고소득층인 중학생은 2학년에 가장 높았다.

제 4 장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실태 및 추이분석

1. 중 1패널의 사이버 비행실태 및
추이분석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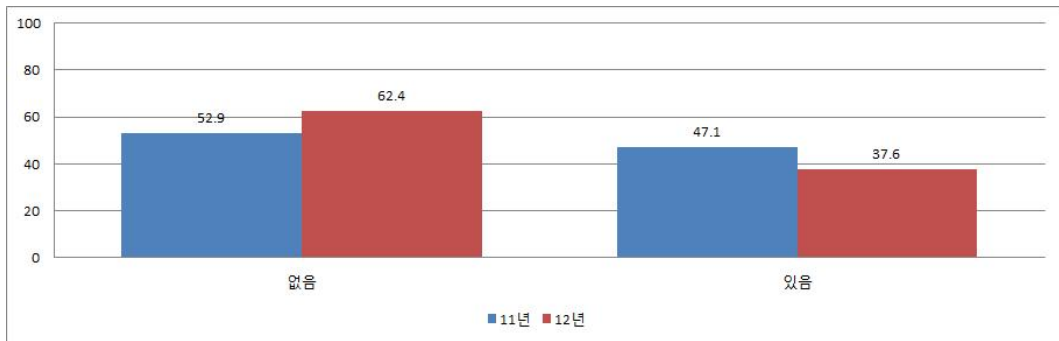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실태 및 추이분석

1.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실태 및 추이분석

매체 사용의 부정적 행동 양상인 사이버 비행실태 및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여섯 문항으로 구성된 사이버 비행 영역별 경험 정도 및 연간 경험 회수를 묻는 설문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지문의 내용은 ①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②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③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④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⑤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⑥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등이다. 본 조사를 위해 사용된 질문도구는 2010년부터 진행된 중학교 1학년 패널 조사 2년차인 2011년도에 새로 추가되어 중학교2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2년차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경우 발달기적 특성상 비행 혹은 일탈로의 본격적인 진행 이전의 연령기임을 감안해 사이버 비행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중학교 2학년부터 조사되었다.

1) 중학생의 사이버 비행 경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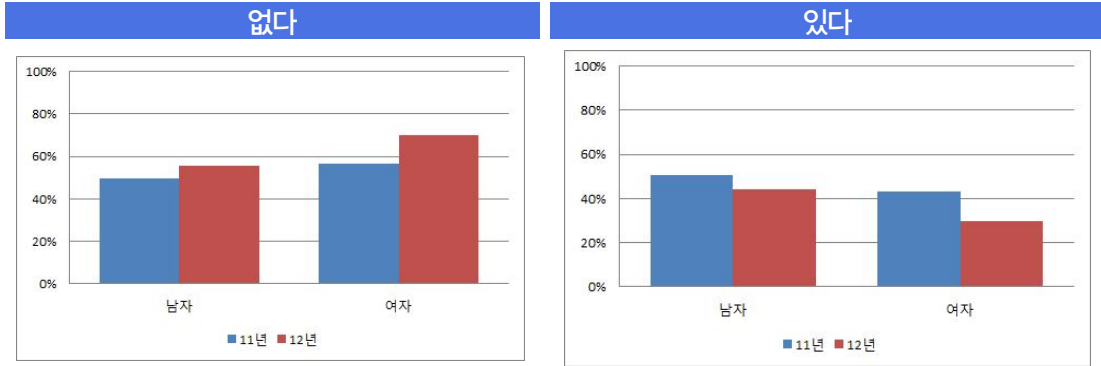
중학생의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비행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여부를 조사하였다. 전체 6문항으로 구성된 사이버 비행유형을 묻는 질문에서 단 한 번이라도 개별 문항에 해당되는 사이버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으면 사이버 비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평정되었다. 2011년의 경우 사이버 비행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1%였지만, 2012년의 경우 응답률이 37.6%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IV-1>.



【그림 IV-1】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

표 IV-1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없다 | 1165 | 52.9 | 1322 | 62.4 |
| 있다 | 1038 | 47.1 | 796 | 37.6 |
| 합계 | 2203 | 100 | 2119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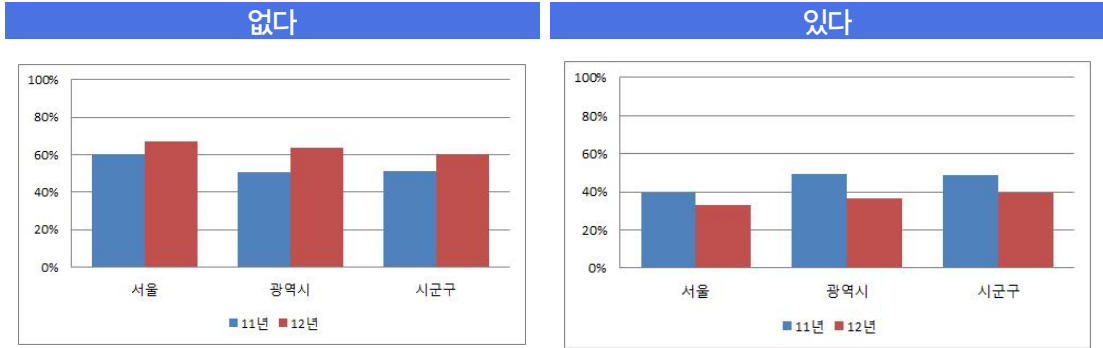


【그림 IV-2】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성별)

표 IV-2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성별)

| 항목 | 없다 | | 있다 | | 전체 | | |
|----|-------|-------|-------|-------|-------|-------|------|
| | 2011년 | 2012년 | 2011년 | 2012년 | 2011년 | 2012년 | |
| 남자 | 사례수 | 566 | 629 | 579 | 502 | 1145 | 1131 |
| | 비율 | 49.4 | 55.6 | 50.6 | 44.4 | 100 | 100 |
| 여자 | 사례수 | 599 | 722 | 459 | 298 | 1058 | 1020 |
| | 비율 | 56.6 | 70.8 | 43.4 | 29.2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1165 | 1324 | 1038 | 798 | 2203 | 2122 |
| | 비율 | 52.9 | 62.4 | 47.1 | 37.6 | 100 | 100 |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자의 경우 2011년 사이버 비행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50.6%인 반면 여자의 경우 43.4%로 7% 이상 낮았으며, 2012년의 경우 보다 큰 남녀 간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표 IV-2>. 남자청소년의 사이버 경험 응답률이 44.4%, 여자 청소년의 경우 29.2%에 머물러 남자 청소년이 15.2% 더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전체로 보았을 때 비록 전년도 대비 10% 가량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많은 부분 여자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경험 감소에 기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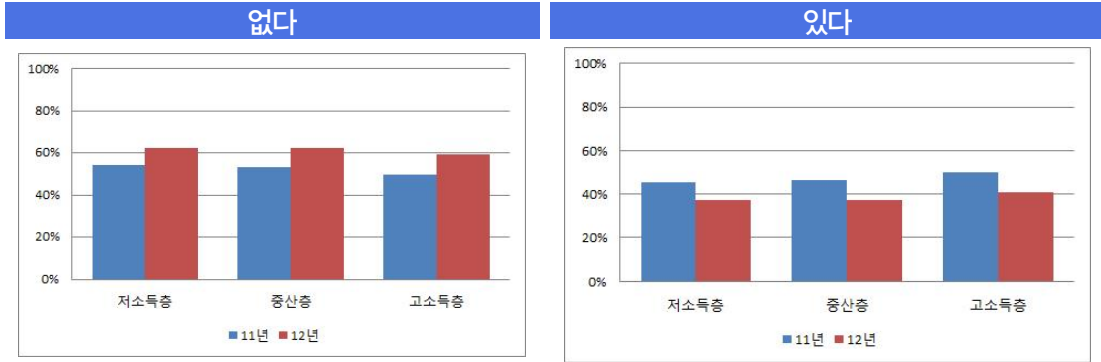


【그림 IV-3】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지역별)

표 IV-3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지역별)

| 항목 | | 없다 | | 있다 | | 전체 | |
|-----|-----|-------|-------|-------|-------|-------|-------|
| | | 2011년 | 2012년 | 2011년 | 2012년 | 2011년 | 2012년 |
| 서울 | 사례수 | 215 | 126 | 141 | 57 | 356 | 183 |
| | 비율 | 60.4 | 68.9 | 39.6 | 31.1 | 100 | 100 |
| 광역시 | 사례수 | 288 | 433 | 282 | 243 | 570 | 676 |
| | 비율 | 50.5 | 64.1 | 49.5 | 35.9 | 100 | 100 |
| 시군구 | 사례수 | 607 | 731 | 571 | 480 | 1178 | 1211 |
| | 비율 | 51.5 | 60.4 | 48.5 | 39.6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1110 | 1290 | 994 | 780 | 2104 | 2070 |
| | 비율 | 52.8 | 62.3 | 47.2 | 37.7 | 100 | 100 |

지역별 규모에 따른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른 사이버 비행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시가 가장 낮았으며, 광역시와 시군구의 사이버 비행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V-3>.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많은 비율로 사이버 비행이 감소되었지만, 광역시(2011년 49.5%에서 2012년 35.9%)의 경우 감소폭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11년 39.6%에서 2012년 31.1%, 시군구는 2011년 48.5%에서 2012년 39.6%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IV-4】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소득별)

표 IV-4 중1 패널의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 변화(소득별)

| 항목 | | 없다 | | 있다 | | 전체 | |
|------|-----|-------|-------|-------|-------|-------|-------|
| | | 2011년 | 2012년 | 2011년 | 2012년 | 2011년 | 2012년 |
| 저소득층 | 사례수 | 224 | 266 | 188 | 162 | 412 | 428 |
| | 비율 | 54.4 | 62.1 | 45.6 | 37.9 | 100 | 100 |
| 중산층 | 사례수 | 684 | 768 | 598 | 468 | 1282 | 1236 |
| | 비율 | 53.4 | 62.1 | 46.6 | 37.9 | 100 | 100 |
| 고소득층 | 사례수 | 191 | 217 | 192 | 130 | 383 | 347 |
| | 비율 | 49.9 | 62.5 | 50.1 | 37.5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1099 | 1251 | 978 | 760 | 2077 | 2011 |
| | 비율 | 52.9 | 62.2 | 47.1 | 37.8 | 100 | 100 |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사이버 비행경험 조사결과에서 2011년과 2012년 간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2011년의 사이버 비행 경험 비율이 고소득층 청소년 50.1%, 중산층 청소년 46.6%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은 45.6%로 관찰되었다<표 IV-4>.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비율이 다소 높았다. 2012년의 경우 고소득층 청소년 37.5%, 중산층 청소년 37.9%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은 37.9%로 관찰되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년도 대비 감소의 폭에 컸으며 일정 수준의 비율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2) 중학생의 사이버 비행 행태 및 경험정도

사이버 비행 행태는 전체 여섯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한 지난 1년간의 경험횟수를 통해 경험정도를 평정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①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②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③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④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⑤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⑥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을 위해 배경 변인의 집단 수준 별 평균차이를 살펴보았다. 집단 수준 별 사례수가 많지 않거나 혹은 사례수가 편중되어 있어 유의도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기에 본 조사결과를 일반적 경향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렵다. 예를 들어 사이버 비행유형 중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의 연간 경험 횟수의 경우 2012년 59명이었으며, 배경 변인인 성별 분석에서 남학생은 48명 여학생은 11명으로 남학생의 수가 현저히 많아 유의도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다른 유형도 비슷하게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가 기초자료분석이므로 현상기술 측면에서 자료를 기술하였다.

①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비행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여부를 조사하였다. 2011년의 경우 동 사이버 비행을 경험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청소년 대비 4.5%였지만, 2012년의 경우 응답률이 3%로 전년 대비 1.5%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5>. 동 사이버 비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2011년 비행 경험 횟수는 평균 12.14회였는데 2012년의 경우 5.06회로 전년 대비 약 두 배 이상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배경 변인 별 분석에서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자의 경우 2011년 동 사이버 비행 경험을 한 횟수가 15.3회인 반면 여자의 경우 3.33회로 매우 낮았으며, 2012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동 사이버 비행에 대한 횟수가 4.99회, 여자 청소년의 경우 5.36회로 남자 청소년이 약간 낮은 빈도를 보였다. 전체로 보았을 때 전년도 대비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많은 부분 남자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경험 감소에 기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

지역별 규모에 따른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른 사이버 비행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서울시가 가장 낮았으며, 광역시는 중간 수준, 시군구의 사이버 비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많은 비율로 사이버 비행이

표 IV-5 중1 패널-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있다 | 99 | 4.5 | 63 | 3.0 |
| 없다 | 2104 | 95.5 | 2056 | 97.0 |
| 합계 | 2203 | 100 | 2119 | 100 |

표 IV-6 중1 패널-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회/연)

| 항목 | 2011년(중2) | | | 2012년(중3) |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 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 편차 | |
| 전체 | 97 | 12.14 | 46.11 | 59 | 5.06 | 9.06 | |
| 성별 | 남자 | 72 | 15.30 | 53.46 | 48 | 4.99 | 5.92 |
| | 여자 | 26 | 3.33 | 3.20 | 11 | 5.36 | 17.54 |
| | 합계 | 97 | 12.14 | 46.11 | 59 | 5.06 | 9.06 |
| 지역 | 서울 | 14 | 6.07 | 4.20 | 11 | 4.74 | 4.02 |
| | 광역시 | 25 | 10.42 | 35.63 | 13 | 2.60 | 1.30 |
| | 시군구 | 52 | 15.48 | 57.92 | 31 | 6.41 | 12.09 |
| | 합계 | 92 | 12.64 | 47.49 | 55 | 5.20 | 9.36 |
| 소득 | 저소득층 | 7 | 26.23 | 66.60 | 11 | 5.98 | 6.69 |
| | 중산층 | 63 | 13.75 | 52.84 | 33 | 4.66 | 10.78 |
| | 고소득층 | 21 | 5.53 | 5.22 | 13 | 5.28 | 6.83 |
| | 합계 | 92 | 12.84 | 47.49 | 57 | 5.04 | 9.24 |

감소되었지만, 광역시(2011년 10.42회에서 2012년 2.60회)의 감소폭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11년 6.07회에서 2012년 4.74회, 시군구는 2011년 15.48회에서 2012년 6.41회로 뚜렷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사이버 비행경험 분석에서 2011년과 2012년 간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2011년의 사이버 비행 경험 횟수가 고소득층 청소년 5.53회 중산층 청소년 13.75회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은 26.23회로 관찰되었다. 고소득층 청소년에 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동 사이버 비행경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2012년의 경우 고소득층 청소년 5.28회, 중산층 청소년 4.66회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은 5.98회로 관찰되어, 중산층과 고소득층 청소년들에게서 전년도 대비 감소의 폭에 컸으며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②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비행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여부를 조사하였다. 2011년의 경우 동 사이버 비행을 경험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청소년 대비 28.8%였지만, 2012년의 경우 응답률이 24.5%로 전년 대비 4.3%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7>. 동 사이버 비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2011년 비행 경험 횟수는 17.59회 이었는데 2012년의 경우 15.8회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 분석에서 남자의 경우 2011년 동 사이버 비행 경험을 한 횟수가 17.62회, 여자의 경우 17.56회로 차이가 없었으며, 2012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동 사이버 비행에 대한 횟수가 18.08회, 여자 청소년의 경우 12.36회로 여자 청소년들이 낮은 빈도를 보였다 <표 IV-8>.

지역별 규모에 따른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른 사이버 비행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2011년과 2012년 모두 서울시가 가장 낮았으며, 광역시와 시군구의 사이버 비행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사이버 비행이 횟수가 크게 감소했고, 광역시(2011년 19.33회에서 2012년 13.85회)에서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11년 10.98회에서 2012년 11.07회, 시군구는 2011년 19.1회에서 2012년 18.05회로 약간 감소되거나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사이버 비행경험 분석에서 2011년과 2012년 간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2011년의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 사이버 비행경험빈도에 차이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저소득층 17.33회, 중산층 16.75회, 고소득층 17.31회). 2012년의 경우 고소득층 청소년 12.26회, 중산층 청소년 15.29회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은 21.67회로 관찰되어, 소득 수준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소득층 청소년들의 경우 전년도 대비 감소의 폭에 컸으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③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비행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여부를 조사하였다. 2011년의 경우 동 사이버 비행을 경험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표 IV-7 중1 패널-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있다 | 635 | 28.8 | 520 | 24.5 |
| 없다 | 1568 | 71.2 | 1599 | 75.5 |
| 합계 | 2203 | 100 | 2119 | 100 |

표 IV-8 중1 패널-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회/연)

| 항목 | 2011년(중2) | | | 2012년(중3) |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 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 편차 | |
| 전체 | 633 | 17.59 | 39.20 | 504 | 15.80 | 42.41 | |
| 성별 | 남자 | 361 | 17.62 | 40.40 | 303 | 18.08 | 47.00 |
| | 여자 | 272 | 17.56 | 37.60 | 200 | 12.36 | 34.13 |
| | 합계 | 633 | 17.59 | 39.20 | 504 | 15.80 | 42.41 |
| 지역 | 서울 | 98 | 10.98 | 17.81 | 66 | 11.07 | 18.32 |
| | 광역시 | 168 | 19.33 | 40.98 | 132 | 13.85 | 29.05 |
| | 시군구 | 341 | 19.10 | 43.55 | 294 | 18.05 | 51.15 |
| | 합계 | 606 | 17.86 | 39.83 | 491 | 15.99 | 42.88 |
| 소득 | 저소득층 | 97 | 17.33 | 33.29 | 82 | 21.67 | 58.15 |
| | 중산층 | 360 | 16.75 | 36.44 | 304 | 15.29 | 43.31 |
| | 고소득층 | 139 | 17.31 | 40.8 | 96 | 12.26 | 22.13 |
| | 합계 | 596 | 16.98 | 36.78 | 482 | 15.77 | 43.06 |

비율이 조사청소년 대비 6.5%, 2012년은 6%로 전년 대비 0.5% 소폭 감소하였다. 동 사이버 비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2011년 비행 경험 횟수는 10.1회 이었는데 2012년의 경우 13.64회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IV-9>.

응답자 특성 중 성별 분석에서 남자의 경우 2011년 동 사이버 비행 경험을 한 횟수가 13.13회인 반면 여자의 경우 3.51회로 매우 낮았으며, 2012년 남자청소년의 동 사이버 비행에 대한 횟수가 평균 16.72회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 3.58회로 전년도와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IV-10>.

표 IV-9 중1 패널-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있다 | 142 | 6.5 | 127 | 6.0 |
| 없다 | 2061 | 93.5 | 1992 | 94.0 |
| 합계 | 2203 | 100 | 2119 | 100 |

표 IV-10 중1 패널-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회/연)

| 항목 | 2011년(중2) | | | 2012년(중3) |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141 | 10.10 | 45.55 | 118 | 13.64 | 50.75 | |
| 성별 | 남자 | 95 | 13.13 | 55.23 | 91 | 16.72 | 57.60 |
| | 여자 | 46 | 3.51 | 2.46 | 28 | 3.58 | 6.75 |
| | 합계 | 141 | 10.10 | 45.55 | 118 | 13.64 | 50.75 |
| 지역 | 서울 | 21 | 3.22 | 2.75 | 16 | 9.56 | 15.60 |
| | 광역시 | 43 | 2.99 | 1.95 | 34 | 4.61 | 7.04 |
| | 시군구 | 66 | 17.88 | 65.81 | 62 | 20.72 | 68.89 |
| | 합계 | 130 | 10.58 | 47.29 | 113 | 14.23 | 52.00 |
| 소득 | 저소득층 | 25 | 3.65 | 2.76 | 20 | 4.96 | 7.39 |
| | 중산층 | 87 | 14.09 | 57.57 | 67 | 19.10 | 66.59 |
| | 고소득층 | 20 | 2.76 | 1.73 | 25 | 8.79 | 14.02 |
| | 합계 | 132 | 10.41 | 46.99 | 112 | 14.27 | 52.21 |

지역 규모별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른 동 사이버 비행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2011년과 광역시(2.99회)와 서울시(3.22회)가 낮았던 반면 시군구의 사이버 비행빈도(17.88회)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동 사이버 비행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광역시는 2012년 4.16회 서울은 9.56회, 시군구는 20.72회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도시 규모가 클수록 뚜렷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사이버 비행경험 분석에서 2011년과 2012년 간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2011년의 경우 고소득층(2.76회)과 저소득층(3.65회)에 비해 중산층에서 높은 빈도

(14.09회)를 보였다. 2012년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고소득층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2년 저소득층 청소년 4.96회, 중산층 청소년 19.10회 그리고 고소득층 청소년은 8.79회로 관찰되어, 소득 수준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소득층 청소년들의 경우 전년도 대비 증가 비율 폭이 높게 나타났다.

④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채팅 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비행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여부를 조사하였다. 2011년의 경우 동 사이버 비행을 경험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청소년 대비 15.2%였지만, 2012년의 경우 응답률이 9.6%로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하였다. 동 사이버 비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2011년 비행 경험 횟수는 평균 9.37회 이었는데 2012는 8.77회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표 IV-11>.

배경 변인 별 분석에서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자의 경우 2011년 동 사이버 비행 경험을 한 횟수가 6.83회인 반면 여자의 경우 11.6회로 남자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지만, 2012년의 남자청소년의 동 사이버 비행에 대한 횟수가 11.58회, 여자 청소년의 경우 4.16회로 남자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경험 빈도가 현저히 증가하고 여자 청소년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표 IV-12>.

지역별 규모에 따른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서울시가 가장 높았으며, 시군구는 중간, 광역시의 비행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11년 11.42회에서 2012년 2.83회, 광역시는 2011년 7.64회에서 2012년 4.46회로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시군구는 2011년 9.85회에서 2012년 13.06회로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사이버 비행경험 분석에서 2011년과 2012년 간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2011년의 동 사이버 비행 경험 비율이 고소득층 청소년 11.04회 중산층 청소년 9.68회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은 8.65회로 관찰되었다. 2011년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동 사이버 비행경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2012년은 고소득층 청소년 3.45회, 중산층 청소년 12.52회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은 4.59회로 관찰되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서 전년도 대비 동 비행의 감소의 폭에 컸지만, 중산층 청소년들에게서는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표 IV-11 중1 패널-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있다 | 334 | 15.2 | 203 | 9.6 |
| 없다 | 1869 | 84.8 | 1916 | 90.4 |
| 합계 | 2203 | 100 | 2119 | 100 |

표 IV-12 중1 패널-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회/연)

| 항목 | 2011년(중2) | | | 2012년(중3) |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 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 편차 | |
| 전체 | 331 | 9.37 | 22.78 | 195 | 8.77 | 39.27 | |
| 성별 | 남자 | 155 | 6.83 | 12.54 | 121 | 11.58 | 49.25 |
| | 여자 | 176 | 11.60 | 28.78 | 74 | 4.16 | 8.25 |
| | 합계 | 331 | 9.37 | 22.78 | 195 | 8.77 | 39.27 |
| 지역 | 서울 | 45 | 11.42 | 27.73 | 23 | 2.83 | 2.53 |
| | 광역시 | 82 | 7.64 | 15.62 | 62 | 4.46 | 5.28 |
| | 시군구 | 189 | 9.85 | 24.88 | 103 | 13.06 | 53.52 |
| | 합계 | 316 | 9.50 | 23.26 | 188 | 8.99 | 39.99 |
| 소득 | 저소득층 | 54 | 8.65 | 15.08 | 44 | 4.59 | 5.11 |
| | 중산층 | 205 | 9.68 | 24.33 | 108 | 12.52 | 52.55 |
| | 고소득층 | 51 | 11.04 | 26.93 | 35 | 3.45 | 4.51 |
| | 합계 | 311 | 9.72 | 23.40 | 186 | 8.97 | 40.24 |

⑤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비행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2011년의 경우 동 사이버 비행을 경험비율이 조사청소년 대비 1.9%였으며 2012년의 경우 응답률이 1.6%로 전년 대비 0.3%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다른 유형의 사이버 비행 경험에 비해 그 정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동 사이버 비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2011년 비행 경험 횟수는 3.83회 이었는데 2012년은 3.12회로 전년 대비 근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13>.

표 IV-13 중1 패널-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있다 | 41 | 1.9 | 34 | 1.6 |
| 없다 | 2163 | 98.1 | 2084 | 98.4 |
| 합계 | 2203 | 100 | 2119 | 100 |

표 IV-14 중1 패널-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회/연)

| 항목 | 2011년(중2) | | | 2012년(중3) |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 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 편차 | |
| 전체 | 41 | 3.83 | 4.53 | 32 | 3.12 | 2.35 | |
| 성별 | 남자 | 36 | 3.84 | 4.72 | 28 | 3.30 | 2.48 |
| | 여자 | 5 | 3.76 | 3.27 | 5 | 2.06 | 0.90 |
| | 합계 | 41 | 3.83 | 4.53 | 32 | 3.12 | 2.35 |
| 지역 | 서울 | 9 | 3.08 | 2.53 | 5 | 1.73 | 1.07 |
| | 광역시 | 7 | 7.70 | 7.74 | 5 | 1.82 | 1.54 |
| | 시군구 | 21 | 3.05 | 3.62 | 22 | 3.77 | 2.50 |
| | 합계 | 37 | 3.96 | 4.72 | 32 | 3.12 | 2.35 |
| 소득 | 저소득층 | 4 | 4.53 | 6.51 | 4 | 3.27 | 2.51 |
| | 중산층 | 24 | 3.70 | 4.27 | 24 | 3.12 | 2.49 |
| | 고소득층 | 8 | 4.60 | 5.85 | 4 | 2.97 | 2.11 |
| | 합계 | 36 | 3.98 | 4.72 | 32 | 3.12 | 2.38 |

응답자 특성 중 남녀 간 성별 분석에서 남자의 경우 2011년 동 사이버 비행 경험을 한 횟수가 3.84회, 여자의 경우 3.76회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2년에는 남자청소년 3.3회, 여자 청소년의 경우 2.06회로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뚜렷이 감소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표 IV-14>.

지역별 규모에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라 경험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광역시가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와 시군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되었다. 서울의 경우 2011년 3.08회에서 2012년 1.73회, 광역시는 2011년 7.7회에서 2012년 1.82회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시군구는 2011년 3.05회에서 2012년 3.77회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 2011년의 동 사이버 비행 경험 비율이 고소득층 청소년 4.6회, 중산층 청소년 3.7회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은 4.53회로 관찰되었으며, 2012년은 고소득층 청소년 2.97회, 중산층 청소년 3.12회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은 3.27회로 관찰되어, 고소득층 청소년들에게서 전년도 대비 동 비행의 감소의 폭이 컸으며, 모든 소득계층에서 감소하는 경향과 더불어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추세를 보였다.

⑥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비행 행동을 저지른 경험여부를 조사하였다. 2011년의 경우 동 사이버 비행을 경험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청소년 대비 25.6%였지만, 2012년의 경우 응답률이 18.6%로 전년 대비 7% 정도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동 사이버 비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2011년 비행 경험 횟수는 평균 43.27회 이었으며 2012년은 34.35회로 전년 대비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표 IV-15>.

배경 변인 별 분석에서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자의 경우 2011년 동 사이버 비행 경험을 한 횟수가 55.09회인 반면 여자의 경우 26.38회로 많이 낮았으며, 2012년 남자청소년의 동 사이버 비행에 대한 횟수가 42.3회, 여자 청소년은 10.33회로, 남녀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자 청소년의 동 비행 경험정도가 현저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표 IV-16>.

지역별 규모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른 동 사이버 비행경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서울시가 가장 낮았으며, 광역시는 중간 수준, 시군구의 사이버 비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동 사이버 비행이 감소되었지만, 서울시(2011년 18.29회에서 2012년 40.6회)의 경우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광역시는 2011년 39.9회에서 2012년 23.2회, 시군구는 2011년 52.97회에서 2012년 39.41회로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사이버 비행경험 분석에서 2011년과 2012년 간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2011년의 중산층 청소년의 경험빈도가 49.08회로 고소득층 31.45회와 저소득층 청소년은 35.21회 보다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2012년은 고소득층 청소년 37.7회, 저소득층 청소년 39.59회로 전년도 대비 동 비행빈도가 증가하였지만, 중산층 청소년은 31.29회로 관찰되어 전년도 대비 뚜렷하게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세 소득계층 중 가장 낮은 경험빈도를 나타냈다.

표 IV-15 중1 패널-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있다 | 565 | 25.6 | 394 | 18.6 |
| 없다 | 1638 | 74.4 | 1724 | 81.4 |
| 합계 | 2203 | 100 | 2119 | 100 |

표 IV-16 중1 패널-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회/연)

| 항목 | 2011년(중2) | | | 2012년(중3) |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 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 편차 | |
| 전체 | 555 | 43.27 | 98.44 | 373 | 34.35 | 75.04 | |
| 성별 | 남자 | 327 | 55.09 | 112.83 | 280 | 42.30 | 84.63 |
| | 여자 | 228 | 26.38 | 69.92 | 93 | 10.33 | 15.98 |
| | 합계 | 555 | 43.27 | 98.44 | 373 | 34.35 | 75.04 |
| 지역 | 서울 | 63 | 18.29 | 27.25 | 41 | 40.64 | 107.48 |
| | 광역시 | 160 | 39.90 | 103.63 | 89 | 23.20 | 36.94 |
| | 시군구 | 306 | 52.97 | 107.38 | 226 | 39.41 | 81.11 |
| | 합계 | 529 | 44.89 | 100.56 | 356 | 35.51 | 76.60 |
| 소득 | 저소득층 | 116 | 35.21 | 75.79 | 82 | 39.59 | 77.36 |
| | 중산층 | 325 | 49.08 | 107.43 | 214 | 31.29 | 66.97 |
| | 고소득층 | 76 | 31.45 | 82.59 | 57 | 37.70 | 104.80 |
| | 합계 | 517 | 43.38 | 97.85 | 354 | 34.25 | 76.54 |

제 5 장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1. 중 1패널의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제 5 장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1.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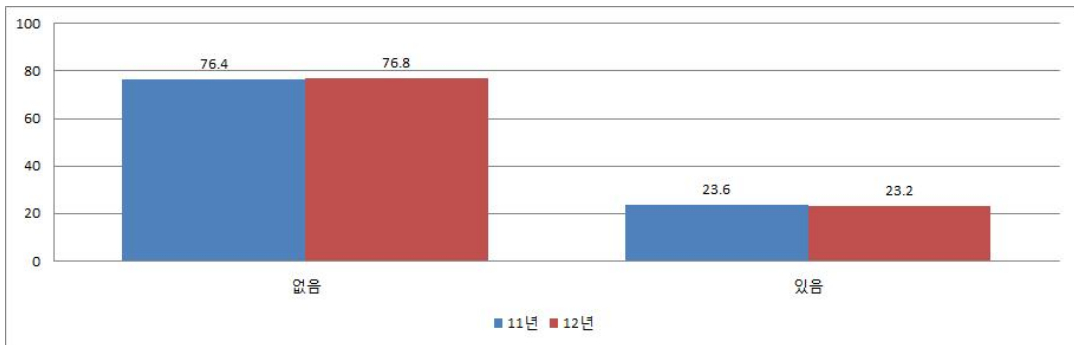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알아보았고, 성인매체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성인용 매체 경험자의 매체 몰입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에 개발된 인터넷 중독 문항(김은정, 이세용, 오승근, 2003) 중 유해매체 관련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도구 문항은 ① (성인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 ②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③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 ④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⑤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⑥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다, ⑦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⑧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고 총 8문항이다.

성인용 매체 사용 영역 분석을 위해 중1 패널 데이터의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경우 발달기적 특성상 중기 청소년기로의 본격적인 진행 이전의 연령임을 감안해 성인용 매체 사용실태와 관련된 문항들은 초4 패널에서 제외되었다.

1) 중학생의 성인용 매체 사용 여부 및 경험정도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 그 접촉 빈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19세 이상 성인만 사용 가능한 매체(잡지나 책, 영화, 동영상, TV 프로그램, 게임, 전화 서비스 등)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를 물어보았다. 사용경험 빈도를 누락 없이 측정하기 위해 사용기간 단위를 세 가지 유형의 지문으로 제시하였다. 성인용 매체 사용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를 일주일 평균, 한 달 평균, 일 년 평균 횟수를 묻는 지문으로 제시하고, 한 달 및 일 년 기간 단위로 응답한 빈도는 일주일 단위 빈도수로 환산하였다. 분석은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보기위하여 성별, 거주 지역 및 가구의 소득규모 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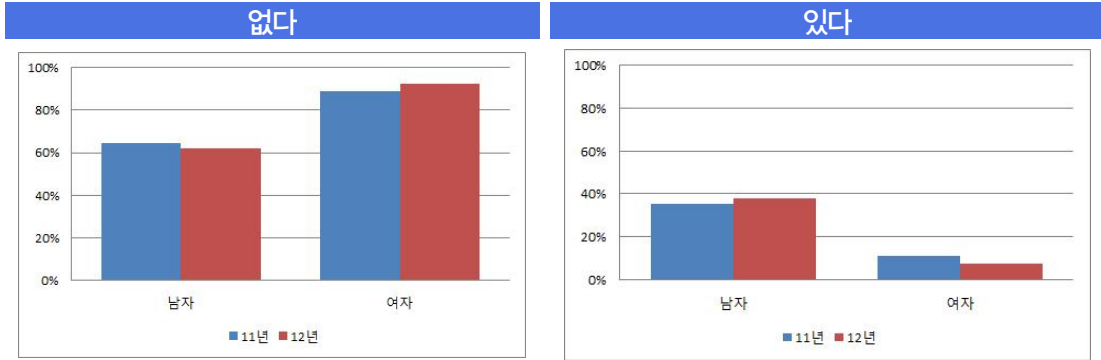
중학생의 지난 1년 간 성인용 매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2011년의 경우 성인용 매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6%였고, 2012년의 경우 응답률이 23.2%로 전년 대비 0.4% 정도 소폭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표 V-1>.



【그림 V-1】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

표 V-1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없다 | 1741 | 76.4 | 1689 | 76.8 |
| 있다 | 538 | 23.6 | 509 | 23.2 |
| 합계 | 2279 | 100 | 2198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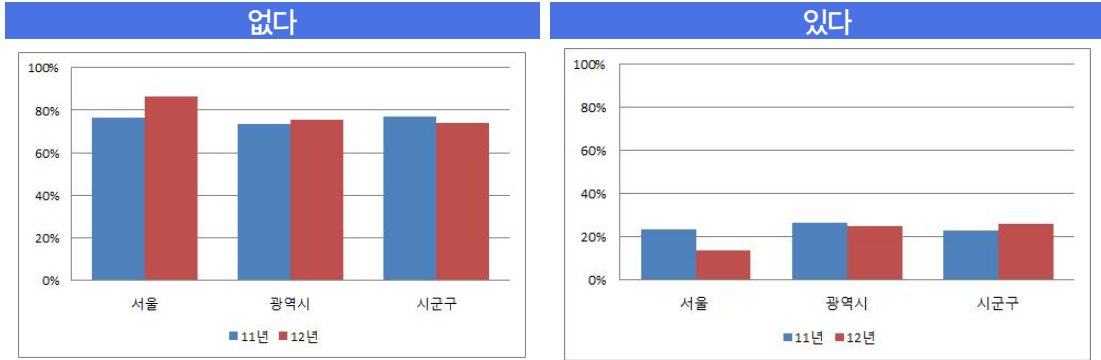


【그림 V-2】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성별)

표 V-2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성별)

| 항목 | | 없다 | | 있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남자 | 사례수 | 768 | 704 | 417 | 432 | 1185 | 1136 |
| | 비율 | 64.8 | 62.0 | 35.2 | 38.0 | 100 | 100 |
| 여자 | 사례수 | 973 | 985 | 121 | 78 | 1094 | 1063 |
| | 비율 | 88.9 | 92.7 | 11.1 | 7.3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1741 | 1689 | 538 | 510 | 2279 | 2199 |
| | 비율 | 76.4 | 76.8 | 23.6 | 23.2 | 100 | 100 |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자의 경우 2011년 성인용 매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35.2%인 반면 여자의 경우 11.1%로 세배 이상 낮다. 2012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사용 경험 응답률이 38%, 여자 청소년의 경우 7.3%로 남자 청소년이 5배 이상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년도 대비 여자 청소년은 감소하는 경향을 남자 청소년들에게서는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표 V-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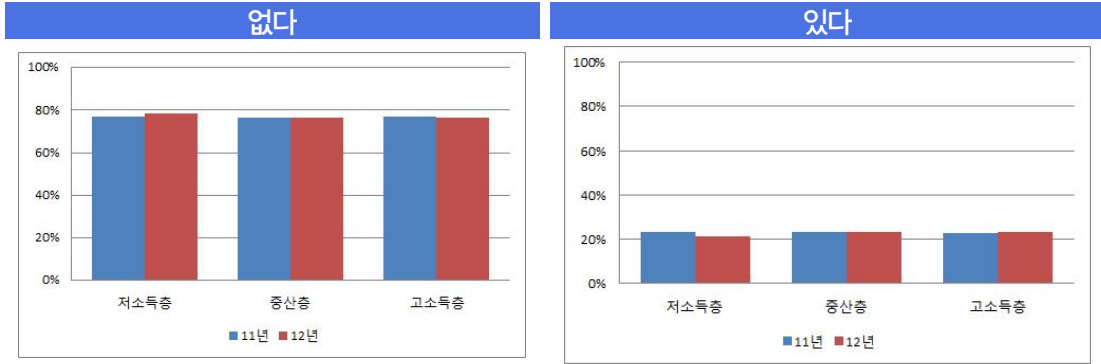


【그림 V-3】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지역별)

표 V-3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지역별)

| 항목 | | 없다 | | 있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서울 | 사례수 | 288 | 310 | 88 | 49 | 376 | 359 |
| | 비율 | 76.6 | 86.4 | 23.4 | 13.6 | 100 | 100 |
| 광역시 | 사례수 | 435 | 443 | 157 | 144 | 592 | 587 |
| | 비율 | 73.5 | 75.5 | 26.5 | 24.5 | 100 | 100 |
| 시군구 | 사례수 | 934 | 862 | 276 | 303 | 1210 | 1165 |
| | 비율 | 77.2 | 74.0 | 22.8 | 26.0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1657 | 1615 | 521 | 496 | 2178 | 2111 |
| | 비율 | 76.1 | 76.5 | 23.9 | 23.5 | 100 | 100 |

지역별 규모에 따른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른 성인용 매체 사용 경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전년도 대비 상당히 감소되었지만(2011년 23.4%에서 2012년 13.6%) 광역시는 소폭 감소하였으며(2011년 26.5%에서 2012년 25.5%), 시군구는 2011년 22.8%에서 2012년 26%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표 V-3>.



【그림 V-4】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소득별)

표 V-4 중1 패널의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소득별)

| 항목 | | 없다 | | 있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사례수 | 321 | 320 | 97 | 87 | 418 | 407 |
| | 비율 | 76.8 | 78.6 | 23.2 | 21.4 | 100 | 100 |
| 중산층 | 사례수 | 1027 | 989 | 311 | 303 | 1338 | 1292 |
| | 비율 | 76.8 | 76.5 | 23.2 | 23.5 | 100 | 100 |
| 고소득층 | 사례수 | 303 | 285 | 90 | 87 | 393 | 372 |
| | 비율 | 77.1 | 76.6 | 22.9 | 23.4 | 100 | 100 |
| 전체 | 사례수 | 1651 | 1594 | 498 | 477 | 2149 | 2071 |
| | 비율 | 76.8 | 77.0 | 23.2 | 23.0 | 100 | 100 |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성인용 매체 사용 경험 조사결과에서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2011년의 사이버 비행 경험 비율이 고소득층 청소년 22.9%, 중산층 청소년 23.2%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은 23.2%로 관찰되었다. 2012년의 경우 고소득층 청소년 23.4%, 중산층 청소년 23.5%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은 21.4%로 관찰되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 폭이 거의 없이 일정 수준의 비율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표 V-4>.

2) 중학생의 성인용 매체 몰입정도

성인용 매체 경험자의 매체 몰입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에 개발된 인터넷 중독 문항(김은정, 이세용, 오승근, 2003) 중 유해매체 관련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전체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여 성인용 매체 사용 경험정도를 알아보았다. 측정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성인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 ②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③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 한다 ④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⑤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⑥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다 ⑦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⑧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조사결과의 비교를 위해 성별, 지역별 및 소득별에 따른 빈도 및 비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성인매체 몰입도는 여성, 저소득층, 고소득층은 2학년에 비해 3학년 때 감소하였다<표 V-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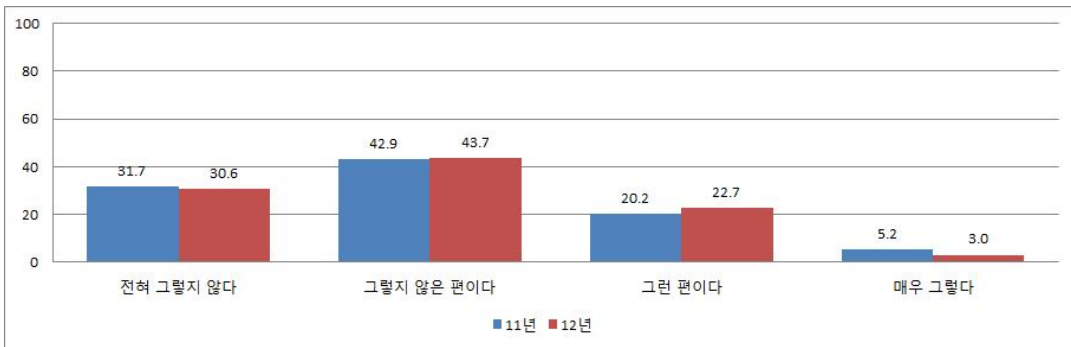
표 V-5 중1 패널의 성인매체 몰입도 변화

| 항목 | 2011년(중2) | | | 2012년(중3) |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 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 편차 | |
| 성별 | 남자 | 417 | 13.42 | 4.85 | 454 | 13.38 | 4.33 |
| | 여자 | 122 | 11.34 | 4.21 | 83 | 9.93 | 2.98 |
| | 합계 | 539 | 12.95 | 4.79 | 537 | 12.85 | 4.33 |
| 지역 | 서울 | 88 | 13.39 | 5.43 | 54 | 13.38 | 5.79 |
| | 광역시 | 157 | 13.12 | 4.54 | 145 | 13.23 | 4.35 |
| | 시군구 | 276 | 12.62 | 4.68 | 324 | 12.63 | 3.98 |
| | 합계 | 521 | 12.90 | 4.78 | 523 | 12.87 | 4.30 |
| 소득 | 저소득층 | 97 | 12.73 | 4.69 | 92 | 12.62 | 4.31 |
| | 중산층 | 311 | 12.96 | 4.83 | 315 | 13.03 | 4.49 |
| | 고소득층 | 91 | 13.14 | 4.91 | 98 | 12.69 | 3.84 |
| | 합계 | 499 | 12.95 | 4.81 | 506 | 12.89 | 4.33 |

각 문항별 세부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인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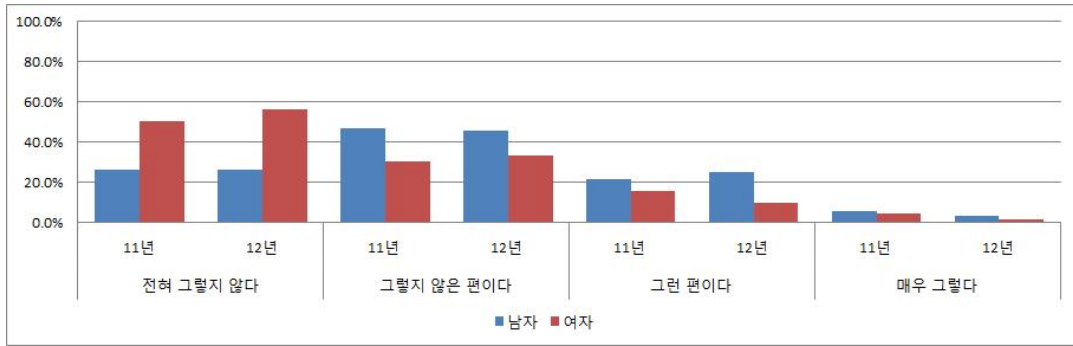
‘(성인용 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 문항에 대한 경험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V-6>.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0.2%, 5.2%이고 2012년 23.2%, 3%로 나타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림 V-5] 중1 패널- (성인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

표 V-6 중1 패널- (성인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171 | 31.7 | 165 | 30.6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31 | 42.9 | 236 | 43.7 |
| 그런 편이다 | 109 | 20.2 | 123 | 22.7 |
| 매우 그렇다 | 28 | 5.2 | 16 | 3.0 |
| 합계 | 539 | 100 | 54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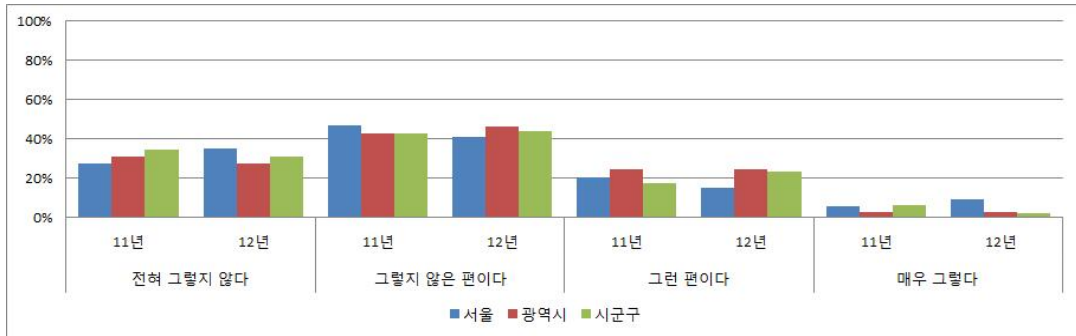


【그림 V-6】 중1 패널- (성인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성별)

표 V-7 중1 패널- (성인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성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 | N | 109 | 119 | 194 | 209 | 90 | 114 | 23 | 15 | 416 |
| | % | 26.2 | 26.0 | 46.6 | 45.7 | 21.6 | 24.9 | 5.5 | 3.3 | 100 | 100 |
| 여자 | N | 61 | 46 | 37 | 27 | 19 | 8 | 5 | 1 | 122 | 82 |
| | % | 50 | 56.1 | 30.3 | 32.9 | 15.6 | 9.8 | 4.1 | 1.2 | 100 | 100 |
| 전체 | N | 170 | 165 | 231 | 236 | 109 | 122 | 28 | 16 | 538 | 539 |
| | % | 31.6 | 30.6 | 42.9 | 43.8 | 20.3 | 22.6 | 5.2 | 3.0 | 100 | 100 |

배경 변인 별 분석에서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성별에 따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성인용 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표 V-7>. 남학생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21.6%, 5.5%이고 2012년 24.9%, 3.3%였으며, 여학생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15.6%, 4.1%이고 2012년 9.8%, 1.2%로 나타나 남녀 간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응답비율은 대폭 감소한 반면 남학생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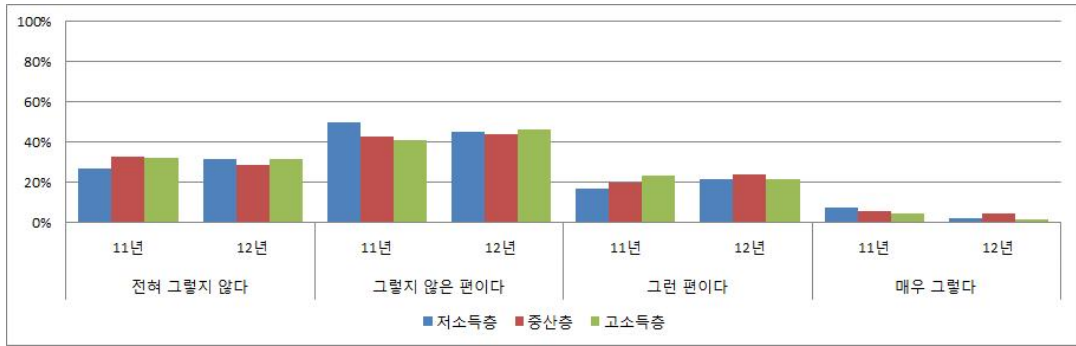


【그림 V-7】 중1 패널- (성인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지역별)

표 V-8 중1 패널- (성인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지역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서울 | N | 24 | 19 | 41 | 22 | 18 | 8 | 5 | 5 | 88 | 54 |
| | % | 27.3 | 35.2 | 46.6 | 40.7 | 20.5 | 14.8 | 5.7 | 9.3 | 100 | 100 |
| 광역시 | N | 48 | 40 | 67 | 68 | 38 | 36 | 4 | 4 | 157 | 148 |
| | % | 30.6 | 27.0 | 42.7 | 45.9 | 24.2 | 24.3 | 2.5 | 2.7 | 100 | 100 |
| 시군구 | N | 94 | 100 | 118 | 142 | 47 | 76 | 16 | 7 | 275 | 325 |
| | % | 34.2 | 30.8 | 42.9 | 43.7 | 17.1 | 23.4 | 5.8 | 2.2 | 100 | 100 |
| 전체 | N | 166 | 159 | 226 | 232 | 103 | 120 | 25 | 16 | 520 | 527 |
| | % | 31.9 | 30.2 | 43.5 | 44.0 | 19.8 | 22.8 | 4.8 | 3.0 | 100 | 100 |

지역별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라 정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성인용 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V-8>.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의 경우 2011년 20.5%, 5.7%, 2012년 14.8%, 9.3%이고 광역시는 2011년 24.2%, 2.5%, 2012년 24.3%, 2.7%였으며 시군구는 2011년 17.1%, 5.8%, 2012년 23.4%, 2.2%로 나타나 지역 규모 별 별다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V-8] 중1 패널- (성인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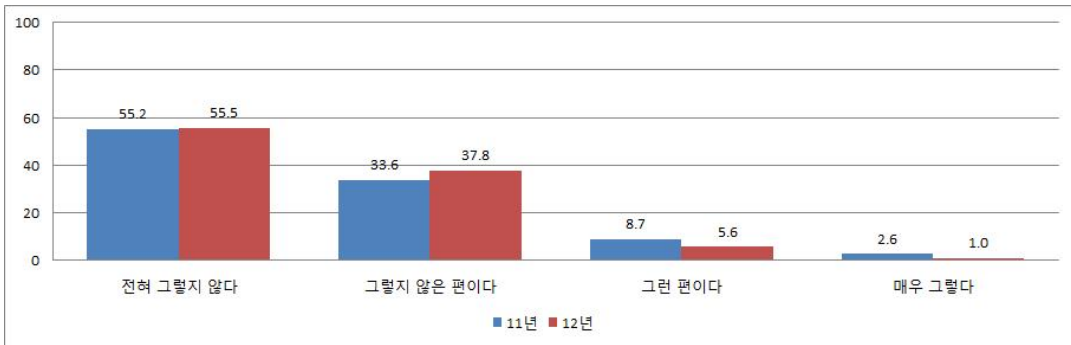
표 V-9 중1 패널- (성인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소득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 | N | 26 | 29 | 48 | 42 | 16 | 20 | 7 | 2 | 97 |
| 저소득층 | % | 26.8 | 31.2 | 49.5 | 45.2 | 16.5 | 21.5 | 7.2 | 2.2 | 100 | 100 |
| 중산층 | N | 101 | 90 | 132 | 140 | 60 | 75 | 17 | 13 | 310 | 318 |
| | % | 32.6 | 28.3 | 42.6 | 44.0 | 19.4 | 23.6 | 5.5 | 4.1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29 | 31 | 37 | 45 | 21 | 21 | 4 | 1 | 91 | 98 |
| | % | 31.9 | 31.6 | 40.7 | 45.9 | 23.1 | 21.4 | 4.4 | 1.0 | 100 | 100 |
| 전체 | N | 156 | 150 | 217 | 227 | 97 | 116 | 28 | 16 | 498 | 509 |
| | % | 31.3 | 29.5 | 43.6 | 44.6 | 19.5 | 22.8 | 5.6 | 3.1 | 100 | 100 |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 '성인용 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표 V-9>.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층은 2011년 16.5%, 7.2%, 2012년 21.5%, 2.2%이고 중산층은 2011년 19.4%, 5.5%, 2012년 23.6%, 4.1%였으며 고소득층은 2011년 23.1%, 4.4%, 2012년 21.4%, 1%로 나타나 소득 수준 별 다소 간 증감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고소득층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고, 저소득층 과 중산층은 '그런 편이다' 다소 증가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② 성인용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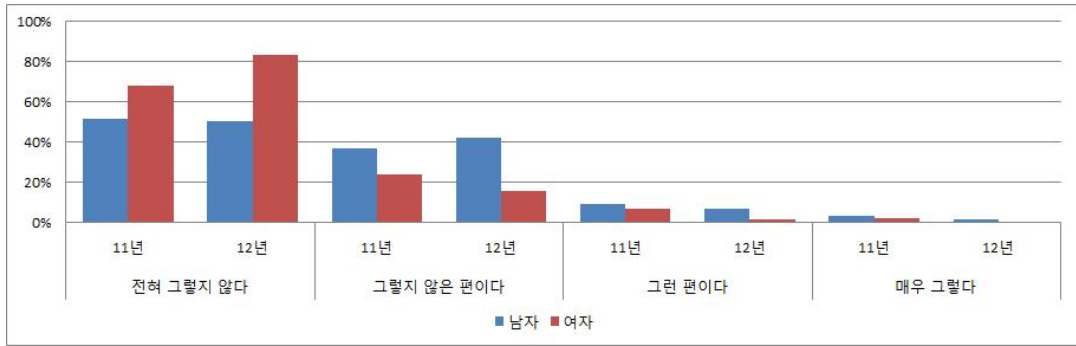
‘성인용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문항에 대한 경험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V-10>.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8.7%, 2.6%이고 2012년 5.6%, 1.0%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림 V-9】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표 V-10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297 | 55.2 | 300 | 55.5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81 | 33.6 | 204 | 37.8 |
| 그런 편이다 | 47 | 8.7 | 30 | 5.6 |
| 매우 그렇다 | 14 | 2.6 | 6 | 1.0 |
| 합계 | 539 | 100 | 54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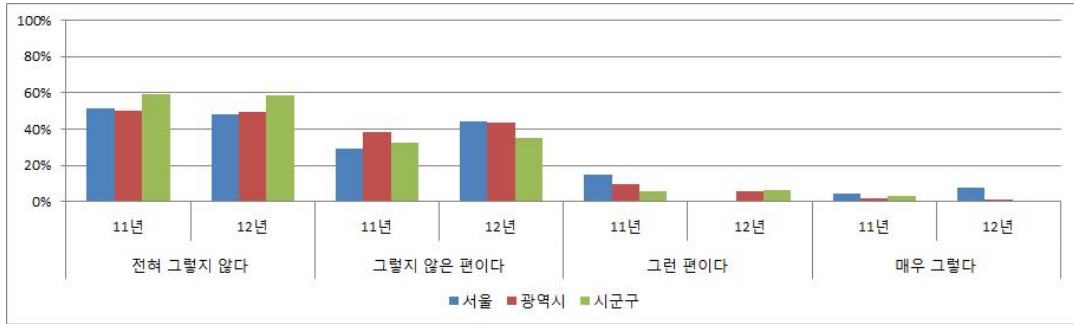


【그림 V-10】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성별)

표 V-11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성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자 | N | 214 | 230 | 152 | 191 | 38 | 30 | 12 | 6 | 416 | 457 |
| | % | 51.4 | 50.3 | 36.5 | 41.8 | 9.1 | 6.6 | 2.9 | 1.3 | 100 | 100 |
| 여자 | N | 83 | 70 | 29 | 13 | 8 | 1 | 2 | 0 | 122 | 84 |
| | % | 68.0 | 83.3 | 23.8 | 15.5 | 6.6 | 1.2 | 1.6 | 0 | 100 | 100 |
| 전체 | N | 297 | 300 | 181 | 204 | 46 | 31 | 14 | 6 | 538 | 541 |
| | % | 55.2 | 55.5 | 33.6 | 37.7 | 8.6 | 5.7 | 2.6 | 1.1 | 100 | 100 |

배경 변인 별 분석에서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성별에 따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성인용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표 V-1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비율이 2011년 9.1%, 2.9%이고 2012년 6.6%, 1.3%였으며, 여학생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6%, 1.6%이고 2012년 1.2%, 0%로 나타나 남녀 간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응답비율은 대폭 감소하였고 남학생은 소폭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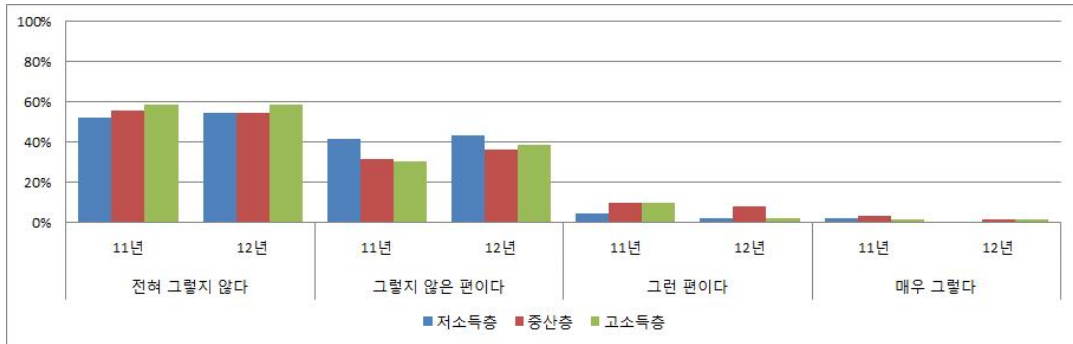


【그림 V-11】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지역별)

표 V-12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지역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46 | 26 | 26 | 24 | 13 | 0 | 4 | 4 | 89 | 54 |
| | % | 51.7 | 48.1 | 29.2 | 44.4 | 14.6 | 0 | 4.5 | 7.4 | 100 | 100 |
| 광역시 | N | 79 | 73 | 60 | 64 | 15 | 8 | 3 | 2 | 157 | 147 |
| | % | 50.3 | 49.7 | 38.2 | 43.5 | 9.6 | 5.4 | 1.9 | 1.4 | 100 | 100 |
| 시군구 | N | 163 | 190 | 89 | 114 | 16 | 21 | 8 | 0 | 276 | 325 |
| | % | 59.1 | 58.5 | 32.2 | 35.1 | 5.8 | 6.5 | 2.9 | 0 | 100 | 100 |
| 전체 | N | 288 | 289 | 175 | 202 | 44 | 29 | 15 | 6 | 522 | 526 |
| | % | 55.2 | 54.9 | 33.5 | 38.4 | 8.4 | 5.5 | 2.9 | 1.1 | 100 | 100 |

지역별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라 정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성인용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V-12>.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의 경우 2011년 14.6%, 4.5%, 2012년 0%, 7.4%이고 광역시는 2011년 9.6%, 1.9%, 2012년 5.4%, 1.4%였으며 시군구는 2011년 5.8%, 2.9%, 2012년 6.5%, 0%로 나타나 지역 규모 별 다소 간 증감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광역시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고, 서울은 '그런 편이다' 대폭 감소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증가했으며 시군구는 '그런 편이다' 약간 증가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V-12】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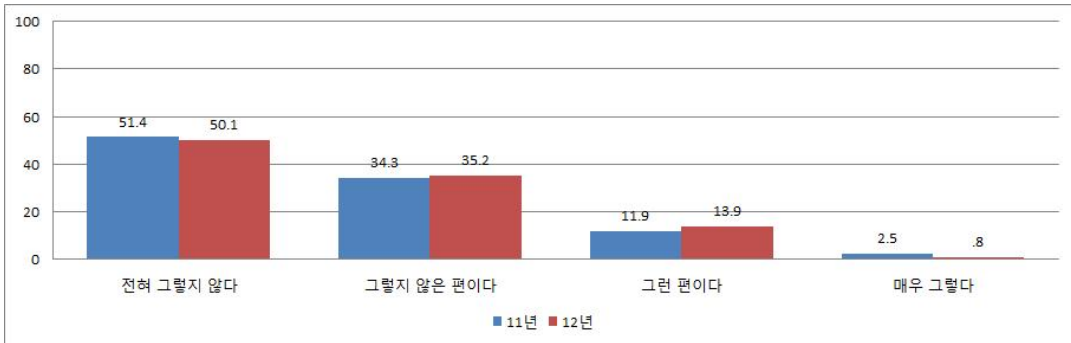
표 V-13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소득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 50 | 50 | 40 | 4 | 2 | 2 | 0 | 96 | 92 | 52.1 | 54.3 | |
| | 173 | 173 | 98 | 116 | 30 | 25 | 9 | 5 | 310 | 319 | 55.8 | 54.2 |
| 중산층 | 54 | 58 | 28 | 38 | 9 | 2 | 1 | 1 | 92 | 99 | 58.7 | 58.6 |
| | 277 | 281 | 166 | 194 | 43 | 29 | 12 | 6 | 498 | 510 | 55.6 | 55.1 |
| 고소득층 | 277 | 281 | 166 | 194 | 43 | 29 | 12 | 6 | 498 | 510 | 33.3 | 38.0 |
| | 277 | 281 | 166 | 194 | 43 | 29 | 12 | 6 | 498 | 510 | 8.6 | 5.7 |
| 전체 | 277 | 281 | 166 | 194 | 43 | 29 | 12 | 6 | 498 | 510 | 2.4 | 1.2 |
| | 277 | 281 | 166 | 194 | 43 | 29 | 12 | 6 | 498 | 510 | 100 | 100 |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 '성인용 매체를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표 V-13>.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층은 2011년 4.2%, 2.1%, 2012년 2.2%, 0%이고 중산층은 2011년 9.7%, 2.9%, 2012년 7.8%, 1.6%였으며 고소득층은 2011년 9.8%, 1.1%, 2012년 2%, 1%로 나타나 소득 수준 별 다소 간 증감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고소득층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고, 저소득층과 중산층도 일정 정도 그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③ 성인용 매체를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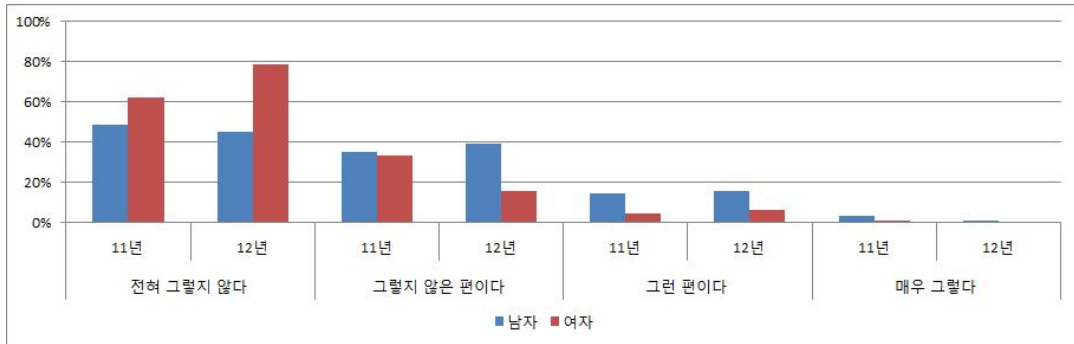
‘성인용 매체를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 한다’ 문항에 대한 경험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V-14>.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11.9%, 2.5%이고 2012년 13.9%, 0.8%로 나타나 별 다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V-13]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

표 V-14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277 | 51.4 | 271 | 50.1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85 | 34.3 | 190 | 35.2 |
| 그런 편이다 | 64 | 11.9 | 75 | 13.9 |
| 매우 그렇다 | 13 | 2.5 | 4 | 0.8 |
| 합계 | 539 | 100 | 54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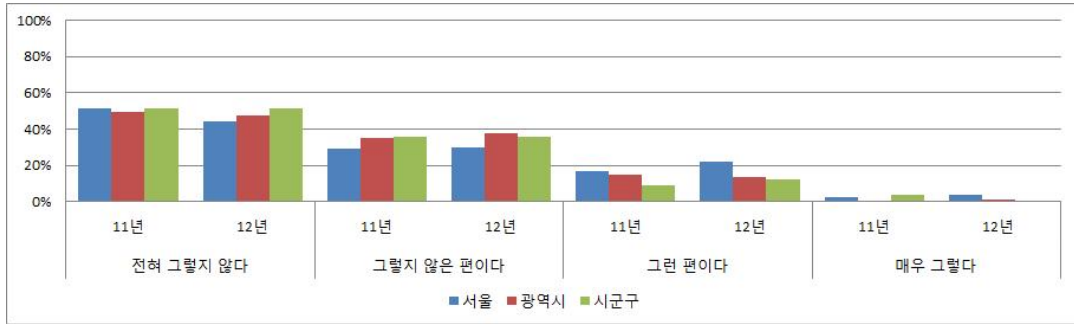


【그림 V-14】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성별)

표 V-15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성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202 | 205 | 145 | 177 | 59 | 70 | 12 | 4 | 418 | 456 |
| | % | 48.3 | 45.0 | 34.7 | 38.8 | 14.1 | 15.4 | 2.9 | .9 | 100 | 100 |
| 여자 | N | 75 | 66 | 40 | 13 | 5 | 5 | 1 | 0 | 121 | 84 |
| | % | 62.0 | 78.6 | 33.1 | 15.5 | 4.1 | 6.0 | .8 | 0 | 100 | 100 |
| 전체 | N | 277 | 271 | 185 | 190 | 64 | 75 | 13 | 4 | 539 | 540 |
| | % | 51.4 | 50.2 | 34.3 | 35.2 | 11.9 | 13.9 | 2.4 | .7 | 100 | 100 |

배경 변인 별 분석에서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성별에 따른 응답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성인용 매체를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 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표 V-15>.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비율이 2011년 14.1%, 2.9%이고 2012년 15.4%, 0.9%였으며, 여학생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4.1%, 0.8%이고 2012년 6%, 0%로 나타나 남녀 간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학년의 증가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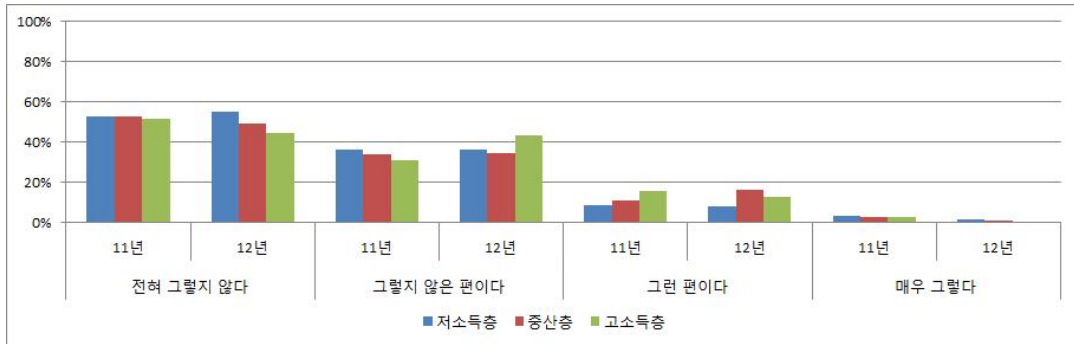


【그림 V-15】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지역별)

표 V-16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지역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46 | 24 | 26 | 16 | 15 | 12 | 2 | 2 | 89 | 54 |
| | % | 51.7 | 44.4 | 29.2 | 29.6 | 16.9 | 22.2 | 2.2 | 3.7 | 100 | 100 |
| 광역시 | N | 78 | 70 | 55 | 56 | 23 | 20 | 1 | 2 | 157 | 148 |
| | % | 49.7 | 47.3 | 35.0 | 37.8 | 14.6 | 13.5 | .6 | 1.4 | 100 | 100 |
| 시군구 | N | 141 | 168 | 99 | 116 | 25 | 40 | 10 | 1 | 275 | 325 |
| | % | 51.3 | 51.7 | 36.0 | 35.7 | 9.1 | 12.3 | 3.6 | .3 | 100 | 100 |
| 전체 | N | 265 | 262 | 180 | 188 | 63 | 72 | 13 | 5 | 521 | 527 |
| | % | 50.9 | 49.7 | 34.5 | 35.7 | 12.1 | 13.7 | 2.5 | .9 | 100 | 100 |

지역별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라 정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성인용 매체를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V-16>.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의 경우 2011년 16.9%, 2.2%, 2012년 22.2%, 3.7%이고 광역시는 2011년 14.6%, 0.6%, 2012년 13.5%, 1.4%였으며 시군구는 2011년 9.1%, 3.6%, 2012년 12.3%, 0.3%로 나타나 지역 규모에 따른 다소 간 증감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고, 광역시는 ‘그런 편이다’는 소폭으로 감소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폭 증가했으며 시군구는 ‘그런 편이다’는 약간 증가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V-16】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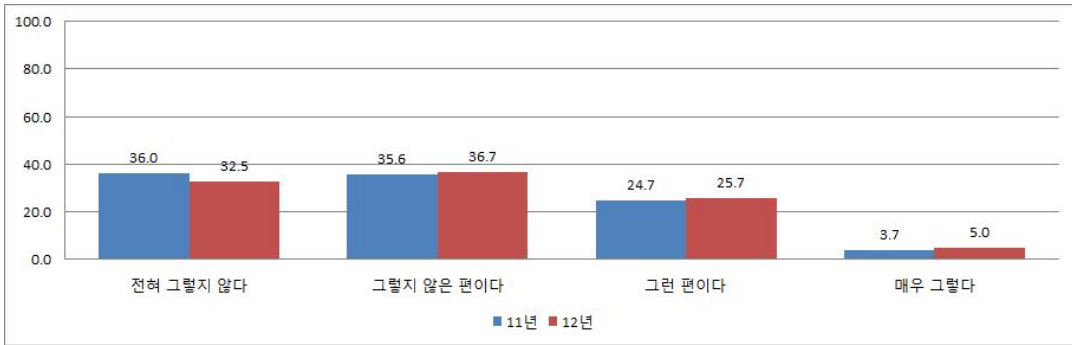
표 V-17 중1 패널-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소득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51 | 50 | 35 | 33 | 8 | 7 | 3 | 1 | 97 | 91 |
| | % | 52.6 | 54.9 | 36.1 | 36.3 | 8.2 | 7.7 | 3.1 | 1.1 | 100 | 100 |
| 중산층 | N | 164 | 156 | 105 | 109 | 34 | 51 | 8 | 2 | 311 | 318 |
| | % | 52.7 | 49.1 | 33.8 | 34.3 | 10.9 | 16.0 | 2.6 | .6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47 | 43 | 28 | 42 | 14 | 12 | 2 | 0 | 91 | 97 |
| | % | 51.6 | 44.3 | 30.8 | 43.3 | 15.4 | 12.4 | 2.2 | 0 | 100 | 100 |
| 전체 | N | 262 | 249 | 168 | 184 | 56 | 70 | 13 | 3 | 499 | 506 |
| | % | 52.5 | 49.2 | 33.7 | 36.4 | 11.2 | 13.8 | 2.6 | .6 | 100 | 100 |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 ‘성인용 매체를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사용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표 V-17>.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층은 2011년 8.2%, 3.1%, 2012년 7.7%, 1.1%이고 중산층은 2011년 10.9%, 2.6%, 2012년 16%, 0.6%였으며 고소득층은 2011년 15.4%, 2.2%, 2012년 12.4%, 0%로 나타나 소득 수준 별 다소 간 증감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정정도 그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지만, 중산층은 ‘그런 편이다’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④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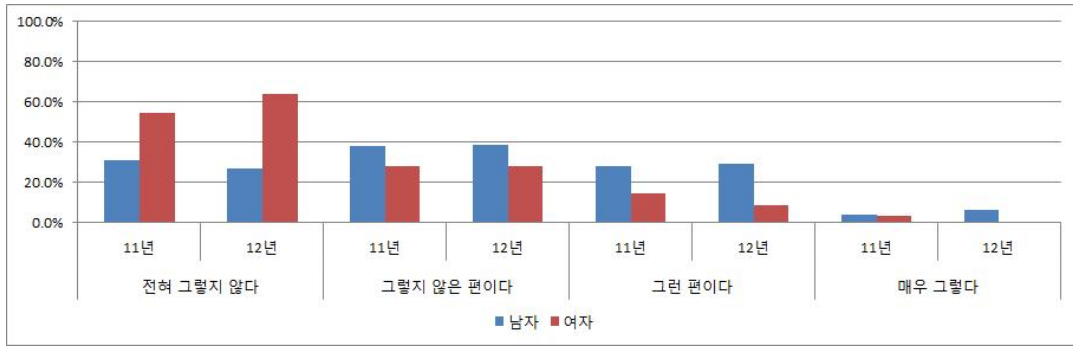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문항에 대한 경험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서로 비슷하게 관찰되었다<표 V-18>.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4.7%, 3.7%이고 2012년 25.7%, 5%로 나타나 학년의 증가에 따른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V-17】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표 V-18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194 | 36.0 | 175 | 32.5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92 | 35.6 | 198 | 36.7 |
| 그런 편이다 | 133 | 24.7 | 138 | 25.7 |
| 매우 그렇다 | 20 | 3.7 | 27 | 5.0 |
| 합계 | 539 | 100 | 538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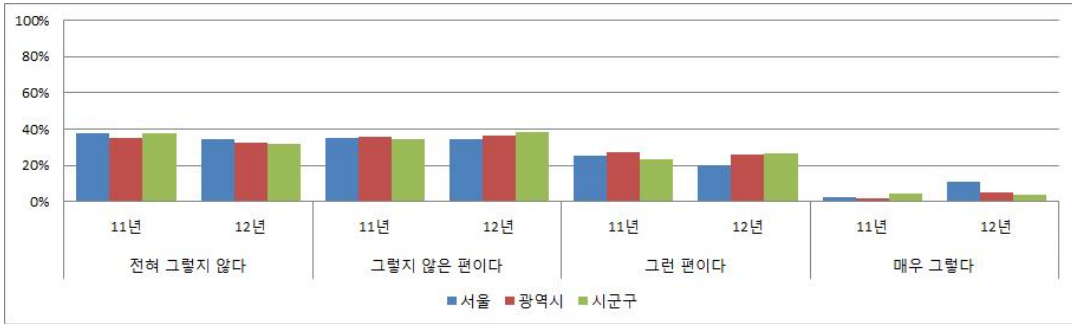


【그림 V-18】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성별)

표 V-19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성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 | N | 128 | 122 | 158 | 174 | 116 | 132 | 15 | 27 | 417 |
| 남자 | % | 30.7 | 26.8 | 37.9 | 38.2 | 27.8 | 29.0 | 3.6 | 5.9 | 100 | 100 |
| 여자 | N | 66 | 53 | 34 | 23 | 17 | 7 | 4 | 0 | 121 | 83 |
| | % | 54.5 | 63.9 | 28.1 | 27.7 | 14.0 | 8.4 | 3.3 | 0 | 100 | 100 |
| 전체 | N | 194 | 175 | 192 | 197 | 133 | 139 | 19 | 27 | 538 | 538 |
| | % | 36.1 | 32.5 | 35.7 | 36.6 | 24.7 | 25.8 | 3.5 | 5.0 | 100 | 100 |

배경 변인 별 분석에서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성별에 따른 응답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는 문항에 남학생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V-19>.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비율이 2011년 27.8%, 3.6%이고 2012년 29%, 5.9%였으며, 여학생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14%, 3.3%이고 2012년 8.4%, 0%로 나타나 여학생의 응답비율이 현저히 낮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응답비율은 대폭 감소하고 남학생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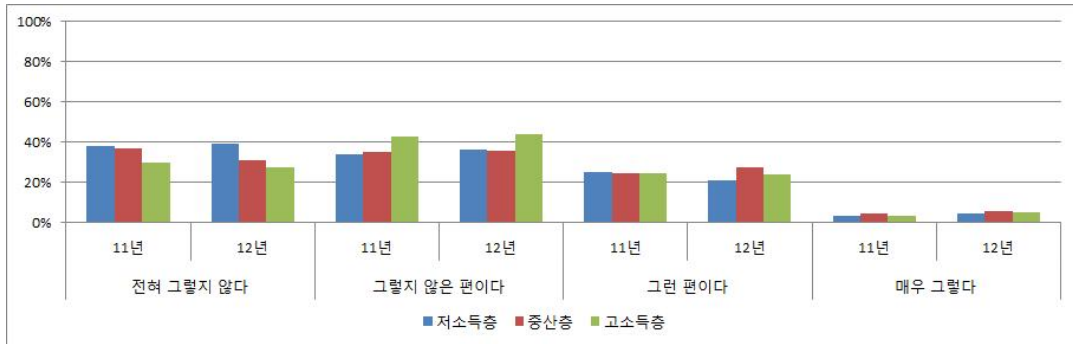


【그림 V-19】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지역별)

표 V-20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지역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33 | 19 | 31 | 19 | 22 | 11 | 2 | 6 | 88 | 55 |
| | % | 37.5 | 34.5 | 35.2 | 34.5 | 25.0 | 20.2 | 2.3 | 10.9 | 100 | 100 |
| 광역시 | N | 55 | 47 | 56 | 53 | 43 | 38 | 3 | 7 | 157 | 145 |
| | % | 35.0 | 32.4 | 35.7 | 36.6 | 27.4 | 26.2 | 1.9 | 4.8 | 100 | 100 |
| 시군구 | N | 104 | 103 | 95 | 124 | 64 | 86 | 13 | 12 | 276 | 325 |
| | % | 37.7 | 31.7 | 34.4 | 38.2 | 23.2 | 26.5 | 4.7 | 3.7 | 100 | 100 |
| 전체 | N | 192 | 169 | 182 | 196 | 129 | 135 | 18 | 25 | 521 | 525 |
| | % | 36.9 | 32.2 | 34.9 | 37.3 | 24.8 | 25.7 | 3.5 | 4.8 | 100 | 100 |

지역별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라 정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V-20>.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2011년 25%, 23%, 2012년 20.2%, 10.9%이고 광역시는 2011년 27.4%, 1.9%, 2012년 26.2%, 4.8%였으며 시군구는 2011년 23.2%, 4.7%, 2012년 26.5%, 3.7%로 나타나 지역 규모에 따른 다소 간 증감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서울시와 광역시의 경우 ‘그런 편이다’는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했으며 시군구는 ‘그런 편이다’는 약간 증가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V-20】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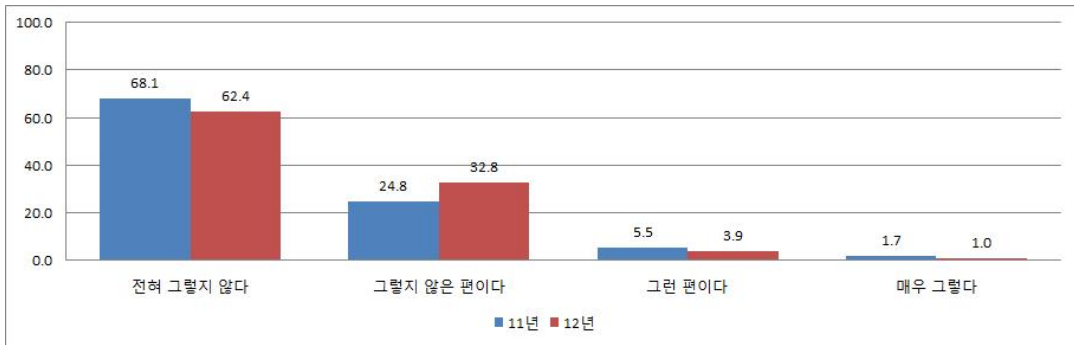
표 V-21 중1 패널-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소득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 | N | 37 | 36 | 33 | 33 | 24 | 19 | 3 | 4 | 97 |
| 저소득층 | % | 38.1 | 39.1 | 34.0 | 35.9 | 24.7 | 20.7 | 3.1 | 4.3 | 100 | 100 |
| 중산층 | N | 114 | 98 | 108 | 113 | 75 | 87 | 14 | 18 | 311 | 316 |
| | % | 36.7 | 31.0 | 34.7 | 35.8 | 24.1 | 27.5 | 4.5 | 5.7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27 | 27 | 39 | 43 | 22 | 23 | 3 | 5 | 91 | 98 |
| | % | 29.7 | 27.6 | 42.9 | 43.9 | 24.2 | 23.5 | 3.3 | 5.1 | 100 | 100 |
| 전체 | N | 178 | 161 | 180 | 189 | 121 | 129 | 20 | 27 | 499 | 506 |
| | % | 35.7 | 31.8 | 36.1 | 37.4 | 24.2 | 25.5 | 4.0 | 5.3 | 100 | 100 |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 '성인용 매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표 V-2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층은 2011년 24.7%, 3.1%, 2012년 20.7%, 4.3%이고 중산층은 2011년 24.1%, 4.5%, 2012년 27.5%, 5.7%였으며 고소득층은 2011년 24.2%, 3.3%, 2012년 23.5%, 5.1%로 나타나 소득 수준 별 다소 간 증감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서 소폭으로 증가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증감에 있어 일정정도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⑤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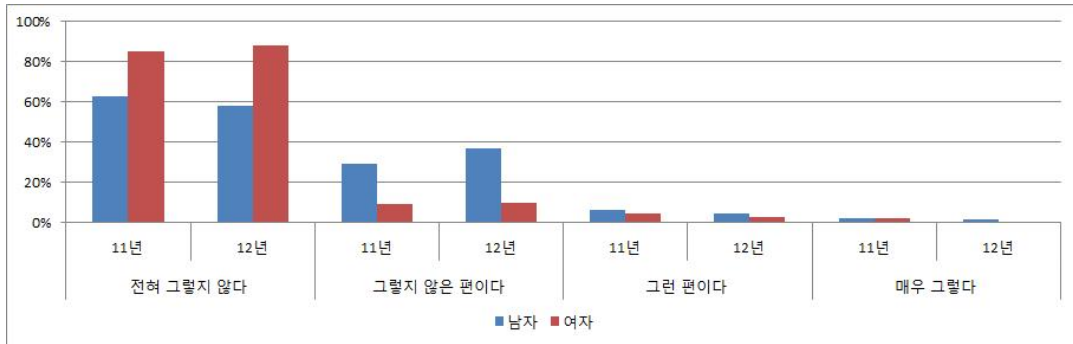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문항에 대한 경험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V-22>.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5%, 1.7%이고 2012년 3.9%, 1.0%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림 V-21】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표 V-22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367 | 68.1 | 337 | 62.4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34 | 24.8 | 177 | 32.8 |
| 그런 편이다 | 30 | 5.5 | 21 | 3.9 |
| 매우 그렇다 | 9 | 1.7 | 5 | 1.0 |
| 합계 | 539 | 100 | 54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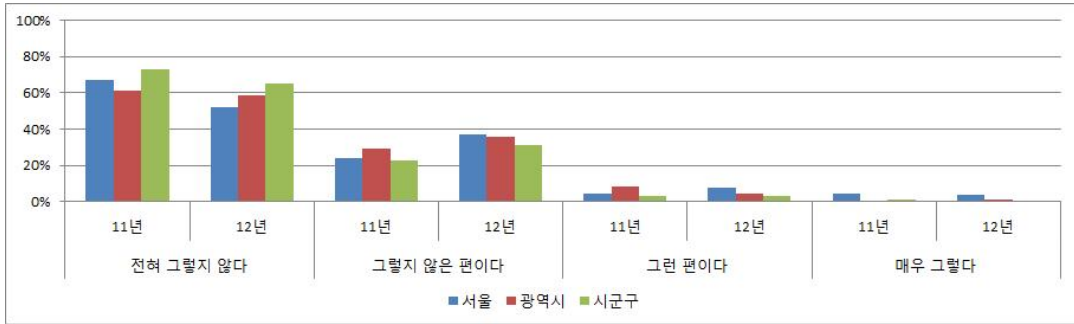


【그림 V-22】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성별)

표 V-23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성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자 | N | 262 | 264 | 122 | 169 | 25 | 19 | 7 | 5 | 416 | 457 |
| | % | 63.0 | 57.8 | 29.3 | 37.0 | 6.0 | 4.2 | 1.7 | 1.1 | 100 | 100 |
| 여자 | N | 104 | 73 | 11 | 8 | 5 | 2 | 2 | 0 | 122 | 83 |
| | % | 85.2 | 88.0 | 9.0 | 9.6 | 4.1 | 2.4 | 1.6 | 0 | 100 | 100 |
| 전체 | N | 366 | 337 | 133 | 177 | 30 | 21 | 9 | 5 | 538 | 540 |
| | % | 68.0 | 62.4 | 24.7 | 32.8 | 5.6 | 3.9 | 1.7 | .9 | 100 | 100 |

배경 변인 별 분석에서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성별에 따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표 V-23>.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비율이 2011년 6%, 1.7%이고 2012년 4.2%, 1.1%였으며, 여학생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1%, 1.6%이고 2012년 2.4%, 0%로 나타나 남녀 간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여학생의 응답비율이 다소 낮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과 남학생의 응답비율이 대폭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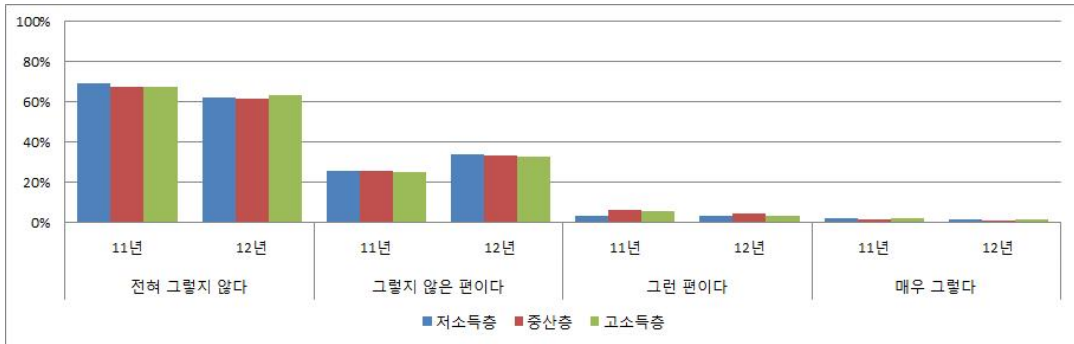


【그림 V-23】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지역별)

표 V-24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지역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59 | 28 | 21 | 20 | 4 | 4 | 4 | 2 | 88 | 54 |
| | % | 67.0 | 51.9 | 23.9 | 37.0 | 4.5 | 7.4 | 4.5 | 3.7 | 100 | 100 |
| 광역시 | N | 96 | 86 | 46 | 53 | 13 | 6 | 1 | 2 | 156 | 147 |
| | % | 61.5 | 58.5 | 29.5 | 36.1 | 8.3 | 4.1 | .6 | 1.4 | 100 | 100 |
| 시군구 | N | 201 | 212 | 62 | 102 | 9 | 9 | 4 | 2 | 276 | 325 |
| | % | 72.8 | 65.2 | 22.5 | 31.4 | 3.3 | 2.8 | 1.4 | .6 | 100 | 100 |
| 전체 | N | 356 | 326 | 129 | 175 | 26 | 19 | 9 | 6 | 520 | 526 |
| | % | 68.5 | 62.0 | 24.8 | 33.3 | 5.0 | 3.6 | 1.7 | 1.1 | 100 | 100 |

지역별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라 정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V-24>.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의 경우 2011년 4.5%, 4.5%, 2012년 7.4%, 3.7%이고 광역시는 2011년 8.3%, 0.6%, 2012년 4.1%, 1.4%였으며 시군구는 2011년 3.3%, 1.4%, 2012년 2.8%, 0.6%로 나타나 지역 규모 별 다소 간 증감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시군구의 경우 학년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고, 서울은 ‘그런 편이다’는 다소 증가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폭으로 감소했으며 광역시는 ‘그런 편이다’는 대폭 감소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증가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V-24】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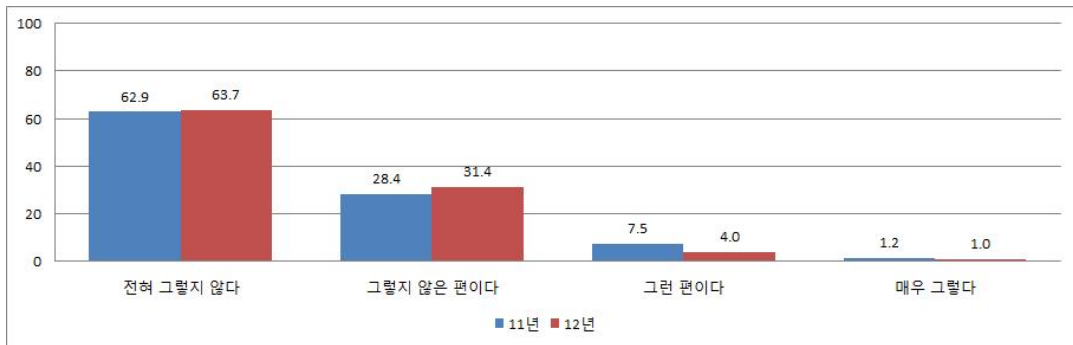
표 V-25 중1 패널-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소득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 | N | 68 | 57 | 25 | 31 | 3 | 3 | 2 | 1 | 98 |
| | % | 69.4 | 62.0 | 25.5 | 33.7 | 3.1 | 3.3 | 2.0 | 1.1 | 100 | 100 |
| 저소득층 | N | 209 | 196 | 79 | 105 | 19 | 14 | 4 | 3 | 311 | 318 |
| | % | 67.2 | 61.6 | 25.4 | 33.0 | 6.1 | 4.4 | 1.3 | .9 | 100 | 100 |
| 중산층 | N | 62 | 62 | 23 | 32 | 5 | 3 | 2 | 1 | 92 | 98 |
| | % | 67.4 | 63.3 | 25.0 | 32.7 | 5.4 | 3.1 | 2.2 | 1.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339 | 315 | 127 | 168 | 27 | 20 | 8 | 5 | 501 | 508 |
| | % | 67.7 | 62.0 | 25.3 | 33.1 | 5.4 | 3.9 | 1.6 | 1.0 | 100 | 100 |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표 V-25>.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층은 2011년 3.1%, 2%, 2012년 3.3%, 1.1%이고 중산층은 2011년 6.1%, 1.3%, 2012년 4.4%, 0.9%였으며 고소득층은 2011년 5.4%, 2.2%, 2012년 3.1%, 1%로 나타나 소득 수준 별 다소 간 증감의 차이가 관찰되지만,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정정도 그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⑥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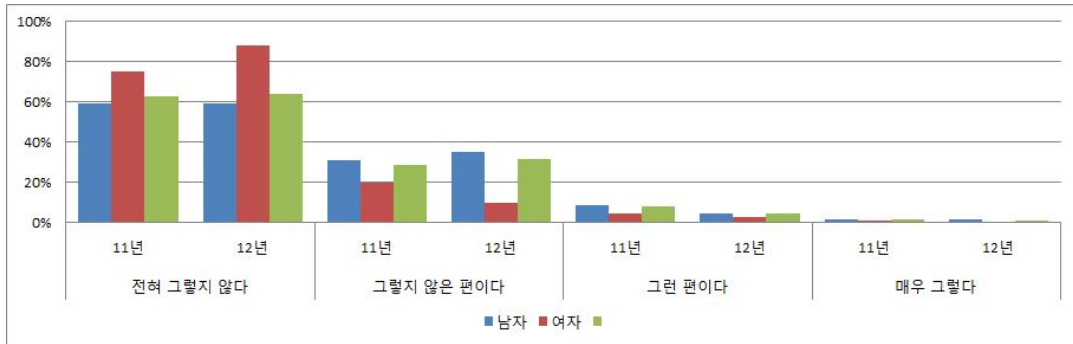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는 문항에 대한 경험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다<표 V-26>.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7.5%, 1.2%이고 2012년 4%, 1%로 나타나 학년의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V-25】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

표 V-26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339 | 62.9 | 344 | 63.7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53 | 28.4 | 169 | 31.4 |
| 그런 편이다 | 41 | 7.5 | 21 | 4.0 |
| 매우 그렇다 | 6 | 1.2 | 5 | 1.0 |
| 합계 | 539 | 100 | 54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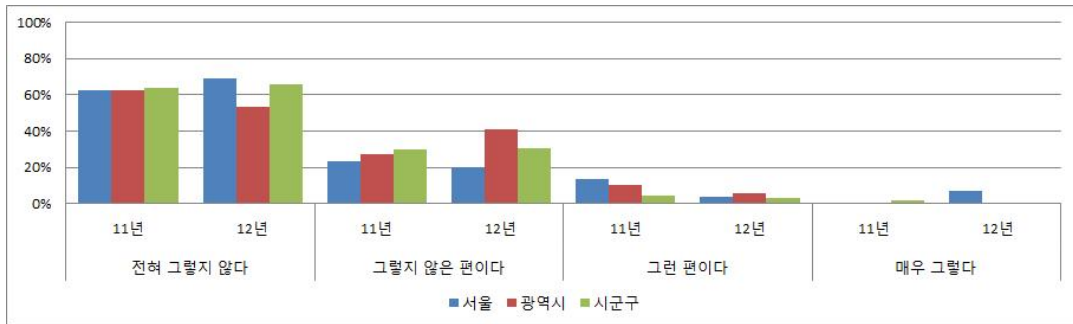


【그림 V-26】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성별)

표 V-27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성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 | N | 248 | 271 | 129 | 161 | 36 | 20 | 5 | 5 | 418 |
| 남자 | % | 59.3 | 59.3 | 30.9 | 35.2 | 8.6 | 4.4 | 1.2 | 1.1 | 100 | 100 |
| 여자 | N | 91 | 73 | 24 | 8 | 5 | 2 | 1 | 0 | 121 | 83 |
| | % | 75.2 | 88.0 | 19.8 | 9.6 | 4.1 | 2.4 | .8 | 0 | 100 | 100 |
| 전체 | N | 339 | 344 | 153 | 169 | 41 | 22 | 6 | 5 | 539 | 540 |
| | % | 62.9 | 63.7 | 28.4 | 31.3 | 7.6 | 4.1 | 1.1 | .9 | 100 | 100 |

배경 변인 별 분석에서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성별에 따른 응답 비율을 살펴본 결과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표 V-27>.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비율이 2011년 8.6%, 1.2%이고 2012년 4.4%, 1.1%였으며, 여학생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4.1%, 0.8%이고 2012년 2.4%, 0%로 나타나 여학생의 응답비율이 낮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응답비율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남학생도 다소 감소하는 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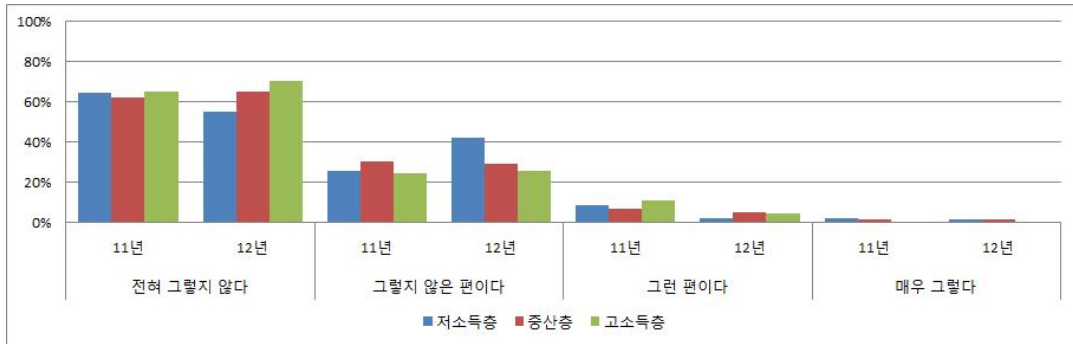


【그림 V-27】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지역별)

표 V-28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지역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56 | 38 | 21 | 11 | 12 | 2 | 0 | 4 | 89 | 55 |
| | % | 62.9 | 69.1 | 23.6 | 20 | 13.5 | 3.6 | 0 | 7.3 | 100 | 100 |
| 광역시 | N | 98 | 79 | 43 | 60 | 16 | 8 | 0 | 0 | 157 | 147 |
| | % | 62.4 | 53.7 | 27.4 | 40.8 | 10.2 | 5.4 | 0 | 0 | 100 | 100 |
| 시군구 | N | 177 | 215 | 82 | 99 | 12 | 10 | 5 | 1 | 276 | 325 |
| | % | 64.1 | 66.2 | 29.7 | 30.5 | 4.3 | 3.1 | 1.8 | .3 | 100 | 100 |
| 전체 | N | 331 | 332 | 146 | 170 | 40 | 20 | 5 | 5 | 522 | 527 |
| | % | 63.4 | 63.0 | 28.0 | 32.3 | 7.7 | 3.8 | 1.0 | .9 | 100 | 100 |

지역별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라 정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V-28>.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2011년 13.5%, 0%, 2012년 3.6%, 7.3%이고 광역시는 2011년 10.2%, 0%, 2012년 5.4%, 0%였으며 시군구는 2011년 4.3%, 1.8%, 2012년 3.1%, 0.3%로 나타나 지역 규모에 따른 다소 간 증감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그런 편이다’가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폭 증가했으며 광역시는 ‘그런 편이다’가 대폭 감소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며 시군구는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 모두에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림 V-28】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소득별)

표 V-29 중1 패널-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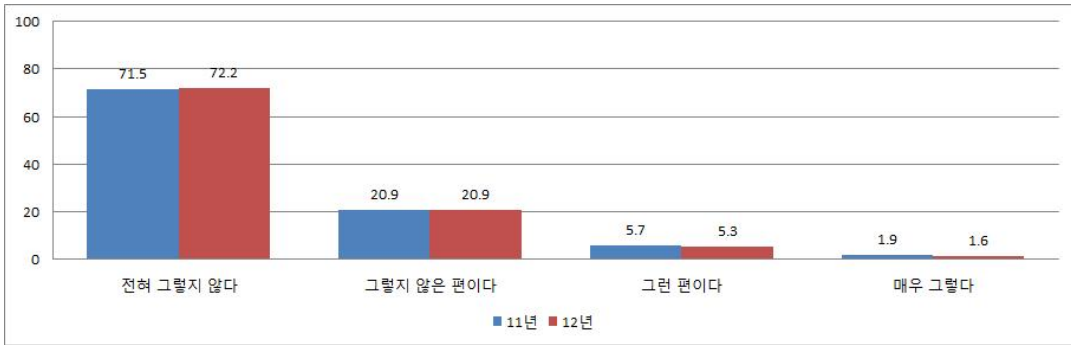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 | N | 63 | 51 | 25 | 39 | 8 | 2 | 2 | 1 | 98 |
| | % | 64.3 | 54.8 | 25.5 | 41.9 | 8.2 | 2.2 | 2.0 | 1.1 | 100 | 100 |
| 저소득층 | N | 192 | 207 | 93 | 92 | 21 | 15 | 4 | 4 | 310 | 318 |
| | % | 61.9 | 65.1 | 30 | 28.9 | 6.8 | 4.7 | 1.3 | 1.3 | 100 | 100 |
| 중산층 | N | 59 | 68 | 22 | 25 | 10 | 4 | 0 | 0 | 91 | 97 |
| | % | 64.8 | 70.1 | 24.2 | 25.8 | 11.0 | 4.1 | 0 | 0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314 | 326 | 140 | 156 | 39 | 21 | 6 | 5 | 499 | 508 |
| | % | 62.9 | 64.2 | 28.1 | 30.7 | 7.8 | 4.1 | 1.2 | 1.0 | 100 | 100 |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표 V-29>.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층은 2011년 8.2%, 2%, 2012년 2.2%, 1.1%이고 중산층은 2011년 6.8%, 1.3%, 2012년 4.7%, 1.3%였으며 고소득층은 2011년 11%, 0%, 2012년 4.1%, 0%로 나타나 소득 수준 별 다소 간 증감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소득층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⑦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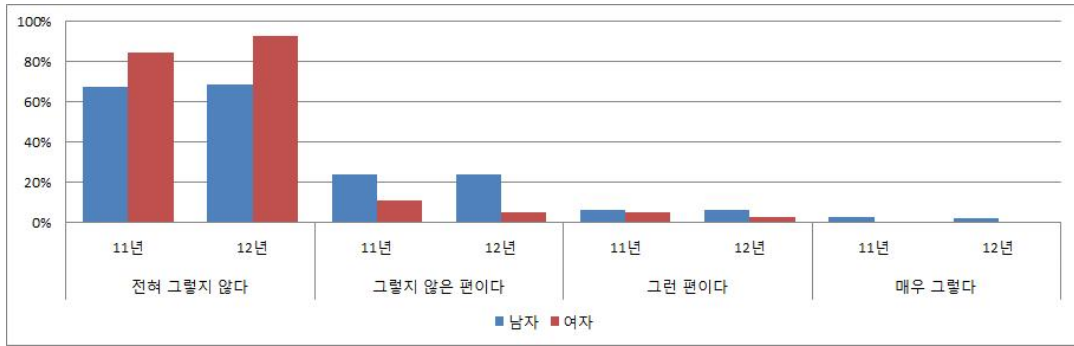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문항에 대한 경험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V-30>.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7%, 1.9%이고 2012년 5.3%, 1.6%로 나타나 별 다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V-29】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표 V-30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386 | 71.5 | 390 | 72.2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13 | 20.9 | 113 | 20.9 |
| 그런 편이다 | 31 | 5.7 | 29 | 5.3 |
| 매우 그렇다 | 10 | 1.9 | 8 | 1.6 |
| 합계 | 539 | 100 | 54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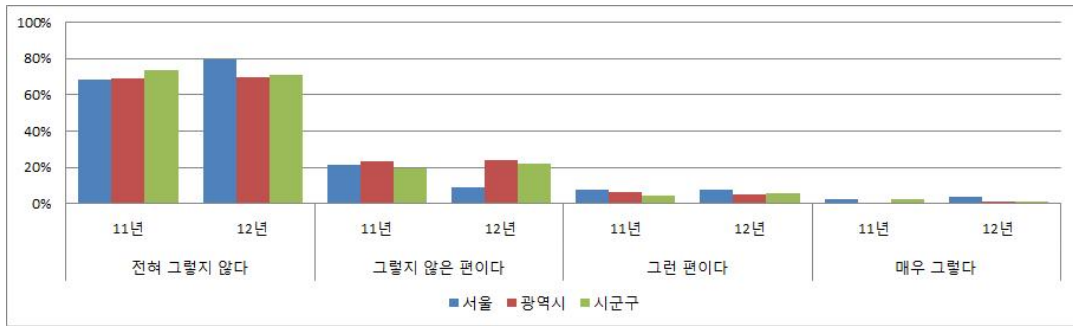


【그림 V-30】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성별)

표 V-31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성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283 | 313 | 100 | 109 | 25 | 27 | 10 | 8 | 418 | 457 |
| | % | 67.7 | 68.5 | 23.9 | 23.9 | 6.0 | 5.9 | 2.4 | 1.8 | 100 | 100 |
| 여자 | N | 103 | 77 | 13 | 4 | 6 | 2 | 0 | 0 | 122 | 83 |
| | % | 84.4 | 92.8 | 10.7 | 4.8 | 4.9 | 2.4 | 0 | 0 | 100 | 100 |
| 전체 | N | 386 | 390 | 113 | 113 | 31 | 29 | 10 | 8 | 540 | 540 |
| | % | 71.5 | 72.2 | 20.9 | 20.9 | 5.7 | 5.4 | 1.9 | 1.5 | 100 | 100 |

배경 변인 별 분석에서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성별에 따른 응답 비율을 살펴본 결과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표 V-3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비율이 2011년 6%, 24%이고 2012년 5.9%, 1.8%였으며, 여학생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4.9%, 0%이고 2012년 2.4%, 0%로 나타나 여학생의 응답비율이 낮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응답비율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남학생도 소폭 감소하는 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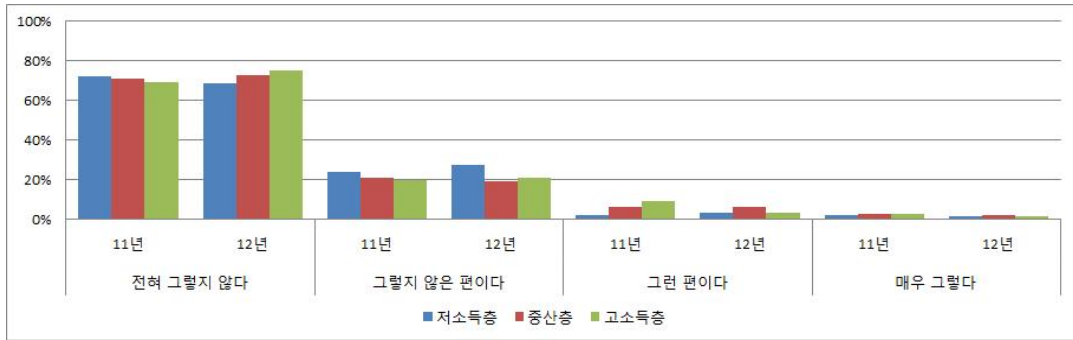


【그림 V-31】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지역별)

표 V-32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지역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서울 | N | 60 | 43 | 19 | 5 | 7 | 4 | 2 | 2 | 88 | 54 |
| | % | 68.2 | 79.6 | 21.6 | 9.3 | 8.0 | 7.4 | 2.3 | 3.7 | 100 | 100 |
| 광역시 | N | 109 | 103 | 37 | 36 | 10 | 7 | 1 | 2 | 157 | 148 |
| | % | 69.4 | 69.6 | 23.6 | 24.3 | 6.4 | 4.7 | .6 | 1.4 | 100 | 100 |
| 시군구 | N | 204 | 232 | 54 | 72 | 12 | 18 | 7 | 3 | 277 | 325 |
| | % | 73.6 | 71.4 | 19.5 | 22.2 | 4.3 | 5.5 | 2.5 | .9 | 100 | 100 |
| 전체 | N | 373 | 378 | 110 | 113 | 29 | 29 | 10 | 7 | 522 | 527 |
| | % | 71.5 | 71.7 | 21.1 | 21.4 | 5.6 | 5.5 | 1.9 | 1.3 | 100 | 100 |

지역별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라 정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V-32>.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2011년 8%, 2.3%, 2012년 7.4%, 3.7%이고 광역시는 2011년 6.4%, 0.6%, 2012년 4.7%, 1.4%였으며 시군구는 2011년 4.3%, 2.5%, 2012년 5.5%, 0.9%로 나타나 지역 규모에 따른 다소 간 증감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서울시와 광역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런 편이다’가 소폭 감소했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폭 증가했고, 시군구는 ‘그런 편이다’는 소폭 증가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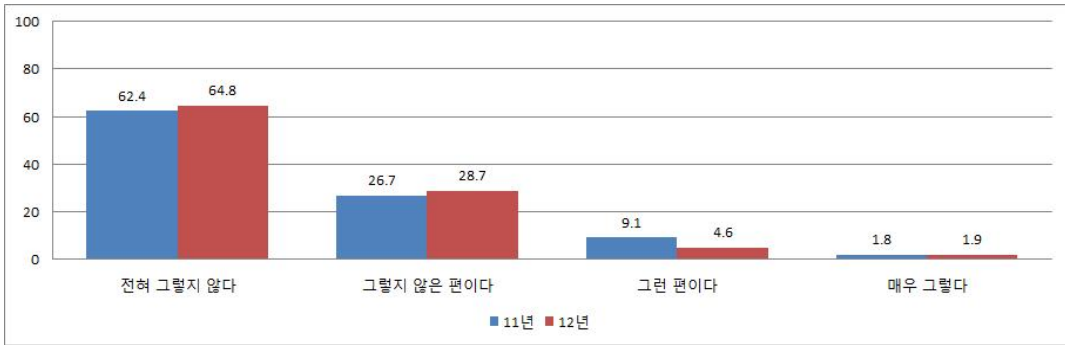
【그림 V-32】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소득별)

표 V-33 중1 패널-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소득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저소득층 | N | 70 | 63 | 23 | 25 | 2 | 3 | 2 | 1 | 97 | 92 |
| | % | 72.2 | 68.5 | 23.7 | 27.2 | 2.1 | 3.3 | 2.1 | 1.1 | 100 | 100 |
| 중산층 | N | 221 | 231 | 65 | 61 | 18 | 20 | 7 | 6 | 311 | 318 |
| | % | 71.1 | 72.6 | 20.9 | 19.2 | 5.8 | 6.3 | 2.3 | 1.9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63 | 73 | 18 | 20 | 8 | 3 | 2 | 1 | 91 | 97 |
| | % | 69.2 | 75.3 | 19.8 | 20.6 | 8.8 | 3.1 | 2.2 | 1.0 | 100 | 100 |
| 전체 | N | 354 | 367 | 106 | 106 | 28 | 26 | 11 | 8 | 499 | 507 |
| | % | 70.9 | 72.4 | 21.2 | 20.9 | 5.6 | 5.1 | 2.2 | 1.6 | 100 | 100 |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표 V-32>.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층은 2011년 2.1%, 2.1%, 2012년 3.3%, 1.1%이고 중산층은 2011년 5.8%, 2.3%, 2012년 6.3%, 1.9%였으며 고소득층은 2011년 8.8%, 2.2%, 2012년 3.1%, 1%로 나타나 소득 수준 별로 다소 간 증감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고소득층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중산층은 차이가 거의 없었고 저소득층은 '그런 편이다'는 소폭 증가하고 '매우 그렇다'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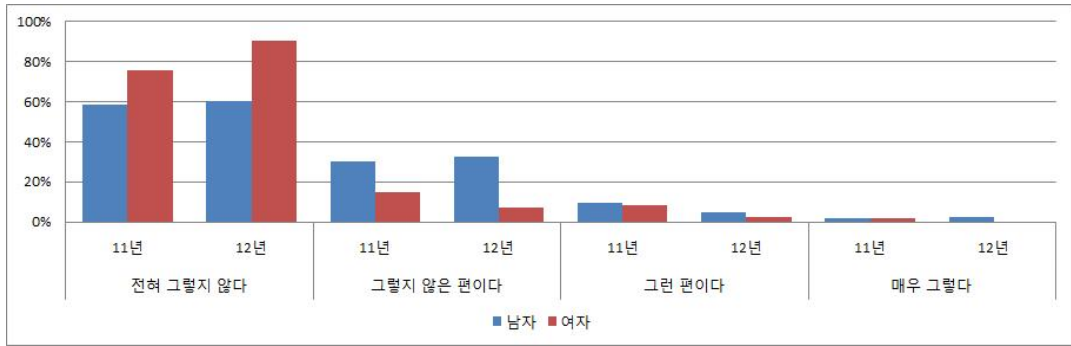
⑧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문항에 대한 경험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V-33>.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9.1%, 1.8%이고 2012년 4.6%, 1.9%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다소 낮아지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림 V-33】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표 V-34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 항목 | 2011년(중2) | | 2012년(중3)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336 | 62.4 | 349 | 64.8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44 | 26.7 | 155 | 28.7 |
| 그런 편이다 | 49 | 9.1 | 25 | 4.6 |
| 매우 그렇다 | 10 | 1.8 | 10 | 1.9 |
| 합계 | 539 | 100 | 539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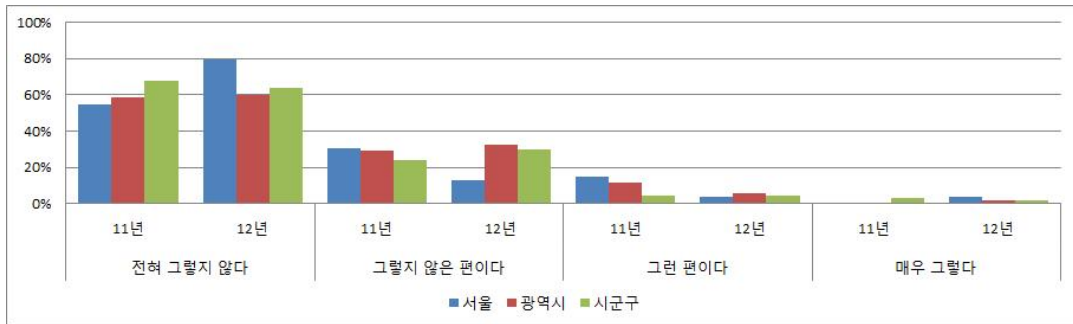


【그림 V-34】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성별)

표 V-35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성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남자 | N | 244 | 274 | 126 | 149 | 39 | 23 | 8 | 10 | 417 | 456 |
| | % | 58.5 | 60.1 | 30.2 | 32.7 | 9.4 | 5.0 | 1.9 | 2.2 | 100 | 100 |
| 여자 | N | 92 | 75 | 18 | 6 | 10 | 2 | 2 | 0 | 122 | 83 |
| | % | 75.4 | 90.4 | 14.8 | 7.2 | 8.2 | 2.4 | 1.6 | 0 | 100 | 100 |
| 전체 | N | 336 | 349 | 144 | 155 | 49 | 25 | 10 | 10 | 539 | 539 |
| | % | 62.3 | 64.7 | 26.7 | 28.8 | 9.1 | 4.6 | 1.9 | 1.9 | 100 | 100 |

배경 변인 별 분석에서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성별에 따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 <표 V-34>.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비율이 2011년 9.4%, 1.9%이고 2012년 5%, 2.2%였으며, 여학생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8.2%, 1.6%이고 2012년 2.4%, 0%로 나타나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의 응답비율이 다소 낮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응답비율은 대폭 감소된 반면 남학생은 소폭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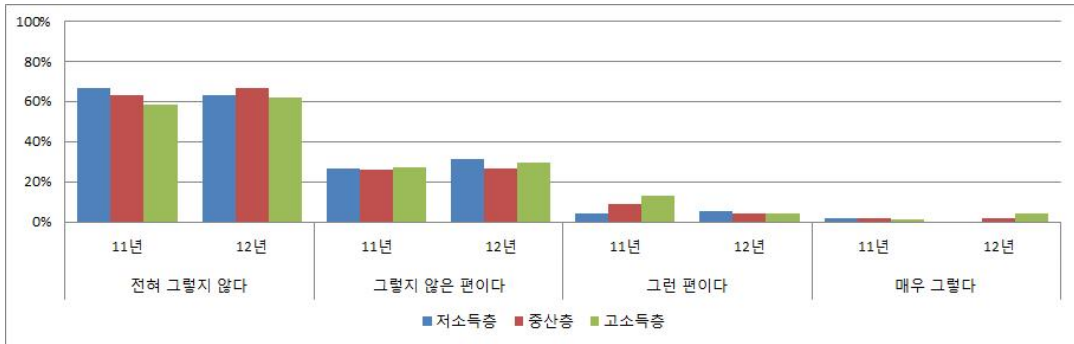


【그림 V-35】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지역별)

표 V-36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지역별)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서울 | N | 49 | 43 | 27 | 7 | 13 | 2 | 0 | 2 | 89 | 54 |
| | % | 55.1 | 79.6 | 30.3 | 13.0 | 14.6 | 3.7 | 0 | 3.7 | 100 | 100 |
| 광역시 | N | 92 | 88 | 46 | 47 | 18 | 8 | 1 | 3 | 157 | 146 |
| | % | 58.6 | 60.3 | 29.3 | 32.2 | 11.5 | 5.5 | 0.6 | 2.1 | 100 | 100 |
| 시군구 | N | 188 | 208 | 67 | 98 | 13 | 14 | 8 | 5 | 276 | 325 |
| | % | 68.1 | 64.0 | 24.3 | 30.2 | 4.7 | 4.3 | 2.9 | 1.5 | 100 | 100 |
| 전체 | N | 329 | 339 | 140 | 152 | 44 | 24 | 9 | 10 | 522 | 525 |
| | % | 63.0 | 64.6 | 26.8 | 29.0 | 8.4 | 4.6 | 1.7 | 1.9 | 100 | 100 |

지역별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라 정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V-36>.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의 경우 2011년 14.6%, 0%, 2012년 3.7%, 3.7%이고 광역시는 2011년 11.5%, 0.6%, 2012년 5.5%, 2.1%였으며 시군구는 2011년 4.7%, 2.9%, 2012년 4.3%, 1.5%로 나타나 지역 규모 별 다소 간 증감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울시와 광역시는 ‘그런 편이다’는 대폭 감소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증가 했으며 시군구는 ‘그런 편이다’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V-36]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소득별)

표 V-37 중1 패널-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소득별)

| 항목 | N |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 매우 그렇다 | | 전체 | |
|------|---|-----------|------|------------|------|--------|-----|--------|-----|-----|-----|
| |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 N | 65 | 58 | 26 | 29 | 4 | 5 | 2 | 0 | 97 | 92 |
| | % | 67.0 | 63.0 | 26.8 | 31.5 | 4.1 | 5.4 | 2.1 | 0 | 100 | 100 |
| 중산층 | N | 196 | 212 | 81 | 85 | 28 | 14 | 6 | 6 | 311 | 317 |
| | % | 63.0 | 66.9 | 26.0 | 26.8 | 9.0 | 4.4 | 1.9 | 1.9 | 100 | 100 |
| 고소득층 | N | 54 | 61 | 25 | 29 | 12 | 4 | 1 | 4 | 92 | 98 |
| | % | 58.7 | 62.2 | 27.2 | 29.6 | 13.0 | 4.1 | 1.1 | 4.1 | 100 | 100 |
| 전체 | N | 315 | 331 | 132 | 143 | 44 | 23 | 9 | 10 | 500 | 507 |
| | % | 63.0 | 65.3 | 26.4 | 28.2 | 8.8 | 4.5 | 1.8 | 2.0 | 100 | 100 |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표 V-36>.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층은 2011년 4.1%, 2.1%, 2012년 5.4%, 0%이고 중산층은 2011년 9%, 1.9%, 2012년 4.4%, 1.9%였으며 고소득층은 2011년 13%, 1.1%, 2012년 4.1%, 4.1%로 나타나 지역 규모 별 다소 간 증감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우 '그런 편이다'는 대폭 감소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증가하거나 차이가 없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그런 편이다'는 소폭 증가하였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제 6 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제 6 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분석결과 요약

1)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결과 요약

초4 패널과 중1 패널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4 패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사용 여부는 감소하였고, 감소 비율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인 초등학생이 더 크게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시간은 주중과 주말로 나뉘서 알아보았는데,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은 학년이 높아져도 변화하지 않았으나,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또한 컴퓨터 사용시간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서울이나 광역시에 비해 시군구가, 고소득이나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더 길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이 모든 성별, 지역, 소득계층에서 증가하였다.

컴퓨터 사용 장소는 우리 집이 가장 많았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 집, 학교, 학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학생, 시군구, 고소득층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컴퓨터 사용용도를 보고한 10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관련 사용과 학습 이외의 사용은 감소하였다. 학습관련 용도로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비율은 여학생, 고소득층인 초등학생이 더 높았으며, 게임 및 오락관련 용도에서는 남학생과 저소득층이 가장 높았다.

둘째, 중1 패널 역시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사용 여부는 감소하였고, 감소 비율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중산층인 중학생이 더 크게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시간은 중학교 2학년이 가장 길었으며 3학년이 가장 짧았다. 또한 저소득층이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주중, 주말 모두 길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시군구가 서울 및 광역시에 비해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이 길었다.

컴퓨터 사용 장소는 우리 집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은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95%이상으로 남학생에 비해 많았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 집, 학교, 학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학생, 광역시, 중산층에서 매년 증가하였다.

컴퓨터 사용 빈도를 보고한 10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관련 사용과 학습 이외의 사용,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사용 등 대부분의 컴퓨터 사용 빈도가 감소하였고, 채팅이나 메신저 사용은 2학년이 가장 높았다. 학습관련 사용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지역이나 소득별 차이는 일관되지 않았다.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사용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주 사용하는 비율이 3배가량 더 높았으며, 서울보다 광역시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고소득층보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이나 메신저 사용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광역시 및 시군구,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결과 요약

초4 패널과 중1 패널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4 패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보유율이 증가하였고, 보유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고, 서울, 광역시, 시군구 그리고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9개 문항으로 구성된 휴대전화 사용 용도를 분석한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 및 오락, 음악듣기, 동영상 감상,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사진촬영 순서로 사용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과의 통화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빈도가 감소하였다. 시계보기는 일관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게임 및 오락 용도는 남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증가율도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음악듣기와 동영상 감상 용도는 여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였고, 사용 빈도 증가율도 여학생이 더 높았다. 반면 가족과의 통화는 여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비율도 여학생이 더 컸다.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의한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휴대전화 의존도는 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②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③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④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⑥ 휴대전화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⑦ 휴대전화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고 응답을 하였다. 간략하게 기술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의존도를 측정된 모든 항목의 점수가 4학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큰 비율로 증가하였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득에 따른 차이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둘째, 중1 패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보유율이 증가하였고, 보유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고, 서울, 광역시, 시군구 그리고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9개 문항으로 구성된 휴대전화 사용 용도를 분석한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악듣기, 동영상 감상, 게임 및 오락,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순서로 사용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빈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친구와의 통화는 중학교 2학년에, 가족과의 통화, 시계보기는 중학교 3학년에 가장 높았다.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가족과의 문자메시지와 게임 및 오락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증가율이 더 컸으나, 음악 듣기는 남학생의 증가율이 더 컸다. 지역에 따른 증가 비율 차이는 가족과의 통화, 친구와의 문자, 음악듣기에서 나타났으며, 소득에 따른 차이는 사진촬영, 음악듣기 항목에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족과의 문자메시지는 시군구는 증가, 서울은 감소하였으며, 친구와의 문자메시지는 광역시는 증가, 서울과 시군구는 감소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차이는 사진촬영, 음악듣기에서 나타났고 모두 고소득층의 증가가 저소득층의 증가보다 컸다.

휴대전화 의존도를 간략하게 기술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모든 항목의 점수가 1학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큰 비율로 증가하였고, 광역시와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비해 더 큰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과 중산층인 중학생이 저소득층인 중학생에 비해 더 큰 비율로 증가하였다.

3) 성인용 매체 사용실태 및 추이분석 결과 요약

중 1 패널의 지난 2년간 자료를 토대로 매체영역 중 매체 사용의 부정적 행동 양상인 사이버 비행실태 및 추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사이버 비행 영역별 경험 정도 및 연간 경험 회수 등을 분석하였다. 중학생의 사이버 비행 경험의 경우 2011년 경험비율이 47.1%였지만, 2012년은 37.6%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10% 이상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 비교에서 남자 청소년의 사이버 경험 비율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으며, 대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여자 청소년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역별 사이버 비행 경험은 서울시가 가장 낮았으며 광역시와 시군구의 사이버 비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 수준별 비교에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비율이 다소 높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여섯 문항으로 구성된 사이버 비행 영역별 경험 정도 및 연간 경험 횟수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지문의 내용은 ①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②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③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④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⑤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⑥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성별 특성에 따른 비교에서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비행 유형에서 남자 청소년의 사이버 경험 빈도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감소하는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규모에 따른 사이버 비행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도시 규모에 따른 사이버 비행의 유형에 따라 경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득 수준별 분석에서도 사이버 비행의 유형에 따라 소득계층 간 경험 빈도에서 다르게 나타났지만, 마찬가지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사이버 비행실태 및 추이분석 결과 요약

중 1 패널의 2년간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사용 및 성인용 매체 몰입정도에 대한 실태와 추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인용 매체에 자주 노출되는지 그 접촉 빈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1년 성인용 매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6%였고, 2012년 응답률이 23.2%로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었다. 성별 비교에서 남자 청소년의 성인매체 사용 비율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으며, 여자청소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남자청소년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사이버 비행 경험은 서울시와 시군구가 다소 낮았으며,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울시는 대폭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시군구는 다소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성인용 매체 사용 정도에 대한 소득 수준별 차이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 수준 비율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성인용 매체 경험자의 매체 몰입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8문항의 몰입도 유형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① (성인매체를)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 ② (성인매체를)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③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성인매체를)사용한다 ④ (성인매체를)다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⑤ 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라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⑥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꽤 차 있다 ⑦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⑧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성별 특성에 따른 비교에서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몰입도 유형 중 ③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성인매체를) 사용한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남자 청소년의 몰입도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자 청소년들의 성인매체에 대한 몰입도가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남자 청소년들은 몰입유형에 따라 소폭감소하거나 증가하여 일정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서울시, 광역시, 시군구로 분류된 지역별 규모에 따른 몰입도 분석에서 개별 몰입 경험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사이버 비행과는 달리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는 관찰되지 않았다. 지역별 몰입도 유형에 따른 몰입정도 경향은 일정하지 않았다.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소득 수준별 분석에서도 몰입도 유형에 따라 몰입 경험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사이버 비행과는 달리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는 관찰되지 않았다. 소득수준별 몰입도 유형에 따른 몰입정도 경향은 일정하지 않았다.

2. 정책 제언

1) 컴퓨터사용에 대한 정책제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컴퓨터 사용에서 시간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대체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교육과 학습의 영역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컴퓨터 사용은 학습활동과 교우활동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상관성이 높다(금지현, 김동심, 2014). 이런 결과는 기존 컴퓨터 사용에 관한 교육 및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이유로 현행 정책을 지속,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컴퓨터 교육은 부적응의 예방교육을 넘어서 전문적인 활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심화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남녀 성별에 따른 컴퓨터 사용에서는 콘텐츠 활용의 영역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남학생의 경우는 게임의 영역에서 사용사례수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메신저나 채팅, 개인 홈페이지 활동 등의 영역에서 활용사례수가 높았다. 이런 콘텐츠 사용의 차이는 남녀 간의 교우관계나 상호작용의 특성을 잘 반영해준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게임은 친구관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와 연관되어 청소년의 콘텐츠 사용은 단순한 콘텐츠 활용을 넘어 이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되는 종합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은 컴퓨터 활용과 관련된 생활지도와 교육에서 차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가구 소득별 컴퓨터 활용의 특성을 보면, 부모의 학력이 높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전한 컴퓨터 활용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모의 감독(손진희, 손은령, 2007)의 경우 저학력,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활동시간이 더 길어 자녀의 감독정도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에서 부정적인 활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컴퓨터 활용과 관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정보제공이 사회복지 정책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컴퓨터 환경이 책상 위의 컴퓨터(desk top)에서 벗어나 손 안의 스마트 폰으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런 환경에 맞선 부모를 위한 교육이 신속하게 진행될수록 그 효과가 클 것이며, 이런 교육은 저학력, 저소득층 부모를 중심으로 진행될 때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 부모의 학력수준과 경제수준은 청소년들의 활동 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회문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단순하게 매체의 문제로 보는 것은 다소 협소한 접근이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청소년의 과다 컴퓨터 사용은 그들이 원하는 활동을 제공할 경우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시행 중인 스포츠 바우처와 같은 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할 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스포츠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가구당 연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 국내 프로스포츠(야구·축구·농구·배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 유소년 및 청소년(만 5~19세)에게는 스포츠강좌 사용권을 매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활동 폭을 넓혀 과다 컴퓨터 사용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2)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정책제언

휴대전화 활용 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교급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급이 높아지고, 특히 고사양의 스마트 폰이 보급이 일찍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필요성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충숙, 2013; 허균, 2013). 이들 연구에 의하면 휴대전화의 과다한 사용은 주로 밤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수면부족을 야기하고 이는 학교에서 신체적 문제, 주의집중 문제, 우울한 감정을 야기하게 된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연령에의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의 사용이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환기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성별 특성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에게서 의존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앞서 컴퓨터 활용과 대비했을 때 더 분명한 매체의 성별 특성을 알 수 있다. 즉 남학생은 컴퓨터에 대한 의존경향성이 상대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과 대비하여 휴대전화는 여학생들의 의존도가 높다. 남학생들은 주로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나 게임을 하는 반면, 여학생은 전화통화를 비롯하여 채팅, 음악 듣기, SNS 등 남학생보다 훨씬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SNS의 활용도가 높다는 다른 연구결과(배상률 외, 2013)와도 유사하게 교우관계의 유지 및 강화의 목적으로 활용이 많이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용량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피상적인 접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문선(2014)의 연구를

보면, 여학생들은 친구 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SNS나 문자메시지, 통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 있는 현상은 가족과 전화 통화나 문자를 많이 할수록 부적응 가능성이 줄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단순한 사용량을 넘어서 누구와 주로 활용하는가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청소년보호정책의 차원에서 청소년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통화정보를 제공할 때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용자와 사용비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보는 부모나 보호자가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얼마나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경제적 수준 및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은 남학생에게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여학생들에게 약하지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은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시사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자녀의 휴대폰사용에 대한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서비스를 청소년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편입하는 것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성인용 매체 사용에 대한 정책제언

성인용 매체에 접촉은 교급이 높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김혜자, 심미영, 2014; 배상률 외, 2013 등). 이런 현상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춘기시기 청소년들의 성인물 중독현상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과 이런 현상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교우관계에서 소외감 그리고 이른 시기 부적절한 성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세심하고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예방정책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과 스마트 폰에 성인용 매체 차단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전에 비해 더욱 더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에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배상률 외, 2013), 청소년들의 성인물 접촉정도는 2011년과 비교할 때 2013년에 3배로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보급되어있는 차단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매체의 환경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성인용 매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가지 정책적 접근이 아울러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용 콘텐츠 인증 방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인용 매체 인증은 사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성인의 이름 생년월일, 혹은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닌다. 이런 소극적인 차원의 인증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의 인증방식을 마련하고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용 매체 사업자들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에 소홀할 때 제재조치도 실효성 있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른 접근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성인용 매체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교육방법이다. 청소년에게 성인용 매체의 노출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면 노출되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면역력을 길러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이런 교육은 상급학교나 남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4) 사이버 비행에 대한 정책제언

사이버 비행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심해지는 특성이 있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특징 중 하나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규칙을 잘 지킬수록 사이버 비행이 줄어드는 학교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서봉언, 김경식, 2014). 또한 이런 비행은 나이가 어릴수록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또한 일찍 시작할수록 비행 행동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정혜원, 2010).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비행에 대한 예방 교육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일찍부터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과 사이버 비행 간에 관련성이 시사되기도 하였다(서봉언, 김경식, 2014). 즉 사이버 비행은 단순히 사이버 비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위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이버 비행은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이버 비행의 예방을 위해서, 사이버 비행은 오프라인 비행과 동일하게 위중하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주로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비행은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인 개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의 인식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나 잠재적인 피해의 범위는 오프라인의 비행이나 범죄에 비해 절대로 작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 비행은 최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예방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이 외현적, 물리적 폭력보다는 관계적 폭력이 일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폭력은 사이버 비행과 직결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 사이버 비행을 따로 교육하기 보다는 현행 학교 폭력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 비행의 심각성과 처벌 등을 교육한다면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5) 정책 제언 종합

앞서 제시한 컴퓨터 사용, 휴대전화, 성인용 매체 사용 및 사이버 비행은 각각의 주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발생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생활맥락을 고려할 때 학생과 교사, 부모, 관계당국 및 전문 예방, 치료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책 기구(혹은 조직)는 교육부 혹은 여학생가족부와 같은 단일 부처가 관할하기에는 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종합적 대책은 온라인으로 연동되어 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온라인 시스템은 생업에 바빠서 제대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곽민주, 이희숙(2009).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와 중독적 사용. 생활과학연구논총, 13(1), 183-205.
- 고충숙(2012).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0, 8-36.
- 금지현, 김동심(2014).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 학습활동, 교우관계의 관계 규명.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자료집. 442-456.
- 김용택, 이진우, 양지혜(2008).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18(2), 29-55.
- 김유정(2002).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척도 개발 및 심리사회적 취약성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자, 심미정(2014).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따른 성의식과 이성교제태도. 디지털정책 연구, 12(5), 367-376.
- 모상현, 김형주, 이선영(20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2013). 2013 청소년 매체사용실태조사. 청소년정책연구원.
- 서봉언, 김경식(2014). 청소년 사이버 욕설의 영향 요인 분석: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자료집. 145-157.
- 손진희, 손은령(2007). 가정환경, 컴퓨터 과다사용 및 인터넷 관련 비행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8, 135-162.
- 신효식, 이선정, 이연미(2009). 가족적강성과 또래동조성이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 학술대회, 161-162.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201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서정아, 배상률, 성은모, 김지영, 김현철(201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II 사업보

- 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성식(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성비행 원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1(2), 153-175.
- 이종원(2013a).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중단연구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원(2013b).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유형과 휴대전화 의존도의 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1 패널 자료 분석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리서치 브리프(2013 제3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원, 황진구, 서정아, 한영근, 허효주, 이영화(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V 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해경(2008). 10대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예측변인들: 20대, 30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 117-153.
- 장운재, 김소희(2008). 컴퓨터 사용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언론정보연구, 45(1), 67-96.
- 장현미, 김반야(2008). 인터넷 사용 유형이 초등학생의 인터넷 일탈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19(4), 199-225.
- 정혜원(2010).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 비행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263-288.
- 하문선(2014).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휴대전화 사용 유형과의 관련성. 청소년학연구, 21(4), 155-17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a).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b).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3차 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균(2013). 고차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휴대폰 의존도 변화와 자기조절능력 및 주의집중의 구조관계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4), 861-879.

- Huesmann, L. R.(1986). Psychological processes promoting the relation between exposure to media violence and aggressive behavior by the viewer. *Journal of Social Issues*, 42, 125-140.
- Singer, J. L. & Singer, D. G. (1983). Implications of childhood television viewing for cognition, imagination and emotion. In J. Bryant and D. R. Anderson(Eds.). *Children 's understanding of television*. New York: Academic press.
- Sung, E., & Mayer, R. E. (2012). Students ' Beliefs about Mobile Devices versus Personal Computer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mputers & Education*, 59, 1328-1338.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안선영 · 황여정 · 이수정 · 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임희진 · 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I / 이경상 · 박선영 · 조남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정주 · 김정숙
- 14-R05 아동 · 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 · 조홍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 · 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 · 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 · 이창훈 · 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 · 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 · 조혜영 · 이태주 · 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 · 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 · 김희진 · 이민희 · 김윤나
- 14-R14-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 · 이효균 · 서여정 · 김광혁 · 김형욱 · 윤상석 · 박병식 · 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 · 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 · 분석 / 김지경 · 하현주 · 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 · 임영식 · 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신현옥 · 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오해섭 · 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 · 맹영임 · 문호영
- 14-R18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Ⅳ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황진구 · 모상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허효주 · 문은옥 · 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Ⅳ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Ⅳ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Ⅳ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 · 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I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차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차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차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인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중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시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혜·김욱태
- 14-R49 2014년 또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악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I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I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ABSTRACT

The study is based on the results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KCYPS) which longitudinally surveyed children of elementary panel 4 and middle school panel 1 for three years from 2010 to 2012.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changing patterns and trends according to the background factors and so the results can later be used in drawing up related youth policies and solutions. The main analysis outcome is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use of computers, the use decreases as the grade goes up in bo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roup and the rate of decrease is bigger with girls than boys, the kids living Seoul than those living in other areas. Also, as the grade goes up, the use of computer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academic or other information decreases in bo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ers, whereas the use of computer for the purpose of game playing and entertainment is increases with boys than girls and with the kids from lower income families.

Second, regarding the possession of cell phones, more boys tend to own cell phones than girls, and the kids living in Seoul have more cell phones than the kids living in other areas. The higher the income of the families the kids belong to,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owning a cell phone. The degree of dependency on cell phone is higher among boys than girls, and higher among kid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than those living in the rest of the regions. In middle school panel 1, the dependency rate increases in higher rate among girls more than the boys as they move on to higher grade. Similarly dependency increases faster among the kid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 Seoul than the kids from other areas, and the kids from middle or higher income families than those from lower income families.

Third, the rate of cyber delinquency experience rate was 47.1% in 2011 but it decreased by as much as 10% to 37.6% in 2012, indicating the decreasing rate in higher grade. In most cyber delinquency, boys tend to have more experiences than girls and it tend to decrease in general as the kids move on to higher grade regardless of background factors such as sex, regions, and family income levels although with slight differences.

Fourth, with the use of adult contents, the rate was 23.6% in 2011 and it changed little in 2012 with 23.2%. Boys tend to show higher level of absorption than girls according to the absorption types for these kind of contents, and girls are shown to decrease in absorption as they move on to higher grade. Regional and family income factors are not shown to be differentiating factors in absorption rate according to the absorption types and for boys it showed no decrease in the higher grades.

key words: medium environment, computer use, cell phone use, cyber delinquency,
Korean children,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2010

연구보고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쇄처 범신사 전화 02)503-87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39-7 94330

979-11-5654-036-6 (세트)